

承政院日記 濟州記事Ⅶ

- 正祖代 (1776~1781) -

(上)

발 간 사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의 정치, 행정, 외교, 일상의 기록을 총망라한 귀중한 사료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유산입니다. 국왕의 재위 기간에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문서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전해왔기에 그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대부분 초서체의 한문으로 쓰여 있어 대중이 쉽게 접하기 어려워 빠른 번역 작업이 필요합니다.

《승정원일기》번역은 단순히 역사 사료의 소개에 머물지 않고 조선시대 지역의 사회·문화, 행정, 역사 등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 사료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작업입니다.

이번엔 발간하는 《승정원일기》 정조대(1776-1781) 제주기사 자료집은 정조 즉위년부터 약 6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의 제주 관련 기사 1,334건을 발췌하여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고 기사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주 목민관 등 인사 임명, 마정 및 진상에 관한 기록, 재해와 진흙, 군제 관련 폐단, 제주 표류·표도인 송환 문제, 시재 운영 및 제주 인재 등용 문제 등 당시 제주 사회 상황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후반 정조가 직접 제주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주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기사가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승정원일기》에 담긴 생생한 기록들은 당시 국왕으로서 정조가 제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통치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하고 조선 후기 제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탐구의 출발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승정원 일기 원문을 발췌하느라 애쓴 고수미, 노우정 선생님과 늘 어려운 번역 및 주석 작업에 힘써주신 문숙자, 백종진, 오창명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번역문과 주석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며 교정 및 교열하느라 애쓴 우리 센터 임승희, 김우리 연구원 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출간하기까지 오랜 시간 편집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일신옵셋인쇄사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승정원일기》 왕대별 제주기사 자료집 후속편 발간과 더불어 제주의 중요한 사료 발굴과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2024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 일러두기

1. 본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다.
2.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은 2016년부터 조선시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속 왕대별 제주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발간하고 있다.
3. 본서는 《승정원일기》 정조대(1776~1781)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4. 제주기사는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5.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단, ‘탈초본’ 상의 한자에 의문이 생기거나 ‘결자(缺字)’ 등은 원문과 대교하여 이를 각주로 밝혔다.
6. 본문은 원문, 역주 연도, 표제문, 역주문, 주제어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7. 역주자 및 분담 역주 분량은 다음과 같다.
 - 1) 문숙자: 1776년(정조 즉위년) 4월 1일 ~ 1777년(정조 1) 4월 26일
 - 2) 백종진: 1777년(정조 1) 5월 5일 ~ 1779년(정조 3) 10월 28일
 - 3) 오창명: 1779년(정조 3) 11월 2일 ~ 1781년(정조 5) 12월 21일

8. 《승정원일기》 정조대(1776~1781) 제주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 주제어별 중복된 기사를 포함하면, 2,386건이나 1,052건의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여 총 1,334건에 대해 역주하여 수록하였다.

- 분량: 총 1,334건

주제어	濟州	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비고
건수	850건	151건	304건	21건	8건	1,334건	중복 기사 제외

- 시기별 기사 발췌 건수

※ () 안의 숫자는 주제어별 중복 기사 건수를 의미함

구분	濟州	旌義[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건)
정조 즉위년 (1776)	97	78(24)	222(63)	4(3)	4(1)	405(91)
정조 1년 (1777)	100	65(23)	169(81)	66(58)	0	400(162)
정조 2년 (1778)	148	90(50)	159(108)	112(107)	1(1)	510(266)
정조 3년 (1779)	179	22(19)	112(111)	54(52)	0	367(182)
정조 4년 (1780)	248	4(4)	193(188)	127(126)	2(1)	574(319)
정조 5년 (1781)	78	21(9)	14(14)	11(7)	6(2)	130(32)
소계	850	280(129)	869(565)	374(353)	13(5)	2,386(1,052) /1,334

목 차

발 간 사	i
일러두기	iii

正祖

1776	1
卽位年 4月 1日(壬寅)	2
卽位年 4月 1日(壬寅)	3
卽位年 4月 2日(癸卯)	4
卽位年 4月 3日(甲辰)	5
卽位年 4月 3日(甲辰)	6
卽位年 4月 3日(甲辰)	8
卽位年 4月 3日(甲辰)	9
卽位年 4月 4日(乙巳)	10
卽位年 4月 4日(乙巳)	11
卽位年 4月 4日(乙巳)	12
卽位年 4月 5日(丙午)	14
卽位年 4月 5日(丙午)	15
卽位年 4月 5日(丙午)	16
卽位年 4月 7日(戊申)	17
卽位年 4月 8日(己酉)	18
卽位年 4月 9日(庚戌)	19
卽位年 4月 10日(辛亥)	20
卽位年 4月 10日(辛亥)	22
卽位年 4月 13日(甲寅)	23
卽位年 4月 16日(丁巳)	24
卽位年 4月 18日(庚申)	25
卽位年 4月 19日(辛酉)	26
卽位年 4月 20日(壬戌[辛酉])	27
卽位年 4月 21日(癸亥[壬戌])	28
卽位年 4月 22日(癸亥)	29

卽位年 4月 23日(甲子)	30
卽位年 4月 24日(乙丑)	31
卽位年 4月 26日(丁卯)	32
卽位年 4月 26日(丁卯)	33
卽位年 4月 26日(丁卯)	34
卽位年 4月 26日(丁卯)	35
卽位年 4月 27日(戊辰)	37
卽位年 4月 27日(戊辰)	38
卽位年 4月 27日(戊辰)	39
卽位年 4月 28日(癸巳[己巳])	40
卽位年 4月 28日(癸巳[己巳])	41
卽位年 4月 28日(癸巳[己巳])	42
卽位年 4月 29日(庚午)	43
卽位年 4月 29日(庚午)	44
卽位年 4月 29日(庚午)	45
卽位年 5月 1日(癸酉[辛未])	46
卽位年 5月 1日(癸酉[辛未])	47
卽位年 5月 1日(癸酉[辛未])	48
卽位年 5月 2日(甲戌[壬申])	49
卽位年 5月 2日(甲戌[壬申])	50
卽位年 5月 5日(丁丑[乙亥])	51
卽位年 5月 6日(戊寅[丙子])	52
卽位年 5月 11日(癸未[辛巳])	54
卽位年 5月 11日(癸未[辛巳])	55
卽位年 5月 11日(癸未[辛巳])	56
卽位年 5月 13日(乙酉[癸未])	57
卽位年 5月 13日(乙酉[癸未])	58
卽位年 5月 14日(丙戌[甲申])	59
卽位年 5月 14日(丙戌[甲申])	60
卽位年 5月 14日(丙戌[甲申])	61

即位年 5月 14日(丙戌[甲申])	62
即位年 5月 14日(丙戌[甲申])	63
即位年 5月 15日(丁亥[乙酉])	64
即位年 5月 15日(丁亥[乙酉])	65
即位年 5月 15日(丁亥[乙酉])	66
即位年 5月 15日(丁亥[乙酉])	67
即位年 5月 16日(戊子[丙戌])	68
即位年 5月 17日(己丑[丁亥])	70
即位年 5月 17日(己丑[丁亥])	71
即位年 5月 17日((己丑[丁亥])	72
即位年 5月 18日(庚寅[戊子])	73
即位年 5月 18日(庚寅[戊子])	74
即位年 5月 19日(辛卯[己丑])	75
即位年 5月 19日(辛卯[己丑])	76
即位年 5月 19日(辛卯[己丑])	77
即位年 5月 20日(壬申[庚寅])	78
即位年 5月 20日(壬申[庚寅])	80
即位年 5月 22日(甲午[壬辰])	82
即位年 5月 22日(甲午[壬辰])	83
即位年 5月 22日(甲午[壬辰])	84
即位年 5月 22日(甲午[壬辰])	85
即位年 5月 22日(甲午[壬辰])	87
即位年 5月 22日(甲午[壬辰])	88
即位年 5月 24日(丙申[甲午])	89
即位年 5月 24日(丙申[甲午])	90
即位年 5月 25日(丁酉[乙未])	91
即位年 5月 25日(丁酉[乙未])	93
即位年 5月 25日(丁酉[乙未])	94
即位年 5月 25日(丁酉[乙未])	95
即位年 5月 26日(戊戌[丙申])	96
即位年 5月 26日(戊戌[丙申])	97
即位年 5月 26日(戊戌[丙申])	98
即位年 5月 27日(己亥[丁酉])	99
即位年 5月 28日(戊戌)	101

即位年 5月 29日(辛丑[己亥])	103
即位年 5月 29日辛丑[己亥])	104
即位年 6月 1日(庚子)	105
即位年 6月 1日(庚子)	106
即位年 6月 2日(辛丑)	107
即位年 6月 2日(辛丑)	108
即位年 6月 3日(壬寅)	109
即位年 6月 3日(壬寅)	110
即位年 6月 4日(癸卯)	111
即位年 6月 4日(癸卯)	112
即位年 6月 5日(甲辰)	113
即位年 6月 5日(甲辰)	114
即位年 6月 6日(乙巳)	115
即位年 6月 6日(乙巳)	116
即位年 6月 8日(丁丑[丁未])	117
即位年 6月 9日(戊申)	118
即位年 6月 9日(戊申)	119
即位年 6月 9日(戊申)	121
即位年 6月 10日(己酉)	122
即位年 6月 10日(己酉)	123
即位年 6月 11日(庚戌)	124
即位年 6月 11日(庚戌)	125
即位年 6月 12日(辛亥)	126
即位年 6月 12日(辛亥)	128
即位年 6月 12日(辛亥)	129
即位年 6月 13日(壬子)	130
即位年 6月 13日(壬子)	131
即位年 6月 14日(癸丑)	132
即位年 6月 15日(甲寅)	134
即位年 6月 15日(甲寅)	135
即位年 6月 16日(乙卯)	136
即位年 6月 16日(乙卯)	137
即位年 6月 17日(丙辰)	138
即位年 6月 19日(戊午)	139

即位年 6月 19日(戊午)	140
即位年 6月 20日(己未)	141
即位年 6月 20日(己未)	142
即位年 6月 21日(庚申)	143
即位年 6月 21日(庚申)	144
即位年 6月 21日(庚申)	145
即位年 6月 22日(辛酉)	148
即位年 6月 23日(壬戌)	150
即位年 6月 25日(甲子)	151
即位年 6月 30日(己巳)	153
即位年 6月 30日(己巳)	154
即位年 6月 30日(己巳)	155
即位年 7月 1日(庚午)	156
即位年 7月 1日(庚午)	157
即位年 7月 2日(辛未)	158
即位年 7月 3日(壬申)	159
即位年 7月 3日(壬申)	160
即位年 7月 4日(癸酉)	161
即位年 7月 4日(癸酉)	162
即位年 7月 5日(甲戌)	163
即位年 7月 6日(乙亥)	165
即位年 7月 7日(丙子)	167
即位年 7月 7日(丙子)	168
即位年 7月 7日(丙子)	169
即位年 7月 8日(丁丑)	170
即位年 7月 8日(丁丑)	171
即位年 7月 10日(己卯)	173
即位年 7月 11日(庚辰)	174
即位年 7月 12日(辛巳)	175
即位年 7月 12日(辛巳)	176
即位年 7月 14日(癸未)	177
即位年 7月 14日(癸未)	178
即位年 7月 14日(癸未)	179
即位年 7月 15日(甲申)	180

即位年 7月 16日(乙酉)	181
即位年 7月 17日(丙戌)	182
即位年 7月 18日(丁亥)	183
即位年 7月 19日(戊子)	184
即位年 7月 19日(戊子)	185
即位年 7月 19日(戊子)	186
即位年 7月 19日(戊子)	187
即位年 7月 21日(庚寅)	188
即位年 7月 21日(庚寅)	189
即位年 7月 23日(壬辰)	190
即位年 7月 23日(壬辰)	192
即位年 7月 23日(壬辰)	193
即位年 7月 28日(丁酉)	194
即位年 7月 30日(己亥)	195
即位年 7月 30日(己亥)	196
即位年 7月 30日(己亥)	198
即位年 8月 19日(戊午)	199
即位年 8月 27日(丙寅)	200
即位年 8月 27日(丙寅)	201
即位年 8月 28日(丁卯)	202
即位年 8月 28日(丁卯)	203
即位年 8月 29日(戊辰)	205
即位年 8月 29日(戊辰)	206
即位年 9月 1日(己巳)	207
即位年 9月 2日(庚午)	209
即位年 9月 3日(辛未)	210
即位年 9月 4日(壬申)	212
即位年 9月 6日(甲戌)	214
即位年 9月 6日(甲戌)	216
即位年 9月 12日(庚辰)	218
即位年 9月 12日(庚辰)	219
即位年 9月 13日(辛巳)	221
即位年 9月 13日(辛巳)	222
即位年 9月 13日(辛巳)	223

即位年 9月 14日(壬午)	224	即位年 10月 15日(癸丑)	267
即位年 9月 14日(壬午)	225	即位年 10月 15日(癸丑)	268
即位年 9月 14日(壬午)	226	即位年 10月 17日(乙卯)	269
即位年 9月 15日(癸未)	227	即位年 10月 17日(乙卯)	270
即位年 9月 16日(甲申)	230	即位年 10月 17日(乙卯)	271
即位年 9月 16日(甲申)	231	即位年 10月 18日(丙辰)	272
即位年 9月 16日(甲申)	232	即位年 10月 18日(丙辰)	273
即位年 9月 17日(乙酉)	234	即位年 10月 18日(丙辰)	274
即位年 9月 17日(乙酉)	235	即位年 10月 20日(戊午)	275
即位年 9月 17日(乙酉)	236	即位年 10月 20日(戊午)	276
即位年 9月 19日(丁亥)	237	即位年 10月 20日(戊午)	277
即位年 9月 19日(丁亥)	238	即位年 10月 21日(己未)	278
即位年 9月 20日(戊子)	239	即位年 10月 22日(庚申)	280
即位年 9月 24日(壬辰)	242	即位年 10月 22日(庚申)	281
即位年 9月 26日(甲午)	245	即位年 10月 22日(庚申)	282
即位年 9月 26日(甲午)	246	即位年 10月 23日(辛酉)	283
即位年 9月 26日(甲午)	247	即位年 10月 23日(辛酉)	284
即位年 9月 28日(丙申)	249	即位年 10月 23日(辛酉)	285
即位年 10月 8日(丙午)	251	即位年 10月 24日(壬戌)	286
即位年 10月 8日(丙午)	252	即位年 10月 24日(壬戌)	287
即位年 10月 8日(丙午)	253	即位年 10月 24日(壬戌)	288
即位年 10月 10日(戊申)	254	即位年 11月 1日(己巳)	289
即位年 10月 10日(戊申)	255	即位年 11月 1日(己巳)	290
即位年 10月 10日(戊申)	256	即位年 11月 1日(己巳)	291
即位年 10月 12日(庚戌)	257	即位年 11月 4日(壬戌[壬申])	292
即位年 10月 12日(庚戌)	258	即位年 11月 4日(壬戌[壬申])	293
即位年 10月 12日(庚戌)	259	即位年 11月 4日(壬戌[壬申])	294
即位年 10月 13日(辛亥)	260	即位年 11月 4日(壬戌[壬申])	295
即位年 10月 13日(辛亥)	261	即位年 11月 5日(癸酉)	296
即位年 10月 13日(辛亥)	262	即位年 11月 6日(甲戌)	298
即位年 10月 13日(辛亥)	263	即位年 11月 7日(乙亥)	300
即位年 10月 14日(壬子)	264	即位年 11月 7日(乙亥)	301
即位年 10月 14日(壬子)	265	即位年 11月 7日(乙亥)	302
即位年 10月 15日(癸丑)	266	即位年 11月 7日(乙亥)	303

即位年 11月 8日(丙子)	304
即位年 11月 8日(丙子)	305
即位年 11月 8日(丙子)	306
即位年 11月 8日(丙子)	307
即位年 11月 8日(丙子)	308
即位年 11月 18日(丙戌)	309
即位年 11月 18日(丙戌)	310
即位年 11月 19日(丁亥)	311
即位年 11月 20日(戊子)	313
即位年 11月 21日(己丑)	315
即位年 11月 21日(己丑)	316
即位年 11月 21日(己丑)	317
即位年 11月 21日(己丑)	318
即位年 11月 22日(庚寅)	319
即位年 11月 23日(辛卯)	321
即位年 11月 23日(辛卯)	322
即位年 11月 23日(辛卯)	323
即位年 11月 23日(辛卯)	324
即位年 11月 24日(壬辰)	325
即位年 11月 24日(壬辰)	326
即位年 11月 24日(壬辰)	327
即位年 11月 25日(癸巳)	328
即位年 11月 25日(癸巳)	329
即位年 11月 25日(癸巳)	330
即位年 11月 25日(癸巳)	331
即位年 11月 26日(甲午)	332
即位年 11月 27日(乙未)	333
即位年 11月 29日(丁酉)	334
即位年 11月 29日(丁酉)	335
即位年 11月 29日(丁酉)	336
即位年 11月 29日(丁酉)	337
即位年 11月 29日(丁酉)	338
即位年 12月 2日(己亥)	339
即位年 12月 3日(庚子)	341

即位年 12月 3日(庚子)	342
即位年 12月 3日(庚子)	343
即位年 12月 3日(庚子)	344
即位年 12月 8日(乙巳)	345
即位年 12月 10日(丁未)	346
即位年 12月 12日(庚戌[己酉])	348
即位年 12月 17日(乙卯[甲寅])	349
即位年 12月 17日(乙卯[甲寅])	350
即位年 12月 18日(丙辰[乙卯])	351
即位年 12月 18日(丙辰[乙卯])	352
即位年 12月 19日(丁巳[丙辰])	353
即位年 12月 19日(丁巳[丙辰])	354
即位年 12月 20日(戊午[丁巳])	355
即位年 12月 21日(戊午)	356
即位年 12月 21日(戊午)	357
即位年 12月 25日(壬戌)	359
即位年 12月 25日(壬戌)	360
即位年 12月 25日(壬戌)	361
即位年 12月 26日(癸亥)	363
即位年 12月 27日(甲子)	366
即位年 12月 27日(甲子)	367
即位年 12月 27日(甲子)	368

1777

1년 1月 2日(己巳)	370
1년 1月 2日(己巳)	371
1년 1月 2日(己巳)	372
1년 1月 2日(己巳)	373
1년 1月 4日(辛未)	374
1년 1月 5日(壬申)	375
1년 1月 9日(丙子)	376
1년 1月 10日(丁丑)	377
1년 1月 14日(辛巳)	379

1년 1월 16日(癸未)	380
1년 1월 17日(甲申)	381
1년 1월 17日(甲申)	382
1년 1월 17日(甲申)	383
1년 1월 17日(甲申)	384
1년 1월 18日(乙酉)	385
1년 1월 18日(乙酉)	386
1년 1월 18日(乙酉)	387
1년 1월 18日(乙酉)	388
1년 1월 19日(丙戌)	389
1년 1월 19日(丙戌)	390
1년 1월 19日(丙戌)	391
1년 1월 19日(丙戌)	392
1년 1월 20日(丁亥)	393
1년 1월 20日(丁亥)	394
1년 1월 20日(丁亥)	395
1년 1월 23日(庚寅)	396
1년 1월 23日(庚寅)	397
1년 1월 23日(庚寅)	398
1년 1월 23日(庚寅)	399
1년 1월 25日(壬辰)	400
1년 1월 26日(癸巳)	402
1년 1월 26日(癸巳)	403
1년 1월 26日(癸巳)	404
1년 1월 27日(甲午)	405
1년 1월 27日(甲午)	406
1년 1월 27日(甲午)	407
1년 2월 2日(戊戌)	408
1년 2월 3日(己亥)	409
1년 2월 4日(庚子)	410
1년 2월 5日(辛丑)	411
1년 2월 9日(乙巳)	413
1년 2월 10日(丙午)	414
1년 2월 10日(丙午)	415

1년 2월 10日(丙午)	416
1년 2월 18日(甲寅)	417
1년 2월 20日(丙辰)	418
1년 2월 20日(丙辰)	419
1년 2월 21日(丁巳)	420
1년 2월 22日(戊午)	421
1년 2월 25日(辛酉)	422
1년 2월 26日(壬戌)	423
1년 2월 27日(癸亥)	424
1년 2월 27日(癸亥)	425
1년 2월 27日(癸亥)	426
1년 2월 28日(甲子)	427
1년 2월 29日(乙丑)	428
1년 2월 29日(乙丑)	429
1년 3월 15日(辛巳)	430
1년 3월 16日(壬午)	432
1년 3월 17日(癸未)	433
1년 3월 20日(丙戌)	434
1년 3월 21日(丁亥)	435
1년 3월 22日(戊子)	436
1년 3월 22日(戊子)	437
1년 3월 22日(戊子)	438
1년 3월 22日(戊子)	439
1년 3월 27日(癸巳)	440
1년 4월 1日(丙申)	442
1년 4월 3日(戊戌)	443
1년 4월 4日(己亥)	444
1년 4월 5日(庚子)	445
1년 4월 8日(癸卯)	447
1년 4월 9日(甲辰)	449
1년 4월 9日(甲辰)	450
1년 4월 9日(甲辰)	451
1년 4월 10日(乙巳)	452
1년 4월 13日(戊申)	454

1년 4월 16日(辛亥)	455
1년 4월 16日(辛亥)	456
1년 4월 16日(辛亥)	457
1년 4월 17日(壬子)	458
1년 4월 22日(丁巳)	459
1년 4월 22日(丁巳)	460
1년 4월 23日(戊午)	461
1년 4월 23日(戊午)	462
1년 4월 24日(己未)	463
1년 4월 24日(己未)	464
1년 4월 24日(己未)	465
1년 4월 26日(辛酉)	466
1년 4월 26日(辛酉)	467
1년 4월 26日(辛酉)	468
1년 5월 5日(己巳)	469
1년 5월 6日(庚午)	472
1년 5월 11日(乙亥)	474
1년 5월 12日(丙子)	476
1년 5월 15日(己卯)	478
1년 5월 25日(己丑)	480
1년 5월 29日(癸巳)	482
1년 7월 1日(甲子)	483
1년 7월 2日(乙丑)	484
1년 7월 2日(乙丑)	485
1년 7월 3日(丙寅)	486
1년 7월 3日(丙寅)	487
1년 7월 3日(丙寅)	488
1년 7월 3日(丙寅)	489
1년 7월 4日(丁卯)	491
1년 7월 4日(丁卯)	492
1년 7월 4日(丁卯)	493
1년 7월 5日(戊辰)	494
1년 7월 7日(庚午)	496
1년 7월 7日(庚午)	497

1년 7월 7日(庚午)	498
1년 7월 8日(辛未)	499
1년 7월 8日(辛未)	500
1년 7월 8日(辛未)	501
1년 7월 9日(壬申)	502
1년 7월 11日(甲戌)	504
1년 7월 12日(乙亥)	509
1년 7월 12日(乙亥)	511
1년 7월 12日(乙亥)	512
1년 7월 13日(丙子)	514
1년 7월 14日(丁丑)	515
1년 7월 14日(丁丑)	516
1년 7월 14日(丁丑)	517
1년 7월 15日(戊寅)	518
1년 7월 15日(戊寅)	519
1년 7월 15日(戊寅)	520
1년 7월 18日(辛巳)	521
1년 7월 18日(辛巳)	522
1년 7월 19日(壬午)	523
1년 7월 19日(壬午)	524
1년 7월 19日(壬午)	525
1년 7월 19日(壬午)	526
1년 7월 19日(壬午)	527
1년 7월 19日(壬午)	528
1년 7월 19日(壬午)	530
1년 7월 22日(乙酉)	531
1년 7월 29日(壬辰)	532
1년 7월 29日(壬辰)	533
1년 7월 30日(癸巳)	534
1년 8월 5日(戊戌)	535
1년 8월 7日(庚子)	536
1년 8월 7日(庚子)	538
1년 8월 7日(庚子)	539
1년 8월 8日(辛丑)	541

1년 8월 8일(辛丑)	542	1년 9월 7일(己巳)	582
1년 8월 8일(辛丑)	544	1년 9월 7일(己巳)	583
1년 8월 8일(辛丑)	545	1년 9월 8일(庚午)	585
1년 8월 8일(辛丑)	547	1년 9월 9일(辛未)	587
1년 8월 9일(壬寅)	548	1년 9월 9일(辛未)	588
1년 8월 10일(癸卯)	550	1년 9월 9일(辛未)	589
1년 8월 15일(戊申)	553	1년 9월 10일(壬申)	590
1년 8월 18일(辛亥)	554	1년 9월 10일(壬申)	591
1년 8월 19일(壬子)	555	1년 9월 10일(壬申)	592
1년 8월 20일(癸丑)	556	1년 9월 10일(壬申)	593
1년 8월 20일(癸丑)	557	1년 9월 10일(壬申)	594
1년 8월 20일(癸丑)	558	1년 9월 10일(壬申)	595
1년 8월 20일(癸丑)	559	1년 9월 11일(癸酉)	596
1년 8월 21일(甲寅)	560	1년 9월 11일(癸酉)	597
1년 8월 21일(甲寅)	561	1년 9월 11일(癸酉)	598
1년 8월 21일(甲寅)	562	1년 9월 12일(甲戌)	599
1년 8월 22일(乙卯)	563	1년 9월 21일(癸未)	600
1년 8월 23일(丙辰)	564	1년 9월 21일(癸未)	601
1년 8월 23일(丙辰)	565	1년 9월 27일(己丑)	602
1년 8월 27일(庚申)	566	1년 9월 28일(庚寅)	603
1년 8월 27일(庚申)	567	1년 9월 29일(辛卯)	604
1년 8월 28일(辛酉)	568	1년 9월 29일(辛卯)	605
1년 8월 29일(壬戌)	569	1년 9월 29일(辛卯)	606
1년 9월 2일(甲子)	570	1년 10월 1일(癸巳)	607
1년 9월 3일(乙丑)	572	1년 10월 1일(癸巳)	608
1년 9월 3일(乙丑)	573	1년 10월 1일(癸巳)	610
1년 9월 4일(丙寅)	574	1년 10월 1일(癸巳)	611
1년 9월 4일(丙寅)	575	1년 10월 3일(乙未)	612
1년 9월 5일(丁卯)	576	1년 10월 3일(乙未)	613
1년 9월 5일(丁卯)	577	1년 10월 3일(乙未)	614
1년 9월 6일(戊辰)	578	1년 10월 4일(丙申)	615
1년 9월 6일(戊辰)	579	1년 10월 10일(壬寅)	617
1년 9월 7일(己巳)	580	1년 10월 12일(甲辰)	618
1년 9월 7일(己巳)	581	1년 10월 14일(丙午)	619

1년 10월 16일(戊申)	620
1년 10월 16일(戊申)	621
1년 10월 18일(庚戌)	622
1년 10월 29일(辛酉)	623
1년 11월 3일(乙丑)	625
1년 11월 4일(丙寅)	626
1년 11월 7일(己巳)	627
1년 11월 7일(己巳)	628
1년 11월 7일(己巳)	629
1년 11월 8일(庚午)	630
1년 11월 8일(庚午)	631
1년 11월 8일(庚午)	632
1년 11월 9일(辛未)	633
1년 11월 10일(壬申)	635
1년 11월 14일(丙子)	637
1년 11월 22일(甲申)	638
1년 11월 24일(丙戌)	639
1년 11월 27일(己丑)	641
1년 11월 29일(辛卯)	643
1년 12월 2일(甲午)	646
1년 12월 2일(甲午)	647
1년 12월 18일(庚戌)	648
1년 12월 21일(癸丑)	649
1년 12월 23일(乙卯)	651
1년 12월 25일(丁巳)	652

1778

2년 1월 2일(癸亥)	654
2년 1월 2일(癸亥)	656
2년 1월 2일(癸亥)	658
2년 1월 5일(丙寅)	659
2년 1월 6일(丁卯)	660
2년 1월 7일(戊辰)	662

2년 1월 7일(戊辰)	663
2년 1월 7일(戊辰)	664
2년 1월 8일(己巳)	665
2년 1월 8일(己巳)	666
2년 1월 8일(己巳)	667
2년 1월 10일(辛未)	668
2년 1월 11일(壬申)	670
2년 1월 11일(壬申)	671
2년 1월 11일(壬申)	672
2년 1월 13일(甲戌)	673
2년 1월 13일(甲戌)	674
2년 1월 14일(乙亥)	675
2년 1월 14일(乙亥)	676
2년 1월 14일(乙亥)	677
2년 1월 16일(丁丑)	678
2년 1월 17일(戊寅)	679
2년 1월 17일(戊寅)	681
2년 1월 18일(己卯)	682
2년 1월 18일(己卯)	683
2년 1월 18일(己卯)	684
2년 1월 23일(甲申)	685
2년 1월 25일(丙戌)	686
2년 1월 25일(丙戌)	687
2년 1월 25일(丙戌)	688
2년 1월 26일(丁亥)	689
2년 1월 26일(丁亥)	690
2년 1월 26일(丁亥)	691
2년 1월 27일(戊子)	692
2년 1월 27일(戊子)	693
2년 1월 28일(己丑)	695
2년 1월 28일(己丑)	696
2년 1월 28일(己丑)	697
2년 1월 29일(庚寅)	698
2년 1월 29일(庚寅)	699

2年 1月 29日(庚寅)	700	2年 4月 11日(辛丑)	736
2年 2月 2日(癸巳)	701	2年 4月 13日(癸卯)	737
2年 2月 2日(癸巳)	702	2年 4月 13日(癸卯)	738
2年 2月 2日(癸巳)	703	2年 4月 20日(庚戌)	739
2年 2月 3日(甲午)	704	2年 4月 23日(癸丑)	741
2年 2月 3日(甲午)	705	2年 4月 23日(癸丑)	742
2年 2月 3日(甲午)	706	2年 4月 26日(丙辰)	743
2年 2月 4日(乙未)	707	2年 4月 27日(丁巳)	744
2年 2月 4日(乙未)	708	2年 5月 4日(癸亥)	745
2年 2月 4日(乙未)	709	2年 5月 5日(甲子)	747
2年 2月 5日(丙申)	710	2年 5月 5日(甲子)	748
2年 2月 5日(丙申)	711	2年 5月 5日(甲子)	749
2年 2月 5日(丙申)	712	2年 5月 12日(辛未)	750
2年 2月 8日(己亥)	713	2年 5月 12日(辛未)	751
2年 2月 8日(己亥)	714	2年 5月 12日(辛未)	752
2年 2月 8日(己亥)	715	2年 5月 13日(壬申)	753
2年 2月 9日(庚子)	716	2年 5月 13日(壬申)	754
2年 2月 9日(庚子)	717	2年 5月 13日(壬申)	755
2年 2月 9日(庚子)	718	2年 5月 16日(乙亥)	756
2年 2月 18日(己酉)	719	2年 5月 16日(乙亥)	757
2年 2月 18日(己酉)	720	2年 5月 16日(乙亥)	758
2年 2月 18日(己酉)	721	2年 5月 17日(丙子)	759
2年 2月 19日(庚戌)	722	2年 5月 17日(丙子)	760
2年 2月 19日(庚戌)	723	2年 5月 17日(丙子)	761
2年 2月 19日(庚戌)	724	2年 5月 18日(丁丑)	762
2年 2月 20日(辛亥)	725	2年 5月 18日(丁丑)	763
2年 3月 28日(戊子)	727	2年 5月 18日(丁丑)	764
2年 4月 5日(甲午[乙未])	728	2年 5月 19日(戊寅)	765
2年 4月 8日(戊戌)	730	2年 5月 19日(戊寅)	766
2年 4月 10日(庚子)	731	2年 5月 19日(戊寅)	767
2年 4月 10日(庚子)	732	2年 5月 22日(辛巳)	768
2年 4月 10日(庚子)	733	2年 5月 22日(辛巳)	769
2年 4月 11日(辛丑)	734	2年 5月 23日(壬午)	772
2年 4月 11日(辛丑)	735	2年 5月 29日(戊子)	773

2年 5月 29日(戊子)	774
2年 5月 29日(戊子)	776
2年 5月 29日(戊子)	778
2年 6月 4日(壬辰)	780
2年 6月 10日(戊戌)	782
2年 6月 10日(戊戌)	783
2年 6月 10日(戊戌)	784
2年 6月 10日(戊戌)	785
2年 6月 10日(戊戌)	786
2年 6月 12日(庚子)	787
2年 6月 12日(庚子)	789
2年 6月 12日(庚子)	790
2年 6月 12日(庚子)	791
2年 6月 13日(辛丑)	792
2年 6月 13日(辛丑)	793
2年 6月 13日(辛丑)	794
2年 6月 14日(壬寅)	795
2年 6月 16日(甲辰)	797
2年 閏6月 5日(癸亥)	798
2年 閏6月 12日(庚午)	799
2年 閏6月 12日(庚午)	801
2年 閏6月 12日(庚午)	802
2年 閏6月 13日(辛未)	803
2年 閏6月 19日(丁丑)	806
2年 閏6月 22日(庚辰)	807
2年 閏6月 22日(庚辰)	808
2年 閏6月 22日(庚辰)	809
2年 閏6月 23日(辛巳)	810
2年 閏6月 23日(辛巳)	811
2年 閏6月 23日(辛巳)	812
2年 閏6月 24日(壬午)	813
2年 閏6月 24日(壬午)	814
2年 閏6月 24日(壬午)	815
2年 閏6月 25日(癸未)	816

2年 閏6月 25日(癸未)	817
2年 閏6月 25日(癸未)	818
2年 閏6月 28日(丙戌)	819
2年 閏6月 28日(丙戌)	820
2年 7月 1日(戊子)	821
2年 7月 2日(己丑)	822
2年 7月 3日(庚寅)	823
2年 7月 4日(辛卯)	824
2年 7月 13日(庚子)	825
2年 7月 13日(庚子)	826
2年 7月 13日(庚子)	827
2年 7月 19日(丙午)	828
2年 7月 19日(丙午)	829
2年 7月 19日(丙午)	830
2年 7月 20日(丁未)	831
2年 7月 30日(丁巳)	832
2年 8月 1日(戊午)	833
2年 8月 1日(戊午)	834
2年 8月 5日(壬戌)	835
2年 8月 5日(壬戌)	836
2年 8月 5日(壬戌)	837
2年 8月 5日(壬戌)	838
2年 8月 5日(壬戌)	840
2年 8月 5日(壬戌)	841
2年 8月 5日(壬戌)	842
2年 8月 5日(壬戌)	843
2年 8月 5日(壬戌)	844
2年 8月 5日(壬戌)	845
2年 8月 6日(癸亥)	846
2年 8月 6日(癸亥)	847
2年 8月 7日(甲子)	848
2年 8月 7日(甲子)	849
2年 8月 7日(甲子)	850
2年 8月 7日(甲子)	851

2年 8月 11日(戊辰)	852	2年 10月 20日(丙子)	897
2年 8月 26日(癸未)	854	2年 10月 20日(丙子)	898
2年 8月 26日(癸未)	855	2年 10月 20日(丙子)	899
2年 8月 27日(甲申)	856	2年 10月 21日(丁丑)	902
2年 8月 28日(乙酉)	857	2年 10月 22日(戊寅)	904
2年 8月 28日(乙酉)	858	2年 10月 23日(己卯)	906
2年 9月 1日(丁亥)	859	2年 10月 24日(庚辰)	908
2年 9月 1日(丁亥)	860	2年 10月 27日(癸未)	909
2年 9月 5日(辛卯)	861	2年 10月 28日(甲申)	911
2年 9月 5日(辛卯)	862	2年 10月 29日(乙酉)	912
2年 9月 6日(壬辰)	863	2年 10月 30日(丙戌)	914
2年 9月 6日(壬辰)	864	2年 11月 7日(癸巳)	916
2年 9月 6日(壬辰)	865	2年 11月 18日(甲辰)	918
2年 9月 11日(丁酉)	866	2年 11月 20日(丙午)	919
2年 9月 12日(戊戌)	867	2年 11月 20日(丙午)	920
2年 9月 12日(戊戌)	868	2年 11月 21日(丁未)	922
2年 9月 20日(丁丑[丙午])	869	2年 11月 22日(戊申)	923
2年 9月 20日(丁丑[丙午])	870	2年 11月 23日(己酉)	924
2年 9月 20日(丁丑[丙午])	871	2年 11月 27日(癸丑)	926
2年 9月 24日(庚戌)	873	2年 11月 27日(癸丑)	927
2年 9月 26日(壬子)	877	2年 12月 1日(丁巳)	928
2年 9月 26日(壬子)	879	2年 12月 3日(己未)	929
2年 9月 26日(壬子)	881	2年 12月 17日(癸酉)	930
2年 9月 27日(癸丑)	882	2年 12月 17日(癸酉)	931
2年 9月 27日(癸丑)	883	2年 12月 18日(甲戌)	932
2年 9月 27日(癸丑)	884	2年 12月 18日(甲戌)	933
2年 9月 28日(甲寅)	885	2年 12月 19日(乙亥)	934
2年 9月 28日(甲寅)	886	2年 12月 19日(乙亥)	935
2年 9月 28日(甲寅)	887	2年 12月 20日(丙子)	936
2年 9月 29日(乙卯)	888	2年 12月 21日(丁丑)	938
2年 9月 29日(乙卯)	889	2年 12月 21日(丁丑)	939
2年 9月 30日(丙辰)	890	2年 12月 22日(戊寅)	940
2年 10月 14日(庚子[庚午])	892	2年 12月 22日(戊寅)	941
2年 10月 17日(癸酉)	893	2年 12月 24日(庚辰)	942

1776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一日 壬寅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賊聖國母今連, 濟州牧爲婢, 當日押付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當日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1일(임인)

- 역적 성국(聖國)의 어미 금련(今連)을 제주목(濟州牧)의 비(婢)로 삼기 위해 당일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역적 성국(聖國)¹⁾의 어미 금련(今連)을 제주목(濟州牧)의 비(婢)로 삼되 당일로 압송하여 부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전교하신 뜻으로 죄목을 갖추어 즉시 의금부 나장을 보내 당일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역적 성국, 금련, 제주목.

1) 성국(聖國): 영조의 후궁 숙의(淑儀) 문씨(文氏)의 오빠로 이름은 문성국(文聖國)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一日 壬寅

- 丙申四月初一日未時, 上御廬次, 藥房副提調持湯劑入侍時, 副提調洪國榮, 記事官尹翊東, 記注官朴聖鉉, 記事官朴祐源, 醫官方泰興, 以次進伏訖, …… 上命國榮書傳教曰, 聖國母今連, 渠以妖僧長髮, 出沒於宮禁, 罪惡貫盈, 不可置之於輦轂之下, 濟州牧爲婢, 當日押付,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1일(임인)

□ 전교를 내려 역적 성국(聖國)의 어미 금련(今連)을 제주목(濟州牧)의 비(婢)로 삼고 당일로 압송할 것을 명함

- 병신년 4월 초1일 미시(未時)에 임금이 여차(廬次)에 나아갔다. 약방 부제조가 탕제(湯劑)를 가지고 입시켰을 때 부제조 홍국영(洪國榮), 기사관 윤익동(尹翊東), 기주관 박성현(朴聖鉉), 기사관 박우원(朴祐源), 의관 방태여(方泰興)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홍국영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 “성국(聖國)의 어미 금련(今連)은 거짓되고 요망스런 중으로 머리를 기르고 궁금(宮禁)에 출몰했으니 죄악이 차고 넘친다. 도성 가까이에 둘 수 없으니 제주목(濟州牧)의 비(婢)로 삼고 당일로 압송하여 보내라. <중략>”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성국, 금련.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日 癸卯

- 行大司憲朴相德, 執義李會遂, 正言宋煥億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擊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尙稽, 世豈有妖惡如此而終追王章之理者哉? 請黑山島荐棘罪人沈翔雲, 亟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答曰, 爲先大靜縣荐棘.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일(계묘)

□ 사헌부에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국문하여 국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함

- 행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집의 이회수(李會遂), 정언 송환억(宋煥億)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검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치란의 근원을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이 아직껏 미루어지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우선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흑산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三日 甲辰

- 行大司憲朴相德, 執義李會遂, 正言宋煥億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傳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3일(갑진)

□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국문하여 국법대로 처결해 달라고 사헌부가 건의함

- 행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집의 이회수(李會遂), 정언 송환억(宋煥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에 명하여 엄중히 국문하고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전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박상덕.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三日 甲辰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則窮凶極惡大逆不道罪人相老子芝壽·龜壽·淇壽等, 卽爲發遣府都事, 拿來囚後, 依律文緣坐處絞, 子廣闢年十五, 子廣植年八, 俱以年未滿, 依律文免坐處絞, 廣闢,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 廣植, 羅州牧黑山島爲奴, 弟相玉, 出繼免坐, 弟相定, 靈巖郡楸子島爲奴, 孫種老味, 康津縣古今島爲奴, 孫種芑伊, 慶尙道南海縣爲奴, 妻愛下, 全羅道珍島郡金甲島爲婢, 女壽任, 咸鏡道慶興府爲婢, 女且任, 慶尙道巨濟府爲婢, 子婦今德, 茂山府爲婢, 子婦庚悅, 穩城府爲婢, 子婦連伊, 鍾城府爲婢,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3일(갑진)

□ 대역죄인 박상로(朴相老)와 그 가족에 대한 처벌 내역을 의금부가 보고함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방금 한성부의 첩보(牒報) 및 당부(當部) 성책을 보니, 그지없이 흉악한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박상로(朴相老)의 아들 지수(芝壽)·귀수(龜壽)·기수(淇壽) 등을 의금부 도사를 보내 붙잡아 와서 가둔 후 법률에 따라 연좌율로써 교형(絞刑)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들 광벽(廣闢) 15세, 아들 광식(廣植) 8세는 모두 나이가 차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연좌로 교형에 처해지는 것을 면제받습니다. 광벽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의 노(奴)로 삼고, 광식은 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의 노로 삼으며, 아우 상옥(相玉)은 출계(出繼)한 것 때문에 연좌를 모면했습니다. 아우 상정(相定)은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의 노로 삼으며, 손자 종노미(種老味)는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의 노가 되었습니다. 손자 종돌이(種芑伊)는 경상도 남해현(南海縣)에서 노로 삼았고, 처 애하(愛下)는 전라도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의 비(婢)로 삼았습니다. 딸 수임(壽任)은 함경도 경흥부(慶興府)의 비가 되었고, 딸 차임(且任)은 경상도 거제부(巨濟府)의 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금덕(今德)은 무산부(茂山府)의 비를 삼았고, 며느리 경열(庚悅)은 온성부(穩城府)에서 비로 삼았으며, 며느리 연이(連伊)는 종성부(鍾城府)의 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例)에 따라 의금부 나장을 보내 각각의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박상로, 광벽, 상정.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三日 甲辰

- 又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黑山島荐棘罪人沈翔雲, 大靜縣荐棘事, 批下矣, 沈翔雲, 以批下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自黑山島執捉, 仍令押送于全羅道濟州牧大靜縣, 荐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3일(갑진)

- 임금의 비답에 따라 심상운(沈翔雲)을 흑산도에서 대정현(大靜縣)으로 압송하여 위리안치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대간의 아뢰므로 인하여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하라는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심상운을 비답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어 예(例)에 따라 의금부도사를 보내 흑산도에서 붙잡아 그대로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으로 압송하여 위리안치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흑산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三日 甲辰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則大逆不道誣上罪人德師,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長子日培, 依律文緣坐處絞, 而在於新門外月巖洞云, 待城門開, 發遣府都事, 拿囚後舉行, 次子吉得, 年今十三, 以年未滿,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 ……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3일(갑진)

□ 대역죄인 이덕사(李德師)와 그에 연좌된 사람들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계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지금 한성부(漢城府) 첩보(牒報) 및 당부(當部)의 정책을 보니 대역부도(大逆不道)하고 무상(誣上)한 죄인 이덕사(李德師)에 당연히 연좌되어야 할 여러 사람을 조사해 왔다고 합니다. 장자(長子) 일배(日培)는 율문(律文)에 따라 연좌율로써 교형에 처하되, 신문(新門) 밖 월암동(月巖洞)에 있다고 하니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의금부 도사를 보내 잡아다 가둔 후 거행하겠습니다. 차자(次子) 길득(吉得)은 13세로 나이가 차지 않았으므로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의 노(奴)로 삼을 것입니다. <중략> 그리고 예(例)에 따라 의금부 나장을 보내 각 배소(配所)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이덕사, 일배, 길득.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四日 乙巳

- 行大司憲朴相德, 執義李會遂, 正言宋煥億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擊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者哉? 昨日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4일(을사)

- 행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행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집의 이회수(李會遂), 정언 송환억(宋煥億)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검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치란의 근원을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어제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²⁾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2) 원악지(遠惡地): 서울에서 거리가 멀고 살기 어려운 지역.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四日 乙巳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方鎮·獻鎮·純鎮, 依法照律事, 命下矣, 方鎮, 依律文緣坐處絞, 而獻鎮·純鎮, 出繼免絞, 獻鎮, 全羅道濟州牧旌義縣爲奴, 純鎮, 慶尙道巨濟府爲奴,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而他餘應坐諸人, 待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次第舉行, 何如? 傳曰, 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4일(을사)

□ 죄인 조방진(方鎭) 등의 처벌 내용과 실행에 대한 의금부의 계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죄인 조방진(趙方鎭)·조헌진(趙獻鎭)·조순진(趙純鎭)을 법에 의거하여 율문에 따라 죄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방진은 율문에 의거하여 연좌를 적용하여 교형에 처하고, 헌진·순진은 출계(出繼)했으므로 교형을 면하여 헌진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의 노(奴)로 삼고, 순진을 경상도 거제부(巨濟府)의 노로 삼습니다. 예(例)에 따라 의금부 나장을 보내 배소(配所)로 압송하되, 그밖에 마땅히 연좌에 처해야 할 여러 사람은 한성부의 첩보 및 당부(當部)의 성책을 기다린 다음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조방진, 조헌진, 조순진, 연좌.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四日 乙巳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則孥籍罪人尙魯, 應坐諸人, 查出以來, 而追施逆律者, 其父與子勿施一律, 依兄弟應坐律舉行, 奉承傳施行事, 曾有受教矣, 頃因承傳, 尙魯子致讓,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安置, 子致廣, 珍島郡金甲島安置, 庶子致默, 全羅道興陽縣蛇渡安置, 而旣已發配, 依受教仍其地爲奴, 子致顯, 嚴囚本府南間, 待處分舉行, 姪致恭, 慶尙道巨濟府安置, 姪致良,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安置, 姪致勛, 慶尙道南海縣安置, 姪致訥, 全羅道珍島郡安置, 皆已發配, 仍其絕島, 依律文流三千里安置, 妻必喜,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婢, 妾德辰, 咸鏡道慶興府爲婢, ……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4일(을사)

□ 역적 죄인 김상로(金尙魯)와 그 가족에게 적용할 처벌 내용과 배소 압송 계획에 대해 의금부가 보고함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지금 한성부 첩보(牒報) 및 당부(當部)의 정책을 보니 노적(孥籍)³⁾ 죄인 김상로(金尙魯)로 인해 마땅히 연좌에 처해야 할 여러 사람을 조사해 왔습니다. 역률(逆律)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그 아비와 아들에 대해 동일한 율문을 시행하지 말고 형제응좌율(兄弟應坐律)에 의해 거행하되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라고 일찍이 내린 수교(受教)가 있었습니 다. 지난번 승전으로 인하여 상로의 아들 치양(致讓)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안치하고, 아들 치광(致廣)을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에 안치하고, 서자 치묵(致默)을 전라도 흥양현(興陽縣) 사도(蛇渡)에 안치하는 데, 이미 배소로 출발했으므로 수교에 따라 그대로 그곳의 노(奴)로 삼겠습니다. 아들 치현(致顯)은 본부(本府) 남간(南間)에 엄히 가두고 처분을 기다렸다가 거행하며, 조카 치공(致恭)을 경상도 거제부(巨濟府)에 안치하고, 조카 치량(致良)은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하며, 조카 치훈(致勛)은 경상도 남해현에 안치하며, 조카 치눌(致訥)은 전라도 진도군에 안치하되 모두 배소로 출발했으므로 그대로 그 절도(絶島)에 율문에 따라 유삼천리(流三千里)로 안치

3) 노적(孥籍): 국사범(國事犯)의 중죄인(重罪人)으로서 본인을 사형(死刑)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까지 연좌(連坐)시켜 같은 형(刑)에 처하며,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하겠습니다. 처(妻) 필희(必喜)는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大靜縣)의 비(婢)로 삼고, 첩(妾) 덕진(德辰)은 함경도 경흥부(慶興府)의 비로 삼고, 〈중략〉 예(例)에 따라 의금부 서리·나장을 보내 각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대정현, 추자도, 김상로, 노적.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五日 丙午

- 行大司憲朴相德, 正言宋煥億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措辭現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5일(병오)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에 대해 더욱 엄격한 율문을 적용해 줄 것을 사헌부가 요청함
- 행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정언 송환억(宋煥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에 대해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五日 丙午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則正法罪人載翰應坐諸人, 查出以來矣, …… 妻丹惠, 全羅道濟州牧爲婢, 妾明喜, 咸鏡道會寧府爲婢, 妾新暹, 全羅道珍島郡爲婢, 女德順, 濟州牧爲婢, 庶女何寬, 咸鏡道鏡城府爲婢, ……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5일(병오)

□ 의금부가 정법죄인(正法罪人) 조재한(趙載翰)으로 인해 연좌되는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대해 어떤 율문을 적용하는지 보고함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로기를, “지금 한성부(漢城府) 첩보(牒報) 및 당부(當部)의 성책을 보니, 정법죄인(正法罪人) 조재한(趙載翰)으로 인해 마땅히 연좌되는 여러 사람을 조사해 왔다고 합니다. <중략> 처(妻) 단혜(丹惠)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비(婢)로 삼고, 첩(妾) 명희(明喜)를 함경도 회령부(會寧府)의 비로 삼고, 첩 신섬(新暹)을 전라도 진도군(珍島郡) 비로 삼고, 딸 덕순(德順)을 제주목의 비로 삼고, 서녀(庶女) 하관(何寬)을 함경도 경성부(鏡城府)의 비로 삼되, <중략> 예(例)에 따라 의금부 서리・나장을 보내 각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조재한, 정법죄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五日 丙午

- 金相戊, 以義禁府言啓曰, 罪人雲亨減死定配, 勛濟定配, 獻鎮依本律決配事, 命下矣, 雲亨, 咸鏡道甲山府定配, 勛濟, 慶尙道熊川縣定配, 獻鎮, 全羅道濟州牧旌義縣緣坐爲奴, 而右罪人等,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5일(병오)

□ 의금부가 죄인 조운형(趙雲亨) 등의 처결 내용과 압송 계획을 보고함

- 김상무(金相戊)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죄인 조운형(趙雲亨)은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고, 이훈제(李勛濟)를 정배하고, 조헌진(趙獻鎭)을 본율(本律)에 따라 정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운형은 함경도 갑산부(甲山府)에 정배하고, 훈제는 경상도 웅천현(熊川縣)에 정배하고, 헌진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연좌하여 노(奴)로 삼되 이 죄인들을 전교(傳教)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어 예(例)에 따라 의금부 나장을 보내 각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조운형, 조헌진, 정배, 연좌.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七日 戊申

- 又以義禁府言啓曰, 荐棘罪人韓光綮·尹泰淵, 更定配所事, 命下矣, 咸鏡道三水府圍籬安置罪人韓光綮, 慶尙道機張縣更定配所, 全羅道扶安縣蝟島鎮荐棘罪人尹泰淵, 濟州牧旌義縣更定配所, 而依例發遣府都事, 仍令執捉押送于各其配所, 與地方官, 眼同荐棘, 何如? 傳曰, 廚傳有弊, 以前都事舉行.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7일(무신)

□ 의금부에서 죄인 한광계(韓光綮), 윤태연(尹泰淵) 등의 배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보고함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한광계(韓光綮)·윤태연(尹泰淵)의 배소를 다시 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함경도 삼부수(三水府)에 위리된 죄인 한광계는 경상도 기장현(機張縣)으로 다시 배소를 정하고, 전라도 부안현(扶安縣) 위도진(蝟島鎭)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은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으로 배소를 다시 정하여, 예(例)에 따라 의금부 도사를 보내 그대로 붙잡아 각 배소로 압송하게 하고 지방관과 힘을 합쳐 위리안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주전(廚傳)에 폐단이 있으니 전(前) 도사를 보내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위도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八日 己酉

- 行大司憲朴相德, 司諫兪彥脩,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光昇·尹尙東, 獻納洪周萬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請礪山府竄配罪人洪麟漢, 絕島安置, 措辭竝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8일(기유)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라는 대사헌 등의 건의

- 행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사간 유언수(兪彦脩),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광승(尹光昇)·윤상동(尹尙東),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에 대해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여산부(礪山府)에 찬배(竄配)된 죄인 홍인한(洪麟漢)을 절도(絶島)에 안치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모두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홍인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九日 庚戌

- 大司憲朴相德, 執義李重馥, 司諫兪彦脩,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洪周萬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9일(경술)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라는 대사헌 등의 건의

-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유언수(兪彦脩),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에 대해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十日 辛亥

- 淸川君金鍾正疏曰, …… 尹泰淵等島棘命下之後, 臣以泰淵, 定配濟州, 旋聞府吏之言, 則黑山·濟州等地, 曾無自下舉行之例云, 故不得已改之, 而臣素聞蝟島水路之險遠, 亞於黑山, 遂自嶺移湖, 以蝟爲定, 竊附於嚴處之義矣, 追始覺其島雖險, 而地則近, 更爲移定於康津古今島, 而原單已徹, 竟未及焉, 此卽公坐衆人之所共覩者也, 噫, 厚謙之窮凶極惡, 實是覆載之所不容, 而泰淵之綢繆親密, 厥罪惟均, 當此舉國齊憤聲討極嚴之時, 雖使黨泰淵者當之, 必不敢顧籍, 況臣於泰淵, 常所深嫉, 曾在選部, 至枳佐貳, 則今反愛惜, 寧有是理? 臨事粗率, 失於周詳, 拘牽常例, 致此錯誤, 以是論臣, 臣亦何辭, …… 伏乞聖明, 亟降威命, 特施重譴, 以昭國法, 以快人心, 不勝幸甚, 臣無任屏營祈懇之至. 答曰, 省疏具悉, 尹東晚之疏, 何足深引? 卿其勿辭察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10일(신해)

- 윤태연(尹泰淵) 등을 절도에 안치한 처리에 대해 윤동만(尹東晩)이 상소로 비난하자 사직을 요청하는 김종정(金鍾正)의 상소
- 청천군(淸川君) 김종정(金鍾正)이 상소하기를, “〈중략〉 윤태연(尹泰淵) 등을 도배하여 위리안치하라는 명이 내린 뒤 저는 윤태연을 제주(濟州)로 정배하였는데, 곧이어 들으니 흑산도와 제주 등의 지역은 아래에서 거행한 예가 없다고 하기에 부득이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위도(蝟島)가 물길이 험하고 멀기가 흑산도에 버금간다고 들어왔기에 령(嶺)에서 호(湖)로 옮겨 마침내 위도로 정한 것이니, 엄히 처벌한다는 취지에 부합한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 섬이 험하기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강진(康津)의 고금도(古今島)로 옮겨 정배하였습니다만, 원 단자를 이미 올려 마침내 미칠 수가 없었으니 이는 공좌(公坐)에 있는 모두가 목도한 바입니다. 정후겸(鄭厚謙)의 극도의 흉악함은 실로 덮을 수 없으며, 윤태연과 서로 친밀하게 어울렸으면 그 죄가 오히려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온 나라가 한목소리로 성토향하는 지극히 엄중한 때에 비록 윤태연과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이에 해당시킨다면 모름지기 제 몸을 사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저는 윤태연에 대해 늘 매우 미워하여 일찍이 선부(選部)에 있을 때도 좌이(佐貳)를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안타까워한다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까. 일에 임하여 경솔하고 소홀하여 두루 세밀하지 못한채 상례(常例)에 이끌려 착오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저를 논한다면 저 또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옆드려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서둘러 위엄있는 명령을 내려 특별히 엄중한 견책을 내려 국법을 밝히고 인심을 시원하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고, 제가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잘 살펴보았다. 윤동만(尹東晩)의 상소를 어찌 깊이 인책할 필요가 있겠는가. 경(卿)은 사양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종정, 윤태연, 제주,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十日 辛亥

- 丙申四月初十日辰時, 上御興政堂, …… 行大司憲朴相德, 執義李重馥, 司諫俞彥脩,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洪周萬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司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而終道王章之理者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出舉條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10일(신해)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는 대사헌 등의 건의

- 병신년 4월 초10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중략> 행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유언수(兪彦脩),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겸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때(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十三日 甲寅

- 行大司憲朴相德, 執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正言姜忱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13일(갑인)

-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결하라고 건의함
- 행 대사헌 박상덕(朴相德),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十六日 丁巳

- 報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正言姜忱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16일(정사)

- 집의 이중복(李重馥)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十八日 庚申[己未]

- 執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正言姜忱啓曰, 荐棘罪人沈翔雲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而終追王章之理者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18일(경신[기미])

- 집의 이중복(李重馥)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검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시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시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十九日 辛酉[庚申]

- 執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 正言姜忱啓曰, 荐棘罪人沈翔雲本以凶擊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道王章之理者哉? 移配之命, 雖出於授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19일(신유[경신])

- 집의 이중복(李重馥)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겸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日 壬戌[辛酉]

- 執義李春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 正言姜忱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嚴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0일(임술[신유])

- 집의 이춘복(李春馥)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집의 이춘복(李春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一日 癸亥[壬戌]

- 大司諫宋翼彦, 執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 正言姜忱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措語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1일(계해[임술])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二日 癸亥

- 大司諫宋翼彦, 執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 正言姜忱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而終追王章之理者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2일(계해)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견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三日 甲子

- 大司諫宋翼彦, 執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 正言姜忱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者哉? 移拜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3일(갑자)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견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四日 乙丑

- 大司諫宋翼彦, 執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 正言姜忱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者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4일(을축)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견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六日 丁卯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金壽賢濟州牧大靜縣爲奴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6일(정묘)

□ 전교에 따라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대정현(大靜縣)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보고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의 노(奴)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전교의 내용을 받들어 죄목을 갖추고 예(例)에 따라 의금부 서리(書吏)를 보내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六日 丁卯

- 李秉鼎, 以刑曹言啓曰, 凶疏人李明徽嚴刑島配事, 命下矣, 依傳教罪人李明徽嚴刑一次後,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6일(정묘)

□ 이명휘(李明徽)를 추자도(楸子島)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보고

- 이병정(李秉鼎)이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흉소(凶疏)를 올린 이명휘(李明徽)에게 엄형을 가하여 도배(島配)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전교에 의거하여 죄인 이명휘에게 엄형을 1차 가한 후, 전라도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로 배소를 정하여 즉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이명휘, 흉소.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六日 丁卯

- 大司諫宋翼彦, 執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 正言姜忱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者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6일(정묘)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견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六日 丁卯

- 丙申四月二十六日申時, 上御廬次, 左承旨·戶曹參議同爲入侍時, 戶曹參議鄭民始, 左承旨洪國榮, 假注書李商球, 記事官白光澤·朴祐源, 以次進伏訖, …… 上命書傳教曰, …… 往在十餘年前, 時予沖歲, 壽賢以長番內官給使於本宮, 興祿以慈宮承言色隨行, 壽賢每奏予曰, 與興祿有同奏之事矣, 當予進詣養德堂時, 此輩隨來, 養德堂, 卽慈宮所御堂也, 此輩謂予沖歲, 必不知渠輩情狀, 迨予遊於堂後之苑, 壽賢·興祿, 以窮凶極惡之語, 誘說於予曰, 如此方可謂孝也, 又奏某某士夫, 與渠輩相親, 同此義理, 可用於將來之人矣, 予雖沖歲, 一聞已知其爲亂逆, 未嘗以言語發落, 其時因事除汰, 尙今不忘, 一欲以此起獄, 或慮蔓延者多, 今則凶逆次第伏法, 豈可因置不問, 以釀禍機乎? 興祿令前已故, 壽賢發捕者, 蓋以此也, 親問之下, 箇箇取招, 與予所聞記者, 無一差錯, 噫宦寺之交結朝廷, 顧何等罪案, 而士夫之如此, 亦不可謂之士夫, 良可痛嘆, 三尺至嚴, 焉可追也, 而興祿既以魁首已死, 壽賢則猶屬之隨從, 不是失之太寬, 惟輕之典, 亦不害爲仁政之一端, 既施數次之刑, 罪人金壽賢, 濟州牧大靜縣爲奴,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6일(정묘)

□ 전교를 내려 환관으로서 역적이 된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명함

- 병신년 4월 26일 신시(申時)에 임금이 여차(廬次)에 나아갔다. 좌승지·호조참의가 함께 입시했을 때 호조참의 정민시(鄭民始), 좌승지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이상구(李商球), 기사관 백광택(白光澤)·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전교(傳敎)를 쓰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중략> 지난 10여년 전에 그때 내가 어린 나이였는데, 김수현(金壽賢)은 장번내관급사(長番內官給事)로 본궁에 있었고 이흥록(李興祿)은 자궁승언색(慈宮承言色)으로서 수행하였다. 김수현이 매양 나에게 아뢰기를, ‘이흥록과 함께 아될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다가, 내가 양덕당(養德堂)으로 나아가자 이 무리들이 곧장 따라왔다. 양덕당은 곧 자궁(慈宮)께서 계시던 당이었다. 이 무리들이 내가 나이 어리므로 반드시 저희들의 정상을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겨, 내가 양덕당 후원에서 거닐 적에 김수현과 이흥록이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로 나를 유혹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하셔야 바야흐로 효도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또 아뢰기를, ‘아무아무 사대부는 저희들과 서로 친근하고 이런 의리에 있어서도 찬동했

으니, 장래에 쓸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했었다. 내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한 번 듣고서 이미 반역자임을 알아차리고 일찍이 한마디의 말도 발락(發落)하지 않았다. 그때 일로 인하여 제거해 도태시켰는데, 지금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 번 이로써 옥사를 일으키고 싶었으나 혹은 연루되는 자가 많을 것이 염려스러웠다. 이제는 흉악한 역적들이 차례차례 복법(伏法)되었는데, 어찌 그대로 두고 불문하여 화기(禍機)를 빚어내게 할 수 있겠는가? 이흥록은 이미 죽어 김수현을 잡아다가 친히 국문(鞫問)하여 하나하나 자복을 받아내었는데, 내가 들어 기억하고 있던 바와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 아아, 환시(宦寺)가 조정과 결탁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데, 사대부가 이와 같으면 또한 사대부라 할 수 없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하니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흥록이 이미 괴수(魁首)로서 이미 죽었으니, 김수현을 수종(隨從)으로 분류해도 너무 관대해서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인정(仁政)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수차례 형추한 죄인 김수현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의 노로 삼으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흥록,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七日 戊辰

- 執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 正言姜忱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擊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者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7일(무진)

- 대사간 송익언(宋翼彦) 등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엄중히 심문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라고 건의함

-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겸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七日 戊辰

- 又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7일(무진)

□ 대정현(大靜縣)에 부처한 김수현(金壽賢)에게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려줄 것을 청하는 계

- 또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통하는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處斷)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관.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七日 戊辰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抵,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7일(무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보다 무겁게 처단해 줄 것을 청하는 계

-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八日 癸巳[己巳]

- 執義李重馥, 司諫李獻慶,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正言姜忱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擊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道王章之理者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答兩司合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8일(계사[기사])

- 대정현(大靜縣)에 부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다시 국법에 따라 심문하여 무겁게 처단해달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요구에 윤택하지 않음
-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헌경(李獻慶),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검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시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시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 합계(合啓)에 대해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八日 癸巳[己巳]

- 掌令尹長烈, 持平尹尙東啓曰, 趙德昌以入番掖隸, 擅離番次, 至於踰越宮牆之境, 充軍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論其罪犯, 不可充軍而止,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答府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8일(계사[기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국법에 따라 엄히 처단해 달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윤장열(尹長烈), 지평 윤상동(尹尙東)이 아뢰기를, “조덕창(趙德昌)은 입번(入番)한 액정서(掖庭署)의 하례(下隸)로서 제멋대로 번차(番次)를 이탈하여 궁궐 담장을 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충군(充軍)하라는 명이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에서 비록 나왔지만 그 죄악을 논한다면 충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가까이 사귀어 활발히 내통한 상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명백히 밝혔는데,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이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의 계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도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八日 癸巳[己巳]

- 正言姜忱啓曰, 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身爲掖隸, 乘夜踰牆, 亂入深嚴之地者, 論以罪犯, 決難容貸, 請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抵,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8일(계사[기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엄중히 처단해달라고 주장하는 정언 강침(姜忱)의 계

- 정언 강침(姜忱)이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은 액정서(掖庭署)의 하례(下隸)로서 밤에 담장을 넘어 심엄(深嚴)한 곳에 난입했으니, 그가 범한 죄를 논하자면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충군한 죄인 조덕창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강침.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九日 庚午

- 執義李重馥,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者哉? 移拜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止[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9일(경오)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무겁게 처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의 이중복(李重馥) 등의 계

- 집의 이중복(李重馥),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겸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시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시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九日 庚午

- 又啓曰, 妖官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9일(경오)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려달라는 계

- 또 아뢰기를, “하찮은 관리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이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四月 二十九日 庚午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底,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故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4월 29일(경오)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환관 출신 김수현(金壽賢)을 더 무겁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계

-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지극히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一日 癸酉[辛未]

- 執義李重馥,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일(계유[신미])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무겁게 처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집의 이중복(李重馥),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겸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一日 癸酉[辛未]

- 獻納李謙彬啓曰,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結交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일(계유[신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환관 출신 김수현(金壽賢)을 더 무겁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헌납 이겸빈(李謙彬)의 계

-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지극히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一日 癸酉[辛未]

- 執義李重馥,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啓曰, …… 又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일(계유[신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려달라는 집의 이중복(李重馥) 등의 계

- 집의 이중복(李重馥),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이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중복.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日 甲戌[壬申]

- 執義李重馥, 掌令尹長烈·尹在醇, 持平尹尙東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事,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事, 又啓曰, 請正法罪人載興諸子, 竝施散配之典事. 答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일(갑술[임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려달라는 집의 이중복(李重馥) 등의 계

- 집의 이중복(李重馥), 장령 윤장열(尹長烈)·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법죄인(正法罪人) 최재흥(崔載興)의 여러 아들에게 산배(散配)하는 형전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재흥, 산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日 甲戌[壬申]

- 獻納李謙彬啓曰, 請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事,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事,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일(갑술[임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려달라는 헌납 이겸빈(李謙彬)의 계
-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충군(充軍)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덕창.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五日 丁丑[乙亥]

- 丙申五月初五日午時, 上御興政堂, 召對入侍, 該房承旨三司, 同爲入侍時, 參贊官洪國榮, 侍讀官沈豐之, 檢討官嚴思晚, 大司憲趙德成, 大司諫林鼎遠, 執義李重馥, 掌令尹長烈, 掌令尹在醇, 持平尹尙東, 獻納李謙彬, 副校理沈豐之, 修撰嚴思晚, 副修撰李秉模, 右承旨李秉鼎, 記事官尹翊東, 記事官文采五, 記事官朴祐源, 以次進伏訖, …… 鼎遠·謙彬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出舉條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5일(정축[을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려달라는 대사간 임정원(林鼎遠) 등의 계

- 병신년 5월 초5일 오시(午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소대(召對)하여 입시(入侍)했을 때 해방(該房) 승지와 삼사(三司)가 동시에 입시했는데, 참찬관 홍국영(洪國榮), 시독관 심풍지(沈豐之), 검토관 엄사만(嚴思晚), 대사헌 조덕성(趙德成), 대사간 임정원(林鼎遠), 집의 이중복(李重馥), 장령 윤장열(尹長烈), 장령 윤재순(尹在醇), 지평 윤상동(尹尙東), 헌납 이겸빈(李謙彬), 부교리 심풍지, 수찬 엄사만, 부수찬 이중모(李秉模), 우승지 이병정(李秉鼎), 기사관 윤익동(尹翊東), 기사관 문채오(文采五), 기사관 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정원·이겸빈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지극히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임정원.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六日 戊寅[丙子]

- 丙申五月初六日巳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右議政鄭存謙, 仁陽君李景祐, 行司直具善復,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吏曹判書徐命善, 禮曹判書鄭尙淳, 兵曹判書李徽之, 行副護軍張志恒, 行副護軍李漢膺, 行副護軍李柱國, 戶曹參判金華鎮, 禮曹參判沈履之, 開城留守宋淳明, 漢城左尹金魯鎮,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洪億, 掌令柳榮鎮·鄭宇淳, 應教鄭元始, 持平朴聖泰, 獻納李儒慶, 國葬都監都廳柳義養·徐有防, 左承旨洪國榮, 假注書徐龍輔, 事變假注書安策, 記事官文采五·朴祐源, 以次進伏訖, …… 聖圭·榮鎮·宇淳·聖泰所啓, …… 又所啓,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億·儒慶所啓, …… 又所啓,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6일(무인[병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려달라는 대신들의 계
- 병신년 5월 초6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인양군(仁陽君) 이경호(李景祐), 행 사직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이조판서 서명선(徐命善),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행 부호군 장지항(張志恒), 행 부호군 이한웅(李漢膺), 행 부호군 이주국(李柱國), 호조참판 김화진(金華鎮),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개성유수 송순명(宋淳明), 한성좌윤 김노진(金魯鎮),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사간 홍억(洪億), 장령 유영진(柳榮鎮)·정우순(鄭宇淳), 응교 정원시(鄭元始), 지평 박성태(朴聖泰), 헌납 이유경(李儒慶), 국장도감 도청 유의양(柳義養)·서유방(徐有防), 좌승지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사면가주서 안책(安策), 기사관 문채오(文采五)·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성규·유영진·정우

순·박성태가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이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익·이유경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지극히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一日 癸未[辛巳]

-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洪億, 掌令柳榮鎭·鄭宇淳, 獻納李儒慶所啓,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1일(계미[신사])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무겁게 처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대사간 홍억(洪億),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 헌납 이유경(李儒慶)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조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一日 癸未[辛巳]

- 掌令柳榮鎭·鄭宇淳所啓,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措辭見上】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又啓曰, 請鏡城府定配罪人洪述海, 依律處斷, 【措辭見上】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1일(계미[신사])

-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홍술해(洪述海)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건의한 사헌부의 계
-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경성부(鏡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덕창, 홍술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一日 癸未[辛巳]

- 獻納李儒慶所啓, 黑山島充軍趙德昌, 身爲掖隸, 乘夜踰牆, 亂入深嚴之地者, 論以罪犯, 決難容貸, 請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侍,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1일(계미[신사])

□ 조덕창(趙德昌)과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해 줄 것을 호소한 사간원의 계

- 헌납 이유경(李儒慶)이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조덕창(趙德昌)은 액정서(掖庭署)의 하례(下隸)로서 밤에 담장을 넘어 심엄(深嚴)한 곳에 난입했으니, 그가 범한 죄를 논하자면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충군한 죄인 조덕창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참은 환시(宦侍)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덕창,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三日 乙酉[癸未]

-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洪億, 掌令柳榮鎮·鄭宇淳, 獻納李儒慶等所啓,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3일(을유[계미])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무겁게 처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대사간 홍억(洪億),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 헌납 이유경(李儒慶) 등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검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시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시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三日 乙酉[癸未]

- 掌令柳榮鎭·鄭宇淳所啓, …… 又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又啓曰, 請鏡城府定配罪人洪述海,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3일(을유[계미])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엄히 국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할 것을 건의한 사헌부의 계
-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이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성부(鏡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술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四日 丙戌[甲申]

- 傳于申大升曰, 濟州復命宣傳官入侍.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4일(병술[갑신])

□ 제주(濟州) 복명 선전관의 입시를 명한 전교

- 신대승(申大升)에게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의 복명(復命) 선전관은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복명 선전관.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四日 丙戌[甲申]

-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洪億, 掌令柳榮鎭·鄭宇淳, 獻納李儒慶, 正言姜愼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4일(병술[갑신])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무겁게 처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대사간 홍억(洪億),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검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시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해아릴 수 없습시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四日 丙戌[甲申]

- 大司憲李聖圭, 掌令柳榮鎭·鄭宇淳啓曰, …… 又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4일(병술[갑신])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엄히 국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할 것을 건의한 사헌부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이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관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四日 丙戌[甲申]

- 大司諫洪億, 獻納李儒慶, 正言姜愼啓曰,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4일(병술[갑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해 줄 것을 호소한 사간원의 계

- 대사간 홍억(洪億),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四日 丙戌[甲申]

- 丙申五月十四日申時, 上御廬次, 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徐浩修, 假注書徐龍輔, 記事官朴聖鉉·朴祐源, 以次進伏訖, …… 上曰, 奉命宣傳官入侍, 賤臣承命而出, 與宣傳官權邁進伏, 上曰, 汝往濟州, 頒布諱音, 其民人悲痛耶? 邁曰, 民人皆至情呼痛, 不禁淚下矣, 上曰, 汝見御史乎? 邁曰, 御史今方賑恤, 而一境民人, 皆攢祝感頌矣, 國榮曰, 權邁是故相鄭澹外後矣, 上曰, 汝以標信, 千里鯨濤, 無事往返, 予心欣喜, 且聞汝是故相之外裔云, 亦甚奇悅, 當以汝陞六調用矣, 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4일(병술[갑신])

□ 제주(濟州)에 가서 휘음을 반포한 봉명 선전관 권매(權邁)를 승육(陞六)함

- 병신년 5월 14일 신시(申時)에 임금이 여차(廬次)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기사관 박성현(朴聖鉉)·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봉명 선전관(奉命宣傳官)은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고 나가고, 선전관 권매(權邁)와 더불어 나아가 부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제주(濟州)에 가서 휘음(諱音)을 반포했는데 그 백성들이 비통해 했는가?”라고 하였다. 권매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모두 지극한 정으로 아픔을 호소하여 눈물 흘리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어사를 보았는가?”라고 하였다. 권매가 말하기를, “어사가 지금 막 진흥하여 경내의 백성이 모두 감사하고 칭송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홍국영(洪國榮)이 말하기를, “권매는 고상(故相) 정호(鄭澹)의 외후손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표신(標信)으로 천리 경해 밖을 무사히 다녀왔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또 들으니 네가 고상(故相)의 외후손이라고 하니 또한 매우 기이하고 기쁘다. 마땅히 너를 승육(陞六)하여 조용(調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러날 것을 명하자 제신(諸臣)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제주, 권매, 봉명선전관, 승육.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五日 丁亥[乙酉]

-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洪億, 掌令柳榮鎭·鄭宇淳, 獻納李儒慶, 正言洪樂淵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合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5일(정해[을유])

□ 大靜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무겁게 처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大司憲 이성규(李聖圭), 大司諫 홍억(洪億), 掌令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 헌납 이유경(李儒慶), 正언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겸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합계에 대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大靜縣,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五日 丁亥[乙酉]

- 大司憲李聖圭, 掌令柳榮鎭·鄭宇淳啓曰, …… 又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5일(정해[을유])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엄히 국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할 것을 건의한 사헌부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이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관.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五日 丁亥[乙酉]

- 大司諫洪億, 獻納李儒慶, 正言洪樂淵·姜愼, 啓曰,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答府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5일(정해[을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해 줄 것을 호소한 헌부와 간원의 계

- 대사간 홍익(洪億),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헌부와 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五日 丁亥(乙酉)

- 丙申五月十五日申時, 上御陶遂椽, 禮房承旨入侍時, 左承旨洪國榮, 假注書徐龍輔, 記事官朴聖鉉·朴祐源, 以次進伏, …… 上曰, 濟州奉命宣傳官權邁, 千里鯨濤, 善爲往返, 宜有嘉償之道, 自卿曹陞六, 可, 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5일(정해[을유])

□ 제주(濟州)의 봉명 선전관(奉命宣傳官) 권매(權邁)를 승륙하라는 명을 내림

- 병신년 5월 15일 신시(申時)에 임금이 도수연(陶遂椽)⁴⁾에 나아갔다. 예방승지가 입시했을 때 좌승지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기사관 박성현(朴聖鉉)·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봉명 선전관(奉命宣傳官) 권매(權邁)가 천리 밖 경해를 잘 다녔으니 마땅히 보상하는 도리가 있어야 한다. 경조(卿曹)에서 승륙(陞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물러나라고 명하자 제신(諸臣)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제주, 봉명선전관, 권매, 승륙.

4) 도수연(陶遂椽): 태령전(泰寧殿) 곁에 재실(齋室)을 세우고 편액을 ‘도수연(陶遂椽)’이라 하였다. 《정조실록》 1776년(정조 즉위) 5월 15일 기사.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六日 戊子[丙戌]

- 丙申五月十六日辰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陽澤,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仁陽君李景祐, 行司直具善復, 行司直蔡濟恭, 行戶曹判書鄭弘淳, 漢城判尹金鍾正, 行吏曹判書徐命善, 左參贊黃景源, 禮曹判書鄭尙淳, 兵曹判書李徽之, 刑曹判書李滄, 行護軍張志恒, 行副護軍李漢膺, 行副<護>軍李柱國, 禮曹參判沈履之, 漢城左尹金魯鎮, 行副司直鄭一祥,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洪億, 應教李敬養, 掌令柳榮鎮·鄭宇淳, 獻納李儒慶, 正言洪樂淵·姜愼, 行都承旨徐浩修, 假注書徐龍輔, 事變假注書魚錫光, 記事官朴聖鉉·朴祐源, 以次進伏訖, …… 聖圭·億·榮鎮·宇淳·儒慶·樂淵·愼啓曰, 請大靜縣薦棘罪人沈翔雲, 亟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6일(무자[병술])

- 대신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죄인 심상운(沈翔雲),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해 줄 것을 요청함
- 병신년 5월 16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인양군(仁陽君) 이경호(李景祐), 행 사직 구선복(具善復), 행 사직 채제공(蔡濟恭),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한성판윤 김중정(金鍾正), 행 이조판서 서명선(徐命善), 좌참찬 황경원(黃景源),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형조판서 이연(李滄), 행 호군 장지항(張志恒), 행 부호군 이한웅(李漢膺), 행 부호군 이주국(李柱國),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한성좌윤 김노진(金魯鎮), 행 부사직 정일상(鄭一祥),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대사간 홍억(洪億), 응교 이경양(李敬養), 장령 유영진(柳榮鎮)·정우순(鄭宇淳),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 행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사변가주서 어석광(魚錫光), 기사관 박성현(朴聖鉉)·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성규·홍억·유영진·정우순·이유경·홍낙연·강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

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고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七日 己丑[丁亥]

-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洪櫓, 掌令柳榮鎭·鄭宇淳, 獻納李儒慶, 正言洪樂淵·姜儉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聖國·尙魯諸子, 亟施當律,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7일(기축[정해])

□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다시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할 것을 호소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대사간 홍익(洪櫓),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문성국(文聖國)·김상로(金尙魯)의 여러 아들에게 마땅한 율문을 적용하여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문성국, 김상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七日 己丑[丁亥]

- 大司憲李聖圭, 掌令柳榮鎭·鄭宇淳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又啓曰, 請鏡城府定配罪人洪述海, 依律處斷.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7일(기축[정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호소한 사헌부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경성부(鏡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덕창, 홍술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七日 己丑[丁亥]

- 獻納李儒慶, 正言洪樂淵·姜愼啓曰, 請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答新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7일(기축[정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심문하고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간원의 계

-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청컨대,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새로운 계(啓)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덕창.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八日 庚寅[戊子]

-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洪億, 掌令柳榮鎮·鄭宇淳, 持平朴在源, 獻納李儒慶, 正言洪樂淵·姜愼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 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道王章之理者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合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8일(경인[무자])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올문에 따라 무겁게 처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대사간 홍억(洪億),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 지평 박재원(朴在源),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검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합계에 대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八日 庚寅[戊子]

- 持平朴在源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府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8일(경인[무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호소한 헌부와 간원의 계

- 지평 박재원(朴在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헌부와 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덕창.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九日 辛卯[己丑]

- 大司憲李聖圭, 掌令柳榮鎭, 持平朴在源, 獻納李儒慶, 正言洪樂淵·姜愼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 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者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9일(신묘[기축])

- 大靜縣(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올문에 따라 무겁게 처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大司憲 이성규(李聖圭), 掌令 유영진(柳榮鎭), 지평 박재원(朴在源),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검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시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시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大靜縣(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大靜縣, 심상운,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九日 辛卯[己丑]

- 大司憲李聖圭, 掌令柳榮鎭, 持平朴在源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請大靜縣爲奴罪入金壽賢, 依律處斷. 答府啓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9일(신묘[기축])

□ 죄인 조덕창(趙德昌)과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장령 유영진(柳榮鎭), 지평 박재원(朴在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덕창.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十九日 辛卯[己丑]

- 獻納李儒慶, 正言洪榮淵·姜愼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答院啓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19일(신묘[기축])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홍영연(洪榮淵)·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日 壬申[庚寅]

- 丙申五月二十日未時, 上御廬次, 藥房副提調持湯劑入侍時, 副提調洪國榮, 記事官尹翊東, 記事官文采五, 記事官朴祐源, 醫官方泰興, 以次進伏訖, …… 又命書傳教曰, 今覽濟州御史下陸狀聞, 此先大王宵旰憂慮, 至於三月初四日之夕, 而諄諄不置于聖衷者也, 顧予小子之慟, 益復如新, 以先大王之靈, 屢萬島民, 幸免顛連, 奉命繡衣, 萬里無恙, 還朝後御史陞資, 守宰之賞典, 卽是先大王遺意, 濟州監賑御史柳燾, 特授通政之資, 牧使柳懋, 表裏賞給, 大靜縣監韓東岳, 旌義縣監任光鉉, 各賜弦弓一張, 使島民知先大王南顧夙宵之憂念事, 下諭,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0일(임신[경인])

□ 제주어사(濟州御史) 장계를 보고 관련자들에게 상전(賞典)을 내림

- 병신년 5월 20일 미시(未時)에 임금이 여차(廬次)로 나아갔다. 약방 부제조 탕제를 가지고 입시했을 때 부제조 홍국영(洪國榮), 기사관 윤익동(尹翊東), 기사관 문채오(文采五), 기사관 박우원(朴祐源), 의관 방태여(方泰興)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전교(傳敎)를 쓰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지금 제주어사(濟州御史)가 육지에 올라 장계한 것을 보니, 이는 선대왕께서 낮이나 밤이나 우려하시어, 3월 초4일 저녁까지 순순하게 말씀하시며 성충(聖衷)에 잊어버리지 못하시던 일이다. 돌아보건대 나 소자(小子)의 애통이 다시 더욱 새로 위지게 된다. 선대왕의 명령에 의해 수만 명의 도민(島民)이 구렁에 뒹구는 것을 다행히 면하게 되었고, 명을 받은 수의(繡衣)도 만리의 길에 탈이 없었다. 조정에 돌아온 다음에 어사는 자급을 올려주고, 수재(守宰)에게 상전(賞典)을 내리는 것이 곧 선대왕이 남기신 뜻이다. 제주 감진어사(監賑御史) 유강(柳燾)에게는 특별히 통정대부의 자급을 주고, 목사 유혁(柳懋)⁵⁾에게는 표리로 상을 주고, 대정현감(大靜縣監) 한동악(韓東岳)과 정의현감(旌義縣監) 임광현(任光鉉)에게는 각각 현궁(弦弓) 1장 씩을 내려 도민들이 선대왕께서 남쪽을 돌아보시며 밤낮으로 우려하시며 생각하신 것을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⁶⁾ <하략>.

5) 유혁(1710~1781):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휘숙(輝叔), 시호는 정간(靖簡), 1710년(숙종 36) 무과 급제. 칠산부사, 전라병사, 제주목사 역임.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775년(영조 51) 2월~1777년(정조 1) 3월.

6) 《정조실록》 1776년(정조 즉위) 5월 20일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됨.

△ 주제어: 제주어사, 제주 감진어사, 유혁, 한동악, 임광현, 유강, 대정현감, 정의현감.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日 壬申[庚寅]

- 丙申五月二十日申時, 上御廬次, 禮曹判書·禁府都事·坐直承旨, 同爲入侍時, 禮曹判書鄭尙淳, 禁府都事洪益烈, 右副承旨申大升, 記事官尹翊東, 記事官文采五, 記事官朴祐源, 以次進伏訖, 上命益烈進前曰, 自黑山島, 入大靜乎? 益烈曰, 然矣, 上曰, 翔雲之言語, 居處行動, 詳察乎? 益烈曰, 不問於渠, 何以知之? 而以所見言之, 幾至死境矣, 上曰, 何以如此乎? 益烈曰, 濟州則無如此罪人, 顧見之事矣, 上曰, 泰淵見之乎? 益烈曰, 候風海南時, 適值其來, 故見之矣, 上曰, 罪人會者, 幾何? 益烈曰, 尙魯之子, 相老之妻, 德師之弟皆來到, 而臣則不可與諸逆種同船, 故與李趾和押去罪人, 同船入去矣, 上曰, 候風所幾處乎? 益烈曰, 黑山島·濟州合五處矣, 上曰, 翔雲與其弟, 同在乎? 益烈曰, 法則不可同在, 而渠輩則同在云矣, 上曰, 往返日子, 幾何乎? 益烈曰, 四月初五日離發, 今日始還來矣, 益烈先退,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0일(임신[경인])

□ 심상운(沈翔雲) 등 제주(濟州)에 압송된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 의금부 도사에게 질의함

- 병신년 5월 20일 신시(申時)에 임금이 여차(廬次)로 나아갔다. 예조판서·금부도사·좌직 승지가 함께 입시했을 때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금부도사 홍익열(洪益烈), 우부승지 신대승(申大升), 기사관 윤익동(尹翊東), 기사관 문채오(文采五), 기사관 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임금이 홍익열을 앞으로 다가오도록 하여 말하기를, “흑산도(黑山島)에서 대정(大靜)으로 들어갔는가?”라고 하였다. 홍익열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심상운(沈翔雲)의 말, 거처, 행동을 자세히 살폈는가?”라고 하였다. 홍익열이 말하기를, “그에게 묻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본 것으로 말하자면 거의 사경(死境)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째서 그런가?”라고 하였다. 홍익열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이런 죄인을 돌봐주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태연(尹泰淵)은 보았는가?”라고 하였다. 홍익열이 말하기를, “해남에서 바람을 기다릴 때 마침 그가 오기에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인 죄인이 몇이었는가?”라고 하였다. 홍익열이 말하기를, “상로(尙魯)의 아들, 상노(相老)의 처, 덕사(德師)의 아우 모두 당도했으나 저는 역종(逆種)들과 같은 배에 탈 수 없어 이지화(李趾和)

和)와 함께 죄인을 압송해 가고 같은 배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몇 군데서 바람 때를 기다렸는가?”라고 하였다. 홍익열이 말하기를, “흑산도·제주 합해 5곳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심상운과 그 아우가 함께 있었는가?”라고 하였다. 홍익열이 말하기를, “법으로는 함께 있을 수 없지만 그들은 함께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녀온 날짜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였다. 홍익열이 말하기를, “4월 초5일에 떠나 오늘 비로소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다. 홍익열은 먼저 물러났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심상운, 홍익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二日 甲午[壬辰]

- 柳憲啓曰, 濟州牧使柳懞罪人沈翔雲圍離安置啓本中, 正言宋煥億之億字, 以德字書之, 莫重奏御文此[文字], 有此誤書, 事甚未安, 依定式,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2일(갑오[임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혁(柳懞)의 장계에 오자가 있으므로 추고하여 문책하라는 유당의 계
- 유당(柳憲)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혁(柳懞)이 올린 「죄인 심상운(沈翔雲) 위리안치(圍離安置) 계본(啓本)」 중 정언 송환억(宋煥億)의 억(億) 자를 덕(德) 자로 썼습니다. 임금께 상주하는 막중한 문서를 이처럼 잘못 썼으니 일이 매우 미안합니다. 정식(定式)에 따라 추고하고 경계하여 문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혁, 심상운, 위리안치.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二日 甲午[壬辰]

- 洪國榮, 以吏曹言啓曰, 濟州監賑御史柳燾, 特授通政之資事, 命下矣, 柳燾雖已資窮, 未經準職, 何以爲之? 敢稟, 傳曰, 超授通政之階.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2일(갑오[임진])

□ 제주(濟州) 감진어사(監賑御史) 유강(柳燾)에게 통정(通政)을 제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 홍국영(洪國榮)이 이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 감진어사(監賑御史) 유강(柳燾)에게 특별히 통정(通政)의 자급을 제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강은 비록 이미 자궁(資窮)이나 그에 준하는 관직을 거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자급을 뛰어넘어 통정 품계를 제수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감진어사, 유강, 통정.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二日 甲午[壬辰]

- 又以刑曹言啓曰, 申光純·金應賢, 竝徒配事, 親承下教矣, 依下教, 罪人申光純全羅道康津縣古今島, 金應賢濟州牧旌義縣, 竝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捉船之際, 民弊多端, 嘗聞押去都事之說, 配則一也, 以邊遠, 更定配所以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2일(갑오[임진])

□ 신광순(申光純)·김응현(金應賢)의 배소를 변원(邊遠)으로 정하라는 명을 내림

- 또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신광순(申光純)·김응현(金應賢)을 함께 도배(徒配)하라는 하교를 받았습니다. 하교에 따라 죄인 신광순을 전라도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 김응현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으로 아울러 배소를 정하고 즉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배를 잡을 때 민폐가 많다 한다. 일찍이 압송해 가는 도사(都事)의 말을 들었다. 유배는 마찬가지로이니 변원(邊遠)으로 다시 배소를 정해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고금도, 신광순, 김응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二日 甲午[壬辰]

- 丙申五月二十二日辰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仁陽君李景祐, 行司直具善復·蔡濟恭, 判尹金鍾正, 行吏曹判書徐命善, 行副司直金漢耆, 禮曹判書鄭尙淳, 兵曹判書李徽之, 刑曹判書李滄, 行副護軍張志恒·李漢膺, 戶曹參判金華鎮, 禮曹參判沈履之, 江華留守李瀾, 漢城左尹金魯鎮, 行副護軍鄭一祥, 大司憲李聖圭, 掌令柳榮鎮·鄭宇淳, 持平朴在源, 獻納李儒慶, 正言姜儉·洪樂淵, 校理尹弘烈, 行都承旨徐浩修, 假注書柳孟養, 事變假注書朴廣源, 記事官文采五·朴祐源, 以次進伏訖, …… 聖圭·榮鎮·宇淳·在源·儒慶·樂淵·儉等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聖圭等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儒慶等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2일(갑오[임진])

□ 죄인 심상운(沈翔雲),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건의한 대신들의 계

- 병신년 5월 22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引見)하여 입시했을 때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인양군(仁陽君) 이경호(李景祐), 행 사직 구선복(具善復)·채제공(蔡濟恭), 판윤 김종정(金鍾正), 행 이조판서 서명선(徐命善), 행 부사직 김한기(金漢耆),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병조판서 이회지(李徽之), 형조판서 이연(李滄), 행 부호군 장지항(張志恒)·이한웅(李漢膺), 호조참판 김화진(金華鎮),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강화유수 이미(李瀾), 한성좌윤 김노진(金魯鎮), 행 부호군 정일상(鄭一祥),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장령 유영진(柳榮鎮)·정우순(鄭宇淳), 지평 박재원(朴在源),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강인(姜儉)·홍낙연(洪樂淵), 교리 윤홍열(尹弘烈), 행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사변가주서 박광원(朴廣源), 기사관 문채오(文采五)·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성규·유영진·정우순·박재원·이유경·홍낙연·강인 등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

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성규 등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유경 등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二日 甲午[壬辰]

- 丙申五月二十四日申時, 上御廬次, 同副承旨·玉堂上下番同爲入侍時, 校理徐有防, 修撰柳義養, 同副承旨柳憲, 假注書柳孟養, 記事官文采五·朴祐源,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監賑御史柳燭, 時無職名, 令該曹口傳付軍職入侍, 【出傳教】命退去, 諸臣以次出.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2일(갑오[임진])

□ 제주(濟州) 감진어사(監賑御史) 유강(柳燭)을 군직에 부직하여 입시하게 하라는 전교를 냄

- 병신년 5월 24일 신시(申時)에 임금이 여차(廬次)에 나아갔다. 동부승지·옥당상하번이 함께 입시했을 때 교리 서유방(徐有防), 수찬 유의양(柳義養), 동부승지 유당(柳憲),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문채오(文采五)·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감진어사(監賑御史) 유강(柳燭)이 현재 직명(職名)이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군직에 부직하게 하여 입시(入侍)하라.”라고 하였다. 【전교를 냄】 물러날 것을 명하자 대신들이 차례로 나왔다.

△ 주제어: 제주 감진어사, 유강, 군직.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二日 甲午[壬辰]

- 又以禮曹言啓曰, 昨年八月二十三日, 傳曰, 嗚呼, 昔年爲耽羅濟恤, 卽予仰觀, 今雖八旬, 此心敢馳, 今聞狀聞, 予心, 若何? 詳察農形, 拯濟之方, 莫敢忽焉, 凡諸朔膳, 減半封進, 以示予意事, 命下矣, 今則麥農已登, 又爲撤賑, 本牧所封朔膳, 依例復舊, 封進之意, 敢啓, 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2일(갑오[임진])

□ 탐라(耽羅)의 진휼을 위해 반으로 줄여 봉진했던 삭선을 예전대로 복구하겠다는 예조의 계

- 또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작년 8월 23일 전교하기를, ‘아아, 예전에 탐라(耽羅)를 위해 제휼(濟恤)한 일을 내가 살펴보고 지금 비록 팔순이지만 이 마음이 감히 치달렸는데, 지금 장계한 것을 들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농형(農形)을 상세히 살펴서 구제할 방침을 소홀히 하지 말라. 무릇 모든 삭선(朔膳)은 반으로 줄여 봉진하여 내 뜻을 보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보리농사가 이미 한창인데 또 진휼을 철수했으니 본 제주목(濟州牧)이 봉진하는 삭선은 예전대로 복구하여 봉진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 분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삭선, 제휼.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四日 丙申[甲午]

- 丙申五月二十四日申時, 上御廬次, 同副承旨·玉堂上下番同爲入侍時, 校理徐有防, 修撰柳義養, 同副承旨柳憲, 假注書柳孟養, 記事官文采五·朴祐源,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監賑御史柳燭, 時無職名, 令該曹口傳付軍職入侍, 【出傳教】命退去, 諸臣以次出.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4일(병신[갑오])

□ 제주(濟州) 감진어사(監賑御史) 유강(柳燭)을 군직에 부직하여 입시하게 하라는 전교를 냄

- 병신년 5월 24일 신시(申時)에 임금이 여차(廬次)에 나아갔다. 동부승지·옥당상하번이 함께 입시했을 때 교리 서유방(徐有防), 수찬 유의양(柳義養), 동부승지 유당(柳憲),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문채오(文采五)·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감진어사(監賑御史) 유강(柳燭)이 현재 직명(職名)이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군직에 부직하여 입시(入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전교를 냄】 물러날 것을 명하자 대신들이 차례로 나왔다.

△ 주제어: 제주 감진어사, 유강, 군직.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四日 丙申[甲午]

- 丙申五月二十四日酉時, 上御廬次, 左承旨濟州御史同爲入侍時, 御史柳爛, 左承旨洪國榮, 假注書柳孟養, 記事官文采五·朴祐源, 以次進伏訖, 上曰, 見御史, 掩抑無言矣, 萬里銜命, 屢經危渡, 何以往還乎? 爛對曰, 王靈攸暨, 無事往來矣, 上曰, 島中無連瘡之患乎? 爛對曰, 連爲督運, 救活飢民, 故春夏之間, 僅免顛連之患矣, 上曰, 明日次對, 持書啓更爲入侍, 御史先退, 命國榮, 讀洪億疏訖, 命退去, 諸臣以次出.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4일(병신[갑오])

□ 대신이 입시한 자리에서 제주어사(濟州御史) 유강(柳爛)을 불러 진홀 상황을 아뢰게 함

- 병신년 5월 24일 유시(酉時)에 임금이 여차(廬次)에 나아갔다. 좌승지·제주어사(濟州御史)가 함께 입시했을 때 어사 유강(柳爛), 좌승지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문채오(文采五)·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를 보니 울음을 참으며 말이 없다. 만 리에 명령을 받들어 여러 번 위태롭게 바다를 건너면서 어떻게 다녀왔는가?”라고 하였다. 유강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은덕 덕택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섬 안에서 굶주릴 우려는 없었는가?”라고 하였다. 유강이 대답하기를, “계속 독운(督運)하여 주린 백성을 구할했으므로 봄여름 사이에 가까스로 주릴 걱정을 면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차대(次對)에 서계를 가지고 다시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어사가 먼저 물러났다. 홍국영에게 명하여 홍억(洪億)의 소(疏)를 읽게 하고 마쳤다. 물러갈 것을 명하자 대신들이 차례로 나왔다.

△ 주제어: 제주어사, 유강, 독운, 구할.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五日 丁酉[乙未]

- 丙申五月二十五日辰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陽澤,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行司直具善復·蔡濟恭, 判尹金鍾正, 行兵曹判書徐命善, 左參贊黃景源, 行副司直金漢耆, 禮曹判書鄭尙淳, 刑曹 <判書> 李滄, 行副護軍張志恒·李柱國·李漢膺, 禮曹參判沈履之, 行副司直徐有隣, 開城留守宋淳明, 左尹金魯鎮, 行副司 <直> 鄭一祥, 副校理徐有防, 行都承旨徐浩修, 假注書柳孟養, 事變假注書朴廣源, 記事官文采五·朴祐源,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御史柳炯入侍, 【出榻教】柳炯進前, 上曰, 以先大王德意, 賑恤島氓, 能無連瘠之患否? 炯對曰, 督運之穀既多, 故僅免連瘠矣, 上曰, 因山時濟民, 或有赴役者乎? 炯對曰, 今方連續出來矣, 上曰, 何時奉諱乎? 對曰, 三月十七日奉諱矣, 浩修曰, 江華民九十六名, 自今日, 赴役於山陵云矣, 上曰, 濟州弊瘼, 何如? 炯對曰, 別無他弊, 而民多穀少, 此大可悶者也,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5일(정유[을미])

□ 제주어사(濟州御史) 유강(柳炯)을 입시하게 하여 제주의 진휼 상황 등을 논의함

- 병신년 5월 25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행 사직 구선복(具善復)·채제공(蔡濟恭), 판윤 김중정(金鍾正), 행 병조판서 서명선(徐命善), 좌참찬 황경원(黃景源), 행 부사직 김한기(金漢耆),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형조판서 이연(李滄), 행 부호군 장지항(張志恒)·이주국(李柱國)·이한응(李漢膺),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행 부사직 서유린(徐有隣), 개성유수 송순명(宋淳明), 좌윤 김노진(金魯鎭), 행 부사직 정일상(鄭一祥), 부교리 서유방(徐有防), 행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사변 가주서 박광원(朴廣源), 기사관 문채오(文采五)·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유강(柳炯)은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답교(出榻)를 냄】 유강이 앞으로 나아가자 임금이 말하기를, “선대왕의 덕의(德意)로 섬 주민을 진휼하는 데에 주릴 염려는 없었는가?”라고 하였다. 유강이 대답하기를, “독운(督運)한 곡식이 이미 많았으므로 가까스로 주릴 걱정을 면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능침을 만들 때 제주 백성 중에 혹 부역자가 있었는가?”라고 하였다.

유강이 대답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언제 봉휘(奉諱)했는가?”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3월 18일에 봉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서호수가 말하기를, “강화(江華) 백성 96명이 오늘부터 산릉(山陵)에 부역한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폐막(弊瘼)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유강이 대답하기를, “특별히 다른 폐단은 없습니다만 백성은 많고 곡식은 적으니 이 점이 매우 민망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유강, 독운, 부역.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五日 丁酉[乙未]

-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洪億, 掌令柳榮鎮·鄭宇淳, 持平朴在源, 獻納李儒慶, 正言洪樂淵·姜愼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又啓曰, 聖國·尙魯諸子, 亟施當律,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5일(정유[을미])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다시 심문하여 국법을 적용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대사간 홍억(洪億),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 지평 박재원(朴在源),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문성국(文聖國)·김상로(金尙魯)의 여러 아들에게 마땅한 율문을 적용하여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五日 丁酉[乙未]

- 大司憲李聖圭, 掌令柳榮鎭·鄭宇淳, 持平朴在源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5일(정유[을미])

□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 지평 박재원(朴在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흑산도, 조덕창,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五日 丁酉[乙未]

- 大司諫洪億, 獻納李儒慶, 正言洪樂淵·姜愼啓曰, 請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5일(정유[을미])

□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대사간 홍익(洪億),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청컨대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에 명하여 붙잡아 엄히 심문하고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조덕창, 김수현, 충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六日 戊戌[丙申]

-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洪櫓, 掌令柳榮鎭·鄭宇淳, 持平朴在源, 正言洪樂淵·姜儉所啓,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又啓曰, 請聖國·尙魯諸子, 亟施當律, 【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6일(무술[병신])

- 심상운(沈翔雲)과 문성국(文聖國)·김상로(金尙魯)의 아들 등에게 마땅한 율문을 적용하여 시행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대사간 홍익(洪櫓),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 지평 박재원(朴在源),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沈翔雲)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문성국(文聖國)·김상로(金尙魯)의 여러 아들에게 마땅한 율문을 적용하여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문성국, 김상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六日 戊戌[丙申]

- 持平朴在源所啓,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措辭見上】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又啓曰, 請鏡城府定配罪人洪述海, 依律處斷, 【措辭見上】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6일(무술[병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 지평 박재원의 계

- 지평 박재원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경성부(鏡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흑산도, 경성부, 김수현, 홍술해, 조덕창.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六日 戊戌[丙申]

- 正言洪樂淵·姜愼所啓, 請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6일(무술[병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조덕창(趙德昌) 등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청컨대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히 심문하게 하고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덕창, 충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七日 己亥[丁酉]

- …… 正言洪樂淵·姜愼啓曰, 荐棘罪人沈翔雲, 本以凶孽之裔, 且兼妖邪之性, 得罪倫紀, 爲世所棄, 蝨附厚謙, 受其指使, 向來一書, 指意陰譎, 情狀叵測, 合辭之請, 實是嚴懲討杜亂源之意, 而閱歲爭執, 天討未舉, 世豈有妖惡如此, 而終追王章之理哉? 移配之命, 雖出於投諸遠惡之意, 而三尺至嚴, 不可至此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沈翔雲, 亟命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答三司, 不<允>, 具廣事亟停勿煩, 沈翔雲事, 已下教矣, 答兩司曰, 不允, 答府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7일(기해[정유])

□ 죄인 심상운(沈翔雲), 김수현(金壽賢) 등에게 마땅한 율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라는 정언 홍낙연(洪樂淵) 등의 계

- 〈상략〉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위리안치된 죄인 심상운(沈翔雲)은 본래 흉도의 후예인데, 또 요사하고 간사한 성품을 검비하여 윤기(倫紀)의 죄를 짓고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정후겸(鄭厚謙)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그의 사주를 받았습시다. 지난번에 썼던 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의도가 음흉스럽고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시다. 합사(合辭)하여 청한 것은 실로 엄히 징계하여 토벌하고 치란의 근원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가 넘도록 간쟁했는데도 처형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요사한 악행이 이와 같은데 국법을 끝내 모면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배(移配)하라는 명령은 비록 원악지(遠惡地)로 던져버리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지엄한 국법으로 볼 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심상운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

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삼사(三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구익(具翼)의 일은 빨리 논의를 중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심상운의 일은 이미 하교(下敎)하였다.”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헌부와 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심상운,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八日 戊戌

- 丙申五月二十八日辰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陽澤,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仁陽君李景祐, 行司直具善復, 行司直蔡濟恭, 判尹金鍾正, 左參贊黃景源, 行副司直金漢耆, 禮曹判書鄭尙淳, 兵曹判書李徽之, 刑曹判書李滄, 行副護軍張志恒, 行副護軍李漢膺, 行副護軍李柱國, 禮曹參判沈履之, 行副司直權導, 行副司直徐有隣, 江華留守李瀾, 漢城左尹金魯鎮, 行副司直鄭一祥, 大司諫洪億, 掌令柳榮鎮·鄭宇淳, 獻納李儒慶, 持平朴在源, 正言洪樂淵·姜愼, 校理沈豐之, 行都承旨徐浩修, 假注書徐龍輔, 事變假注書朴廣源, 記事官文采五·朴祐源, 以次進伏訖, …… 億·榮鎮·宇淳·儒慶·在源·樂淵·愼·豐之啓曰, 請文女按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8일(무술)

□ 문녀(文女),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대사간 홍억(洪億) 등의 계

- 병신년 5월 28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인양군 이경호(李景祐), 행 사직 구선복(具善復), 행 사직 채제공(蔡濟恭), 판윤 김종정(金鍾正), 좌참찬 황경원(黃景源), 행 부사직 김한기(金漢耆),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형조판서 이연(李滄), 행 부호군 장지항(張志恒), 행 부호군 이한웅(李漢膺), 행 부호군 이주국(李柱國),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행 부사직 권도(權導), 행 부사직 서유린(徐有隣), 강화유수 이미(李瀾), 한성좌윤 김노진(金魯鎭), 행 부사직 정일상(鄭一祥), 대사간 홍억(洪億),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 헌납 이유경(李儒慶), 지평 박재원(朴在源),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 교리 심풍지(沈豐之), 행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사변가주서 박광원(朴廣源), 기사관 문채오(文采五)·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홍억·유영진·정우순·이유경·박재원·홍낙연·강인·심풍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문녀(文女)7)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

7) 문녀(文女): 숙의(淑儀) 문씨.

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문녀.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九日 辛丑[己亥]

- 掌令鄭宇淳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事,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事, 又啓曰, 請鏡城府定配罪人洪述海, 依律處斷事, 又啓曰, 請東萊府定配罪人元義孫,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9일(신축[기해])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원의손(元義孫) 등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정우순(鄭宇淳)의 계
- 장령 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경성부(鏡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술해(洪述海)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동래부(東萊府)에 정배된 죄인 원의손(元義孫)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흑산도, 대정현, 경성부, 동래부, 조덕창, 김수현, 홍술해, 원의손.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五月 二十九日 辛丑[己亥]

- 正言姜儉啓曰, 請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事, …… 又啓曰, <請>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5월 29일(신축[기해])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儉)의 계
- 정언 강인(姜儉)이 아뢰기를, “청컨대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히 심문하게 하고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조덕창,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一日 庚子

- 掌令柳榮鎭·鄭宇淳啓曰, ……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일(경자)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유영진(柳榮鎭)·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중략〉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이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관.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一日 庚子

- 獻納李儒慶, 正言洪樂淵·姜愼啓曰,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간원의 계

-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홍낙연(洪樂淵)·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二日 辛丑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2일(신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二日 辛丑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2일(신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三日 壬寅

- 持平趙德潤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昌德, 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曰, 請鏡城府定配罪人洪述海, 依律處斷. 指辭見上 又啓曰, 請東萊府定配罪人元義孫,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3일(임인)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원의손(元義孫) 등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조덕윤(趙德潤)의 계
- 지평 조덕윤(趙德潤)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경성부(鏡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술해(洪述海)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동래부(東萊府)에 정배된 죄인 원의손(元義孫)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흑산도, 대정현, 경성부, 조덕창, 김수현, 원의손.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三日 壬寅

- 司諫李在學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 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3일(임인)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의거하여 처단하라는 사간 이재학(李在學)의 계
- 사간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흑산도, 대정현, 조덕창,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四日 癸卯

- 掌令柳榮鎭所啓,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4일(계묘)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의거하여 처단하라는 장령 유영진(柳榮鎭)의 계
- 장령 유영진(柳榮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흑산도, 대정현, 조덕창,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四日 癸卯

- 正言姜儔所啓, 請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斷, 【措辭見上】又啓曰, 請南海縣圍籬按置[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鞫得情, 決正王法,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人,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4일(계묘)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儔)의 계

- 정언 강인(姜儔)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조덕창,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五日 甲辰

- 掌令鄭宇淳所啓,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5일(갑진)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엄중히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정우순(鄭宇淳)의 계
- 장령 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조덕창,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五日 甲辰

- 獻納李儒慶所啓, 請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5일(갑진)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이유경(李儒慶)의 계
- 헌납 이유경(李儒慶)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조덕창,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六日 乙巳

- 執義李一曾所啓, ……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6일(을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의거하여 처단하라는 집의 이일증(李一曾)의 계

- 집의 이일증(李一曾)이 아뢰기를, “〈중략〉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이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일증.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六日 乙巳

- 正言姜儔所啓,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6일(을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의거하여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儔)의 계

- 정언 강인(姜儔)이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八日 丁丑[丁未]

- 又傳于曰, 庚子丁丑年濟州民赴役, 只有賞給之例, 今番亦來云, 其數, 幾何? 赴役後來待事, 分付山陵都監.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8일(정축[정미])

□ 제주민(濟州民)이 부역한 후 대령하게 하라는 전교

- 또 전교하기를, “경자·정축년 제주민(濟州民)의 부역은 단지 상을 준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또 온다고 하는데 그 수는 몇인가? 부역 후에 와서 대령하도록 산릉도감에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민, 부역, 산릉도감.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九日 戊申

- 全羅監司狀啓, 濟州漂失馬更爲擇定進貢事狀啓, 傳曰, 漂失馬三十匹勿爲更封事, 回諭.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9일(무신)

□ 제주(濟州) 표실마(漂失馬)를 다시 봉진하겠다는 전라감사의 장계에 대해 다시 봉진하지 말라고 전교함

- 전라감사의 장계에, “제주(濟州)에서 표류하다 잃어버린 표실마(漂失馬)를 다시 골라서 정하여 진공(進貢)하겠다는 장계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표실마 30필은 다시 봉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표실마, 진공.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九日 戊申

- 丙申六月初九日巳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陽澤,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仁陽君李景祐, 行司直蔡濟恭,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吏曹判書徐命善, 左參贊黃景源, 行司直金漢耆, 行副護軍張志恒, 行副護軍李柱國, 漢城左尹尹得養, 行副護軍李漢膺, 禮曹參判沈履之, 行副司直徐有隣, 漢城右尹金魯鎮, 行副司直鄭一祥, 執義鄭一曾, 掌令柳榮鎮·鄭宇淳, 持平李濟萬·趙德潤, 司諫李在學, 獻納李儒慶, 正言姜儉, 校理朴天衡, 行都承旨徐浩修, 假注書徐龍輔, 事變假注書吳翰源,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朴祐源, 以次進伏訖, …… 陽澤曰, 濟州監賑御史柳燾狀啓中, 優老食物之需, 儒武賞格之資, 依前例請令監·兵水使措備入送, 而未幾聞國恤之報, 蒼黃還朝, 此等所請之物, 當在無論中, 置之,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9일(무신)

□ 제주(濟州) 감진어사(監賑御史)가 요청한 물자의 지급 여부에 대한 영의정 김양택(金陽澤)의 계

- 병신년 6월 초9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인양군 이경호(李景祐), 행 사직 채제공(蔡濟恭),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이조판서 서명선(徐命善), 좌참찬 황경원(黃景源), 행 사직 김한기(金漢耆), 행 부호군 장지항(張志恒), 행 부호군 이주국(李柱國), 한성좌윤 윤득양(尹得養), 행 부호군 이한웅(李漢膺),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행 부사직 서유린(徐有隣), 한성우윤 김노진(金魯鎮), 행 부사직 정일상(鄭一祥), 집의 정일증(鄭一曾), 장령 유영진(柳榮鎮)·정우순(鄭宇淳), 지평 이제만(李濟萬)·조덕윤(趙德潤), 사간 이재학(李在學), 헌납 이유경(李儒慶), 정언 강인(姜儉), 교리 박천형(朴天衡), 행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사변 가주서 오한원(吳翰源),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양택이 말하기를, “제주 감진어사(濟州監賑御史) 유강(柳燾)이 장계로 우로(優老)를 위해 필요한 식품, 유무(儒武)의 상으로 지급할 물자를 전례(前例)에 따라 영감(令監)·병수사(兵水使)로 하여금 마련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했는데, 얼마 안 되어 국휼(國恤) 소식

을 듣고 허겁지겁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청한 이들 물품은 논할 것이 없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 감진어사, 유강, 우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九日 戊申

- 丙申六月初九日初更三點, 上御廬次, 坐直承旨・騎堂同爲入侍時, 兵曹參知柳炯, 同副承旨柳憲, 假注書柳孟養,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朴祐源, 以次進伏訖, …… 上曰, 近日門禁, 何如? 炯對曰, 着實申飭, 故門禁頗嚴矣, …… 上曰, 今年濟州麥農, 何如? 對曰, 僅免凶矣, 上曰, 試才不得爲而來乎? 對曰, 非其時, 故不得爲之矣, 上曰, 風俗, 何如? 對曰, 異於所聞, 向上之誠, 非蠻鄉島俗矣, 上曰, 全伯狀啓見之, 則濟州船漂沒云, 慘矣, 憲曰, 十人淹死云矣, 命騎堂先退,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9일(무신)

□ 임금이 보리농사, 풍속 등 제주(濟州)의 상황을 승지・당상 등과 논의함

- 병신년 6월 초9일 초경 3점에 임금이 여차(廬次)로 나아갔다. 좌직(坐直) 승지・병조 당상이 함께 입시했을 때 병조참지 유강(柳炯), 동부승지 유당(柳憲),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요사이 문금(門禁)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유강이 대답하기를, “착실히 신칙한 까닭에 문금이 자못 엄격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올해 제주(濟州)의 보리농사는 어떤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가까스로 흉황은 면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재(試才)는 하지 못하고 왔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때가 아니라서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풍속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들은 것과 달리 향상하려는 정성으로 변방이나 섬 풍속이 아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라감사의 장계를 보니 제주 선박이 표류하여 침몰했다고 하는데 애처롭다.”라고 하였다. 유당이 말하기를, “10인이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병조 당상은 먼저 물러갈 것을 명하였다. <하략>.

△ 주제어: 보리농사, 시재, 풍속.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日 己酉

- 持平李濟萬所啓,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斷, 【措辭見上】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0일(기유)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지평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흑산도, 조덕창,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日 己酉

- 司諫李在學所啓, 請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0일(기유)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청컨대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조덕창,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一日 庚戌

- 掌令鄭宇淳啓曰, …… 又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1일(경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관.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一日 庚戌

- 正言姜儔啓曰,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 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1일(경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儔)의 계

- 정언 강인(姜儔)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二日 辛亥

- 丙申六月十二日初更五點, 上御廬次, 坐直承旨入侍時, 同副承旨柳戇, 假注書柳孟養, 記事官卜台鎮·朴祐源, 以次進伏訖, 上命讀全羅道濟州人馬漂沒狀啓訖, 上曰, 人之渰死幾何, 馬之渰沒者幾何? 戇對曰, 人則只十人, 馬是一百疋, 命書傳教曰, 濟州貢馬領來民人渰死十名, 卽令該牧, 恤典舉行, 漂失船隻所載人物, 亦令星火搜訪之意, 備局發關, 嚴飭該道監兵使處, …… 上曰, 濟州民人赴役山陵者, 昔在先朝, 特示優恤, 若保之德音, 卽予嘗所仰聞者, 近聞濟州民人, 亦有赴役者云, 依丁丑年例, 糧饌從優題給, 因令明日奉命之臣勞問, 亦依庚子年例, 闕庭饋以酒果, 畢役後卽令待令事, 同爲宣諭, 【出傳教】上曰, 注書持此傳教, 明朝出去, 山陵勞問以來, 命書傳教曰, 觀此全羅監司狀啓, 濟州貢人馬, 因山時赴役民人渰死, 若是夥然, 聞甚慘然, 況赴役山陵乎? 其他漂失民人生沒與否, 更加星火, 知委沿海列邑, 卽爲探問狀啓事, 令備局罔夜分付該道監司, 其中渰死人屍體申飭拯出事, 同爲分付, 恤典亦令該牧加厚題給, 以示朝家矜憫之意,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2일(신해)

- 제주(濟州)의 공마(貢馬)를 이끌고 오던 인마, 산릉에 부역하려던 이들 중 표류하여 물에 빠져 죽은 이들을 위해 홀전을 거행하라는 전교를 내림
- 병신년 6월 12일 초경 5점에 임금이 여차(廬次)로 나아갔다. 좌직 승지가 입시켰을 때 동부승지 유당(柳戇),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복태진(卜台鎭)·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 부복하였다. 임금이 전라도 제주인마(濟州人馬) 표몰(漂沒) 장계(狀啓)를 읽으라고 명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몇이고, 말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몇인가?”라고 하였다. 유당이 대답하기를, “사람은 10인이고 말은 100필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를 쓰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제주의 공마(貢馬)를 이끌고 오던 민인(民人) 중 빠져 죽은 10명은 즉시 제주목으로 하여금 홀전(恤典)을 거행하게 하고, 표류하다 실종된 선박에 탄 인물은 조속히 수색하여 찾겠다는 뜻으로 비변사가 관문(關文)을 발해 해도(該道)의 감병사(監兵使)에게 엄히 신칙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민인으로서 산릉(山陵)에 부역한 자에 대해 선왕조에서 특별히 홀전을 거행하여 보호하는 덕음(德音)을 보인 것을 내 일찍이 들어왔다. 요사이

들으니 제주 민인 중 또 부역자가 있었다 한다. 정축년 사례에 의거하여 궐정(闕庭)에서 주과(酒果)를 대접하고, 작업이 끝난 후 즉시 대령하게 하라고 함께 선유(宣諭)하라.”고 하였다. 【전교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주서가 이 전교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산릉으로 나가서 위문하고 오라.”라고 하였다. 전교를 쓰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이번 전라감사의 장계를 보니 제주에서 공물을 바치려 오던 인마와 산릉에 부역하려던 민인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이처럼 많다고 하니, 듣고서 매우 안타까웠다. 하물며 산릉에 부역하던 이들이었음에랴. 그밖에 표류하다 실종된 민인의 생몰 여부를 다시 더욱 조속하게 연해 여러 고을로 하여금 즉시 탐문하여 장계를 올리도록, 비변사에 명하여 밤낮으로 해도(該道) 감사에게 분부하게 하라. 그중 빠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신척하여 건져내도록 하는 일도 함께 분부하라. 또 홀전 또한 해당 목(牧)으로 하여금 더욱 후하게 제급(題給)하여 조정이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인마, 홀전, 산릉, 부역.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二日 辛亥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2일(신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二日 辛亥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2일(신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三日 壬子

- 正言姜儔所啓,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3일(임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儔)의 계

- 정언 강인(姜儔)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三日 壬子

- 持平趙德潤所啓,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斷, 【措辭見上】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3일(임자)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지평 조윤덕(趙德潤)이 아뢰기를, “청컨대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조덕창, 김수현, 충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四日 癸丑

- 丙申六月十四日卯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陽澤,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仁陽君李景祐, 漢城判尹具善復, 行司直蔡濟恭,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司直金漢耆, 禮曹判書鄭尙淳, 兵曹判書李徽之, 刑曹判書李滄, 行副護軍李漢膺, 漢城左尹尹得養, 行副護軍李柱國, 戶曹參判金華鎮, 吏曹參判權導, 行副司直徐有隣, 行副司直鄭一祥, 大司諫洪億, 執義李一曾, 司諫李在學, 掌令柳榮鎮, 持平李濟萬·趙德潤, 副校理鄭宇淳, 正言姜愼, 行都承旨徐浩修, 假注書徐龍輔, 記事官卜台鎮·文采五, 以次進伏訖, …… 一曾·榮鎮·濟萬·德潤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4일(계축)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대신들의 계

- 병신년 6월 14일 묘시(卯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인양군 이경호(李景祐),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행 사직 채제공(蔡濟恭),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사직 김한기(金漢耆),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형조판서 이연(李滄), 행 부호군 이한응(李漢膺), 한성좌윤 윤득양(尹得養), 행 부호군 이주국(李柱國), 호조참판 김화진(金華鎮), 이조참판 권도(權導), 행 부사직 서유린(徐有隣), 행 부사직 정일상(鄭一祥), 대사간 홍억(洪億), 집의 이일증(李一曾), 사간 이재학(李在學), 장령 유영진(柳榮鎮), 지평 이제만(李濟萬)·조덕윤(趙德潤), 부교리 정우순(鄭宇淳), 정언 강인(姜愼), 행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기사관 복태진(卜台鎮)·문채오(文采五)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일증·유영진·이제만·조덕윤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흑산도, 조덕창,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五日 甲寅

- 掌令柳榮鎭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德昌依律處斷.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5일(갑인)

□ 죄인 조덕창(趙德昌),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유영진(柳榮鎭)의 계

- 장령 유영진(柳榮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충군된 죄인 조덕창(趙德昌)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흑산도, 조덕창,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五日 甲寅

- 司諫李在學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副司直洪龍漢爲先削職. 答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5일(갑인)

□ 죄인 구상(具庠),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사간 이재학(李在學)의 계

- 사간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부사직 홍용한(洪龍漢)을 우선 삭직(削職)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남해현, 구상,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六日 乙卯

- 持平李濟萬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 而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6일(을묘)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을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이제만(李濟萬)의 계

- 지평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을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제만.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六日 乙卯

- 正言姜儔啓曰,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6일(을묘)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儔)의 계

- 정언 강인(姜儔)이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七日 丙辰

- 丙申六月十七日卯時, 上御廬次, 藥房入診入侍時, 都提調鄭存謙, 提調徐命善, 副提調洪國榮, 假注書柳孟養, 記事官卜台鎮·文采五, 醫官慶絢·吳道炯·徐命緯,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人馬之多數漂沒, 極其驚慘, 命善曰, 貢馬最初漂沒時, 有勿封之教, 今番八十匹漂沒, 亦甚夥然, 此亦當有下教矣, 上曰, 然矣, 命書傳教曰, 貢馬八十匹漂失之代, 依初下教, 亦勿封進事, 分付濟州牧使,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7일(병진)

□ 제주 인마(濟州人馬)가 표몰(漂沒)한 것 때문에 공마를 봉진하지 말 것을 명하는 전교를 내림

- 병신년 6월 17일 묘시(卯時)에 임금이 여차(廬次)로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入診)하는 데에 입시했을 때 도제조 정존겸(鄭存謙), 제조 서명선(徐命善), 부제조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복태진(卜台鎭)·문채오(文采五), 의관 경순(慶絢)·오도형(吳道炯)·서명위(徐命緯)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인마(濟州人馬)가 다수 표몰(漂沒)한 것은 매우 놀랍고 안타깝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말하기를, “공마(貢馬)가 최초로 표몰했을 때 봉진하지 말라는 전교가 있었는데, 이번에 80필이 표몰한 것은 또한 그 수가 너무 많으니 이번에도 또한 하교를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라고 하였다. 전교를 쓰도록 명하고 이르기, “공마 80필을 표류하다 잃어버린 것은 최초 하교에 의거하여 또한 봉진하지 말도록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공마, 표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九日 戊午

- 正言姜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請副司直洪龍漢, 爲先削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9일(무오)

□ 죄인 구상(具庠),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儉)의 계

- 정언 강인(姜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부사직 홍용한(洪龍漢)을 우선 삭직(削職)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남해현, 구상,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十九日 戊午

- 持平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鏡城府定配罪人洪述海, 依律處斷. 請罪人金曄嚴刑島配,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19일(무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에 의거해 처단하라는 지평 이제만(李濟萬)의 계

- 지평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경성부(鏡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죄인 김엽(金曄)을 준엄하게 형벌하여 섬으로 유배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제만.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二十日 己未

- 持平趙德潤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20일(기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조덕윤(趙德潤)의 계

- 지평 조덕윤(趙德潤)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덕윤.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二十日 己未

- 正言姜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副司直洪龍漢, 爲先削職,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20일(기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정언 강인(姜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부사직 홍용한(洪龍漢)을 우선 삭직(削職)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남해현, 구상,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二十一日 庚申

- 持平趙德潤啓曰, 妖宦壽賢事, 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卽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 而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21일(경신)

□ 흥도들과 내통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조덕윤(趙德潤)의 계

- 지평 조덕윤(趙德潤)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흥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덕윤.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二十一日 庚申

- 正言姜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請副司直洪龍漢, 爲先削職.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21일(경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儉)의 계

- 정언 강인(姜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부사직 홍용한(洪龍漢)을 우선 삭직(削職)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남해현, 구상,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二十一日 庚申

- 丙申六月二十一日辰時，上御興政堂，守令・邊將初入仕入侍時，行都承旨徐浩修，左承旨洪國榮，右承旨金文淳，左副承旨李商巖，假注書徐龍輔，記事官卜台鎮・朴祐源，醫官慶絢・吳道炯，長城府使洪述祚，三陟府使李學源，珍山郡守沈達，順安縣令韓文洪，金溝縣令金履顯，義城縣令吳在文，松禾縣監任靖周，三嘉縣監洪益烈，任實縣監李昌會，長水縣監李殷濟，寧邊府使金煜，綾州牧使李堉，北青府使洪九瑞，鐵山府使吳載光，海美縣監黃命考，榮川郡守金履銓，錦山郡守金斗烈，忠清都事沈樂洙，祥原郡守尹守儉，旌義縣監許壑，鐵原府使吳載熙，吉州牧使宋載岳，春川府使尹承烈，楚山府使洪檢，慶興府使李東燁，穩城府使李尙直，固城縣監洪相聖，連原察訪文采五，甑山縣監鄭國仁，歙谷縣監朴仁榮，報恩縣監金重行，洪川縣監俞漢喆，南平縣監宋持敬，殷栗縣監朴星源，知禮縣監李星會，石城縣監白文昌，嘉山郡守李東植，居昌府使安允奭，咸平縣監宋煥喆，沃溝縣監鄭澤孚，務安縣監尹行晉，礪山府使金漢謙，碧潼郡守李壽鵬，熙川郡守沈輔賢，遂安郡守鄭潤弼，孟山縣監鄭弼臣，竹山府使具峽，高厚郡守田德雨，高敞縣監李榮達，青丹察訪權啓述，加平郡守李東弼，延豐縣監李再漢，高山縣監南殷老，聞慶縣監崔炅，軍威縣監金載仁，保安察訪金一衡，長連縣監尹謐，光陽縣監金載厚，南道參軍李忠佐，都摠都事李光鼎・李潤章，都摠經歷金宗勳・徐有龍，群山僉使曹允寬，智島萬戶李明哲，呂島萬戶李東輝，南桃浦萬戶盧重彬，會寧浦萬戶成弘道，鹿島萬戶朴尙仁，黔毛浦萬戶李重錫，永達萬戶金瑞貞，幕嶺萬戶李挺瑋，法聖僉使安翼濟，惠山僉使田晉禪，長峯萬戶高繼允，蒜山僉使邊鎮城，平安兵虞候洪宅夏，馬梁僉使宋文佐，所斤僉使李最祐，花梁僉使鄭允弘，平薪僉使秦渭發，德積僉使高漢翼，芑波知僉使崔宗大，潼關僉使李萬益，清城僉使朴枝文，位羅萬戶申漢相，青水萬戶白純一，植松萬戶崔夢虎，仁遮外萬戶趙洵，馬島萬戶金景，多慶浦萬戶柳台興，木浦萬戶韓謙暮，西林僉使李漢誼，訓練正李匡運，訓練副正吳載重・申大順，訓練僉正金命赫，訓練判官李恒林・慶來運・許根，訓練主簿安宗厚・李鼎運・李文喆・李再復・尹範勳，宣傳官柳晦源，宣傳官尹相赫，中樞經歷申晤，宣傳官李東榮，以次進伏訖，……又命書傳教曰，二十五日祭享相值，次對明日爲之，命初仕人進前，命奏職姓名，上曰，各盡職事，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21일(경신)

□ 임금이 흥정당에서 초입사한 수령, 변장 등을 만나 직분을 다하라고 명함

- 병신년 6월 21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수령·변장(邊將)이 초입사(初入仕)하여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좌승지 홍국영(洪國榮), 우승지 김문순(金文淳), 좌부승지 이상암(李商巖),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기사관 복태진(卜台鎭)·박우원(朴祐源), 의관 경순(慶綸)·오도형(吳道炯), 장성부사 홍술조(洪述祚), 삼척부사 이학원(李學源), 진산군수 심규(沈逵), 순안현령 한문홍(韓文洪), 금구현령 김이현(金履顯), 의성현령 오재문(吳在文), 송화현감 임정주(任靖周), 삼가현감 홍익열(洪益烈), 임실현감 이창희(李昌會), 장수현감 이은제(李殷濟), 영변부사 김익(金煜), 능주목사 이육(李堉), 북청부사 홍구서(洪九瑞), 철산부사 오재광(吳載光), 해미현감 황명구(黃命考), 영천군수 김이계(金履鉉), 금산군수 김두열(金斗烈), 충청도사 심낙수(沈樂洙), 상원군수 윤수검(尹守儉), 정의현감 허학(許壑), 철원부사 오재희(吳載熙), 길주목사 송재악(宋載岳), 춘천부사 윤승열(尹承烈), 초산부사 홍검(洪檢), 경흥부사 이동엽(李東燁), 온성부사 이상직(李尙直), 고성현감 홍상성(洪相聖), 연원찰방 문채오(文采五), 증산현감 정국인(鄭國仁), 흙곡현감 박인영(朴仁榮), 보은현감 김중행(金重行), 홍천현감 유한철(兪漢喆), 남평현감 송지경(宋持敬), 은율현감 박성원(朴星源), 지례현감 이성회(李星會), 석성현감 백문창(白文昌), 가산군수 이동식(李東植), 거창부사 안윤석(安允奭), 함평현감 송환철(宋換喆), 옥구현감 정택부(鄭澤孚), 무안현감 윤행진(尹行晉), 여산부사 김한겸(金漢謙), 벽동군수 이수봉(李壽鵬), 희천군수 심보현(沈輔賢), 수안군수 정윤필(鄭潤弼), 맹산현감 정필신(鄭弼臣), 죽산부사 구협(具峽), 고원군수 전덕우(田德雨), 고창현감 이영규(李榮逵), 청단찰방 권계술(權啓述), 가평군수 이동필(李東弼), 연풍현감 이재한(李再漢), 고산현감 남은로(南殷老), 문경현감 최경(崔暎), 군위현감 김재인(金載仁), 보안찰방 김일형(金一衡), 장연현감 윤밀(尹謐), 광양현감 김재후(金載厚), 남도참군 이충좌(李忠佐), 도총도사 이광정(李光鼎)·이윤장(李潤章), 도총경력 김종훈(金宗勳)·서유룡(徐有龍), 군산첨사 조윤관(曹允寬), 지도만호 이명철(李明哲), 여도만호 이동휘(李東輝), 남도포만호 노중빈(盧重彬), 회령포만호 성홍도(成弘道), 녹도만호 박상인(朴尙仁), 금모포 만호 이중석(李重錫), 영달만호 김서정(金瑞貞), 막령만호 이정후(李挺瑄), 법성첨사 안익제(安翼濟), 해산첨사 전진휘(田晉禪), 장봉만호 고계윤(高繼允), 산산첨사 변진성(邊鎭城), 평안병우후 홍택하(洪宅夏), 마량첨사 송문좌(宋文佐), 소근첨사 이최우(李最祐), 화랑첨사 정윤홍(鄭允弘), 평신첨사 진위

발(秦渭發), 덕적첨사 고한익(高漢翼), 갈파지첨사 최종대(崔宗大), 동관첨사 이만익(李萬益), 청성첨사 박지문(朴枝文), 위라만호 신한상(申漢相), 청수만호 백순일(白純一), 식송만호 최몽호(崔夢虎), 인차외만호 조순(趙洵), 마도만호 김경(金景), 다경포만호 유태흥(柳台興), 목포만호 한겸모(韓謙謨), 서림첨사 이한익(李漢誼), 훈련정 이광운(李匡運), 훈련부정 오재중(吳載重)·신대순(申大順), 훈련첨정 김명혁(金命赫), 훈련관관 이항림(李恒林)·경래운(慶來運)·허근(許根), 훈련주부 안종후(安宗厚)·이정운(李鼎運)·이문철(李文喆)·이재복(李再復)·윤범훈(尹範勳), 선전관 윤희원(柳晦源), 선전관 윤상혁(尹相赫), 중추원 경력 신오(申晤), 선전관 이동영(李東榮)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또 쓸 것을 명하고 전교하기를, “25일 제향(祭享)과 겹치므로 차대는 내일 행한다.”라고 하였다. 초사(初仕)에 임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고, 직과 성명을 아뢰도록 명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자 직분을 다하라.”라고 하였다. 물러날 것을 명하자 여러 신하가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정의현감, 허학, 초입사, 초사.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二十二日 辛酉

- 丙申六月二十二日辰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鄭存謙, 行戶曹鄭弘淳, 行司直朴宗德, 行司直金漢耆, 漢城判尹鄭尙淳, 刑曹判書李滄, 行副護軍張志恒, 行副護軍李柱國, 漢城右尹尹得養, 行副護軍李漢膺, 禮曹參判沈履之, 行副司直徐有隣, 大司憲李海重, 大司諫李養鼎, 掌令柳榮鎭, 正言姜儔, 校理沈豐之, 行都承旨徐浩修, 假注書徐龍輔, 事變假注書林錫喆, 記事官卜台鎭·朴祐源, 以次進伏訖, …… 海重·榮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養鼎·儔啓曰, 請海南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22일(신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대신들의 계

- 병신년 6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사직 박종덕(朴宗德), 행 사직 김한기(金漢耆), 한성판윤 정상순(鄭尙淳), 형조판서 이연(李滄), 행 부호군 장지항(張志恒), 행 부호군 이주국(李柱國), 한성우윤 윤득양(尹得養), 행 부호군 이한웅(李漢膺),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행 부사직 서유린(徐有隣), 대사헌 이해중(李海重), 대사간 이양정(李養鼎), 장령 유영진(柳榮鎭), 정언 강인(姜儔), 교리 심풍지(沈豐之), 행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사변 가주서 임석철(林錫喆), 기사관 북태진(卜台鎭)·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해중·유영진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양정·강인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의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구상.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二十三日 壬戌

- 正言姜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請副司直洪龍漢爲先削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23일(임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儉)의 계

- 정언 강인(姜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부사직 홍용한(洪龍漢)을 우선 삭직(削職)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남해현, 구상,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二十五日 甲子

- 丙申六月二十五日寅時, 上御金商門外, 親鞫入侍時, 領府事金相福, 領議政金陽澤, 左議政金尙喆, 判府事李澂, 右議政鄭存謙, 判義禁蔡濟恭, 同義禁沈垹·李坤·沈頤之, 大司憲李海重, 大司諫李養鼎, 執義李一曾, 掌令柳榮鎮, 正言姜儉, 問事郎廳副應教尹弘烈, 校理沈豐之, 吏曹佐郎李秉模, 副校理鄭宇淳, 修撰鄭元始, 副司果李魯述·李商進·趙尙鎮, 行都承旨徐浩修, 左承旨洪國榮, 右承旨李商巖, 左副承旨林得浩, 右副承旨鄭民始, 同副承旨柳炯, 假注書徐龍輔, 事變假注書林錫喆, 記事官卜台鎮·朴祐源, 以次侍立, …… 一曾·榮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養鼎·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又啓曰,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凶猾之性, 素蓄拔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以爲腹心, 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 敢售護逆之計, 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愆惡故, 陰護麟漢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嚴討之日, 其陰謀綢繆之狀, 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鞫, 嚴問得情, 上曰, 更待下教, 可也,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25일(갑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병신년 6월 25일 인시에 임금이 금상문(金商門) 밖으로 나아갔다. 친국(親鞫)을 행하는 자리에 입시켰을 때 영부사 김상복(金相福),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판부사 이은(李澂),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관의금 채제공(蔡濟恭), 동의금 심발(沈垹)·이곤(李坤)·심이지(沈頤之), 대사헌 이해중(李海重), 대사간 이양정(李養鼎), 집의 이일증(李一曾), 장령 유영진(柳榮鎮), 정언 강인(姜儉), 문사낭청 부응교 윤홍열(尹弘烈), 교리 심풍지(沈豐之), 이조좌랑 이증모(李秉模), 부교리 정우순(鄭宇淳), 수찬 정원시(鄭元始), 부사과 이노술(李魯述)·이상진(李商進)·조상진(趙尙鎮), 행 도승지 서호수(徐浩修), 좌승지 홍국영(洪國榮), 우승지 이상암(李商巖), 좌부승지 임득호(林得浩), 우부승지 정민시(鄭民始), 동부승지 유강(柳炯),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사변 가주서 임

석철(林錫喆), 기사관 북태진(卜台鎭)·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시위하고 섰다. <중략> 이일증·유영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양정·강인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홍인한을 몰래 옹호하는 것은 바로 윤태연을 곡진히 위하하려는 것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하교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三十日 己巳

- 全羅監司狀啓, 濟州人物渰死, 馬匹渰斃, 若是夥然, 事極驚慘事, 傳于鄭民始曰, 令本道恤典舉行.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30일(기사)

□ 제주(濟州)의 인물과 마필이 익사하자 홀전을 거행하라는 전교를 내림

- 전라감사의 장계에, “제주(濟州) 인물이 물에 빠져 죽고, 마필(馬匹)이 빠져 죽은 것이 이처럼 많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라고 하였다. 정민시(鄭民始)에게 전교하기를, “본도로 하여금 홀전(恤典)을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홀전, 전라감사, 장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三十日 己巳

- 掌令柳榮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30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유영진(柳榮鎭)의 계

- 장령 유영진(柳榮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영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六月 三十日 己巳

- 獻納朴天衡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副司直洪龍漢, 爲先削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6월 30일(기사)

□ 죄인 구상(具庠),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심문하라는 헌납 박천형(朴天衡)의 계

- 헌납 박천형(朴天衡)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부사직 홍용한(洪龍漢)을 우선 삭직(削職)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一日 庚午

- 掌令尹弼秉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일(경오)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필병.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一日 庚午

- 獻納朴天衡啓曰,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抵,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凶猾之性, 素畜拔扈[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慫恿,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嚴討之日, 其陰謀綢繆之狀, 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 嚴問得情.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일(경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심문하여 처단하라는 헌납 박천형(朴天衡)의 계

- 헌납 박천형(朴天衡)이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곡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올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윤약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二日 辛未

○ 濟州貢馬所載船船格等渰死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2일(신미)

□ 제주(濟州)의 공마(貢馬)를 실은 선박이 표몰함

○ 제주(濟州) 공마(貢馬)를 실은 선박 등이 물에 휩쓸려 빠져 죽은 사건.

△ 주제어: 제주, 공마.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三日 壬申

- 執義李一曾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兇徒, 漫爛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3일(임신)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이일증(李一曾)의 계

- 집의 이일증(李一曾)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일증.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三日 壬申

- 獻納朴天衡啓曰,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工夫, 終爲兇賊之根抵,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兇猾之性, 素畜拔扈[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慫恿, 故陰護麟漢, 卽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嚴討之日, 其陰謀綱之狀, 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 嚴問得情.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3일(임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심문하여 처단하라는 헌납 박천형(朴天衡)의 계

- 헌납 박천형(朴天衡)이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중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꼭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윤약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四日 癸酉

- 正言姜愼啓曰, 請南海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副司直洪龍漢, 爲先削職,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拿鞫, 嚴問得情, 【以上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4일(계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愼)의 계

- 정언 강인(姜愼)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부사직 홍용한(洪龍漢)을 우선 삭직(削職)하소서.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잡아다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소서.”라고 하였다. 【이상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구상,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四日 癸酉

- 持平金履厚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兇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4일(계유)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김이후(金履厚)의 계

- 지평 김이후(金履厚)가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이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五日 甲戌

- 獻納朴天衡啓曰,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底,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凶猾之性, 素蓄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稔受泰淵之愆惡,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也, 當此厚賊・麟漢嚴討之日, 其陰謀綱繆之狀, 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 嚴問得情.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5일(갑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심문하여 처단하라는 헌납 박천형(朴天衡)의 계

- 헌납 박천형(朴天衡)이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꼭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올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윤약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六日 乙亥

- 丙申七月初六日巳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陽澤,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仁陽君李景祐, 行兵曹判書具善復, 行戶曹判書鄭弘淳, 禮曹判書李滄, 副護軍張志恒·李柱國·李漢膺, 左尹徐有隣, 右尹金魯鎮, 同知中樞府事鄭一祥, 大司諫沈履之, 執義李一曾, 掌令柳榮鎮·尹弼秉, 持平金履厚, 副校理徐有防·尹弘烈, 修撰李獻慶·朴天衡, 行都承旨吳載純, 假注書柳孟養, 事變假注書林錫喆, 記事官卜台鎮, 朴祐源以次進伏訖, …… 一曾·榮鎮·弼秉·履厚等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履之·慎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履之·慎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 嚴問得情,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6일(을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심문하여 처단하라는 계

- 병신년 7월 초6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인양군 이경호(李景祐), 행 병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예조판서 이연(李滄), 부호군 장지항(張志恒)·이주국(李柱國)·이한웅(李漢膺), 좌윤 서유린(徐有隣), 우윤 김노진(金魯鎮), 동지중추부사 정일상(鄭一祥), 대사간 심이지(沈履之), 집의 이일증(李一曾), 장령 유영진(柳榮鎮)·윤필병(尹弼秉), 지평 김이후(金履厚), 부교리 서유방(徐有防)·윤홍열(尹弘烈), 수찬 이헌경(李獻慶)·박천형(朴天衡), 행 도승지 오재순(吳載純),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사변 가주서 임석철(林錫喆), 기사관 복태진(卜台鎭)·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일증·유영진·윤필병·김이후 등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이지·강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이지·강인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七日 丙子

- 有政, 吏批, 判書黃景源疏批未下, 參判徐浩修進, 參議宋德相在外, 同副承旨李得永進啓曰, 判書黃景源疏批未下, 參議宋德相在外,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仍爲之, 以辛應三爲獻納, 李徽之爲左參贊, …… 金道憐爲大靜縣監.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7일(병자)

□ 이비(吏批)에서 김도혁(金道憐)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황경원(黃景源)의 상소에 대한 비답이 내려지 않았다. 참판 서호수(徐浩修)는 나왔고, 참의 송덕상(宋德相)은 지방에 있었다. 동부승지 이득영(李得永)이 나와서 아뢰기를, “판서 황경원은 상소에 대한 비답이 내려지지 않았고, 참의 송덕상은 지방에 있습니다. 제가 홀로 정사를 하게 되어 미안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신응삼(辛應三)을 헌납으로 삼고, 이휘지(李徽之)를 좌참찬으로 삼고, <중략> 김도혁(金道憐)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대정현감, 김도혁, 이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七日 丙子

- 掌令柳榮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處置事, 依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7일(병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유영진(柳榮鎭)의 계

- 장령 유영진(柳榮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처지하는 일은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영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七日 丙子

- 正言姜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7일(병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처단하라는 정언 강인(姜儉)의 계

- 정언 강인(姜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구상,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八日 丁丑

- 執義李一曾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8일(정축)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이일증(李一曾)의 계

- 집의 이일증(李一曾)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일증.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八日 丁丑

- 獻納辛應三啓曰,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兇賊之根抵, 而況其窮兇極惡之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兇猾之性, 素蓄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慝恩,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 其陰謀調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8일(정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심문하여 처단하라는 헌납 신응삼(辛應三)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곡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

을 캐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윤약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日 己卯

- 傳于金鍾秀曰, 濟州赴役民人之物故, 其涉矜惻, 令該廳該牧顧恤.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0일(기묘)

□ 제주(濟州) 민인 중 부역하다 사망한 이들에게 홀전을 거행하라는 전교

- 김중수(金鍾秀)에게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의 민인(民人)으로서 부역한 이들의 사망은 불쌍하고 측은하다. 해청(該廳)·해목(該牧)으로 하여금 돌아보고 홀전을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민인, 부역, 홀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一日 庚辰

- 持平朴聖泰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1일(경진)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박성태(朴聖泰)의 계

- 지평 박성태(朴聖泰)가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성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二日 辛巳

- 掌令柳榮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請鏡城府定配罪人洪述海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2일(신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유영진(柳榮鎭)의 계

- 장령 유영진(柳榮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경성부(鏡城府)에 정배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경성부, 김수현, 홍술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二日 辛巳

- 獻納辛應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2일(신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헌납 신응삼(辛應三)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에게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남해현, 구상,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四日 癸未

- 傳于洪國榮曰, 賜馬體重, 不可在家受之, 濟州馬方欲分給, 諸將臣其令來待.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4일(계미)

□ 제주마(濟州馬)를 분급받을 장신(將臣)을 대령하게 하라는 전교

- 홍국영(洪國榮)에게 전교하기를, “말을 하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집에서 받을 수는 없다. 제주마(濟州馬)를 막 분급하고자 하니 여러 장신(將臣)을 와서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마, 홍국영.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四日 癸未

- 金鍾秀,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言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五十三匹敗船滄斃, 四匹船中故失, 二匹到衿川病留, 實納馬一百四十一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4일(계미)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말에 대해 보고하고 별단을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보고

- 김종수(金鍾秀)가 사복시 관원으로서 1, 2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와서 먼저 운송한 세공마(歲貢馬) 200필 중 53필은 패선(敗船)에서 익사했고, 4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 2필은 금천(衿川)에 당도하여 병류(病留)하여 실제 바친 말은 141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세공마, 김종수.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四日 癸未

- 執義李一曾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4일(계미)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이일증(李一曾)의 계

- 집의 이일증(李一曾)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일증.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15日 甲申

- 掌令尹在醇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 <之> 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5일(갑신)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윤재순(尹在醇)의 계

- 장령 윤재순(尹在醇)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재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六日 乙酉

- 執義李一曾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6일(을유)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이일증(李一曾)의 계

- 집의 이일증(李一曾)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일증.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七日 丙戌

- 掌令尹在醇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兇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7일(병술)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윤재순(尹在醇)의 계

- 장령 윤재순(尹在醇)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재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八日 丁亥

- 傳于鄭民始, 以司僕寺官員, 一二提調言啓曰, 濟州出來後運各樣進上馬一百八十八匹內, 年例進上馬二匹, 正朝進上五匹, 兵曹別啓請山屯馬二十八匹, 凶咎驚駘馬二匹, 竝三十七匹致敗渰斃, 五匹船中故失, 二匹龍仁病留, 一匹廣州病留, 二匹果川病留除, 實上納年例進上馬六匹, 誕日進上馬二十匹, 冬至進上馬二十匹, 正朝進上馬十五匹, 山屯馬六十二匹, 凶咎驚駘馬十八匹, 合一百四十一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8일(정해)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말에 대해 보고하고 별단을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정민시(鄭民始)에게 전하여 사복시 관원으로서 1, 2제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와서 뒤늦게 운송된 각종 진상마(進上馬) 188필 중 연례(年例) 진상마 2필, 정조(正朝) 진상 5필, 병조가 따로 계청(啓請)한 산둔마(山屯馬) 28필, 흉구 노태마(凶咎驚駘馬) 2필, 합해서 37필이 익사하였습니다. 5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 2필은 용인(龍仁)에서 병류(病留), 1필은 광주(廣州)에 병류, 2필은 과천(果川) 병류로 제외하였습니다. 실제 상납은 연례 진상마 6필, 탄일 진상마 20필, 동지 진상마 20필, 정조 진상마 15필, 산둔마 62필, 흉구 노태마 18필로 합 141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진상마, 산둔마.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九日 戊子

- 司諫李顯永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副司直洪龍漢, 爲先削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9일(무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율문대로 처결하라는 사간 이현영(李顯永)의 계

- 사간 이현영(李顯永)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에게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부사직 홍용한(洪龍漢)을 우선 삭직(削職)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남해현, 구상,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九日 戊子

-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金海府定配罪人趙曦, 依律處斷. 答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9일(무자)

□ 죄인 윤태연(尹泰淵) 등을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조엄(趙曦)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정의현, 김해부, 윤태연, 조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九日 戊子

- 掌令高益擎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措辭 見上】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9일(무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고익경(高益擎)의 계

- 장령 고익경(高益擎)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고익경.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十九日 戊子

- 丙申七月十九日辰時, 上御興政堂, 都承旨·司僕提調同爲入侍時, 司僕提調徐命善, 都承旨洪國榮, 假注書徐龍輔, 記事官卜台鎮·朴祐源, 以次進伏訖, …… 上曰, 司僕·內乘, 與馬醫三員, 率濟州貢馬, 入於內庭, 引儀一員待令, 上曰, 濟州貢馬, 年年上來, 而自前每歸於戚里及宦寺, 事之無意, 莫此甚矣, 今年則特召卿等賜之, 予意蓋欲用之於有用之地也, 命入侍諸臣, 各給貢馬一隻, 引儀呼唱, 諸臣四拜訖,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19일(무자)

□ 임금이 제신(諸臣)에게 제주 공마(濟州貢馬) 1필씩을 하사함

- 병신년 7월 19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도승지·사복시 제조가 함께 입시했을 때 사복시 제조 서명선(徐命善),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기사관 북태진(卜台鎭)·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사복 내승(司僕內乘)은 마의(馬醫) 3원(員)과 함께 제주 공마(濟州貢馬)를 거느리고 내정(內庭)에 들어가고, 인의 1원은 대령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 공마가 매년 올라오는데 이전부터 매번 척리(戚里)와 환시(宦寺)에게 돌아가니 일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올해는 특별히 경들을 불러 내려주니 내 뜻은 대체로 쓰임이 있는 곳에 쓰고자 함이다.”라고 하였다. 제신(諸臣)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여 각각 공마 1척(隻)을 주었다. 인의가 호창(呼唱)하자 제신이 사배(四拜)하고 마쳤다. <하략>.

△ 주제어: 제주 공마, 척리, 환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二十一日 庚寅

- 丙申七月二十一日辰時，朝上食陪祭入侍時，左副承旨鄭民始，假注書徐龍輔，記事官卜台鎮·朴祐源，以次陪進，上自廬次，詣殯殿中排設廳，視膳訖，行朝上食，【儀註上同】上還廬次，承史以次進伏，命書傳教曰，同副承旨，馳詣元陵，漆役形止，奉審以來，濟州人如已畢役，其令率領來待事，分付，…….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21일(경인)

□ 원릉(元陵)의 역사(役事)를 살피고 작업을 마친 제주인(濟州人)을 데려와 대령하라는 전교

- 병신년 7월 21일 진시(辰時), 아침 상식(上食)에 배제(陪祭)하여 입시했을 때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기사관 복태진(卜台鎭)·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배행하고 나아갔다. 임금이 여차(廬次)로부터 빈전 중배설청(中排設廳)에 나아가 시선(視膳)을 마치고 아침 상식을 올렸다. 【의주(儀註)가 위와 같음】 임금이 여차로 돌아오자 승사(承史)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동부승지는 원릉(元陵)으로 달려가 칠역(漆役)의 형지(形止)를 살피보고 오라. 제주인(濟州人)이 만약 작업을 마쳤으면 거느리고 와서 대령하라고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인, 원릉, 칠역.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二十一日 庚寅

- 丙申七月二十一日申時, 上御廬次, 戶房承旨入侍時, 左副承旨鄭民始, 假注書柳孟養, 記事官卜台鎮·朴祐源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教曰, 見庚子謄錄, 濟州子弟, 賜饌後有賜布之例, 其令惠廳, 布子待令,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21일(경인)

- 이전의 등록(謄錄)에 의거하여 제주(濟州)의 자제에게 찬(饌)과 포(布)를 하사할 준비를 명함
- 병신년 7월 21일 신시(申時)에 임금이 여차(廬次)로 나아갔다. 호방 승지가 입시켰을 때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복태진(卜台鎭)·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임금이 쓸 것을 명하고 전교하기를, “경자등록(庚子謄錄)을 보니 제주(濟州) 자제(子弟)에게 찬(饌)을 내려준 후 포(布)를 내려준 예가 있다. 혜청(惠廳)으로 하여금 포자(布子)를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자제, 찬, 포.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二十三日 壬辰

- 獻納沈豐之啓曰,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抵,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凶猾之性, 素畜拔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慫慂,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23일(임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심문하여 처단하라는 헌납 심풍지(沈豐之)의 계

- 헌납 심풍지(沈豐之)가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꼭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

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윤약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二十三日 壬辰

- 掌令高益擎啓曰, 妖宦壽賢之締結, 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23일(임진)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고익경(高益擎)의 계

- 장령 고익경(高益擎)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고익경.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二十三日 壬辰

- 濟州牧使柳憐狀啓, 人物渰死, 貢馬溺斃, 此實誠意淺薄之致, 惶恐待罪事, 傳于李義翊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23일(임진)

- ☐ 공마(貢馬)의 익사 때문에 대죄한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혁(柳憐)의 장계와 이에 대한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혁(柳憐)이 장계하기를, “인물이 물에 빠져 죽고, 공마(貢馬)가 익사한 것은 실로 성의가 천박했기 때문이니 황공하여 대죄(待罪)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의익(李義翊)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혁, 공마.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二十八日 丁酉

- 下直, 淸州牧使李堉, 泰安郡守柳榮鎭, 旌義縣監許堉, 平澤縣監兪漢膺, 淸道郡守鄭持淳, 中和府使李得永, 仁川府使金熙.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28일(정유)

□ 정의현감(旌義縣監) 허서(許堉)가 하직함

- 청주목사 이육(李堉), 태안군수 유영진(柳榮鎭), 정의현감(旌義縣監) 허서(許堉), 평택현감 유한웅(兪漢膺), 청도군수 정지순(鄭持淳), 중화부사 이득영(李得永), 인천부사 김희(金熙)가 하직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허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三十日 己亥

- 徐有防,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姜德曄, 嚴刑一次, 發配事, 批下矣, 罪人姜德曄, 既施嚴刑一次, 依傳教, 全羅道濟州牧旌義縣, 限己身爲奴, 此後赦典勿揀,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答曰, 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30일(기해)

□ 죄인 강덕엽(姜德曄)을 전교에 따라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서유방(徐有防)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죄인 강덕엽(姜德曄)에게 엄형(嚴刑)을 1차 가한 후 배소로 출발하라고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죄인 강덕엽에게 이미 엄형을 1차 시행하였고, 전교에 따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그 자신에 한해 노(奴)로 삼고 이 이후로는 사전물간(赦典勿揀)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고 예(例)에 따라 의금부 나장을 보내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강덕엽.

8) 사전물간(赦典勿揀): 사면령을 내리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반역 등 중죄인은 사면하지 않는 것을 말함.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三十日 己亥

- 丙申七月三十日巳時, 上御齋殿, 右副承旨入侍時, 右副承旨徐有防, 假注書徐龍輔, 記事官卜台鎮·朴祐源以次進伏訖, …… 命書傳教曰, 因濫騎驛駟毆打驛吏事, 聞中官所奏, 卽中官姜德曄云, 本事猶是細故之細故, 聞來不覺體粟而膽掉, 此等妖宦之尙今偃息內侍之間, 豈非意外之甚者乎? 以今事端現發者, 惟可見昭昭之理, 聖國至於孥籍, 而此宦之無故者, 在朝廷刑政, 尤萬萬顛倒, 渠罪渠自知之, 予不忍索言, 當此孤危之日, 決不可一刻置之於輦轂之下, 以貽無窮之慮, 中官姜德曄, 濟州牧旌義縣, 限己身爲奴, 渠之戴頭之無恙, 卽是寬典, 此後赦典勿揀事, 分付牧使, 上曰, 德曄, 雖不荐棘, 濟州地內, 亦多聖國家屬之流配者, 若或通私書, 或通雜人, 濟州牧使, 當於境上梟示, 以此意, 添入禁府關文事, 分付,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30일(기해)

- 역마를 함부로 타고 역리를 구타한 강덕엽(姜德曄)을 정의현(旌義縣) 노(奴)로 삼도록 하는 전교

- 병신년 7월 30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재전(齋殿)으로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기사관 복태진(卜台鎭)·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쓸 것을 명하고 전교하기를, “역마를 함부로 타고 역리를 구타한 사건이 중관(中官)으로 인한 것이라 아뢰는 것을 들었는데, 중관은 강덕엽(姜德曄)이라 한다. 본 사건은 오히려 자질구레하고 자질구레한 것인데, 들으니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가슴이 떨렸다. 이런 요망한 환관이 아직까지 내시 사이에서 편히 지내고 있었다니 이 어찌 매우 뜻밖이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사태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 오히려 사리의 밝음을 볼 수 있다. 문성국(文聖國)에게 노적(孥籍)을 행하였으면서도 이 환관은 무고(無故)했으니 조정의 형정이 더욱 한없이 전도되었다. 그의 죄상은 그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니 내가 차마 다 말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외롭고 위태로운 날을 당하여 결코 한 시각이라도 연곡(輦轂) 아래 두고 한없는 염려를 끼치게 할 수 없다. 중관 강덕엽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그 자신에 한해 노(奴)로 삼으라. 그가 별 탈 없이 살아 있게 되는 것만도 관대한 특전이니, 이 이후로는 사전물간(赦典勿揀)하도록 목사에게 분

부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덕업을 비록 위리안치하지는 않으나 제주 땅 안에 또한 문성국의 가속으로서 유배된 자가 많다. 만약 사적인 편지를 통하거나, 혹 잡인(雜人)을 통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경상(境上)에 효시(梟示)하라. 이런 뜻을 의금부 관문(關文)에 첨가하여 넣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강덕업, 문성국.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七月 三十日 己亥

- 丙申七月三十日午時, 上御齋室, 藥房入侍, 兵判·守令同爲入侍時, 都提調鄭存謙, 提調徐命善, 副提調洪國榮, 假注書柳孟養, 記事官卜台鎮·朴祐源, 兵曹判書具善復, 寧邊府使金煜, 谷山府使吳載紹, 安東府使金尙默, 中和府使李得永, 德川郡守金相翊, 楚山府使洪檢, 綾州牧使李堉, 臨坡縣監南鶴聞, 青松府使尹勉升, 泰安郡守柳榮鎮, 高靈縣監洪大顯, 仁川府使金熙, 清道郡守鄭持淳, 山淸縣監鄭日煥, 平澤縣監俞漢膺, 大靜縣監金道燮, 旌義縣監許堅, 醫官方泰興·吳道炯·慶絢·徐命緯以次進伏訖, …… 上曰, 爲奴罪人姜德曄, 爲先拿囚南間, 【出榻教】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7월 30일(기해)

□ 죄인 강덕엽(姜德曄)을 가두라고 명함

- 병신년 7월 30일 오시(午時)에 임금이 재실(齋室)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시하고 병판·수령이 함께 입시했을 때 도제조 정존겸(鄭存謙), 제조 서명선(徐命善), 부제조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복태진(卜台鎭)·박우원(朴祐源), 병조판서 구선복(具善復), 영변부사 김익(金煜), 곡산부사 오재소(吳載紹), 안동부사 김상묵(金尙默), 중화부사 이득영(李得永), 덕천군수 김상익(金相翊), 초산부사 홍검(洪檢), 능주목사 이육(李堉), 임피현감 남학문(南鶴聞), 청송부사 윤면승(尹勉升), 태안군수 유영진(柳榮鎭), 고령현감 홍대현(洪大顯), 인천부사 김희(金熙), 청도군수 정지순(鄭持淳), 산청현감 정일환(鄭日煥), 평택현감 유한웅(俞漢膺), 대정현감(大靜縣監) 김도혁(金道燮), 정의현감(旌義縣監) 허건(許堅), 의관 방태여(方泰興)·오도형(吳道炯)·경순(慶絢)·서명위(徐命緯)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노(奴)가 된 죄인 강덕엽(姜德曄)을 우선 붙잡아 남간(南間)에 가두라.”라고 하였다. 【답교(出榻)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정의현감, 김도혁, 허건, 강덕엽.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八月 十九日 戊午

- 掌令李謙彬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8월 19일(무오)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이겸빈(李謙彬)의 계

- 장령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겸빈.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八月 二十七日 丙寅

- 獻納李枰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請副司直洪龍漢, 爲先削職,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8월 27일(병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엄히 심문하여 법에 따라 처결하라는 헌납 이평(李枰)의 계

- 헌납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에게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부사직 홍용한(洪龍漢)을 우선 삭직(削職)하소서.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八月 二十七日 丙寅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鏡城府定配罪人洪述海,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8월 27일(병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경성부(鏡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구수온.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八月 二十八日 丁卯

- 又以義禁府言啓曰，全羅道羅州牧黑山島減死定配罪人纘海，濟州牧旌義縣移配事，命下矣，減死定配罪人纘海，仍前罪目，依例發遣府書吏，自黑山島執捉，仍令押送于旌義縣配所之意，敢啓，傳曰，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8월 28일(정묘)

- 흑산도에 유배된 홍찬해(洪纘海)를 정의현(旌義縣)으로 이배하라는 전교에 따라 그를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에 감사정배(減死定配)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으로 이배(移配)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감사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이전 죄목 그대로 예(例)에 따라 의금부 서리를 보내 흑산도에서 붙잡아 그대로 정의현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홍찬해, 감사정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八月 二十八日 丁卯

- 丙申八月二十八日巳時, 上御興政堂, 畫講,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知事鄭尙淳, 特進官徐浩修, 參贊官李義翊, 侍讀官李儒慶, 檢討官金履正, 假注書吳泰彦, 記注官金鳳顯, 記事官卜台鎮, 宗臣河恩君垧, 武臣田得雨,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仁陽君李景祐, 兼判尹蔡濟恭, 兼兵曹判書具善復, 行工曹判書朴宗德, 行司直洪樂性, 行吏曹判書李重祐, 右參贊尹東暹, 戶曹參判張志恒, 刑曹參判尹得養, 左尹徐有隣, 行副司直李柱國, 同知中樞府事李漢膺, 禮曹參判沈履之, 大司諫李敬玉, 獻納李杔, 掌令具修溫, 同副承旨鄭元始, 事變假注書朴天行, 以次進伏訖, …… 掌令具修溫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請副司直洪龍漢, 爲先削職, 【措辭見上】 上曰, 本事既已脫空, 亟停勿煩,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嚴問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8월 28일(정묘)

- 주장(畫講)에 임하는 자리에서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는 문제를 논의함
- 병신년 8월 28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가 주장(畫講)에 임했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지사 정상순(鄭尙淳), 특진관 서호수(徐浩修), 참찬관 이의익(李義翊), 시독관 이유경(李儒慶), 검토회 김이정(金履正), 가주서 오태연(吳泰彦),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복태진(卜台鎭), 종신 하은군(河恩君) 광(垧), 무신 전득우(田得雨),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인양군(仁陽君) 이경호(李景祐), 검 관윤 채제공(蔡濟恭), 검 병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행 공조판서 박종덕(朴宗德), 행 사직 홍낙성(洪樂性),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祐), 우참찬 윤동섭(尹東暹), 호조참판 장지항(張志恒), 형조참판 윤득양(尹得養), 좌윤 서유린(徐有隣),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동지중추부사 이한웅(李漢膺),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대사간 이경옥(李敬玉), 헌납 이평(李杔), 장령 구수온(具修溫), 동부승지 정원시(鄭元始), 사면 가주서 박천행(朴天行)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장령 구수온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

(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부사직 홍용한(洪龍漢)을 우선 삭직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본 사건은 이미 낭설로 돌아갔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고 멈추라.”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八月 二十九日 戊辰

- 傳于李義翊曰, 續海移配, 以濟州大靜中舉行.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8월 29일(무진)

□ 홍찬해(洪纘海)를 대정(大靜)으로 이배하라고 전교함

- 이의익(李義翊)에게 전교하기를, “홍찬해(洪纘海)의 이배(移配)를 제주(濟州) 대정(大靜)으로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 홍찬해, 이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八月 二十九日 戊辰

- 李義翊, 以義禁府言啓曰, 纘海移配, 以濟州大靜中舉行事, 命下, 而大靜縣, 亦有尙魯緣坐罪人, 故全羅道羅州牧黑山島減死定配罪人纘海, 濟州牧移配,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 自黑山島, 執捉, 仍令押送于濟州牧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8월 29일(무진)

□ 홍찬해(洪纘海)를 흑산도(黑山島)에서 제주목(濟州牧)의 새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이의익(李義翊)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홍찬해(洪纘海)의 이배(移配)를 제주(濟州) 대정(大靜)으로 거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정현(大靜縣)에는 또한 김상로(金尙魯)에 연좌된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黑山島)에 감사정배(減死定配)된 죄인 홍찬해를 제주목(濟州牧)으로 이배하되 이전 죄목 그대로 예(例)에 따라 의금부 서리를 보내 흑산도에서 붙잡아 그대로 제주목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흑산도, 제주목, 대정현, 홍찬해, 감사정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一日 己巳

- 丙申九月初一日申時, 上御興政堂, 晝講入侍時, 知事李重祜, 特進官李在協, 參贊官鄭民始, 侍讀官李儒慶, 檢討官尹行修, 假注書吳泰彥, 記注官金鳳顯, 記事官卜台鎮, 宗臣鶴林君焞, 武臣許迺,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判尹蔡濟恭, 大司諫李敬玉, 掌令具修溫, 獻納李枰, 修撰金履正, 副修撰李秉模, 以次進伏訖, …… 修溫·枰曰, 請巨濟府荐棘罪人尹養厚, 亟令王府, 拿鞠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續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決施當律,【措辭見上】上曰, 不允, …… 修溫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決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일(기사)

- 주강에 입시한 자리에서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리에 대해 건의함

- 병신년 9월 초1일 신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입시했을 때 지사 이중호(李重祜), 특진관 이재협(李在協), 참찬관 정민시(鄭民始), 시독관 이유경(李儒慶), 검토관 윤행수(尹行修), 가주서 오태언(吳泰彥),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복태진(卜台鎮), 종신 학림군(鶴林君) 육(焞), 무신 허근(許迺),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판윤 채제공(蔡濟恭), 대사간 이경옥(李敬玉),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이평(李枰), 수찬 김이정(金履正), 부수찬 이병모(李秉模)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구수온·이평이 말하기를, “청컨대 거제부(巨濟府)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양후(尹養厚)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국법을 시원하게 적용하소서.”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구수온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

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의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노를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의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가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을 시원하게 적용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의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홍찬해,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二日 庚午

- 司諫李重馥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決正王法,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鞫嚴問得情, 決正王法, 請爲奴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 拿鞫得情, 決正王法, 請權正欽,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2일(경오)

□ 죄인 구상(具庠),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 이중복(李重馥)의 계

- 사간 이중복(李重馥)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에게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김중득(金重得)을 왕부에 명하여 붙잡아다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권정흠(權正欽)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三日 辛未

- 丙申九月初三日午時, 上御興政堂晝講, 兩司長官同爲入侍時, 知事黃景源, 特進官李福源, 參贊官金鍾秀, 侍讀官李儒慶, 檢討官尹行修, 假注書吳泰彥, 記注官金鳳顯, 記事官卜台鎮, 宗臣安春君炯, 武臣尹僖東, 大司憲徐有隣, 大司諫朴師海, 以次進伏訖, …… 大司憲徐有隣, 大司諫朴師海曰, 請巨濟府荐棘罪人尹養厚, 亟令王府, 拿鞠嚴問,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續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大司憲徐有隣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大司諫朴師海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3일(신미)

□ 주강을 행하는 자리에서 대사헌, 대사간 등이 죄인 구상(具庠),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의 처결을 요청함

- 병신년 9월 초3일 오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가 주강에 임했다. 사헌부와 사간원 장관이 동시에 입시했을 때 지사 황경원(黃景源), 특진관 이복원(李福源), 참찬관 김중수(金鍾秀), 시독관 이유경(李儒慶), 검토회관 윤행수(尹行修), 가주서 오태연(吳泰彥),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복대진(卜台鎮), 종신 안춘군(安春君) 룡(炯), 무신 윤희동(尹僖東),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대사간 박사해(朴師海)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대사헌 서유린, 대사간 박사해가 말하기를, “청컨대 거제부(巨濟府)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양후(尹養厚)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贊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계 마땅한 율문으로 시원하게 처리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서유린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

(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간 박사해가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게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四日 壬申

- 李義翊, 以義禁府言啓曰, 未結案而用逆律者, 身已死而追施拏籍者, 結案於次律, 而請加極律者, 一竝除之, 而尙魯子侄及聖國諸子, 卽其地安置, 聖國母罪惡貫盈, 今不可舉論, 而其他諸緣坐罪人, 竝放送事, 舉條, 啓下矣, 尙魯子濟州牧旌義縣爲奴罪人致讓, 羅州牧黑山島爲奴罪人致顯, 珍島郡金甲島爲奴罪人致廣, 庶子興陽縣蛇島爲奴罪人致默, 侄巨濟府安置罪人致恭, 靈岩郡楸子島安置罪人致良, 南海縣安置罪人致勛, 珍島郡安置罪人致訥, 聖國子甲山府爲奴罪人景行, 會寧府爲奴罪人景輝, 長鬐縣爲奴罪人景煥, 龍川府爲奴罪人景興等, 仍前配所, 竝爲安置, 聖國母濟州牧爲婢罪人今連, 依前罪目, 濟州牧仍爲爲婢, 而尙魯妻必喜, 妾德辰·松月, 子婦李女孝任, 庶子婦美方, 子之妾萬受, 庶女美行, 孫鍾烈·芑伊, 庶孫石伊, 孫女珠玉, 庶孫女乙任, 聖國妾松月女成愛·興艷, 子婦楚愛·喜艷·莫珠, 孫順徵·潤赫快·徵赫伊, 叔弘道·繼哲等, 竝卽放送事, 分付各該道臣, 尙魯·聖國·商輅等, 籍產還給等事, 令各該司舉行, 何如? 傳曰, 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4일(임신)

- 김상로(金尙魯) 및 문성국(文聖國)과 그 일가 사람들의 처리 방안에 대해 의금부가 보고 함
- 이의익(李義翊)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결안(結案)되지 않았는데 역률(逆律)을 적용하는 것은 몸이 이미 죽었는데 노적(拏籍)을 추시하는 것이나, 차율(次律)로 결안(結案)한 데 대하여 극률(極律)을 더할 것을 청하는 것은 모두 없애야 합니다. 김상로(金尙魯)의 자질(子侄) 및 문성국(文聖國)의 제자(諸子)는 그 땅에 안치하고, 문성국의 어머니는 죄악이 천지에 가득하여 지금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여러 연좌 죄인은 모두 풀어주라고 계하셨습니다. 김상로의 아들로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의 노(奴)가 된 죄인 김치양(金致讓), 나주목 흑산도(黑山島) 노가 된 김치현(金致顯), 진도군 금갑도(金甲島)의 노를 삼은 죄인 김치광(金致廣), 서자로 홍양현 사도(蛇島)의 노가 된 죄인 김치묵(金致默), 조카로 거제부에 안치한 죄인 김치공(金致恭),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김치량(金致良), 남해현에 안치한 죄인 김치훈(金致勛), 진도군에 안치한 죄인 김치눌(金致訥), 문성국의 아들로 갑산부(甲山府)

의 노가 된 죄인 문경행(文景行), 회령부의 노를 삼은 죄인 문경휘(文景輝), 장기현 노가 된 죄인 문경환(文景煥), 용천부 노가 된 죄인 문경흥(文景興) 등은 그대로 이전의 배소에 안치하고, 문성국의 어미로 제주목의 비(婢)를 삼은 죄인 금련(金連)은 이전의 죄목에 의거하여 제주목에 그대로 비를 삼고, 김상로의 처 필희(必喜), 첩 덕진(德辰)·송월(松月), 며느리 이효임(李孝任), 서(庶) 며느리 미방(美方), 아들의 첩 만애(萬受), 서녀 미행(美行), 손자 종열(鍾烈)·돌이(鬲伊), 서손 석이(石伊), 손녀 주옥(珠玉), 서손녀 을임(乙任), 문성국의 첩 송월의 딸 성애(成愛)·흥염(興艷), 며느리 초애(楚愛)·희염(喜艷)·막주(莫珠), 손자 순징(順徵)·윤혁이(潤赫伊)·징혁이(徵赫伊), 숙(叔) 홍도(弘道)·계철(繼哲) 등을 모두 즉시 풀어주라고 각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하겠습니다. 김상로·문성국·이상로(李商輅) 등의 적물한 재산을 도로 내주는 등의 일은 각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추자도, 김상로, 문성국, 이상로.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六日 甲戌

- 丙申九月初六日巳時, 上御興政堂, 晝講次對同爲入侍時, 特進官金漢耆, 同知事李宜哲, 參贊官金鍾秀, 侍讀官尹弘烈, 檢討官尹行修, 宗臣廣陵君燧, 武臣李邦鵬, 假注書徐龍輔, 記注官金鳳顯, 記事官卜台鎮,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兼兵曹判書具善復,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司直洪樂性, 行吏曹判書李重祜, 右參贊尹東暹, 禮曹判書鄭尙淳, 戶曹參判張志恒, 行副護軍李柱國, 行副護軍李漢膺, 行副司直金魯鎮, 大司諫朴師海, 右承旨鄭民始, 事變假注書宋俊載, 以次進伏訖, …… 師海所啓, …… 又所啓,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抵,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又所啓,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凶猾之性, 素畜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 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慫恿,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日,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6일(갑술)

- 대사헌 박사해(朴師海) 등이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에 대해 올문에 따른 처결을 건의함
- 병신년 9월 초6일 사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주장과 차대를 위해 동시에 입시켰을 때 특진관 김한기(金漢耆), 동지사 이의철(李宜哲), 참찬관 김종수(金鍾秀), 시독관 윤홍열(尹弘烈), 검토관 윤행수(尹行修), 종신 광릉군(廣陵君) 연(燧), 무신 이방봉(李邦鵬),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복태진(卜台鎮),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겸 병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사직 홍낙성(洪樂性),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祜), 우참찬 윤동섭(尹東暹),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호조참판 장지항(張志恒), 행 부호군 이주국(李柱國), 행 부호군 이한웅(李漢膺), 행 부사직 김노진(金魯鎭), 대사헌 박사해(朴師海), 우승지 정민시(鄭民始), 사면 가주서 송준재(宋俊載)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

략〉 박사해가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
 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
 (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
 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
 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
 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
 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곡진히 위하려는 것입
 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
 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
 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거
 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 대정현, 윤태연, 김수현, 박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六日 甲戌

- 丙申九月初六日未時, 上御尊賢閣, 次對承旨入侍時, 右承旨鄭民始, 假注書徐龍輔, 記注官金鳳顯, 記事官卜台鎮, 以次進伏訖, …… 修溫·坪所啓, …… 又所啓, 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凶言悖說, 實是亘古所無之逆節, 而趾海·續海之爛漫同情, 渠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續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又所啓,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以上出舉條】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6일(갑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 죄인 홍찬해(洪贊海), 대정현(大靜縣) 노(奴)를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울문에 따라 다시 처결하라는 구수온(具修溫)·이평(李坪)의 계
- 병신년 9월 초6일 미시에 임금이 존현각(尊賢閣)에 나아갔다. 차대에 승지가 입시했을 때 우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복태진(卜台鎭)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구수온(具修溫)·이평(李坪)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이번 옥사는 이상로(商輅)·이선해(李善海)의 서찰에 흉악하고 패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로 전에 없던 역절(逆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贊海)가 활발하게 같은 뜻을 품었음은 그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정을 대단히 잘못 시행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상 거조(舉條)를 냄】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二日 庚辰

- …… 大司憲徐有隣, 掌令具修溫, 獻納李坪啓曰, …… 又啓曰, 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凶言悖說, 實是亘古所無之逆節, 而趾海·纘海之爛漫同情, 渠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掌令具修溫啓曰, 妖宦壽賢之締結, 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2일(경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 죄인 홍찬해(洪纘海),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다시 처결하라는 계

- 〈상략〉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이평(李坪)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이번 옥사는 이상로(李商輅)·이선해(李善海)의 서찰에 흉악하고 패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로 전에 없던 역절(逆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가 활발하게 같은 뜻을 품었음은 그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정을 대단히 잘못 시행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장령 구수온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수현,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二日 庚辰

- 獻納李坪啓曰,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根,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兇猾之性, 素畜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腸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稔受泰淵之慫慂,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日,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2일(경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과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윤태연(尹泰淵)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헌납 이평(李坪)의 계

- 헌납 이평(李坪)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참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중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중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꼭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피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 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벌 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三日 辛巳

- 大司憲徐有隣, 掌令具修溫, 獻納李坪啓曰, …… 又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3일(신사)

- 정배 죄인 홍지해(洪趾海),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심문하여 올문대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이평(李坪)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올문으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지해,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三日 辛巳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又啓曰,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3일(신사)

□ 대정현(大靜縣)의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의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三日 辛巳

- 獻納李坪啓曰,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3일(신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헌납 이평(李坪)의 계
- 헌납 이평(李坪)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의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四日 壬午

- 大司憲徐有隣, 掌令具修溫, 獻納李謙彬啓曰, 請巨濟府荐棘罪人尹養厚, 亟令王府, 拿鞠嚴問, 快正王法. 又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4일(임오)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거제부(巨濟府)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양후(尹養厚)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으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四日 壬午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4일(임오)

□ 대정현(大靜縣)의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의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四日 壬午

- 獻納李謙彬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4일(임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이겸빈(李謙彬)의 계

-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五日 癸未

- 丙申九月十五日辰時，上御興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金尙喆，右議政鄭存謙，仁陽君李景祐，漢城判尹具善復，行工曹判書朴宗德，行兵曹判書洪樂性，行戶曹判書鄭弘淳，行司直徐命善，行吏曹判書李重祐，右參贊尹東暹，禮曹判書鄭尙淳，刑曹判書李福源，戶曹參判張志恒，行副司直尹得養，行副護軍李柱國，行副護軍李漢膺，禮曹參判沈履之，江華留守李瀾，行副司直金魯鎮，吏曹參判徐浩修，開城留守徐有慶，大司憲徐有隣，掌令具修溫，校理李在學，左承旨鄭民始，假注書徐龍輔，事變假注書宋俊載，記注官金鳳顯，記事官卜台鎮，以次進伏訖，…… 有隣·修溫·謙彬所啓，…… 又所啓，今番獄事，商輅·善海之書札中，匈言悖說，實是亘古所無之逆節，而趾海·續海之爛漫同情，渠旣自服，則今此酌處之命，實爲失刑之大者，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濟州牧定配罪人續海，更令王府，拿鞠嚴問，快施當律，上曰，不允，…… 有隣·修溫所啓，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爛漫和通之狀，渠旣明白納招，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於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謙·彬所啓，…… 又所啓，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抵，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拿鞠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又所啓，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本以兇猾之性素畜跋扈之志，交結厚賊·麟漢，作爲腹心爪牙，身帶將兵之任，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蹤跡陰祕，爲世指目，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其於平日，稔受泰淵之慫慂，故陰護麟漢，卽曲爲泰淵之地，當此厚賊·麟漢之置法後，其陰謀綢繆之狀，尤不可不究覈，施以當律，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5일(계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에 대해 올문에 따른 처결을 건의한 사헌부의 계
- 병신년 9월 15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인양군

이경호(李景祐),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행 공조판서 박종덕(朴宗德), 행 병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사직 서명선(徐命善),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祐), 우참찬 윤동섬(尹東暹),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형조판서 이복원(李福源), 호조참판 장지항(張志恒), 행 부사직 윤득양(尹得養), 행 부호군 이주국(李柱國), 행 부호군 이한웅(李漢膺),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강화유수 이미(李彌), 행 부사직 김노진(金魯鎭),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개성유수 서유경(徐有慶),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장령 구수온(具修溫), 교리 이재학(李在學),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사변 가주서 송준재(宋俊載),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북태진(卜台鎭)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서유린·구수온·이겸빈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이번 옥사는 이상로(李商輅)·이선해(李善海)의 서찰에 흉악하고 패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로 전에 없던 역절(逆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가 활발하게 같은 뜻을 품었음은 그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정을 대단히 잘못 시행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린·구수온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겸빈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

(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중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곡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피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六日 甲申

- 大司憲徐有隣, 掌令具修溫, 獻納李謙彬所啓曰, …… 又啓曰, 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凶言悖說, 實是亘古所無之逆節, 而趾海·纘海之爛熳同情, 渠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 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6일(갑신)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올문대로 처결하라는 사헌부의 계

-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이번 옥사는 이상로(李商輅)·이선해(李善海)의 서찰에 흉악하고 패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로 전에 없던 역절(逆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가 활발하게 같은 뜻을 품었음은 그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정을 대단히 잘못 시행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온성부,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六日 甲申

- 掌令具修溫所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哉?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6일(갑신)

□ 환관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六日 甲申

- 獻納李謙彬所啓,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兇猾之性, 素畜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 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慫恿,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6일(갑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에 대해 율문에 따른 처결을 건의한 사간원의 계

-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중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중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꼭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건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七日 乙酉

- 大司憲徐有隣, 掌令具修溫, 獻納李謙彬啓曰, 請巨濟府荐棘罪人尹養厚, 亟令王府拿鞠嚴問, 快正王法. 又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7일(을유)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거제부(巨濟府)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양후(尹養厚)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으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七日 乙酉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又啓曰, 請梁山郡定配罪人錫達, 依律處斷. 【以上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7일(을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양산군(梁山郡)에 정배된 죄인 정석달(鄭錫達)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이상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七日 乙酉

- 獻納李謙彬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7일(을유)

□ 죄인 구상(具庠),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九日 丁亥

- 又以司僕寺官員，以一二提調意啓曰，旌義縣監任光鉉遞任，進上馬二匹，今纔上來，禾毛色別單，書入，依例內廄立養之意，敢啓，傳曰，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9일(정해)

□ 정의현감(旌義縣監) 임광현(任光鉉)이 진상마(進上馬)를 바쳤다는 사복시의 보고

- 또 사복시 관원으로서 1, 2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임광현(任光鉉)의 체임 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예(例)에 따라 내구(內廄)에서 기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임광현, 체임 진상마.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十九日 丁亥

- 丙申九月十九日辰時, 上御興政堂, 朝講入侍時, 領事金尙喆, 特進官李福源, 大司憲徐有隣, 特進官沈履之, 同知事徐浩修, 參贊官徐有防, 獻納李謙彬, 侍讀官沈有鎮, 檢討官李儒慶, 假注書徐龍輔, 記注官金鳳顯, 記事官卜台鎮, 以次進伏訖, …… 有隣·謙彬所懷, …… 又所懷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 凶言悖說, 實是亘古所無之逆節, 而趾海之爛熳同情, 渠既自服, 則今酌處之命, 實爲實刑之大者, 臣等謂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宜矣,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19일(정해)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병신년 9월 19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조강에 입시했을 때 영사 김상철(金尙喆), 특진관 이복원(李福源),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특진관 심이지(沈履之), 동지사 서호수(徐浩修), 참찬관 서유방(徐有防), 헌납 이겸빈(李謙彬), 시독관 심유진(沈有鎮), 검토관 이유경(李儒慶),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복태진(卜台鎮)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서유린·이겸빈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이번 옥사는 이상로(李商輅)·이선해(李善海)의 서찰에 흉악하고 패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로 전에 없던 역절(逆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가 활발하게 같은 뜻을 품었음은 그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 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정을 대단히 잘못 시행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二十日 戊子

- 丙申九月二十日巳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金相喆, 右議政鄭存謙, 漢城判尹具善復,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工曹判書朴宗德, 右參贊尹東暹, 刑曹判書李福源, 戶曹參判張志恒, 行副司直尹得養, 行副護軍李柱國, 行副司直權導, 禮曹參判沈履之, 江華留守李瀾, 行副司直金魯鎮, 吏曹參判徐浩修, 開城留守徐有慶, 大司憲徐有隣, 掌令具修溫·朴在源, 獻納李謙彬, 副校理沈有鎮, 左承旨鄭民始, 假注書徐龍輔, 事變假注書宋俊載, 記注官金鳳顯, 記事官卜台鎮, 以次進伏訖, …… 有隣·修溫·在源·謙彬所啓, …… 又所啓, 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甸言悖說, 實是亘古所無之逆節, 而趾海·續海之爛熳同情, 渠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續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有隣·修溫·在源所啓,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甸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謙彬所啓, …… 又所啓,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廩宦寺, 交結士夫, 終爲甸賊之根柢, 而況其窮甸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又所啓,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甸猾之性, 素畜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慫慂,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 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20일(무자)

- 죄인 홍찬해(洪纘海),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올문대로 처벌하라는 계
- 병신년 9월 20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홍정당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좌의정 김상철(金相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공조판서 박종덕(朴宗德),

우참찬 윤동섭(尹東暹), 형조판서 이복원(李福源), 호조참판 장지항(張志恒), 행 부사직 윤득양(尹得養), 행 부호군 이주국(李柱國), 행 부사직 권도(權導),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강화유수 이미(李彌), 행 부사직 김노진(金魯鎭),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개성유수 서유경(徐有慶),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장령 구수온(具修溫)·박재원(朴在源), 헌납 이겸빈(李謙彬), 부교리 심유진(沈有鎭),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사변 가주서 송준재(宋俊載),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복태진(卜台鎭)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서유린·구수온·박재원·이겸빈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이번 옥사는 이상로(李商略)·이선해(李善海)의 서찰에 흉악하고 패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로 전에 없던 역절(逆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贊海)가 활발하게 같은 뜻을 품었음은 그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정을 대단히 잘못 시행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린·구수온·박재원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겸빈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꼭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꺾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二十四日 壬辰

- 丙申九月二十四日辰時，上御興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金尙喆，右議政鄭存謙，漢城判尹具善復，行司直徐命善，行戶曹判書鄭弘淳，行工曹判書朴宗德，行吏曹判書李重祐，禮曹判書鄭尙淳，刑曹判書李福源，戶曹參判張志恒，行副司直尹得養，行副護軍李柱國，行副護軍李漢膺，行副司直權導，禮曹參判沈履之，江華留守李瀾，行副司直金魯鎮，吏曹參判徐浩修，大司憲徐有隣，大司諫趙璦，掌令具修溫·朴祐源，校理朴天衡，都承旨洪國榮，左承旨鄭民始，右承旨金鍾秀，左副承旨俞彥鎬，右副承旨徐有防，同副承旨李鎮衡，假注書徐龍輔，事變假注書宋俊載，記注官金鳳顯，記事官卜台鎮，以次進伏訖，…… 尙喆曰，濟州監賑御史柳燾狀啓中，以爲移轉皮牟八千五百四十五石零，會錄於三邑軍資·常平兩倉云矣，從前此事，既有本府狀請之例，御史體段，亦與牧使有異，而國穀區處，事面不輕，則不稟朝家，直爲處置，有關後弊，不可以事過而置之，當該御史，罷職，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 有隣·璦·修溫·在源所啓，…… 又啓曰，今番獄事，商輅·善海之書札中凶言悖說，實是亘古所無之逆節，而趾海·纘海爛熳同情，渠既自服，則今此酌處之命，實爲失刑之大者，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濟州牧定配罪人纘海，更令王府拿鞫嚴問，快施當律，上曰，不允，…… 有隣·修溫·在源所啓，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爛熳和通之狀，渠既明白納招，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於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璦所啓，…… 又所啓，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拿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又所啓，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本以凶猾之性，素畜跋扈之志，交結厚賊·麟漢，作爲腹心瓜牙，身帶將兵之任，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蹤跡陰祕，爲世指目，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其於平日稔受泰淵之愆慝，故陰護麟漢，卽曲爲泰淵之地，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其陰謀綢繆之狀，尤不可不究覈，施以當律，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亟令王府拿鞫嚴問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24일(임진)

□ 죄인 홍찬해(洪纘海),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올문대로 처결하라는 계

- 병신년 9월 24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행 사직 서명선(徐命善),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공조판서 박종덕(朴宗德),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祜),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형조판서 이복원(李福源), 호조참판 장지항(張志恒), 행 부사직 윤득양(尹得養), 행 부호군 이주국(李柱國), 행 부호군 이한웅(李漢膺), 행 부사직 권도(權導),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강화유수 이미(李彌), 행 부사직 김노진(金魯鎭),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대사간 조환(趙煥), 장령 구수온(具修溫)·박우원(朴祐源), 교리 박천형(朴天衡),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우승지 김종수(金鍾秀), 좌부승지 유언호(兪彦鎬),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동부승지 이진형(李鎭衡), 가주서 서용보(徐龍輔), 사변 가주서 송준재(宋俊載),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복태진(卜台鎭)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상철이 말하기를, “제주 감진어사(濟州監賑御史) 유강(柳綱)의 장계에 이르기를 피모(皮牟) 8,545석(石)을 이전하여 3읍의 군자(軍資)·상평(常平) 두 창(倉)에 회록(會錄)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이 일은 이미 본부(本府)에서 장계로 청한 예가 있고, 어사의 체면은 목사와 차이가 있고 나라의 곡식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정에 아뢰지 않고 바로 처치하는 것은 훗날 폐해가 생길 수 있어 지난 일이라고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당해 어사를 파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중략> 서유린·조환·구수온·박재원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이번 옥사는 이상로(李商輅)·이선해(李善海)의 서찰에 흉악하고 패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로 전에 없던 역절(逆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가 활발하게 같은 뜻을 품었음은 그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정을 대단히 잘못 시행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린·구수온·박재원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

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조환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 삼은 죄인 김수현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꼭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꺾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감진어사,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유강, 김수현, 윤태연,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二十六日 甲午

- 濟州牧使狀啓, 歲貢馬所載舡人等渰死, 依關文恤典題給, 而其中私商人李大興段, 京居人, 其妻孥在京事, 傳于徐有防曰, 自賑廳題給.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26일(갑오)

-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세공마(歲貢馬)를 싣고 가다 익사한 이들에 대한 홀전에 대해 보고함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세공마(歲貢馬)를 싣은 뱃사람들이 익사하였으니 관문(關文)에 따라 홀전을 제급(題給)하되, 그 중 사상(私商) 이대흥(李大興)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처자식이 서울에 있다고 하였다. 서유방(徐有防)에게 전교하기를, “진청(賑廳)에서 제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세공마, 이대흥, 홀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二十六日 甲午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又啓曰, 請鏡城府定配罪人述海拿鞠, 嚴問得情, ……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26일(갑오)

-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경성부(鏡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二十六日 甲午

- 忠清道儒生進士臣金奎五, 幼學李熙慶, …… 李聲載等疏曰, 伏以, 嗚呼, 朱子既沒, 吾道東來, 醇儒輩出, 抽關啓鍵, 而其繼孔·朱之大成, 極事功之巍煥者, 又莫如宋文正, …… 文正之北謫南竄, 尙夏相隨不離, 而凡其一出一處, 一言一行文正未嘗不詢問而決焉, 尙夏未嘗不服膺而行之, 及文正之謫耽羅也, 用朱夫子傳衣故事, 以師門相傳之手蹟, 舉以畀之, 至其臨命, 執手勉之曰, 此後惟恃致道, …… 伏乞殿下, (下)臣等此章, 亟令儀曹, 詳考古今禮書, 士民正服, 朝士燕服, 一切改布服麻, 克復正禮, 以遵庚子已行之制, 以慰一國臣民之情焉. 答曰, 省疏具悉, 書院配享事, 當量, 麻帶事, 一欲博詢矣, 爾等退修學業.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26일(갑오)

□ 문순공 권상하(權尙夏)가 문정공을 계승한 상징성을 강조하고 서원에 배식할 것 등을 청한 충청도 유생 김규오(金奎五) 등의 상소

- 충청도 유생 진사 신 김규오(金奎五), 유학 이희경(李熙慶) <중략> 이성재(李聲載) 등이 상소하기를, “아아, 주자(朱子)께서 돌아가시자 유학(儒學)이 우리나라로 옮겨왔는데, 순유(醇儒)들이 나와서 빗장을 뿜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공자·주자 같은 대성(大成)을 계승하고, 사업과 공적이 높이 빛난 것은 송문정(宋文正)⁹⁾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중략> 문정(文正)이 남북으로 유배를 다닐 때 권상하(權尙夏)는 서로 따르며 떨어지지 않았고, 무릇 한번 출사하고 한번 물러남에 한마디 말씀과 한가지 행실도 문정은 일찍이 묻지 않고 결행하지 않았으며, 권상하는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문정이 탐라(耽羅)로 유배되었을 때 주부자(朱夫子)가 의복을 전한 고사를 써서 사문(師門)에 전해온 수적(手蹟)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하자 손을 잡고 권면하여 말하기를, ‘이 이후의 일은 오직 치도(致道)만 믿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엮드려 비오니 전하께서 저희의 이 글을 속히 예조로 하여금 고금의 예서(禮書)를 살펴보게 하고, 사민(士民)의 정복(正服)과 조사(朝士)의 연복(燕服)을 모두 포의(布衣)와 마대(麻帶)로 바꾸어 정례(正禮)를 극복하고 경자년(1720, 경종 즉위년)에 이미 수행했던 제도를 준수하여 일국 신민의 정을 위로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읽고 뜻을 잘 알았다. 서원

9) 송문정(宋文正): 문정공 송시열을 가리킴.

배향은 마땅히 상량(商量)해야 할 일이며, 마대(麻帶)에 대한 일은 한번 널리 물어보려고 한다. 너희는 물러나 학업에 힘쓰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송문정, 권상하, 김규오.

❖ 乾隆 四十一年 丙申 九月 二十八日 丙申

- 慶尙道聞慶幼學臣閔雨龍疏曰, …… 嗚呼, 耽羅一島, 雖邈處海外, 而化澤之所以漸摩, 則有非內地之比矣, 奈之何行用之法, 多非闢石之典, 積謬之弊, 已成膏肓之疾, 事事乖戾, 節節差誤, 而第伏念, 草食賤臣, 越樽是懼, 不敢條陳而煩猥, 迺若至於事關文廟, 感我聖師者, 則無論其地之爲某州某鄉, 而旣在縫掖之列, 則自不能置之而不論也, 於戲, 啓聖祠之肇建於泮宮之右者, 所以爲尊崇聖師之地, 則至於耽羅, 亦宜模倣泮制, 建廟奉安, 而夫何其時, 不是之爲? 乃以啓聖之位, 權設於兩廡之間, 同享於門人之座, 仍因襲謬而莫之正也, 噫, 子之居上, 父之居下, 則雖是凡人私廟, 亦已無謂, 曾謂五聖之廟, 乃有此顛倒襲謬之失乎? …… 顧此耽羅之權享於兩廡者, 抑何據也? 此不過不能審慎, 趁未建廟之致而襲謬至今耳, 豈可以一時島儒之謬舉, 仍作萬世文廟之享儀乎? …… 又況耽羅一島, 則本無量田賦稅之法, 而反啓法外橫斂之端, 至使貧富不均, 苦歇不齊, 而教養無法, 人彝幾斁乎?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9월 28일(병신)

- 탐라(耽羅)에서 문묘에 제향하는 의례가 잘못된 채 내려오고 있는 상황 등을 비판한 민우룡(閔雨龍)의 상소
- 경상도 문경 유학 신(臣) 민우룡(閔雨龍)이 상소하기를, “〈중략〉 아아, 탐라(耽羅) 한 섬은 비록 아득히 해외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화의 은택을 점점 연마하였는데, 다른 내지에 비유할 곳은 아니니 어찌합니까. 행용(行用)하는 법은 많은 경우 공포하여 실행하는 법이 아니니 오류가 쌓이는 폐단이 이미 고향지질(膏肓之疾)이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어긋나고 마디마디 잘못되니 가만히 생각건대 초식만 하는 천한 신하는 제기를 던져넘는 것이 두려워 감히 조목조목 아뢰지 못합니다만 외람됨을 무릅쓰고자 합니다. 문묘와 관계된 일에 이르면 공자님을 근심한다면 그 땅이 모주(某州) 모향(某鄉)이든 관계없이 이미 도포를 입는 선비라면 스스로 치지도외하고 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아, 계성사(啓聖祠)¹⁰⁾를 반궁(泮宮)의 우측에 건립한 것은 공자님을 존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탐라에 이르면 또한 마땅히 반제(泮制)를 모방하여 사당을 건립하여

10) 계성사(啓聖祠): 공자(孔子), 안자(顔子), 자사(子思), 증자(曾子), 맹자(孟子)의 부친을 제사하는 사당으로, 지금 서울의 문묘(文廟)에도 있었음.

불안하면 되는데 어째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에 계성(啓聖)의 자리를 임시로 양무(兩廡) 사이에 설치하여 문인들이 함께 제향하고 그대로 오류를 답습하고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아아, 아들이 위에 있고 아버지가 아래에 놓였으니 비록 평범한 사람의 사묘(私廟)라 해도 또한 말할 수 없는데, 일찍이 5성(聖)의 묘(廟)가 이렇게 전도되어 오류를 답습한 실수가 있었습니까? 〈중략〉 이 탐라가 양무에 임시로 제향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이는 신중하게 살피지 못하고, 제때 건묘(建廟)에 이르지 못해 오류를 답습하며 지금까지 온 것에 불과합니다. 어찌 한때 섬 유학자의 잘못된 거조가 그대로 만세의 문묘의 제향 의례가 되었단 말입니까. 〈중략〉 또 하물며 탐라 한 섬은 본래 양전, 부세의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법 밖으로 마구 징수하는 단서를 열고 빈부를 고르지 못하게 하여, 고향(苦歎)이 고르지 않아서 교양(敎養)할 법이 없고 인간의 이륜이 뒤섞인단 말입니까. 〈중략〉”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탐라, 민우룡, 계성사.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八日 丙午

- 大司諫趙瑬,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巨濟府荐棘罪人尹養厚, 亟令王府, 拿鞠嚴問, 快正王法. 答曰, 不允.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答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8일(병오)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조환(趙瑬),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거제부(巨濟府)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양후(尹養厚)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으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八日 丙午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答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8일(병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八日 丙午

- 獻納辛應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答曰, 不允. 請旌義縣荐棘[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8일(병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헌납 신응삼(辛應三)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日 戊申

- 大司諫趙瑬,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巨濟府荐棘罪人尹養厚, 亟令王府, 拿鞫嚴問, 快正王法. 答曰, 不允.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 更爲拿鞫得情. 答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0일(무신)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조환(趙瑬),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거제부(巨濟府)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양후(尹養厚)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웅천현(熊川縣)에 정배된 죄인 성운(成運)을 조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윤양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日 戊申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答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0일(무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日 戊申

- 獻納辛應三啓曰, 請南海郡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答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0일(무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헌납 신응삼(辛應三)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二日 庚戌

- 大司諫趙瑬,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2일(경술)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조환(趙瑬),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중략>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마땅한 율문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二日 庚戌

- 獻納辛應三啓曰,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抵,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兇猾之性, 素蓄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稔受泰淵之慝,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 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2일(경술)

□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헌납 신응삼(辛應三)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꼭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二日 庚戌

- 掌令具修溫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2일(경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처결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三日 辛亥

- 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凶言悖說, 實是亘古所無之逆節, 而趾海·纘海之爛漫同情, 渠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3일(신해)

□ 죄인 홍지해(洪趾海), 홍찬해(洪纘海)를 마땅한 형률로 다시 처결하라는 계

- 이번 옥사는 이상로(李商輅)·이선해(李善海)의 서찰에 흉악하고 패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로 전에 없던 역절(逆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가 활발하게 같은 뜻을 품었음은 그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정을 대단히 잘못 시행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온성부.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三日 辛亥

- 掌令具修溫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3일(신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三日 辛亥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拿鞫嚴問，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3일(신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三日 辛亥

-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本以兇猾之性，素蓄跋扈之志，交結厚賊・麟漢，作為腹心爪牙，身帶將兵之任，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蹤跡陰祕，為世指目，以今若淵護逆之計觀之，其於平日稔受泰淵之慫慂，故陰護麟漢，即曲為泰淵之地，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其陰謀綢繆之狀，尤不可不究覈，施以當律，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3일(신해)

□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라는 계

-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꼭진히 위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벌하소서.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윤약연, 홍인한, 정후겸.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四日 壬子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4일(임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四日 壬子

- 獻納辛應三啓曰, 請海南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4일(임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五日 癸丑

- 大司諫趙煥,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巨濟府荐棘罪人尹養厚, 亟令王府拿鞠嚴問, 快正王法. 又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5일(계축)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조환(趙煥),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거제부(巨濟府)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양후(尹養厚)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윤양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五日 癸丑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5일(계축)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五日 癸丑

- 獻納辛應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5일(계축)

-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七日 乙卯

- 大司諫趙瑬,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巨濟府荐棘罪人尹養厚, 亟令王府, 拿鞫嚴問, 快正王法. 又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鞫嚴問, 快施當律,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7일(을묘)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조환(趙瑬),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거제부(巨濟府)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양후(尹養厚)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윤양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七日 乙卯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7일(을묘)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七日 乙卯

- 獻納辛應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7일(을묘)

□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八日 丙辰

- 大司諫趙瑬,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8일(병진)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조환(趙瑬),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八日 丙辰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8일(병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十八日 丙辰

- 獻納辛應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18일(병진)

□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日 戊午

- 大司諫趙瑬,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答兩司合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0일(무오)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

- 대사간 조환(趙瑬),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에 대하여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日 戊午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0일(무오)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日 戊午

- 獻納辛應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靜義縣[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0일(무오)

-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一日 己未

- 丙申十月二十一日午時, 上御興政堂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知事黃景源, 特進官李在協, 參贊官李普溫, 侍讀官閔養燮, 檢討官鄭宇淳, 宗臣凝善君熾, 武臣金樂淳, 假注書李兢淵, 記注官金鳳顯, 記事官卜台鎮,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兵曹判書洪樂性, 行吏曹判書李重祜, 行副護軍張志恒, 漢城左尹尹得養, 行副護軍李漢膺, 禮曹參判沈履之, 行副司直金魯鎮, 戶曹參判徐浩修,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 左承旨蔡弘履, 事變假注書李殷模, 以次進伏訖, …… 修溫・應三曰, 請巨濟府荐棘罪人尹養 <厚>, 亟令王府, 拿鞠嚴問,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修溫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應三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 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1일(기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올문대로 처벌하라는 계
- 병신년 10월 21일 오시(午時)에 임금이 홍정당에 나아가 주장에 임했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지사 황경원(黃景源), 특진관 이재협(李在協), 참찬관 이보온(李普溫), 시독관 민양섭(閔養燮), 검토관 정우순(鄭宇淳), 종신 응선군(凝善君) 희(熾), 무신 김낙순(金樂淳), 가주서 이공연(李兢淵),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복태진(卜台鎮),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병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祜), 행 부호군 장지항(張志恒), 한성좌윤 윤득양(尹得養), 행 부호군 이한웅(李漢膺),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행 부사직 김노진(金魯鎮), 호조참판 서호수(徐浩修),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 좌승지 채홍리(蔡弘履), 사변 가주서 이은모(李殷模)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구수온・신응삼이 말하기를, “청컨대 거제부(巨濟府)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양후(尹養厚)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구수온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신응삼이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二日 庚申

- 大司諫趙瑬,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 <問>, 快施當律,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2일(경신)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 합계

- 대사간 조환(趙瑬),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에 대하여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二日 庚申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2일(경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二日 庚申

- 獻納辛應三啓曰, 請海南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靜義縣[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2일(경신)

□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三日 辛酉

- 大司諫趙瑬,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3일(신유)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조환(趙瑬),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三日 辛酉

- 獻納辛應三啓曰, …… 又啓曰, 請靜義縣[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3일(신유)

□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헌납 신응삼(辛應三)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三日 辛酉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3일(신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四日 壬戌

- 大司諫趙煥,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洪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續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4일(임술)

□ 죄인 홍찬해(洪續海) 등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조환(趙煥),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續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四日 壬戌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4일(임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구수온(具修溫)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月 二十四日 壬戌

- 獻納辛應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0월 24일(임술)

□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一日 己巳

- 大司諫趙瑬,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鞫嚴問, 快施當律, …… 答兩司合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1일(기사)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조환(趙瑬),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 합계에 대하여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一日 己巳

- 獻納辛應三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具庠,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1일(기사)

□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의 계에 대하여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一日 己巳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1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의 계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四日 壬戌[壬申]

- 大司諫趙瑬,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啓曰, 請穩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4일(임술[임진])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조환(趙瑬),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四日 壬戌[壬申]

○ 掌令具修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4일(임술[임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계

○ 장령 구수온(具修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四日 壬戌[壬申]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4일(임술[임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四日 壬戌[壬申]

○ 又啓曰, 請靜義縣[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4일(임술[임진])

□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五日 癸酉

- 丙申十一月初五日巳時, 上御興政堂, 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特進官宋文載, 同知事沈履之, 參贊官金鍾秀, 侍讀官[侍讀官]閔養燮, 檢討官洪明浩, 假注書李兢淵, 記注官金鳳顯·卜台鎮, 西清君煜, 行副護軍李策,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兼禮曹判書蔡濟恭, 兼判尹具善復, 行工曹判書徐命善,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兵曹判書洪樂性, 行吏曹判書李重祐, 左尹尹得養, 同知中樞府事李漢膺, 禮曹參判沈履之, 江華留守李瀾, 掌令具修溫, 獻納辛應三, 左承旨蔡弘履, 事變假注書李殷模, 以次進伏訖, …… 修溫·應三曰, ……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修溫曰,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5일(계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대신들의 계

- 병신년 11월 초5일 사시에 임금이 홍정당에 나아가 주장에 임했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특진관 송문재(宋文載), 동지사 심이지(沈履之), 참찬관 김중수(金鍾秀), 시독관 민양섭(閔養燮), 검토회관 홍명호(洪明浩), 가주서 이금연(李兢淵), 기주관 김봉현(金鳳顯)·복대진(卜台鎭), 서청군(西淸君) 성(煜), 행 부호군 이책(李策),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겸 예조판서 채제공(蔡濟恭), 겸 판윤 구선복(具善復), 행 공조판서 서명선(徐命善),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병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祐), 좌윤 윤득양(尹得養), 동지중추부사 이한웅(李漢膺), 예조참관 심이지(沈履之), 강화유수 이미(李瀾), 장령 구수온(具修溫), 헌납 신응삼(辛應三), 좌승지 채홍리(蔡弘履), 사변 가주서 이은모(李殷模)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구수온·신응삼이 말하기를, <중략>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구수온이 말하기를,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六日 甲戌

- 丙申十一月初六日午時, 上御興政堂, 晝講入侍時, 知事黃景源, 特進官李在簡, 參贊官蔡弘履, 侍讀官閔養燮, 檢討官洪明浩, 假注書李兢淵, 記注官金鳳顯·卜台鎮, 行副護軍權拭, 河恩君珖, 掌令林濟遠, 獻納辛應三, 以次進伏, …… 濟遠·應三曰, 請巨濟府荐棘罪人尹養厚, 亟令王府拿鞠嚴問,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濟遠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應三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6일(갑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대신들의 계

- 병신년 11월 초6일 오시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주장에 입시했을 때 지사 황경원(黃景源), 특진관 이재간(李在簡), 참찬관 채홍리(蔡弘履), 시독관 민양섭(閔養燮), 검토관 홍명호(洪明浩), 가주서 이공연(李兢淵), 기주관 김봉현(金鳳顯)·복대진(卜台鎮), 행 부호군 권식(權拭), 하은군(河恩君) 광(珖), 장령 임제원(林濟遠), 헌납 신응삼(辛應三)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제원·신응삼이 말하기를, “청컨대 거제부(巨濟府)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양후(尹養厚)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제원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신응삼이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七日 乙亥

- 大司憲金載順, 司諫金履禧, 掌令吳著·羅燮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7일(을해)

- ☐ 죄인 홍지해(洪趾海),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김재순(金載順),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오저(吳著)·나혁(羅燮)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온성부,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七日 乙亥

- 掌令羅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7일(을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나혁(羅煥)의 계

- 장령 나혁(羅煥)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나혁.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七日 乙亥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7일(을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七日 乙亥

○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7일(을해)

□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 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八日 丙子

- 大司憲金載順, 司諫金履禧, 掌令吳著·羅燮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8일(병자)

- ☐ 죄인 홍지해(洪趾海),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김재순(金載順),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오저(吳著)·나혁(羅燮)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온성부,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八日 丙子

- 掌令吳著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8일(병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오저(吳著)의 계

- 장령 오저(吳著)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八日 丙子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8일(병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八日 丙子

○ 又啓曰, 請靜義縣[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8일(병자)

□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 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十八日 丙戌

- 司諫金履禧, 掌令李枰·尹在醇, 獻納金東淵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8일(병자)

- ☐ 죄인 홍지해(洪趾海),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이평(李枰)·윤재순(尹在醇),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온성부,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十八日 丙戌

- 掌令李枰·尹在醇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18일(병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이평(李枰)·윤재순(尹在醇)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十八日 丙戌

- 獻納金東淵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拿鞠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答院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18일(병술)

-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의 계에 대하여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十九日 丁亥

- 丙申十一月十九日巳時, 上御興政堂, 晝講入侍, 詣臺臺臣同爲入侍時, 知事黃景源, 特進官權導, 參贊官徐有防, 侍讀官李在學·李獻慶, 假注書李兢淵, 記注官金鳳顯·卜台鎮·安川君炷, 副護軍徐有和, 掌令李枰, 獻納金東淵, 以次進伏訖, …… 枰·東淵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枰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東淵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19일(정해)

□ 죄인 홍찬해(洪纘海),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병신년 11월 19일 사시에 임금이 흥정당으로 나아갔다. 주장에 대각에 나온 대신이 함께 입시했을 때 지사 황경원(黃景源), 특진관 권도(權導), 참찬관 서유방(徐有防), 시독관 이재학(李在學)·이헌경(李獻慶), 가주서 이궁연(李兢淵), 기주관 김봉형(金鳳顯)·복태진(卜台鎮)·안천군(安川君) 규(炷), 부호군 서유화(徐有和), 장령 이평(李枰),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평·김동연이 말하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평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를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동연이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

(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홍찬해,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日 戊子

- 丙申十一月二十日辰時, 上御崇政殿, 常參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右承旨蔡弘履, 左副承旨鄭民始, 右副承旨徐有防, 同副承旨李普溫, 假注書柳孟養·李兢淵, 記注官金鳳顯·卜台鎭, 以次侍立訖, …… 杔·在醇·東淵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杔·在醇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東淵曰, 請海南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0일(무자)

□ 죄인 홍찬해(洪纘海),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병신년 11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승정전으로 나아갔다. 상참에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우승지 채홍리(蔡弘履),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동부승지 이보온(李普溫), 가주서 유맹양(柳孟養)·이궁연(李兢淵), 기주관 김봉형(金鳳顯)·복태진(卜台鎭)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평·윤재순·김동연이 말하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평·윤재순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를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동연이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홍찬해,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一日 己丑

- 掌令李杔·尹在醇, 獻納金東淵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1일(기축)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장령 이평(李枰)·윤재순(尹在醇),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一日 己丑

- 掌令尹在醇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1일(기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윤재순(尹在醇)의 계

- 장령 윤재순(尹在醇)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一日 己丑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1일(기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一日 己丑

○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1일(기축)

□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심문하여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二日 庚寅

- 丙申十一月二十二日辰時, 上御興政堂, 啓覆入侍時,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兼禮曹判書蔡濟恭, 行判尹李景祐, 右參贊黃景源, 吏曹判書李徽之, 戶曹參判鄭昌聖, 伏於東, 兼刑曹判書具善復, 安春尹炯, 行工曹判書徐命善, 行兵曹判書洪樂性, 知敦寧金孝大, 刑曹參判鄭一祥, 同知沈璣, 咸春君李昌運, 伏於西,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金鍾秀, 右承旨蔡弘履, 左副承旨鄭民始, 右副承旨徐有防, 同副承旨李鎮衡, 伏於南一行, 刑曹參議李世奭, 掌令李杵·尹在醇, 獻納金東淵, 校理李秉模, 修撰沈有鎮, 伏於南二行, 假注書李兢淵, 事變假注書李殷模, 記注官金鳳顯·卜台鎮, 伏於南三行, …… 杵·在醇·東淵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杵·在醇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東淵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 律處斷.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2일(경인)

- 계복(啓覆)에 입시한 자리에서 대신들이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고 건의함
- 병신년 11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계복(啓覆)¹¹⁾에 입시했을 때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겸 예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관운 이경호(李景祐), 우참찬 황경원(黃景源), 이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호조참판 정창성(鄭昌聖)이 동쪽에 부복하였다. 겸 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안춘군(安春尹) 윤(炯), 행 공조판서 서명선(徐命善), 행 병조판서 홍낙성(洪樂性), 지돈녕 김효대(金孝大), 형조참판 정일상(鄭一祥), 동지 심발(沈璣), 함춘군(咸春君) 이창운(李昌運)이 서쪽에 부복하였다.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김종수(金鍾秀), 우승지 채홍리(蔡弘履),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동부승지 이진형(李鎮衡)이 남쪽 1열에 부복하였다. 형조참의 이세석(李世奭), 장령 이평(李杵)·윤재순(尹在醇), 헌납 김동연

11) 계복(啓覆): 임금께 아뢰어 사형수를 재심(再審)하는 것을 말함.

(金東淵), 교리 이병모(李秉模), 수찬 심유진(沈有鎭)이 남쪽 2열에 부복하였다. 가주서 이금연(李兢淵), 사면 가주서 이은모(李殷模), 기주관 김봉현(金鳳顯)·북태진(卜台鎭)이 남쪽 3열에 부복하였다. 〈중략〉 이평·윤재순·김동연이 말하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贊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평·윤재순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동연이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홍찬해,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三日 辛卯

- 司諫金履禧, 掌令李枰·尹在醇, 獻納金東淵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3일(신묘)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사간 김이희(金履禧), 장령 이평(李枰)·윤재순(尹在醇),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청건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三日 辛卯

- 掌令李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3일(신묘)

□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이평(李枰)의 계

- 장령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三日 辛卯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3일(신묘)

□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게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三日 辛卯

○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3일(신묘)

□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四日 壬辰

- 濟州防禦使狀啓, 進上節果未免代封, 惶恐待罪事, 傳于徐有防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4일(임진)

- 제주 방어사(濟州防禦使)가 과일 진상을 대봉(代封)하게 되어 대죄한다는 장계를 올림
- 제주 방어사(濟州防禦使)가 장계로 진상할 계절 과일이 대봉(代封)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황공하여 대죄(待罪)한다고 아뢰었다. 서유방(徐有防)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방어사, 진상, 대봉.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四日 壬辰

- 丙申十一月二十四日巳時, 上御興政堂, 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同知事沈履之, 特進官李在簡, 參贊官李鎮衡, 侍讀官李敬養, 檢討官朴天衡, 假注書李兢淵, 記注官金鳳顯·卜台鎮, 宗臣西春君燁, 武臣李顯宅,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兼兵曹判書具善復, 行工曹判書徐命善, 行副司直張志恒, 同知中樞府事李漢膺, 掌令尹在醇, 左副承旨鄭民始, 事變假注書李殷模, 以次進伏訖, …… 在醇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4일(임진)

- 주장에 입시한 자리에서 장령 윤재순(尹在醇)이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해 달라고 아뢰
- 병신년 11월 24일 사시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주장에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동지사 심이지(沈履之), 특진관 이재간(李在簡), 참찬관 이진형(李鎭衡), 시독관 이경양(李敬養), 검토관 박천형(朴天衡), 가주서 이궁연(李兢淵), 기주관 김봉현(金鳳顯)·복태진(卜台鎭), 종신 서춘군(西春君) 엽(燁), 무신 이현택(李顯宅),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겸병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행 공조판서 서명선(徐命善),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동지중추부사 이한웅(李漢膺), 장령 윤재순(尹在醇),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사변 가주서 이은모(李殷模)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윤재순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의 노(奴)를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四日 壬辰

- 丙申十一月二十四日未時, 上御尊賢閣,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鄭民始, 假注書李兢淵, 記注官金鳳顯·卜台鎮, 以次進伏訖, …… 民始曰, 濟州貢馬之每年封進例也, 而近來雄馬絕乏, 無以充數, 故都提調以依舊例, 每式年封進之意, 有所陳達, 而進上停退, 事涉重大, 不敢以舉條舉行云矣, 命書傳教曰, 濟州·中山馬封進, 雄馬數少, 亦爲民弊云, 明年勿爲封進, 依舊例每式年封進事, 分付,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4일(임진)

□ 진상할 수말이 적고 민폐가 되므로 제주 공마(濟州貢馬)를 식년에만 봉진할 것을 논의함

- 병신년 11월 24일 미시에 임금이 존현각에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이궁연(李兢淵), 기주관 김봉현(金鳳顯)·북태진(卜台鎭)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정민시가 말하기를, “제주 공마(濟州貢馬)는 매년 봉진하는 것이 상례인데 요사이 수말이 매우 적어 수효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제조가 구례(舊例)에 따라 매 식년에 봉진하라는 뜻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을 정퇴(停退)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니 감히 거행조건으로 거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쓸 것을 명하고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의 산마(山馬) 봉진은 수말 숫자가 적고 또한 민폐가 되고 있다고 하니, 내년에는 봉진하지 말고 구례에 따라 매 식년에 봉진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공마, 산마, 진상.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五日 癸巳

- 掌令李枰, 正言尹得孚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5일(계사)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장령 이평(李枰), 정언 윤득부(尹得孚)가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 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五日 癸巳

○ 掌令李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5일(계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이평(李枰)의 계

○ 장령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五日 癸巳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5일(계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五日 癸巳

○ 又啓曰, 請靜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5일(계사)

□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 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六日 甲午

- 掌令李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6일(갑오)

□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이평(李枰)의 계

- 장령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七日 乙未

- 蔡弘履, 以禮曹言啓曰, 宗廟孝明殿·山陵·徽寧殿·延福殿薦新, 以濟州牧使所封進上柑子·唐金橘, 爲先薦進矣, 薦新柑子·唐金橘, 今始來到, 令廚院依例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7일(을미)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진상품을 종묘 등에 천신하는 문제에 대한 예조의 계

- 채홍리(蔡弘履)가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종묘·효명전(孝明殿)·산릉·휘령전(徽寧殿)·연복전(延福殿)에 대한 천신(薦新)은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진상한 감자(柑子)·당금귤(唐金橘)로 우선 천신합니다. 천신할 감자·당금귤이 지금 비로소 당도했으니 주원(廚院)으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받아들이게 한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천신, 감자, 당금귤.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九日 丁酉

- 濟州防禦使狀啓, 凡係蠲減, 停退等事, 一邊馳啓, 一邊舉行, 自是已行之例, 今亦依前舉行, 而事涉擅便, 惶恐待罪事, 傳于鄭民始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9일(정유)

- 견감(蠲減)과 정퇴(停退) 등의 일을 마음대로 거행하여 대죄한다는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이르기를, “모든 견감(蠲減)과 정퇴(停退) 등에 관한 일은 한편으로는 재빨리 아뢰고, 한편으로는 거행하는 것이 이미 행해졌던 상례입니다. 지금 또한 이전의 사례에 따라 거행했으나 마음대로 한 것이 되었으니 황공하여 대죄합니다.”라고 하였다. 정민시(鄭民始)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견감, 정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九日 丁酉

- 掌令李杔·尹在醇, 獻納金東淵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9일(정유)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장령 이평(李枰)·윤재순(尹在醇),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九日 丁酉

- 掌令李枰·尹在醇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9일(정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이평(李枰)·윤재순(尹在醇)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九日 丁酉

○ 又啓曰, 請大靜 <縣> 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9일(정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一月 二十九日 丁酉

- 又啓曰, 請靜義縣[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1월 29일(정유)

□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 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日 己亥

- 丙申十二月初二日巳時, 上詣金商門內, 親鞫殿座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金鍾秀, 右承旨蔡弘履, 左副承旨鄭民始, 右副承旨徐有防, 同副承旨李鎮衡, 假注書李兢淵, 事變假注書李殷模, 記注官金鳳顯·卜台鎮, 以次侍立訖, …… 得養·枰·在醇·東淵·得孚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濟州牧定配罪人續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得養·枰·在醇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東淵·得孚曰, 請南海園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鞫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일(기해)

- 전좌에 입시하나 대신들이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홍찬해(洪贊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고 건의함
- 병신년 12월 초2일 사시에 임금이 금상문(金商門) 안으로 나아가 친국(親鞫)하는 전좌(殿座)에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김종수(金鍾秀), 우승지 채홍리(蔡弘履),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동부승지 이진형(李鎭衡), 가주서 이궁연(李兢淵), 사변 가주서 이은모(李殷模), 기주관 김봉현(金鳳顯)·복태진(卜台鎭)이 차례로 시위(侍位)하고 섰다. 〈중략〉 윤득양(尹得養)·이평(李枰)·윤재순(尹在醇)·김동연(金東淵)·윤득부(尹得孚)가 말하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贊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윤득양·이평·윤재순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동연·윤득부가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홍찬해,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三日 庚子

- 掌令李杔·尹在醇, 獻納金東淵, 正言尹得孚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3일(경자)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장령 이평(李杔)·윤재순(尹在醇), 헌납 김동연(金東淵), 정언 윤득부(尹得孚)가 아뢰기를, “청건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고 마땅한 율문을 시원하게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三日 庚子

- 掌令李枰·尹在醇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3일(경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이평(李枰)·윤재순(尹在醇)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三日 庚子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3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三日 庚子

○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3일(경자)

□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八日 乙巳

- 濟州牧使狀啓, 進上乳柑, 以金橘代封, 惶恐待罪事, 傳于鄭民始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8일(을사)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진상할 유감(乳柑) 대신 금귤(金橘)을 봉진하게 되어 대죄한다고 보고함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진상할 유감(乳柑)을 금귤(金橘)로 대신 봉진하게 되었으므로 황공하여 대죄한다고 하였다. 정민시(鄭民始)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감, 금귤.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十日 丁未

- 丙申十二月初十日巳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 內局同爲入侍時, 左議政金尙喆, 兼禮曹判書蔡濟恭, 兼兵曹判書具善復,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副司直張志恒, 同知中樞府事李漢膺, 禮曹參判沈履之, 副校理李獻慶, 左副承旨徐有防, 假注書李兢淵, 事變假注書鄭東俊[鄭東浚], 記注官金鳳顯·卜台鎮, 藥房都提調鄭存謙, 提調徐命善, 副提調洪國榮, 以次進伏訖, …… 尙喆曰, 此濟州牧使柳憐災實分等狀啓也, 備陳本島穡事免歉之狀, 仍以爲舊還姑爲停退, 新還期於準捧, 各寺奴身貢米, 依近例每口二斗內減一斗, 男丁大同米五升內, 減一升捧上, 操鍊之政, 軍兵之裹糧赴操, 實多擾民之端, 待明春從便鍊習之意, 竝爲分付, 而凡係蠲減停退等事, 一邊馳啓, 一邊舉行, 自是已行之例, 今亦依前舉行事, 竝請令廟堂稟處矣, 耽羅之逐年如是舉行, 卽是舊例, 今此所請, 亦無所靳難者, 竝依請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10일(정미)

- 옛 환곡 납부 기한을 물려주고 시노(寺奴)의 신공미(身貢米)를 줄여 주자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혁(柳憐)의 장계를 보고하고 시행 방안을 논의함
- 병신년 12월 초10일 사시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내국(內局)이 함께 입시켰을 때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겸 예조판서 채제공(蔡濟恭), 겸 병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동지중추부사 이한웅(李漢膺),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부교리 이헌경(李獻慶), 좌부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이궁연(李兢淵), 사변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기주관 김봉현(金鳳顯)·복태진(卜台鎮), 약방 도제조 정존겸(鄭存謙), 제조 서명선(徐命善), 부제조 홍국영(洪國榮)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상철이 말하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혁(柳憐)의 재실분등(災實分等) 장계입니다. 본도(本島)의 농사가 흉년을 면한 상황을 갖추어 아뢰고 “제주 목사 유혁(柳憐)이 재실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에서 본도(本島)의 농사가 흉년을 면한 상황을 갖추어 진달하고, 이어 말하기를, ‘옛 환곡의 납부 기한을 우선 물려주면 새 환곡은 기필코 정해진 대로 받을 것이며, 각시(各寺)의 노비 신공미는 근년의 전례대로 매구당(每口當) 2두(斗) 가운데 1두를 감하고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5승(升) 가운데 1승

을 감하여 봉상(捧上)하며, 군사를 조련하는 정사는 내년 봄에 편의대로 연습하도록 아울러 분부하소서. 그리고 견감(鑕減)하거나 물려주는 등의 일은 한편으로 치계(馳啓)하고 한편으로 거행하는 것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 전례이니, 이번에도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처리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탐라(耽羅)가 해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오랜 전례이니, 이번에 청한 것도 어렵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¹²⁾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유혁, 재실분등, 신공미, 대동미.

12) 《일성록》 1776년(정조 즉위년) 12월 10일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十二日 庚戌[己酉]

- 柳 炯, 以司僕寺言啓曰, 大靜前縣監韓東岳遞任, 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 廐立養, 而封進體重, 兩馬俱病, 當該前縣監, 不可無飭,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12일(경술[기유])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한동악(韓東岳)이 교체되면서 바친 진상마에 대한 사복시의 계

- 유강(柳炯)이 사복시의 말로써 아뢰기를, “대정(大靜) 전 현감 한동악(韓東岳)이 교체되어 체임 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되, 봉진(封進)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두 말이 모두 병들었으니 해당 전 현감을 꾸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고하여 경계하고 질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한동악, 진상마.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十七日 乙卯[甲寅]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17일(을묘[갑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十七日 乙卯[甲寅]

- 又啓曰, 請靜義縣[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17일(을묘[갑인])

□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十八日 丙辰[乙卯]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18일(병진[을묘])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十八日 丙辰[乙卯]

○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18일(병진[을묘])

□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十九日 丁巳[丙辰]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19일(정사[병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十九日 丁巳[丙辰]

○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19일(정사[병진])

□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국법대로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十日 戊午[丁巳]

- 丙申十二月二十日巳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兼禮曹判書蔡濟恭, 行工曹判書徐命善, 行戶曹判書鄭弘淳, 吏曹判書李徽之, 行副司直張志恒, 同知中樞府事李漢膺, 禮曹參判沈履之, 右尹金魯鎭, 司諫李謙彬, 校理李鼎揆, 左副承旨兪彥鎬, 假注書李兢淵, 事變假注書鄭東浚, 記注官金鳳顯·卜台鎭, 以次進伏訖, …… 謙彬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鞫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0일(무오[정사])

-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사간 이겸빈(李謙彬)이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할 것을 건의함

- 병신년 12월 20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겸 예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공조판서 서명선(徐命善),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이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동지중추부사 이한응(李漢膺),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우윤 김노진(金魯鎭), 사간 이겸빈(李謙彬), 교리 이정규(李鼎揆), 좌부승지 유언호(兪彦鎬), 가주서 이궁연(李兢淵), 사변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기주관 김봉현(金鳳顯)·복태진(卜台鎭)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겸빈이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 대정현, 윤태연,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十一日 戊午

- 有政, 吏曹判書李徽之進, 參判沈履之進, 參議未差, 以尹弼秉爲掌令, …… 黃
取彦爲濟州牧使, …… 沈樂洙爲蔚珍縣令.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1일(무오)

□ 황취언(黃取彦)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조판서 이휘지(李徽之)가 나왔고, 참판 심이지(沈履之)
가 나왔고, 참의는 차출하지 않았다. 윤필병(尹弼秉)을 장령으로 삼고, 〈중략〉
황취언(黃取彦)¹³⁾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고, 〈중략〉심낙수(沈樂洙)를 올
진현령(蔚珍縣令)으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황취언.

13) 황취언(黃取彦): 보관은 창원(昌原).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777년 3월(정조 1)~1778년 12월(정조 2).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十一日 戊午

- 司諫李謙彬啓曰,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兇猾之性, 素畜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 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慫慂,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1일(무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악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곡진히 위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

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택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十五日 壬戌

- 大司憲李命植, 大司諫尹弘烈, 司諫李謙彬, 掌令朴在源, 正言鄭志謙·閔養燮啓曰, 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 凶言悖說, 實是亘古所無之逆節, 而趾海·纘海, 爛漫同情, 渠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 答兩司合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5일(임술)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내용의 사헌부와 사간원 합계

- 대사헌 이명식(李命植), 대사간 윤홍열(尹弘烈), 사간 이겸빈(李謙彬), 장령 박재원(朴在源), 정언 정지겸(鄭志謙)·민양섭(閔養燮)이 아뢰기를, “이번 옥사는 이상로(李商輅)·이선해(李善海)의 서찰에 흉악하고 패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로 전에 없던 역절(逆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가 활발하게 같은 뜻을 품었음은 그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 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정을 대단히 잘못 시행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 합계에 대하여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十五日 壬戌

- 掌令朴在源啓曰, 妖宦金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5일(임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장령 박재원(朴在源)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十五日 壬戌

- 正言鄭志儉啓曰, ……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兇猾之性, 素畜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慫慂,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覆,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5일(임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정언 정지검(鄭志儉)이 아뢰기를, “〈중략〉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곡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꾀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

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택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十六日 癸亥

- 丙申十二月二十六日巳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 纂輯堂郎, 同爲入侍時,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兼禮曹判書蔡濟恭,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工曹判書徐命善,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兵曹判書洪樂性, 刑曹判書鄭尙淳, 吏曹判書李徽之, 行副司直張志恒, 行副司直李漢膺, 吏曹參判沈履之, 右尹金魯鎮, 行都承旨洪國榮, 大司諫尹弘烈, 司諫李謙彬, 掌令朴在源, 校理李在學, 副校理鄭宇淳, 正言閔養燮·鄭志儉, 左參贊李重祐, 右參贊黃景源, 漢城判尹李福源, 左尹李世澤, 工曹參判鄭光漢, 副司直金夏材, 吏曹佐郎李秉模·李敬養, 左副承旨鄭民始, 假注書金勉柱, 事變假注書鄭東浚, 記注官卜台鎮, 記事官林錫喆, 以次進伏訖, …… 弘烈·謙彬·在源·養燮·志儉等啓曰, 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 凶言悖說, 實是亙古所無之逆節, 而趾海·續海之爛漫同情, 渠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續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又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抵,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又啓曰,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凶猾之性, 素蓄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腹心瓜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祕受泰淵之慫恿,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在源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6일(계해)

- ☐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대신들이 죄인 홍찬해(洪纘海),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할 것을 건의함
- 병신년 12월 26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찬집당랑(纂輯堂郎)이 함께 입시했을 때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검 예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공조판서 서명선(徐命善),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병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형조판서 정상순(鄭尙淳), 이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동지중추부사 이한응(李漢膺), 예조참판 심이지(沈履之), 우윤 김노진(金魯鎭),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대사간 윤홍열(尹弘烈), 사간 이겸빈(李謙彬), 장령 박재원(朴在源), 교리 이재학(李在學), 부교리 정우순(鄭宇淳), 정언 민양섭(閔養燮)·정지검(鄭志儉), 좌참찬 이중호(李重祐), 우참찬 황경원(黃景源), 한성판윤 이복원(李福源), 좌윤 이세택(李世澤), 공조참판 정광한(鄭光漢), 부사직 김하재(金夏材), 이조좌랑 이병모(李秉模)·이경양(李敬養),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김면주(金勉柱), 사변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기주관 북태진(卜台鎭),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윤홍열·이겸빈·박재원·민양섭·정지검 등이 아뢰기를, “이번 옥사는 이상로(李商輅)·이선해(李善海)의 서찰에 흉악하고 패악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로 전에 없던 역절(逆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가 활발하게 같은 뜻을 품었음은 그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정을 대단히 잘못 시행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틀림없이 분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쌓아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을 사귀어 심복과 조아가 되었고, 군병을 거느리는 직임을 맡고서 밤낮없이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안을 드나들었으니,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세상에 지목을 당했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역적을 옹호하려고 한 계략으로 보면 평상시에 윤태연의 종용을 받았으므로 홍인한을 몰래 옹호했는데, 이는 바로 윤태연을 곡진히 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후겸

과 홍인한을 엄중히 토벌하는 날이니, 그 은밀히 피하고 면밀히 모의한 정상을 깊이 캐지 않아서는 안되며 마땅한 율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박재원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이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홍찬해,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十七日 甲子

- 大司憲李命植, 大司諫尹弘烈, 司諫李謙彬, 掌令朴在源, 正言鄭志儉·閔養燮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條辭校[措辭]見上】…… 答兩司合啓曰, 不允.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7일(갑자)

□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이명식(李命植), 대사간 윤홍열(尹弘烈), 사간 이겸빈(李謙彬), 장령 박재원(朴在源), 정언 정지검(鄭志儉)·민양섭(閔養燮)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형률로 시원하게 처결 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十七日 甲子

- 正言閔養燮啓曰,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7일(갑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정언 민양섭(閔養燮)의 계

- 정언 민양섭(閔養燮)이 아뢰기를,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一年 丙申 十二月 二十七日 甲子

- 掌令朴在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12월 27일(갑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박재원(朴在源)의 계

- 장령 박재원(朴在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1777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日 己巳

- 大司憲李命植, 大司諫尹弘烈, 司諫李謙彬, 掌令朴在源, 正言鄭志儉·成鼎鎭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일(기사)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처리에 대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이명식(李命植), 대사간 윤홍열(尹弘烈), 사간 이겸빈(李謙彬), 장령 박재원(朴在源), 정언 정지검(鄭志儉)·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日 己巳

- 掌令朴在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박재원(朴在源)의 계

- 장령 박재원(朴在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日 己巳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拿鞫嚴問，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계

-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日 己巳

-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嚴問得情， 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일(기사)

□ 정의현(旌義縣)에 정배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계

-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四日 辛未

- 丁酉正月初四日辰時, 上御崇政殿, 儒生製講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左承旨林鼎遠, 右承旨趙煥, 左副承旨鄭民始, 右副承旨徐有防, 同副承旨李鎮衡, 假注書李兢淵·金勉柱, 記注官卜台鎮, 記事官林錫喆侍立訖, …… 正言成鼎鎮進伏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鼎鎮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鼎鎮曰, 請旌義縣爲奴罪人河翼龍·金重得, 亟命王府拿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4일(신미)

□ 죄인 윤태연(尹泰淵), 김수현(金壽賢), 하익룡(河翼龍), 김중득(金重得)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정언 성정진(成鼎鎭)의 계

- 정유년 1월 초4일 진시에 임금이 승정전에 나아갔다. 유생(儒生)에게 제술과 강경 시험을 보이는 자리에 입시켰을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좌승지 임정원(林鼎遠), 우승지 조환(趙煥),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동부승지 이진형(李鎭衡), 가주서 이궁연(李兢淵)·김면주(金勉柱), 기주관 북태진(卜台鎭),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이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정언 성정진(成鼎鎭)이 나아가 부복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성정진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성정진이 말하기를, “청컨대 정의현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김중득(金重得)을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하익룡, 김중득.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五日 壬申

- 正言成鼎鎮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5일(임신)

□ 죄인 윤태연(尹泰淵),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정언 성정진(成鼎鎭)의 계

- 정언 성정진(成鼎鎭)이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九日 丙子

- 司諫李謙彬啓曰, 請南海縣園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鞫得情, 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 答院啓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9일(병자)

- 죄인 윤태연(尹泰淵),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 이겸빈(李謙彬)의 계
- 사간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의 계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역적 성국, 금련, 제주목.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日 丁丑

- 丁酉正月初十日辰時, 上御興政堂, 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事鄭存謙, 特進官鄭尙淳·李在簡, 同知事李瀾, 參贊官洪國榮, 侍讀官李獻慶, 檢討官李儒慶, 大司諫尹弘烈, 假注書金勉柱, 記注官卜台鎮, 記事官林錫喆, 兼禮曹判書蔡濟恭, 行工曹判書徐命善, 行兵曹判書洪樂性, 吏曹判書李徽之, 行副司直張志恒, 漢城左尹尹得讓, 同知中樞府事李漢膺, 吏曹參判沈履之, 漢城右尹金魯鎮, 開城留守徐有慶, 江華留守金鍾秀, 事變假注書李運彬, 以次進伏訖, …… 弘烈進伏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弘烈又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弘烈又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0일(정축)

- 죄인 윤태연(尹泰淵),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대사간 윤홍열(尹弘烈)의 계

- 정유년 1월 초10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조강에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사 정존겸(鄭存謙), 특진관 정상순(鄭尙淳)·이재간(李在簡), 동지사 이미(李瀾), 참찬관 홍국영(洪國榮), 시독관 이헌경(李獻慶), 검토회관 이유경(李儒慶), 대사간 윤홍열(尹弘烈), 가주서 김면주(金勉柱), 기주관 복태진(卜台鎭), 기사관 임석철(林錫喆), 검 예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공조판서 서명선(徐命善), 행 병조판서 홍낙성(洪樂性), 이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한성좌윤 윤득양(尹得讓), 동지중추부사 이한응(李漢膺), 이조참판 심이지(沈履之), 한성우윤 김노진(金魯鎭), 개성유수 서유경(徐有慶), 강화유수 김종수(金鍾秀), 사변 가주서 이운빈(李運彬)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윤홍열이 나아가 부복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윤홍열이 또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윤홍열이 또 말하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四日 辛巳

- 義禁府啓目, 減死定配罪人纘海, 移配濟州, 而本道啓本中, 以前配所黑山島混錄, 故當該道臣推考, 他餘罪人等, 令各該衙門稟處, 啓, 傳曰, 依允, 炫·尹光紹或編配多年, 或既嚴隄防, 併放送爲良如教.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4일(신사)

□ 홍찬해(洪纘海)를 제주(濟州)로 이배하는 과정에서 이전 배소를 잘못 쓴 관찰사를 추고한다는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이르기를, “감사정배(減死定配)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제주(濟州)로 이배했는데, 본도(本道)의 계본(啓本) 중 이전 배소가 흑산도(黑山島)로 잘못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관찰사를 추고하고 다른 나머지 죄인들은 각 관할 아문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아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굉(炫)·윤광소(尹光紹)는 혹은 다년간 편배(編配)했거나 혹 이미 제방(隄防)을 엄히 했으니 아울러 풀어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홍찬해, 이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六日 癸未

- 大司諫尹弘烈疏曰, 伏以臣, 庸魯巽懦, 清朝言責之任, 自知不堪, …… 臣於本職, 便同既遞, 何敢以論責自居, 而竊有耿耿愚衷, 欲請而未及者, 略此附陳焉, 今年北路之凶荒, 挽近所無, 遐土絕徼, 王化未霑, 歉歲蚩氓, 人心易騷, 而如趾海·述海·翼雲等諸賊, 謫在同道, 必有乘時誑惑, 從中煽動, 以啓無窮之慮, 臣謂趾海·述海, 姑先分配於他道海島, 翼雲亦濟州移配, 以絕其禍亂之源, 斷不可已也. 答曰, 省疏具悉, 所陳是矣, 令該府, 依特教例, 絕島地舉行, 爾其勿辭.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6일(계미)

- 역적이 한 도(道)에서 유배 생활하지 않도록 분산 정비하는 방안을 수록한 윤홍열(尹弘烈)와 이에 대한 비답

- 대사간 윤홍열(尹弘烈)이 상소하기를, “삼가 제가 용렬하고 노둔하며 나약한 자질로 맑은 조정에서 언론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본직(本職)에서 이미 교체된 것과 다름없으니 어찌 감히 논하여 꾸짖겠습니까만, 다만 간절한 충정으로 미처 청하지 못했던 것을 대략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북로(北路)의 흉황은 요사이 없던 일입니다. 멀리 변방에는 임금의 교화가 두루 스며들지 못하니 흉년에 어리석은 백성들은 인심이 동요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홍지해(洪趾海)·홍술해(洪述海)·심익운(沈翼雲) 등 여러 역적이 한 도(道)에 함께 유배 중이어서, 때를 틈타 광혹(誑惑)시켜 선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홍지해·홍술해를 우선 먼저 타도(他道)의 섬으로 나누어 유배시키고, 심익운 또한 제주(濟州)로 유배지를 옮겨 화란(禍亂)의 근원을 끊고 결코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소(疏)를 살펴보고 그 뜻을 잘 알았다. 아뢴 바가 옳다. 해당 부(府)로 하여금 특교(特教)의 예(例)에 의하여 절도(絶島)에 분배하는 것을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심익운, 이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七日 甲申

- 大司憲鄭晩淳, 大司諫金尙集, 司諫李顯永, 掌令尹弼秉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7일(갑신)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처리에 대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정만순(鄭晩淳), 대사간 김상집(金尙集), 사간 이현영(李顯永),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청건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역적 성국, 금련, 제주목.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七日 甲申

- 掌令尹弼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7일(갑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七日 甲申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拿鞫嚴問，依律處斷.【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7일(갑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계

-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七日 甲申

-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亟令王府拿鞫，嚴問得情，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7일(갑신)

□ 정의현(旌義縣)에 유배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條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八日 乙酉

- 大司憲鄭晩淳, 大司諫金尙集, 司諫李顯永, 掌令尹弼秉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8일(을유)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처리에 대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정만순(鄭晩淳), 대사간 김상집(金尙集), 사간 이현영(李顯永),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八日 乙酉

- 掌令尹弼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條辭[措辭]見上 請鏡城府定配罪人述海, 拿鞫, 嚴問得情.【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8일(을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八日 乙酉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拿鞫嚴問，依律處斷. 【條辭[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8일(을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계

-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八日 乙酉

-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亟令王府拿鞫，嚴問得情，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8일(을유)

□ 정의현(旌義縣)에 유배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九日 丙戌

- 大司憲鄭晩淳, 大司諫金尙集, 司諫李顯永, 掌令尹弼秉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9일(병술)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처리에 대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정만순(鄭晩淳), 대사간 김상집(金尙集), 사간 이현영(李顯永),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九日 丙戌

- 掌令尹弼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9일(병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九日 丙戌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拿鞫嚴問，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9일(병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윤필병(尹弼秉)의 계

-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十九日 丙戌

-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亟今王府，拿鞫嚴問得情，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19일(병술)

□ 정의현(旌義縣)에 유배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日 丁亥

- 大司憲鄭晩淳, 大司諫金尙集, 司諫李顯永, 掌令尹弼秉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0일(정해)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처리에 대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정만순(鄭晩淳), 대사간 김상집(金尙集), 사간 이현영(李顯永),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日 丁亥

- 掌令尹弼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0일(정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日 丁亥

-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亟令王府拿鞫，嚴問得情，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0일(정해)

□ 정의현(旌義縣)에 유배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三日 庚寅

- 大司憲鄭晩淳, 大司諫金尙集, 司諫李顯永, 持平徐郁修啓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3일(경인)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처리에 대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정만순(鄭晩淳), 대사간 김상집(金尙集), 사간 이현영(李顯永), 지평 서욱수(徐郁修)가 아뢰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三日 庚寅

- 持平徐郁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3일(경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서욱수(徐郁修)의 계

- 지평 서욱수(徐郁修)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三日 庚寅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3일(경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계

-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三日 庚寅

-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鞫嚴問得情， 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3일(경인)

□ 정의현(旌義縣)에 유배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五日 壬辰

- 丁酉正月二十五日巳時, 上御興政堂, 畫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知事徐命善, 特進官李徽之, 參贊官李義翊, 侍讀官李獻慶, 檢討官沈煥之, 宗臣鶴林君煥, 武臣李長燁,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知中樞府事具善復, 行司直具允鉦, 行戶曹判書鄭弘淳, 知敦寧府事尹得養, 行副司直張志恒, 同知中樞府事李漢膺, 吏曹參判沈履之, 大司諫金尙集, 掌令柳匡國, 行左承旨趙琰, 假注書金勉柱, 事變假注書李運彬, 記注官卜台鎭, 記事官林錫喆以次進伏訖, ……尙喆曰, 湖南兵闖之替代, 不當一仕其遲滯, 而濟州牧使黃最彥, 肅謝後, 尙不下直, 不多日內, 使之催促辭朝,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上曰, 濟州牧使, 不多日內催促辭朝, 【出榻教】 …… 尙集·匡國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續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尙集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 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尙集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嚴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尙集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匡國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5일(임진)

- 주강을 하는 자리에서 대신들이 죄인 홍지해(洪趾海), 홍찬해(洪纘海), 윤태연(尹泰淵),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할 것을 건의함
- 정유년 1월 25일 사시에 임금이 홍정당에 나아갔다. 주강을 하는 자리에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지사 서명선(徐命善), 특진관 이휘지(李徽之), 참찬관 이의익(李義翊), 시독관 이헌경(李獻慶), 검토회 심환지(沈煥之), 종신 학림군(鶴林君) 육(煥), 무신 이장엽(李長燁),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사직 구윤옥(具允鉦),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지돈녕부사 윤득양(尹得養),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동지중추부사 이한웅(李漢膺), 이조참판 심이지(沈履之), 대사간 김상집(金尙集), 장령 유광국(柳匡國), 행 좌승지 조준(趙琰), 가주서 김면주(金勉柱), 사변 가주서 이운빈(李運彬), 기주관 복태진(卜台鎭),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상철이 말하기를, “호남 병마절도사를 교

체하여 대신할 사람을 지체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고,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연(黃最彦)이 사은숙배 후에 아직 하직하지 않았으니 며칠 내 하직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는 며칠 내로 하직하도록 독촉하라.”라고 하였다. 【탑교(出榻)를 냄】 〈중략〉 김상집·유광국이 말하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상집이 말하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김상집이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김상집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광국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홍지해, 홍찬해, 윤태연,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六日 癸巳

- 下直, 全羅都事金方行, 全羅左道京試官金憲, 慶尙左道京試官李秉模, 濟州牧使黃取彦.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6일(계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取彦)이 하직함

- 전라도사(全羅都事) 김방행(金方行), 전라좌도 경시관(京試官) 김희(金憲), 경상좌도 경시관 이병모(李秉模),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取彦)이 하직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황최언.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六日 癸巳

- 丁酉正月二十六日辰時, 上御尊賢閣, 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假注書李兢淵, 記注官卜台鎮, 記事官林錫喆, 以次進伏訖, …… 上命讀公事訖, 上曰, 濟州牧使留待, 【出榻教】國榮曰, 科期不遠, 未下直京試官, 催促下送, 似好矣, 上曰, 未下直京試官, 今日辭朝, 【出榻教】上曰, 京試官下直後, 亦爲留待事, 分付, 仍命退, 諸臣以次出.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6일(계사)

□ 경시관의 하직을 재촉하고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유대(留待)를 명함

- 정유년 1월 26일 진시에 임금이 존현각에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했을 때 행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이궁연(李兢淵), 기주관 복태진(卜台鎭),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공사(公事)를 읽으라 명하고 이를 마치자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유대(留待)하라.”라고 하였다. 【답교(出榻)를 냄】 홍국영이 말하기를, “과거 시험 기일이 멀지 않았으니 아직 하직하지 않은 경시관(京試官)은 재촉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하직하지 않은 경시관은 오늘 조정을 떠나라.”라고 하였다. 【답교(出榻)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경시관은 하직한 후 또한 유대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그대로 물러나라고 명하자 신하들이 차례로 나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대, 하직.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六日 癸巳

- 丁酉正月二十六日辰時, 上御興政堂, 晝講入侍, 濟州牧使·京試官同爲入侍時, 知事蔡濟恭, 特進官李在協, 參贊官趙琰, 侍讀官李獻慶, 檢討官沈煥之, 宗臣安川君桂, 武臣李顯宅, 掌令柳匡國, 濟州牧使黃最彥, 忠清道京試官趙時偉, 慶尙道京試官李秉模, 全羅道京試官金憲, 都事金方行, 假注書金勉柱, 記注官卜台鎭, 記事官林錫喆,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牧使進前, 最彥進伏, 上曰, 本州纔經賑政, 且多罪謫, 防限挾濟之道, 必殊審慎, 可也, 仍命宣諭後退, 上曰, 臺臣進前, 匡國進伏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6일(계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最彦)에게 명심하여 고을을 구제하고 살피도록 당부함

- 정유년 1월 26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주강에 입시했을 때 제주목사(濟州牧使)·경시관이 함께 입시하였는데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이재협(李在協), 참찬관 조준(趙琰), 시독관 이헌경(李獻慶), 검토관 심환지(沈煥之), 종신 안천군(安川君) 규(桂), 무신 이현택(李顯宅), 장령 유광국(柳匡國), 제주목사 황최언(黃最彦), 충청도 경시관 조시위(趙時偉), 경상도 경시관 이병모(李秉模), 전라도 경시관 김희(金憲), 도사 김방행(金方行), 가주서 김면주(金勉柱), 기주관 복태진(卜台鎭),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는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황최언이 나아가 부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 고을은 겨우 진정(賑政)을 마쳤고 죄를 짓고 유배된 자가 많으니 한계를 정해 출입을 막고 구제하는 방도를 반드시 살피고 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래도 선유(宣諭)를 명한 후 물러나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유광국이 나아가 부복하여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 황최언,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七日 甲午

- 掌令柳匡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請昌城府定配罪人趙崐, 更令王府拿鞫嚴問, 【條辭校[措辭]見上】答府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7일(갑오)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유광국(柳匡國)의 계
- 장령 유광국(柳匡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이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창성부(昌城府)에 정배된 죄인 조완(趙崐)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심문하게 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七日 甲午

- 又以義禁府言啓曰，因大司諫尹弘烈上疏，趾海·述海·翼雲等，令該府依特教例，絕島舉行事，批下矣，咸鏡道鍾城府遠竄罪人翼雲，全羅道濟州牧移配，穩城府減死定配罪人趾海，靈巖郡楸子島移配，鏡城府流三千里定配罪人述海，羅州牧黑山島移配，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趾海·述海，則移配處荊棘。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7일(갑오)

- 죄인 심익운(沈翼雲)을 제주목(濟州牧)에, 홍지해(洪趾海)를 추자오(楸子島)로 이배하는 등 죄인의 이배와 관련된 의금부의 보고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대사간 윤홍열(尹弘烈)의 상소로 인하여 홍지해(洪趾海)·홍술해(洪述海)·심익운(沈翼雲) 등 해당 부서에 명하여 특교(特教)의 예에 따라 절도(絶島)로 거행하도록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함경도 종성부(鍾城府)에 원찬(遠竄)되었던 죄인 심익운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이배(移配)하고, 온성부(穩城府)에 감사정배된 죄인 홍지해를 영암군 추자로(楸子島)로 이배하며, 경성부(鏡城府)에 유(流) 3천리로 정배된 죄인 홍술해를 나주목 흑산도(黑山島)로 이배하되, 예(例)에 따라 의금부 서리와 나장을 보내 각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홍지해·홍술해는 이배한 곳에 위리안치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추자도, 심익운, 홍지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一月 二十七日 甲午

- 又以義禁府言啓曰, 咸鏡道穩城府減死定配罪人趾海, 全羅道靈巖郡楸子島移配, 鏡城府流三千里定配罪人述海, 羅州牧黑山島移配事, 草記批旨內, 移配處梲棘事, 命下矣, 依例發遣府都事, 押送于各其配所, 梲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년(1777) 정유년 1월 27일(갑오)

□ 죄인 홍지해(洪趾海)·홍술해(洪述海)를 이배하는 장소로 압송한 후 위리안치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함경도 온성부(穩城府)에 감사정배(減死定配)된 죄인 홍지해(洪趾海)를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로 이배하고, 경성부(鏡城府)에 유(流) 3천리로 정배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나주목 흑산도(黑山島)로 이배하는 일에 대해 초기(草記)에 대한 비답으로 이배한 곳에 위리안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例)에 따라 의금부 도사를 보내 각각의 배소로 압송하여 위리안치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지해, 홍술해, 이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日 戊戌

- 掌令柳匡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일(무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유광국(柳匡國)의 계

- 장령 유광국(柳匡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三日 己亥

- 掌令柳匡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3일(기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유광국(柳匡國)의 계

- 장령 유광국(柳匡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四日 庚子

- 掌令柳匡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4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유광국(柳匡國)의 계

- 장령 유광국(柳匡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五日 辛丑

- 丁酉二月初五日辰時, 上御興政堂, 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事金尙喆, 特進官洪樂純·權導, 同知事沈履之, 大司諫金尙集, 參贊官李鎮衡, 掌令柳匡國, 侍讀官李在學, 檢討官李儒慶, 假注書金勉柱, 記事官林錫喆·徐龍輔, 右議政鄭存謙, 兼兵曹判書蔡濟恭, 知事具善復, 行吏曹判書徐命善, 左參贊李重祐·刑曹判書鄭尙淳, 知敦寧尹得養, 行副司直張志恒, 同知中樞府事李漢膺, 戶曹參判金魯鎮, 行都承旨洪國榮, 右副承旨鄭民始, 事變假注書李運彬, 以次進伏訖, …… 尙集·匡國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上曰, 不允, …… 尙集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 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上曰, 不允, 尙集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上曰, 不允, 尙集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 匡國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5일(신축)

- 조강을 시행한 자리에서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고 대신들이 건의함
- 정유년 2월 초5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홍정당에 나아갔다. 조강에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영사 김상철(金尙喆), 특진관 홍낙순(洪樂純)·권도(權導), 동지사 심이지(沈履之), 대사간 김상집(金尙集), 참찬관 이진형(李鎮衡), 장령 유광국(柳匡國), 시독관 이재학(李在學), 검토회 이유경(李儒慶), 가주서 김면주(金勉柱),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검 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지사 구선복(具善復), 행 이조판서 서명선(徐命善), 좌참찬 이중호(李重祐)·형조판서 정상순(鄭尙淳), 지돈녕 윤득양(尹得養),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동지중추부사 이한웅(李漢膺), 호조참판 김노진(金魯鎮),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우부승지 정민시(鄭民始), 사변 가주서 이운빈(李運彬)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상집·유광국이 말하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

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상집이 말하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김상집이 말하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김상집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광국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추자도,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홍지해, 홍찬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九日 乙巳

- 丁酉二月初九日申時, 上御興政堂, 左右相入侍時,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右副承旨林得浩, 假注書金勉柱, 記事官林錫喆·徐龍輔進伏訖, …… 存謙曰, 向者纘海之移配濟州, 以致顯之同其配所故也, 今於趾海·述海移荐之後, 致顯·致良, 亦不可以同處一島, 致顯·致良, 移配本道他島, 何如? 上曰, 依爲之, 【竝出舉條】 …….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9일(을사)

- 홍찬해(洪纘海)를 제주(濟州)로 이배한 후 다른 죄인들의 배소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 우의정 정존겸(鄭存謙)이 건의함
- 정유년 2월 초9일 신시(申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좌상과 우상이 입시했을 때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우부승지 임득호(林得浩), 가주서 김면주(金勉柱),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가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정존겸이 말하기를, “지난번 홍찬해(洪纘海)를 제주(濟州)로 이배한 것은 김치현(金致顯)과 배소(配所)가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홍지해(洪趾海)·홍술해(洪述海)를 이배하여 위리한 후인데, 김치현·김치량(金致良)을 한 섬에 같이 있게 해서는 안되니, 다른 섬으로 이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모두 거조(舉條)을 냄】 〈하략〉.

△ 주제어: 제주, 홍지해, 홍술해, 김치현, 김치량, 이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十日 丙午

- 司諫李顯永啓曰,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鞫嚴問,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10일(병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 이현영(李顯永)의 계

- 사간 이현영(李顯永)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十日 丙午

-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亟令王府，拿鞫嚴問得情，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10일(병오)

□ 정의현(旌義縣)에 유배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十日 丙午

- 徐迥修, 以義禁府言啓曰, 致顯·致良, 令該府移配本道他島事, 承傳啓下矣, 全羅道羅州牧黑山島安置罪人致顯, 羅州牧智島, 移配安置, 靈巖郡楸子島安置罪人致良, 康津縣古今島移配安置, 而依例發遣羅將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10일(병오)

□ 죄인 김치현(金致顯)·김치량(金致良)의 배소를 옮기기 위해 의금부 나장을 보내 각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서형수(徐迥修)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김치현(金致顯)·김치량(金致良)을 해당 부(府)로 하여금 본도(本道)의 다른 섬으로 이배하라고 한 전교를 받들어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黑山島)에 안치한 죄인 김치현을 나주목 지도(智島)로 이배하여 안치하고,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했던 죄인 김치량을 강진현 고금도(古今島)로 이배하여 안치하되 예(例)에 따라 의금부 나장을 보내 각 배소로 압송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지도, 김치현, 김치량, 이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十八日 甲寅

- 丁酉二月十八日巳時，上御興政堂，晝講入侍時，知事黃景源，特進官李在簡，參贊官金夏材，侍讀官李在學，檢討官李謙彬，掌令金致九，宗臣安春君煥，武臣田得雨，假注書金勉柱，記事官林錫喆·徐龍輔，進伏訖，…… 致九進伏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18일(갑인)

- 주장에 입시한 자리에서 장령 김치구(金致九)가 대정현(大靜縣)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고 건의함
- 정유년 2월 18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주장에 입시했을 때 지사 황경원(黃景源), 특진관 이재간(李在簡), 참찬관 김하재(金夏材), 시독관 이재학(李在學), 검토관 이겸빈(李謙彬), 장령 김치구(金致九), 종신 안춘군(安春君) 융(煥), 무신 전득우(田得雨), 가주서 김면주(金勉柱),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가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치구가 나아가 부복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日 丙辰

- 丁酉二月二十日酉時, 上御尊賢閣, 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假注書李兢淵, 記事官林錫喆·徐龍輔, 以次進伏訖, 上命讀奏公事, 至濟州褒貶啓本, 國榮曰, 卽伏見濟州牧使柳懋去秋冬等褒貶啓本, 則守令, 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0일(병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혁(柳懋)의 포폄 계본을 보고 엄격히 전최하지 않은 것을 질책해야 한다는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의 건의

- 정유년 2월 20일 유시(酉時)에 임금이 존현각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이궁연(李宮淵),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임금이 공사(公事)를 읽도록 명했는데 제주(濟州)의 포폄 계본(褒貶啓本)에 이르자 홍국영이 말하기를,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혁(柳懋)의 지난 추동등(秋冬等) 포폄 계본을 보니, 수령은 하(下)를 받은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엄하고 분명하게 전최(殿最)한 뜻이 전혀 없으니 추고하여 꾸짖고 질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유혁, 포폄 계본, 전최.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日 丙辰

- 丁酉二月二十日辰時, 上御興政堂, 朝講,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事鄭存謙, 知事蔡濟恭, 特進官李重祜·李徽之, 參贊官洪國榮, 掌令金致九, 侍讀官李在學, 檢討官李謙彬, 假注書金勉柱, 記事官林錫喆·徐龍輔, 行司直具允鉦, 刑曹判書鄭尙淳, 戶曹判書洪樂純, 工曹判書尹得養, 行副司直張志恒, 吏曹參判沈履之, 漢城左尹金魯鎮, 江華留守金鍾秀, 左承旨李義翊, 事變假注書李運彬, 以次進伏訖, …… 致九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0일(병진)

- 대신이 입시한 자리에서 장령 김치구(金致九)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처결하라고 건의함
- 정유년 2월 20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조강에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사 정존겸(鄭存謙),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이중호(李重祜)·이휘지(李徽之), 참찬관 홍국영(洪國榮), 장령 김치구(金致九), 시독관 이재학(李在學), 검토회 이겸빈(李謙彬), 가주서 김면주(金勉柱),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 행 사직 구윤옥(具允鉦), 형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호조판서 홍낙순(洪樂純), 공조판서 윤득양(尹得養),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이조참판 심이지(沈履之), 한성좌윤 김노진(金魯鎭), 강화유수 김종수(金鍾秀), 좌승지 이의익(李義翊), 사변 가주서 이운빈(李運彬)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치구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一日 丁巳

- 丁酉二月二十一日午時, 上御興政堂, 晝講, 詣臺臺臣同爲入侍時, 同知事沈履之, 特進官吳載純, 參贊官李義翊, 侍讀官李在學, 檢討官閔養燮, 掌令金致九, 宗臣安昌君燦, 武臣李彥忠, 假注書金勉柱, 記注官朴鎮宇, 記事官林錫喆, 以次進伏訖, …… 致九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1일(정사)

□ 주강에 입시한 장령 김치구(金致九)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건의함

- 정유년 2월 21일 오시(午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주강에 대청(臺廳)의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했을 때 동지사 심이지(沈履之), 특진관 오재순(吳載純), 참찬관 이의익(李義翊), 시독관 이재학(李在學), 검토관 민양섭(閔養燮), 장령 김치구(金致九), 종신 안창군(安昌君) 경(燦), 무신 이언충(李彦忠), 가주서 김면주(金勉柱), 기주관 박진우(朴鎭宇),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치구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二日 戊午

- 丁酉二月二十二日巳時, 上御興政堂, 晝講, 詣臺臺臣同爲入侍時, 特進官鄭尙淳, 同知事李瀾, 參贊官俞彥鎬, 侍讀官李在學, 檢討官閔養燮, 掌令金致九, 宗臣安川君桂, 武臣張志謙, 假注書金勉柱, 記事官林錫喆·徐龍輔, 以次進伏訖, …… 致九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2일(무오)

- 주장에 입시한 장령 김치구(金致九)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건의함

- 정유년 2월 22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주장에 대청(臺廳)의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했을 때 특진관 정상순(鄭尙淳), 동지사 이미(李瀾), 참찬관 유언호(俞彦鎬), 시독관 이재학(李在學), 검토회 민양섭(閔養燮), 장령 김치구(金致九), 종신 안천군(安川君) 규(桂), 무신 장지겸(張志謙), 가주서 김면주(金勉柱),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치구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五日 辛酉

- 掌令金致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5일(신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김치구(金致九)의 계

- 장령 김치구(金致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六日 壬戌

- 丁酉二月二十六日辰時，上御興政堂，親臨文臣製述入侍時，行都承旨洪國榮，左承旨李義翊，右承旨鄭民始，左副承旨李崇祐，右副承旨俞彥鎬，同副承旨李鎮衡，假注書李兢淵·金勉柱，記事官林錫喆·徐龍輔，以次進伏訖，…… 致九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6일(임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김치구(金致九)의 계

- 정유년 2월 26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문신 제술에 친림한 자리에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좌승지 이의익(李義翊), 우승지 정민시(鄭民始), 좌부승지 이승호(李崇祐), 우부승지 유언호(俞彦鎬), 동부승지 이진형(李鎭衡), 가주서 이궁연(李兢淵)·김면주(金勉柱),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치구(金致九)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七日 癸亥

- 以濟州牧使黃啟彦, 珍島沙工宋貴水才等渰死事, 狀啓, 傳曰, 令本道恤典舉行.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7일(계사)

- 사공이 익사한 문제로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취언(黃啟彦)이 장계를 올리자 홀전을 거행 하라고 전교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취언(黃啟彦)이 진도(珍島)의 사공(沙工) 송귀(宋貴) 수재(水才) 등이 익사한 일로 장계를 올렸다. 전교하기를, “본도(本道)에 명해 홀전을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황취언, 홀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七日 癸亥

- 濟州牧使狀啓, 橘果進上所載船李昌發等, 大靜縣放送罪人必喜等滄死事, 宗廟薦新及莫重進上有限, 狀啓阻風遲滯之餘, 有此流失之舉, 惶恐待罪事, 傳曰, 放送人外, 令本道恤典舉行, 勿待罪事, 回諭.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7일(계사)

- 진상품 선박 등의 사고로 종묘 천신과 진상에 착오가 생긴 문제로 인해 대죄한다고 올린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따라 홀전을 거행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장계로 귤과(橘果) 진상품을 실은 선박의 이창발(李昌發) 등과, 대정현(大靜縣)에서 풀어준 죄인 필희(必喜) 등이 익사한 일로 종묘 천신과 막중한 진상에 기한이 있는데 바람 때문에 지체된 나머지 장계가 막혔다며, 이런 유실(流失)이 생긴 것에 대해 황공하여 대죄한다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풀어준 사람을 제외하고 본도로 하여금 홀전을 거행하게 하고,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 진상, 귤과, 이창발, 필희, 홀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七日 癸亥

- 掌令金致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7일(계사)

□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김치구(金致九)의 계

- 장령 김치구(金致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八日 甲子

- 掌令金致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8일(갑자)

□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김치구(金致九)의 계

- 장령 김치구(金致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九日 乙丑

- 李義翊啓曰, 卽伏見濟州牧使柳懋去秋冬等褒貶啓本, 則涯月所助防將業武金仁鏡名下, 宜有等第, 而不爲書填, 莫重奏御文書, 如是疎忽, 殊涉未安,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9일(을축)

- 포폄 계본에 등제(等第)를 써넣지 않고 올린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혁(柳懋)을 치죄하자는 이의익(李義翊)의 계
- 이의익(李義翊)이 아뢰기를,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혁(柳懋)의 지난 추동등(秋冬等) 포폄 계본을 보니, 애월소(涯月所) 조방장(助防將) 업무 김인경(金仁鏡) 이름 아래 등제(等第)가 있어야 하나 써 넣지 않았습니다. 임금께 올리는 막중한 문서를 이처럼 소홀히 하였으니 미안한 일입니다. 추고하고 문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애월소, 유혁, 김인경, 포폄 계본.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二月 二十九日 乙丑

- 掌令金致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 金壽賢,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2월 29일(을축)

□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김치구(金致九)의 계

- 장령 김치구(金致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三月 十五日 辛巳

- 丁酉三月十五日辰時, 上御興政堂, 晝講,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知事蔡濟恭, 特進官李重祜, 參贊官李亨達, 侍讀官朴在源, 檢討官李謙彬, 假注書鄭東浚, 事變假注書李運彬,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林錫喆, 宗臣西春君燁, 武臣行副護軍白東俊,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兵曹判書蔡濟恭, 知中樞府事具善復, 行工曹判書具允鉦, 左參贊李重祜, 行副司直尹得養, 吏曹參判沈履之, 同中樞府事李漢膺, 刑曹參判鄭一祥, 行都承旨洪國榮, 司諫朴天衡, 持平成鼎鎮, 以次進伏訖, …… 天衡·鼎鎮所啓,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上曰, 不允, …… 天衡所啓,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上曰, 不允, 又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又所啓,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上曰, 不允, …… 鼎鎮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3월 15일(신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정유년 3월 15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홍정당에 나아갔다. 주강에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이중호(李重祜), 참찬관 이형규(李亨達), 시독관 박재원(朴在源), 검토관 이겸빈(李謙彬),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사변 가주서 이운빈(李運彬),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임석철(林錫喆), 종신 서춘군(西春君) 엽(燁), 무신 행 부호군 백동준(白東俊),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공조판서 구윤옥(具允鉦), 좌참찬 이중호(李重祜), 행 부사직 윤득양(尹得養), 이조참판 심이지(沈履之), 동지중추부사 이한웅(李漢膺), 형조참판 정일상(鄭一祥),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사간 박천형(朴天衡), 지평 성정진(成鼎鎭)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박천형·성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박천형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성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추자도,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홍찬해, 홍지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三月 十六日 壬午

- 以濟州牧使啓本, 傳于李亨達曰, 莫重祭名落字, 濟州牧使, 從重推考, 此啓本, 還爲下送.

❖ 정조 1년(1777) 정유년 3월 16일(임오)

□ 계본(啓本) 작성에 실수한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추고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啓本) 때문에 이형규(李亨達)에게 전교하기를, “막중한 제명(祭名)에 빠진 글자가 있으니 제주목사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이 계본은 도로 내려보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계본, 제명.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三月 十七日 癸未

- 丁酉三月十七日辰時, 上御興政堂, 朝講, 宗簿提調, 同爲入侍時, 領事金尙喆, 同知事李宜哲, 特進官權導·李在協, 參贊官李獻慶, 侍讀官朴在源, 持平成鼎鎮, 檢討官李謙彬, 假注書鄭東浚,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林錫喆, 宗簿提調韓光會, 以次進伏訖, …… 鼎鎮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請黑山島荐棘罪人述海, 拿鞠嚴問得情,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3월 17일(계미)

- 조강에 입시한 자리에서 지평 성정진(成鼎鎭)이 죄인 김수현(金壽賢), 홍술해(洪述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할 것을 건의함
- 정유년 3월 17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조강에 종부시 제조가 함께 입시했을 때 영사 김상철(金尙喆), 동지사 이의철(李宜哲), 특진관 권도(權導)·이재협(李在協), 참찬관 이헌경(李獻慶), 시독관 박재원(朴在源), 지평 성정진(成鼎鎭), 검토관 이겸빈(李謙彬),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임석철(林錫喆), 종부시 제조 한광회(韓光會)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성정진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어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역적 성국, 금련, 제주목.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三月 二十日 丙戌

- 丁酉三月二十日辰時, 上御興政堂, 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事鄭存謙, 同知事李瀾, 特進官吳載純·李在簡, 參贊官李鎮衡, 侍讀官朴在源, 持平成鼎鎮·檢討官沈煥之, 假注書鄭東浚, 記事官林錫喆·徐龍輔, 左議政金尙喆, 兼兵曹判書蔡濟恭, 行司直鄭弘淳, 刑曹判書張志恒, 行都承旨洪國榮, 左副承旨兪彥鎬, 事變假注書李運彬, 以次進伏訖, …… 鼎鎮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又所啓, 請黑山島荊棘罪人述海, 拿鞠嚴問得情,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3월 20일(병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지평 성정진(成鼎鎭)의 계

- 정유년 3월 20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조강에 대신·비변사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사 정존겸(鄭存謙), 동지사 이미(李瀾), 특진관 오재순(吳載純)·이재간(李在簡), 참찬관 이진형(李鎭衡), 시독관 박재원(朴在源), 지평 성정진(成鼎鎭), 검토관 심환지(沈煥之),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검 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사직 정홍순(鄭弘淳), 형조판서 장지항(張志恒),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좌부승지 유언호(兪彦鎬), 사변 가주서 이운빈(李運彬)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성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어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흑산도, 홍술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三月 二十一日 丁亥

- 丁酉三月二十一日午時, 上御興政堂, 晝講, 輪臺官, 下直守令, 同爲入侍時, 知事徐命善, 特進官鄭尙淳, 參贊官俞彥鎬, 侍讀官李在學·趙時偉, 宗臣鶴林君焞, 武臣李顯宅, 持平成鼎鎮, 假注書鄭東浚, 記事官林錫喆·徐龍輔, 慶尙左水使柳鎮恒, 活人署別提具膺, 歸厚署別提盧廷尹, 瓦署別提崔致成, 中學訓導具昌瑞, 西學訓導金載聲, 以次進伏訖, …… 鼎鎮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又所啓, 請黑山島荐棘罪人述海, 拿鞠嚴問得情,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3월 21일(정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지평 성정진(成鼎鎭)의 계

- 정유년 3월 21일 오시(午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주강에 윤대관(輪臺官)과 하직한 수령이 함께 입시했을 때 지사 서명선(徐命善), 특진관 정상순(鄭尙淳), 참찬관 유언호(俞彦鎬), 시독관 이재학(李在學)·조시위(趙時偉), 종신 학림군(鶴林君) 육焞(焞), 무신 이현택(李顯宅), 지평 성정진(成鼎鎭),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 경상 좌수사 유진항(柳鎮恒), 활인서 별제 구응(具膺), 귀후서 별제 노정윤(盧廷尹), 와서(瓦署) 별제 최치성(崔致成), 중학 훈도 구창서(具昌瑞), 서학 훈도 김재성(金載聲)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성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어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흑산도, 김수현, 홍술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三月 二十二日 戊子

- 大司諫金尙集, 司諫朴天衡, 掌令金致九, 持平成鼎鎭, 獻納李昌漢, 正言安廷玪·李敬一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3월 22일(무자)

- 죄인 홍찬해(洪纘海), 홍지해(洪趾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간 김상집(金尙集), 사간 박천형(朴天衡), 장령 김치구(金致九), 지평 성정진(成鼎鎭), 헌납 이창한(李昌漢), 정언 안정현(安廷玪)·이경일(李敬一)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홍지해, 홍찬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三月 二十二日 戊子

- 持平成鼎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3월 22일(무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성정진(成鼎鎭)의 계

- 지평 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三月 二十二日 戊子

-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3월 22일(무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성정진(成鼎鎭)의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三月 二十二日 戊子

-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3월 22일(무자)

□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계

-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정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三月 二十七日 癸巳

- 丁酉三月二十七日辰時, 上御興政堂, 晝講,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知事洪樂性, 特進官黃景源, 參贊官李鎮衡, 侍讀官朴宗來, 檢討官沈煥之, 假注書鄭東浚, 記事官林錫喆·徐龍輔,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兼兵曹判書蔡濟恭, 知中樞府事具善復, 行工曹判書具允鉦, 行吏曹判書徐命善, 禮曹判書洪樂性, 左參贊李重祜, 刑曹判書張志恒, 司直李漢膺, 刑曹參判鄭一祥, 行副司直徐浩修, 行江華留守金鍾秀, 大司諫李義翊, 持平成鼎鎮, 右副承旨徐有防, 事變假注書李運彬, 以次進伏訖, …… 義翊·鼎鎮所啓,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義翊所啓,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又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又所啓,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鼎鎮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3월 27일(계사)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정유년 3월 27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홍정당으로 나아갔다. 주강에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지사 홍낙성(洪樂性), 특진관 황경원(黃景源), 참찬관 이진형(李鎭衡), 시독관 박종래(朴宗來), 검토관 심환지(沈煥之),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겸 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공조판서 구윤옥(具允鉦), 행 이조판서 서명선(徐命善), 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좌참찬 이중호(李重祜), 형조판서 장지항(張志恒), 사직 이한응(李漢膺), 형조참판 정일상(鄭一祥), 행 부사직 서호수(徐浩修), 행 강화유수 김중수(金鍾秀), 대사간 이의익(李義翊), 지평 성정진(成鼎鎭),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사변 가주서 이운빈(李運彬)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의익·성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왕부(王府)로 하여

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의익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성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제주목, 정의현, 추지도, 홍지해, 홍찬해,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一日 丙申

- 掌令金致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1일(병신)

□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김치구(金致九)의 계

- 장령 김치구(金致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三日 戊戌

- 持平成鼎鎮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3일(무술)

□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성정진(成鼎鎭)의 계

- 지평 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四日 己亥

- 丁酉四月初四日辰時，上御興政堂，晝講，詣臺臺臣同爲入侍時，同知事權導，特進官李在協，參贊官李亨達，侍講官林蓍喆，檢討官沈有鎮，宗臣安川君炁，武臣李弘達，掌令金致九，假注書鄭東浚，記事官林錫喆·徐龍輔，以次進伏訖，…… 致九所啓，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4일(기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김치구(金致九)의 계

- 정유년 4월 초4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홍정당으로 나아갔다. 주강에 대청(臺廳)의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했을 때 동지사 권도(權導), 특진관 이재협(李在協), 참찬관 이형규(李亨達), 시강관 임시철(林蓍喆), 검토회관 심유진(沈有鎭), 종신 안천군(安川君) 규(炁), 무신 이홍규(李弘達), 장령 김치구(金致九),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치구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五日 庚子

- 丁酉四月初五日辰時, 上御興政堂, 朝講,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事金尙喆, 特進官李重枯·鄭尙淳, 同知事吳載純, 大司諫李義翊, 參贊官李鎮衡, 侍講官林蓍喆, 掌令金致九, 檢討官沈煥之, 假注書鄭東浚, 記事官林錫喆·徐龍輔,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兼兵曹判書蔡濟恭,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禮曹判書洪樂性, 刑曹判書張志恒, 行副司直李漢膺, 刑曹參判鄭一祥, 開城留守徐有慶, 江華留守金鍾秀, 行都承旨洪國榮, 右副承旨徐有防, 事變假注書李運彬, 以次進伏訖, …… 義翊·蓍喆·致九所啓, 請和緩, 爲先削去其號, 依律處斷. 上曰, 不允, 又所啓, 請還寢付處罪人韓翼謦放送之命, 仍施遠竄之典, 上曰, 不允, 又所啓, 請楸子島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義翊所啓, 請南海縣圍籬安置罪人具庠, 更令王府, 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又所啓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又所啓,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致九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5일(경자)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홍찬해(洪纘海) 등 여러 죄인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정유년 4월 초5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조강에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영사 김상철(金尙喆), 특진관 이중호(李重枯)·정상순(鄭尙淳), 동지사 오재순(吳載純), 대사간 이의익(李義翊), 참찬관 이진형(李鎮衡), 시강관 임시철(林蓍喆), 장령 김치구(金致九), 검토회관 심환지(沈煥之),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검 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형조판서 장지항(張志恒),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형조참판 정일상(鄭一祥), 개성유수 서유경(徐有慶), 강화유수 김종수(金鍾秀),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사변 가주서 이운빈(李運彬)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의익·임시철·김치구가 아뢰기를, “청컨대 화완옹주의 호(號)를 우선 없애고 올문에 따

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부처(付處)한 죄인 한익모(韓翼謨)를 풀어주라는 명을 도로 멈추고 그대로 원찬(遠竄)하는 형벌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贊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의익이 아뢰기를, “청컨대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구상(具庠)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치구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추자도, 대정현, 정의현, 홍찬해, 홍지해, 윤태연,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八日 癸卯

- 丁酉四月初八日辰時, 上御興政堂, 朝講, 左相同爲入侍時, 左議政金尙喆, 領事鄭存謙, 知事洪樂性, 特進官徐浩修·李在簡, 參贊官李亨達, 大司諫李義翊, 掌令金致九, 侍讀官趙時偉, 檢討官沈煥之, 假注書鄭東浚, 記事官林錫喆·徐龍輔, 以次進伏訖, …… 義翊·致九所啓,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義翊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又所啓,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致九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8일(계묘)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홍찬해(洪纘海) 등 여러 죄인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정유년 4월 초8일 진시에 임금이 홍정당에 나아갔다. 조강에 좌상이 함께 입시했을 때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영사 정존겸(鄭存謙), 지사 홍낙성(洪樂性), 특진관 서호수(徐浩修)·이재간(李在簡), 참찬관 이형규(李亨達), 대사간 이의익(李義翊), 장령 김치구(金致九), 시독관 조시위(趙時偉), 검토관 심환지(沈煥之),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이의익·김치구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의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치구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이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

다. 〈하락〉.

△ 주제어: 제주목, 추자도, 대정현, 정의현, 홍찬해, 홍지해, 윤태연,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九日 甲辰

- 李鎭衡, 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洪啓能, 爲先絶島安置事, 依啓矣, 洪啓能, 全羅道濟州牧大靜縣, 絶島安置, 而以臺啓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9일(갑진)

- 홍계능(洪啓能)을 대정현(大靜縣)에 안치하기 위해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보고
- 이진형(李鎭衡)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홍계능(洪啓能)을 우선 절도(絶島)에 안치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홍계능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절도안치하되 대계(臺啓)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고 예(例)에 따라 의금부 나장을 보내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홍계능, 절도 안치.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九日 甲辰

- 又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安置罪人洪啓能, 荐棘事, 依啓矣, 洪啓能,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 而以臺啓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 荐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9일(갑진)

- 홍계능(洪啓能)을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하기 위해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보고
- 또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대간의 계에 따라 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위리안치하는 일은 아뢴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홍계능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하되, 대간이 아뢴 대로 죄목을 갖추어 예(例)에 따라 의금부 도사를 보내 배소로 압송하고 위리안치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홍계능.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九日 甲辰

- 丁酉四月初九日辰時, 上御崇政殿, 文臣殿講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左承旨李亨逵, 右承旨鄭民始, 左副承旨吳載紹, 右副承旨徐有防, 同副承旨李鎮衡, 假注書李兢淵·鄭東浚, 記事官林錫喆·徐龍輔, 以次侍立訖, …… 持平成鼎鎮, 正言安廷玪等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鞫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9일(갑진)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정유년 4월 초9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승정전으로 나아갔다. 문신 전강(文臣殿講)에 입시켰을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좌승지 이형규(李亨逵), 우승지 정민시(鄭民始), 좌부승지 오재소(吳載紹),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동부승지 이진형(李鎭衡), 가주서 이금연(李兢淵)·정동준(鄭東浚),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가 차례로 나아가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지평 성정진(成鼎鎭), 정언 안정현(安廷玪) 등이 말하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十日 乙巳

- 丁酉四月初十日辰時, 上御興政堂, 朝講,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事金尙喆, 特進官李重祜·徐浩修, 同知事吳載純, 大司憲鄭一祥, 參贊官李鎮衡, 侍讀官李在學, 檢討官沈煥之, 正言趙時偉, 假注書柳孟養, 記事官林錫喆·徐龍輔, 右議政鄭存謙, 兼兵曹判書蔡濟恭, 行司直鄭弘淳, 行禮曹判書洪樂性, 行左參贊李重祜, 右參贊鄭尙淳, 刑曹判書張志恒, 江華留守金鍾秀, 行副護軍李漢膺, 右副承旨徐有防, 事變假注書徐鼎修, 以次進伏訖, …… 一祥·惠祚·鼎大·履健·宗來·時偉·有鎮等曰, 請穩城府定配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上曰, 不允,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 一祥等曰, 啓能之覆載難容之罪, 已發於諫長及諸臺之啓, 而其羸狂悖戾之習, 陰譎闔捩之狀, 在渠獨屬薄物細故, 陰樹逆種, 密傳凶論, 慫慂恒·簡而爲渠羽翼, 糾結厚·麟而自作窩主, 待國洞執命之日, 擬占台府, 當李潭秉銓之時, 把弄朝權, 千罪萬惡, 指不勝屈, …… 況今日之逆, 莫劇於厚·麟, 而厚·麟之根柢源委, 卽是啓能, 則決不可以島棘而止,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上曰, 不允, 一祥·惠祚·鼎大·履健等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宗來·時偉·有鎮等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10일(을사)

□ 홍계능(洪啓能) 등의 죄인을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정유년 4월 초10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조강에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영사 김상철(金尙喆), 특진관 이중호(李重祜)·서호수(徐浩修), 동지사 오재순(吳載純), 대사헌 정일상(鄭一祥), 참찬관 이진형(李鎮衡), 시독관 이재학(李在學), 검토회 심환지(沈煥之), 정언 조시위(趙時偉),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겸 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사직 정홍순(鄭弘淳), 행 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행 좌참찬 이중호(李重祜), 우참찬 정상순(鄭尙淳), 형조판서 장지항(張志恒), 강화유수 김종수(金鍾秀), 행 부호군 이한웅(李漢膺), 우부

승지 서유방(徐有防), 사변 거주서 서정수(徐鼎修)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정일상·이혜조(李惠祚)·안정대(安鼎大)·홍이건(洪履健)·박종래(朴宗來)·조시위·심유진(沈有鎭) 등이 말하기를, “청컨대 온성부(穩城府)에 정배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贊海)를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일상 등이 말하기를, “홍계능(洪啓能)의 천지간에 용납되기 어려운 죄는 이미 간장(諫長) 및 여러 대간이 아뢴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패려한 습속, 음흉하게 권모술수하는 모양은 그에게는 오로지 박물세고(薄物細故)에 속합니다. 음침한 나무 아래 역종(逆種)으로서 은밀하게 흉론(凶論)을 전달하여 민항렬과 홍상간을 종용하여 그 우익(羽翼)으로 삼았고, 정후겸과 홍인한과 결탁하고 스스로 소두(疏頭)가 되어 권력을 잡는 날을 기다려 태부(台府)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이담(李潭)이 전선(銓選)의 권한을 잡게 되자, 조정의 권력을 잡고 농단하여 천만 가지 죄악을 범하여 이루 셀 수 없었습니다. <중략> 하물며 오늘날의 역절이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보다 심한 자가 없고 정후겸과 홍인한의 근저에 있는 연원이 바로 홍계능입니다. 그러니 섬에 위리안치하는 것으로 결단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계능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정일상·이혜조·안정대·홍이건 등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박종래·조시위·심유진 등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이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홍계능,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十三日 戊申

- 丁酉四月十三日巳時, 上御興政堂, 晝講, 詣臺臺臣同爲入侍時, 特進官李在協, 同知事吳載純, 參贊官李義翊, 侍讀官朴在源, 檢討官尹尙東, 假注書李兢淵, 記事官林錫喆·徐龍輔, 宗臣河恩君堧, 武臣李廷壽, 持平洪履健, 以次進伏訖, …… 履健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13일(무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홍이건(洪履健)의 계

- 정유년 4월 13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주강에 대청(臺廳)의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했을 때 특진관 이재협(李在協), 동지사 오재순(吳載純), 참찬관 이의익(李義翊), 시독관 박재원(朴在源), 검토회 윤상동(尹尙東), 가주서 이경연(李兢淵),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 종신 하은군(河恩君) 광(堧), 무신 이정수(李廷壽), 지평 홍이건(洪履健)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홍이건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十六日 辛亥

- 執義李惠祚, 司諫林蓍喆, 掌令安鼎大, 持平洪履健, 獻納朴宗來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拿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16일(신해)

□ 죄인 홍지해(洪趾海), 홍찬해(洪纘海), 홍계능(洪啟能) 등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집의 이혜조(李惠祚), 사간 임시철(林蓍喆), 장령 안정대(安鼎大), 지평 홍이건(洪履健), 헌납 박종래(朴宗來)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올문을 시행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계능(洪啟能)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추자도, 홍지해, 홍찬해, 대정현, 홍계능.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十六日 辛亥

- 執義李惠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黑山島荊棘罪人述海, 拿鞫嚴問得情,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16일(신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 홍술해(洪述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집의 이혜조(李惠祚)의 계
- 집의 이혜조(李惠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어내게 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흑산도, 김수현, 홍술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十六日 辛亥

- 司諫林蓍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拿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拿鞫嚴問,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16일(신해)

□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사간 임시철(林蓍喆)의 계

- 사간 임시철(林蓍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十七日 壬子

- 丁酉四月十七日辰時，上御興政堂晝講，詣臺臺臣，同爲入侍時，知事洪樂純，特進官李在簡，參贊官鄭民始，侍讀官李在學，檢討官尹尙東，假注書柳孟養，記事官徐龍輔·金勉柱，宗臣鶴林君煥，武臣許冥，掌令安鼎大，以次進伏訖，…… 鼎大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17일(임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정유년 4월 17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주강에 대청(臺廳)의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했을 때 지사 홍낙순(洪樂純), 특진관 이재간(李在簡), 참찬관 정민시(鄭民始), 시독관 이재학(李在學), 검토관 윤상동(尹尙東),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종신 학림군(鶴林君) 육(煥), 무신 허명(許冥),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안정대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二十二日 丁巳

- 又以司僕寺官員，以一二提調意啓曰，濟州前牧使柳懋遷任，進上馬三匹，今纔上來，禾毛色別單書入，依例內廐立養之意，敢啓，傳曰，知道。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22일(정사)

□ 제주(濟州)의 전임 목사 유혁(柳懋)이 바친 체임 진상마에 대한 사복시의 보고

- 또 사복시 관원으로서 1, 2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전임 목사 유혁(柳懋)이 교체되어 체임 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혁, 체임 진상마.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二十二日 丁巳

- 丁酉四月二十二日辰時, 上御興政堂晝講, 詣臺臺臣, 同爲入侍時, 知事洪樂性, 特進官沈履之, 參贊官徐有防, 侍讀官沈念祖, 檢討官朴祐源, 假注書柳孟養, 記事官徐龍輔·金勉柱, 宗臣凝善君熾, 武臣張志謙, 正言金翊休, 以次進伏訖, …… 翊休進前曰, 憲府不備, 故三司·兩司合啓, 不得陳奏, 而只以院啓陳達矣,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請旌義縣旌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22일(정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처결하라는 사간원의 계

- 정유년 4월 22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주장에 강에 대청(臺廳)의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했을 때 지사 홍낙성(洪樂性), 특진관 심이지(沈履之), 참찬관 서유방(徐有防), 시독관 심염조(沈念祖), 검토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종신 응선군(凝善君) 회(熾), 무신 장지겸(張志謙), 정언 김익휴(金翊休)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익휴가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사헌부가 불비(不備)하여 삼사(三司)·사헌부와 사간원가 합계하여 아될 수가 없으므로 단지 사간원의 계로 진달합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二十三日 戊午

- 大司憲鄭一祥, 司諫李謙彬, 掌令安鼎大, 正言金翊休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鞫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23일(무오)

- 죄인 홍찬해(洪纘海), 홍지해(洪趾海), 홍계능(洪啟能) 등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정일상(鄭一祥), 사간 이겸빈(李謙彬), 장령 안정대(安鼎大), 정언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계능(洪啟能)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홍계능.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二十三日 戊午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黑山島荊棘罪人述海, 拿鞫嚴問得情,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23일(무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홍술해(洪述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율문대로 처결하라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어내게 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흑산도, 김수현, 홍술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二十四日 己未

- 大司憲鄭一祥, 司諫李謙彬, 持平洪履健, 掌令安鼎大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鞫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24일(기미)

- 죄인 홍찬해(洪纘海), 홍지해(洪趾海), 홍계능(洪啟能) 등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정일상(鄭一祥), 사간 이겸빈(李謙彬), 장령 안정대(安鼎大), 정언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계능(洪啟能)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홍계능.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二十四日 己未

- 持平洪履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黑山島荊棘罪人述海, 拿鞫嚴問得情,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24일(기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 홍술해(洪述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율문대로 처결하라는 지평 홍이건(洪履健)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어내게 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흑산도, 김수현, 홍술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二十四日 己未

- 丁酉四月二十四日辰時, 上御興政堂晝講詣臺, 臺臣·閫帥·守令, 同爲入侍時, 知事洪樂純, 特進官鄭晚淳, 參贊官李義翊, 侍讀官沈念祖, 檢討官尹尙東, 假注書柳孟養, 記事官徐龍輔·金勉柱, 宗臣安川君炁, 武臣李邦鵬, 正言金翊休, 慶尙右兵使李長嫻, 竹山府使柳春醖, 以次進伏訖, …… 翊休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24일(기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 등을 다시 처결하라는 정언 김익휴(金翊休)의 계

- 정유년 4월 24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으로 나아갔다. 주강에 대청(臺廳)의 대신(臺臣)과 곤수(閫帥)·수령이 함께 입시했을 때 지사 홍낙순(洪樂純), 특진관 정만순(鄭晚淳), 참찬관 이의익(李義翊), 시독관 심염조(沈念祖), 검토회관 윤상동(尹尙東),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종신 안천군(安川君) 규(炁), 무신 이방봉(李邦鵬), 정언 김익휴(金翊休), 경상 우병사 이장혁(李長嫻), 죽산부사 유춘빈(柳春醖)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였다. <중략> 김익휴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二十六日 辛酉

- 大司憲鄭一祥, 執義李惠祚, 持平洪履健, 正言金翊休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鞫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薪智島安置罪人宋瑩中荐棘, 【措辭見上】 請智島定配罪人金相翊荐棘,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26일(신유)

- 죄인 홍찬해(洪纘海), 홍지해(洪趾海), 홍계능(洪啟能) 등을 심문하여 다시 처결하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

- 대사헌 정일상(鄭一祥), 집의 이혜조(李惠祚), 지평 홍이건(洪履健), 정언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지해(洪趾海),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왕부로 하여금 붙잡아다가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계능(洪啟能)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홍찬해, 홍지해, 홍계능.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二十六日 辛酉

- 持平洪履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黑山島荊棘罪人述海, 拿鞫嚴問得情, 【措辭見上】 …… 答曰, 不允. 處置事, 依啓.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26일(신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 홍술해(洪述海)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지평 홍이건(洪履健)의 계
- 지평 홍이건(洪履健)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술해(洪述海)를 잡아다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어내게 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처치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현, 흑산도, 김수현, 홍술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四月 二十六日 辛酉

- 正言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答曰, 不允. 處置事, 依啓.

❖ 정조 1년(1777) 정유년 4월 26일(신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 윤태연(尹泰淵)을 다시 심문하여 처결하라는 정언 김익휴(金翊休)의 계

- 정언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도록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왕부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캐내게 하여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결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처치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五月 五日 己巳

- 丁酉五月初五日辰時, 上御興政堂, 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雲峯君同爲入侍時, 領事鄭存謙, 知事徐命善, 特進官尹得養, 大司憲李瀾, 特進官金魯鎭, 參贊官俞彥鎬, 大司諫金夏材, 侍講官沈念祖, 檢討官朴祐源, 假注書徐鼎修, 記事官徐龍輔·金勉柱, 左議政金尙喆, 兼兵曹判書蔡濟恭, 知中樞府事具善復, 行工曹判書具允鉉, 行禮曹判書洪樂性, 左參贊李重祐, 判尹李徽之, 戶曹判書洪樂純, 行副司直李漢膺, 司直鄭一祥, 吏曹參判徐浩修, 右承旨李義翊, 獻納呂善亨, 事變假注書吳翼煥, 雲峯君杔, 以次進伏訖. …… 瀾·夏材·善亨曰, 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凶言悖說, 實是亙古所無之逆節, 而趾海·纘海之爛漫同情, 渠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臣等謂楸子島荇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宜矣. 上曰, 不允. …… 瀾·夏材·善亨曰, 啓能之覆載難容之罪, 已發於諫長及諸臺之啓, 而其麤狂悖戾之習, 陰譎闔捩之狀, 在渠猶屬薄物細故. 陰樹逆種, 密傳凶論, 慫慂簡·恒, 而爲渠羽翼, 糾結厚·麟, 而自作窩主, 待國洞執命之日, 擬占台府, 當李潭秉銓之時, 把弄朝權, 千罪萬惡, 指不勝屈, 而若其最驚心而尤痛骨者, 流入體酒之說, 肆然脅持, 指授大北之論, 百計嘗試, 甚至於倡爲追崇之說, 恐動僭流, 則凶肚逆腸, 有浮於師興, 沮遏代理之逆, 皆其部曲, 則亂本凶圖, 殆甚於耆·輝, 綢繆之跡, 樂禍之心, 不待起舜, 而彰露無餘, 有一於此, 在法當誅. 況今日之逆, 莫劇於厚·麟, 而根抵源委, 卽是啓能, 則決不可以島棘而止, 臣等謂大靜縣荇棘罪人啓能, 依律處斷. 宜矣.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5월 5일(기사)

-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 및 대정현에 위리안치한 홍계능(洪啓能)을 속히 형률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이미(李瀾) 등의 계
- 정유년(1777) 5월 5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조강(朝講)에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운봉군(雲峯君)이 함께 입시할 때, 영사 정존겸(鄭存謙), 지사 서명선(徐命善), 특진관 윤득양(尹得養), 대사헌 이미(李瀾), 특진관 김노진(金魯鎭), 참찬관 유언호(俞彦鎬), 대사간 김하재(金夏材), 시강관 심염조(沈念祖), 검토회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검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공조판서 구윤옥(具允錡), 행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좌참찬 이중호(李重祐), 판윤 이휘지(李徽之), 호조판서 홍낙순(洪樂純), 행부사직 이한웅(李漢膺), 사직 정일상(鄭一祥),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우승지 이의익(李義翊), 헌납 여선형(呂善亨), 사변가주서 오익환(吳翼煥), 운봉군 심(杺)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미¹⁴⁾·김하재¹⁵⁾·여선형이 아뢰기를, “이번 옥사에서 이상로(李商輅)¹⁶⁾와 이선훈(李善海)¹⁷⁾의 서찰 가운데 흉패(凶悖)한 말은 실로 예전에는 없던 역절(逆節)이고, 홍지해(洪趾海)¹⁸⁾와 홍찬해(洪纘海)¹⁹⁾가 한통속이라는 것을 저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벌을 아주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신들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미·김하재·여선형이 아뢰기를, “홍계능(洪啓能)²⁰⁾의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죄는 이미 대사간 및 여러 대신(臺臣)의 계(啓)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거칠고 패려(悖戾)한 습성과 음흉하게 다른 사람을 농락한 실상은 그에게는 오히려 하찮은 일에 속합니다. 몰래 역모의 씨를 심어 흉론(凶論)을 은밀히 전하고, 홍상간(洪相簡)²¹⁾과 민항렬(閔恒烈)²²⁾

14) 이미(1725~?): 본관 덕수(德水). 자 중호(仲浩). 1757년(영조 33) 문과 급제. 경상도관찰사, 부제학, 이조참판 역임.

15) 김하재(1745~1784): 본관 광산(光山). 자 양숙(養叔).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대사헌, 동지경연사, 이조참판 역임.

16) 이상로(1720~?): 본관 전주(全州). 자 태소(太素).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사간, 첨지, 승지 역임. 정조가 즉위한 후 즉위를 반대하던 홍인한(洪麟漢), 정후겸(鄭厚謙), 윤양후(尹養厚), 민항렬(閔恒烈), 홍지해(洪趾海), 홍상간(洪相簡) 등 노론 벽파가 제거되었는데, 이때 홍지해에게 보낸 서찰에 쓴 “기관(機關)이 음비(陰秘)하고 경상(景像)이 위박(危迫)하다.”라는 구절이 문제가 되어 역적으로 몰려 죽었음. 홍인한의 아들인 홍낙원(洪樂遠)의 장인임.

17) 이선훈(1717~?): 본관 덕수(德水). 자 만여(萬如). 1747년(영조 23) 문과 급제. 홍봉한(洪鳳漢)의 아들인 홍낙륜(洪樂倫)의 장인이다. 홍봉한은 사도세자의 장인임.

18) 홍지해(1720~1777): 본관 남양(南陽). 자 백미(伯美). 1752년(영조 28) 문과 급제. 대사간,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역임. 1776년 홍인한(洪麟漢)·정후겸(鄭厚謙) 등과 더불어 정조의 즉위를 반대하였다가 이듬해 정조가 즉위하자 파직당하고 북도(北道)에 유배, 다시 추자도로 이배됨. 이 때 아들 홍상간(洪相簡)과 두 아우 홍술해(洪述海)·홍찬해(洪纘海)가 대역죄로 처형됨에 그도 또한 주살됨.

19) 홍찬해(1737~1777): 본관 남양(南陽). 자 유성(幼成).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수찬, 편집낭청, 대사간 역임. 1776년 홍인한(洪麟漢)·정후겸(鄭厚謙) 등의 모역사건에 연루되어 흑산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그곳에서 죽었음.

20) 홍계능(?~1776): 본관 남양(南陽). 호 신계(莘溪). 1750년(영조 26)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의 천거로 등용. 평안도도사, 지평, 집의 역임. 홍인한(洪麟漢)과 더불어 세손의 즉위를 반대하였다가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하옥되어 옥사함.

을 종용하여 그의 우익(羽翼)으로 삼고, 정후겸(鄭厚謙)²³과 정인중(鄭麟重)과 결탁하여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국동(國洞)에서 명령을 잡아쥐는 날을 기다렸다가 의정부(擬占)하였고, 이담(李潭)²⁴이 전형(銓衡)을 맡았을 때에는 조정의 권력을 틀어쥐어 좌지우지하였으니, 저지른 온갖 죄악은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놀랍고도 뼈에 사무치는 것은 예주(醴酒)의 이야기를 유입(流入)하여 방자하게 위협하고 버티었고, 대북(大北)의 의론을 지시하여 가르쳐 주어 온갖 계략으로 시험한 것이니, 심지어는 추숭(追崇)의 설²⁵을 창도하여 동류들을 위협하였으니, 흉악한 속셈은 군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하고, 대리청정을 저지른 역적이 모두 그 부곡(部曲)이니, 근본을 어지럽힌 흉악한 계책은 조태구(趙泰耆)와 유봉휘(柳鳳輝)보다 훨씬 심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취와 화란(禍亂)을 즐기는 마음은 순(舜) 임금(舜)을 일으키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범으로 볼 때 마땅히 주벌해야 합니다. 하물며 오늘의 역적은 정후겸(鄭厚謙)과 이인좌(李麟佐)보다 심한 자가 없는데, 근본 원인의 처음과 끝은 곧 이 홍계능(洪啓能)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신들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을 형률대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역적,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천극죄인.

21) 홍상간(1745~1777): 본관은 남양(南陽).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부수찬, 헌납, 필선 역임. 홍지해의 아들. 1777년(정조 1) 홍인한이 정조를 시해하려다 주살(誅殺)된 역옥(逆獄)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고 죽었음.

22) 민항렬(1745~1776): 본관 여흥(驪興). 자 유화(幼和). 정언, 승지 역임. 1777년(정조 1) 홍인한이 정조를 시해하려다 주살(誅殺)된 역옥(逆獄)에 연루되어 홍상간 등과 함께 같은 해 7월에 처형됨.

23) 정후겸(1749~1776): 본관 연일(延日). 자 백익(伯益). 개성부유수, 호조참의, 공조참관 역임. 1775년 세손(정조)이 대리청정하게 되자 화완옹주·홍인한 등과 이를 극력 반대, 정조가 즉위하자 경원에 천극(梟棘) 되었다가 곧 이어 사사됨.

24) 이담(1723~1775): 본관 덕수(德水). 자 경룡(景龍). 시호 문목(文穆). 1756년(영조 32) 문과 급제. 공조참관, 대사간, 예조판서 역임.

25) 추숭(追崇)의 설: 사도세자를 추숭할 것을 청하는 논의를 가리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五月 六日 庚午

- 丁酉五月初六日辰時, 上御興政堂. 晝講入侍, 統制使·下直守令同爲入侍時, 知事洪樂性, 特進官鄭光漢, 參贊官李亨達, 侍讀官沈念祖, 檢討官朴祐源, 假注書徐鼎修, 記事官林錫喆·金勉柱, 大司憲李瀾, 大司諫金夏材, 宗臣鶴林君煥, 武臣李長燁, 統制使李昌運, 三陟府使閔弘燮, 以次進伏訖. …… 瀾·夏材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拿鞠嚴問, 快施當律. 上曰, 不允. ……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上曰, 不允. …… 瀾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夏材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拿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拿鞠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5월 6일(경오)

-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 대정현에 위리안치한 홍계능(洪啓能), 대정현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속히 형률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이미(李瀾) 등의 계
- 정유년(1777) 5월 6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에 입시하는 자리에 통제사와 하직 수령이 함께 함께 입시했을 때, 지사 홍낙성(洪樂性), 특진관 정광한(鄭光漢), 참찬관 이형규(李亨達), 시독관 심염조(沈念祖), 검토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임석철(林錫喆)·김면주(金勉柱), 대사헌 이미(李瀾), 대사간 김하재(金夏材), 종신 학림군 육(煥), 무신 이장엽(李長燁), 통제사 이창운(李昌運), 삼척부사 민홍섭(閔弘燮)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미와 김하재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미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²⁶⁾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26) 김수현(?~?):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살던 용동궁(龍洞宮)에서 일을 주관하는 내시.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재하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국문하여 속히 국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五月 十一日 乙亥

- 丁酉五月十一日午時, 上御興政堂. 諸承旨持公事, 吏曹參議同爲入侍, 疏決追爲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左承旨李亨達, 右承旨李義翊, 左副承旨俞彥鎬, 右副承旨金夏材, 假注書徐鼎修, 記事官徐龍輔·金勉柱, 吏曹參議鄭民始, 以次進伏訖. 諸承旨以次讀奏公事. …… 至宋文鉉·李世壕事. 上曰, 此乃李壽鳳, 以御史往濟州時事乎? 重祜曰, 然矣. 命仍. …… 在源·宗來·念祖曰, 臣等謂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設鞫嚴問, 快施當律, 宜矣. 【措辭見上】上曰, 不允. …… 在源·宗來·念祖曰, 臣等謂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宜矣. 【措辭見上】上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5월 11일(을해)

- 소결(疏決)에서 송문현(宋文鉉)·이세호(李世壕)를 그대로 하라는 임금의 명과 추자도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홍계능(洪啓能), 대정현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박재원(朴在源) 등의 계
- 정유년(1777) 5월 11일 오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이조참의가 함께 입시하여 소결(疏決)²⁷⁾이 따라서 입시할 때에 행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좌승지 이형규(李亨達), 우승지 이의익(李義翊), 좌부승지 유언호(俞彦鎬), 우부승지 김하재(金夏材),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이조참의 정민시(鄭民始)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여러 승지가 차례로 공사를 읽으면서 아뢰었다. <중략> 송문현(宋文鉉)·이세호(李世壕)의 일에 이르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수봉(李壽鳳)²⁸⁾이 어사로 제주(濟州)에 갔을 때의 일인가?”라고 하였다. 이중호(李重祜)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대로 하라고 명했다. <중략> 박재원(朴在源)²⁹⁾·박종래(朴宗來)³⁰⁾·심염조(沈念祖)³¹⁾가 아뢰기를, “신들은

27) 소결(疏決): 죄수를 너그럽이 처결함.

28) 이수봉(1710~?): 본관 함평(咸平). 자 의숙(儀叔). 호 화천(花川). 헌납, 사간, 장령 역임. 1763년(영조 39) 7월 정의현에 유배된 심내복(沈來復)의 역모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10월 제주위유어사로 다녀갔다.

29) 박재원(1723~1780): 본관 나주(羅州). 자 이천(而川). 시호 충헌(忠獻).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홍문관수찬, 사헌부지평, 사간원헌납 역임.

30) 박종래(?~1831): 본관 반남(潘南). 홍문관부수찬, 대사간, 광주부유수 역임.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 하는 형률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박재원·박종래·심엽조가 아뢰기를, “신들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송문현, 이세호, 이수봉,

31) 심엽조(1734~1783): 본관 청송(靑松). 자 백수(伯修), 호 함재(涵齋). 1776년(영조 52)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五月 十二日 丙子

- 正言沈念祖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凶猾之性, 素畜跋扈之志, 交結厚賊<謙>麟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謙>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慫慂,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謙>麟漢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設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5월 12일(병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심연조(沈念祖)의 계

- 정언 심연조(沈念祖)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³²⁾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³³⁾은 본래 흉악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품고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과 결탁하여 심복이 되었으니, 자기가 장수의 소임을 띠게 되자 밤낮으로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을 들고나며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받았습시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감히 역적을 비호하는 죄를 부리려고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가 평소에 윤태연의 종용(慫慂)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홍인한을 몰래 비호한 것은 곧 위곡(委曲)하게 윤태연의 처지

32) 이하는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6월 2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33) 윤태연(1709~1777): 동부승지, 우포도대장, 어영대장 역임.

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후겸과 홍인한을 법대로 처단한 뒤를 당하여 그 음모와 철저히 준비한 실상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의현, 윤태연, 국청.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五月 十五日 己卯

- 丁酉五月十五日辰時, 上御興政堂. 晝講·次對同爲入侍時, 特進官黃景源, 知事洪樂純, 參贊官徐有防, 侍讀官鄭志儉, 檢討官尹尙東, 假注書徐鼎修, 記事官徐龍輔·金勉柱, 宗臣廣陵君燧, 武臣田翊顯,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行兵曹判書蔡濟恭, 行工曹判書具允玉, 行司直徐命善, 行吏曹判書鄭弘淳, 行禮曹判書洪樂性, 左參贊李重祜, 副司直尹得養, 刑曹判書張志恒, 副司直李漢膺·鄭一祥, 司諫林蓍喆, 正言沈念祖, 右承旨李義翊, 事變假注書林雲喆, 以次進伏訖. …… 蓍喆·念祖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措辭見上】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措辭見上】 …….

❖ 정조 1년(1777) 정유년 5월 15일(기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임시철(林蓍喆) 등의 계

- 정유년(1777) 5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차대(次對)가 함께 입시할 때 특진관 황경원(黃景源), 지사 홍낙순(洪樂純), 참찬관 서유방(徐有防), 시독관 정지검(鄭志儉), 검토관 윤상동(尹尙東), 가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종신 광릉군 이연(李 漑), 무신 전익현(田翊顯),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행 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공조판서 구윤옥(具允玉), 행 사직 서명선(徐命善), 행 이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좌참찬 이중호(李重祜), 부사직 윤득양(尹得養), 형조판서 장지항(張志恒), 부사직 이한응(李漢膺)·정일상(鄭一祥), 사간 임시철(林蓍喆), 정언 심염조(沈念祖), 우승지 이의익(李義翊), 사변가주서 임운철(林雲喆)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시철³⁴⁾과 심염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정을 열어 엄히 국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

34) 임시철(1740~1805): 본관 나주(羅州). 자 성중(聖仲). 시호 간헌(簡憲).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강화부유수, 공조판서, 대호군 역임.

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의현, 윤태연, 국청.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五月 二十五日 己丑

- 丁酉五月二十五日辰時, 上御興政堂. 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特進官李徽之, 同知事權導, 參贊官李鎮衡, 侍讀官沈有鎮, 檢討官朴祐源, 假注書柳孟養, 記事官林錫喆·金勉柱, 宗臣西春君燁, 武臣田翊顯, 左議政金尙喆, 右議政鄭存謙, 兼兵曹判書蔡濟恭, 行司直具善復, 行工曹判書具允鉦, 行司直徐命善, 行禮曹判書洪樂性, 左參贊李重祜, 判尹李徽之, 戶曹判書洪樂純, 司直尹得養, 行副司直李漢膺·鄭一祥, 大司憲李瀾, 行都承旨洪國榮, 司諫林蓍喆, 左承旨兪彥鎬, 事變注書林雲喆, 以次進伏訖. …… 瀾·蓍喆等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上曰, 不允. ……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瀾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蓍喆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鞠嚴問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5월 25일(기축)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 홍찬해(洪纘海)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이미(李瀾) 등의 계
- 정유년(1777) 5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특진관 이휘지(李徽之), 동지사 권도(權導), 참찬관 이진형(李鎭衡), 시독관 심유진(沈有鎭), 검토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유맹양(柳孟養), 기사관 임석철(林錫喆)·김면주(金勉柱), 종신 서춘군 이엽(李燁), 무신 전익현(田翊顯),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겸 병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사직 구선복(具善復), 행 공조판서 구윤옥(具允鉦), 행 사직 서명선(徐命善), 행 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좌참찬 이중호(李重祜), 판윤 이휘지(李徽之), 호조판서 홍낙순(洪樂純), 사직 윤득양(尹得養),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정일상(鄭一祥), 대사헌 이미(李瀾),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사간 임시철(林蓍喆), 좌승지 유언호(兪彦鎬), 사변주서 임운철(林雲喆)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미·임시철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

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贊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미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임시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국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홍지혜, 홍찬해, 홍계능,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五月 二十九日 癸巳

- 丁酉五月二十九日午時，上御熙政堂。晝講，詣臺臺臣，同爲入侍時，特進官金華鎮，同知事吳載純，參贊官林得浩，侍讀官沈有鎮，檢討官朴祐源，假注書李兢淵，記注官金鳳顯，記事官徐龍輔，宗臣安春君煥，武臣許寔，掌令朴在源，以次進伏訖。…… 在源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5월 29일(계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장령 박재원(朴在源)의 계

- 정유년(1777) 5월 29일 오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할 때 특진관 김화진(金華鎭), 동지사 오재순(吳載純), 참찬관 임득호(林得浩), 시독관 심유진(沈有鎭), 검토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이궁연(李兢淵),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서용보(徐龍輔), 종신 안춘군 룡(煥), 무신 허명(許寔), 장령 박재원(朴在源)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박재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一日 甲子

- 義任觀周, 持平洪明浩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配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일(갑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집의 임관주(任觀周) 등의 계

- 의 임관주(任觀周)³⁵, 지평 홍명호(洪明浩)³⁶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처단.

35) 임관주(1732~?): 본관 풍천(豐川). 자 숙빈(叔賓). 1756년(영조 32) 문과 급제. 지평, 정언 역임.

36) 홍명호(1736~1819): 본관 풍산(豐山). 자 공서(公舒).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한성부우윤, 승지, 판의금부사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二日 己丑

- 都政. 吏批, 判書李重祜進, 參判權導進, 參議未差, 右副承旨李鎮衡進. …… 以慶來運爲濟州判官, …….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2일(기축)

□ 경내운(慶來運)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였다. 이비에 판서 이중호(李重祜)가 나오고, 참판 권도(權導)가 나오고, 참의는 임명되지 않았고, 우부승지 이진형(李鎭衡)이 나왔다. <중략> 경내운(慶來運)³⁷⁾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경내운, 제주판관.

37) 경내운(1723~?): 본관 청주(淸州), 자 여대(汝大). 1751년(영조 27) 무과 급제. 선전관, 훈련원주부, 제주판관(1777.7.~1780.3.)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二日 己丑

- 持平洪明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2일(기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홍명호(洪明浩)의 계

- 지평 홍명호(洪明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三日 丙寅

-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洪明浩·柳誼, 獻納沈豐之, 正言俞岳柱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鞫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3일(병인)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대정현(大靜縣) 죄인 홍계능(洪啓能)의 처벌을 청하는 집의 임관주(任觀周) 등의 계
-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³⁸, 지평 홍명호(洪明浩)·유의(柳誼)³⁹,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유악주(兪岳柱)⁴⁰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처단.

38) 안성빈(1732~?): 본관 순흥(順興). 자 질보(質父).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함평현감, 승지, 대사간 역임.

39) 유의(1734~?): 본관 전주(全州). 자 의지(誼之).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승지, 홍주목사, 대사헌 역임.

40) 유악주(1737~?): 본관 기계(杞溪). 자 중진(仲鎭). 1767년(영조 43) 문과 급제. 사헌부장령, 헌납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三日 丙寅

- 持平柳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3일(병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유의(柳誼)의 계

- 지평 유의(柳誼)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三日 丙寅

- 司諫安聖彬, 獻納沈豐之, 正言俞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3일(병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안성빈(安聖彬) 등의 계

- 사간 안성빈(安聖彬),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국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三日 丙寅

- 丁酉七月初三日辰時, 上御興政堂. 右承旨·守令·邊將·營將·虞候·中軍·察訪·初入仕·復職, 同爲入侍時, 右承旨金文淳, 假注書朴長高, 記事官林錫喆·金勉柱, …… 濟州判官慶來運, …… 以次進伏訖. 上曰, 新除授守令, 皆爲入來乎? 文淳曰, 今日未及盡爲肅謝矣. 上曰, 以次進前. …… 濟州判官慶來運進前. 上下詢職姓名. 來運仰對. 上曰, 履歷, 何如? 來運對曰, 部將出身矣. 上曰, 誰之族乎? 來運對曰, 軍資正臣慶再觀族也. 上曰, 旣爲再觀之族, 則何爲以爲部薦乎? 來運對曰, 以貧窮將死之故, 爲部薦矣. 文淳曰, 筵席奏對, 殊欠敬謹, 推考, 何如? 上曰, 推考, 可也. 【出擧條】 仍命退出. …….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3일(병인)

□ 연석(筵席)에서 주대(奏對)하는 것이 공경하지 못한 제주판관(濟州判官) 경내운(慶來運)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우승지 김문순(金文淳)의 계

- 정유년(1777) 7월 3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우승지·수령·변장·영장·우후·중군·찰방·초입사·복직이 함께 입시할 때 우승지 김문순(金文淳), 가주서 박장설(朴長畵), 기사관 임석철(林錫喆)·김면주(金勉柱), 〈중략〉 제주판관 경내운(慶來運)이 〈중략〉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새로 제수된 수령이 모두 들어왔는가?”라고 하였다. 김문순⁴¹⁾이 아뢰기를, “오늘 미처 다 숙배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판관 경내운이 앞으로 나왔다. 임금이 관직과 성명을 물었다. 경내운이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였다. 경내운이 대답하기를, “부장(部將) 출신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의 친족인가?”라고 하였다. 경내운이 대답하기를, “군자정 신 경재관(慶再觀)의 친족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재관의 친족이라면 어찌해서 부장(部將)으로 추천되었는가?”라고 하였다. 경내운이 대답하기를, “가난해서 장차 죽을 것같은 까닭에 부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김문순이 아뢰기를, “연석(筵席)에서 주대(奏對)하는 것이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매우 부족하니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

41) 김문순(1744~?): 본관 안동(安東). 자 재인(在人). 1767년(영조 43) 문과 급제. 이조참판, 형조판서, 한성판윤 역임.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이어서 물러나도록 명하였다. 〈하락〉.

△ 주제어: 제주판관, 경내운, 추고.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四日 丁卯

-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洪明浩·柳誼, 獻納沈豐之, 正言俞岳柱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鞫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4일(정묘)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대정현(大靜縣) 죄인 홍계능(洪啓能)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등의 계
- 대사간 조영진(趙英鎭)⁴²⁾,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홍명호(洪明浩)·유의(柳誼),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유악주(俞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처단.

42) 조영진(1737~1791): 본관 풍양(豐壤). 자 사린(士蘭).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승지, 동래부사, 대사간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四日 丁卯

- 持平柳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4일(정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유의(柳誼)의 계

- 지평 유의(柳誼)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四日 丁卯

- 正言兪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4일(정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유악주(兪岳柱)의 계
-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국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五日 戊辰

- 丁酉七月初五日辰時, 上詣崇政殿. 親臨殿講製述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左承旨鄭民始, 右承旨金文淳, 左副承旨徐有防, 右副承旨李鎮衡, 同副承旨李世奭, 假注書柳孟養·朴長高, 記事官林錫喆·金勉柱, 以次侍立訖.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鎮, 持平洪明浩, 正言兪岳柱所啓,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又所啓,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昌順·明浩, 又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英鎮·岳柱) 又所啓,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鞠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5일(무진)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 죄인 홍찬해(洪纘海), 대정현 죄인 홍계능(洪啓能), 정의현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정유년(1777) 7월 5일 진시에 임금이 숭정당(崇政殿)으로 나아갔다. 친림하여 전강(殿講)과 제술(製述)을 행하는 자리에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우승지 김문순(金文淳), 좌부승지 서유방(徐有防), 우부승지 이진형(李鎮衡), 동부승지 이세석(李世奭), 가주서 유맹양(柳孟養)·박장설(朴長高), 기사관 임석철(林錫喆)·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대사헌 정창순(鄭昌順)⁴³⁾,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지평 홍명호(洪明浩),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

43) 정창순(1727~?): 본관 온양(溫陽). 자 기천(祈天). 호 사어(四於). 1757년(영조 33) 문과 급제. 대사간, 예조판서, 판중추부사 역임.

사(措辭)가 위에 보임】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창순·홍명호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조영진·유악주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七日 庚午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洪明浩, 獻納沈豐之, 正言兪岳柱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鞫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7일(경오)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대정현 죄인 홍계능(洪啓能)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홍명호(洪明浩),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七日 庚午

- 持平洪明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7일(경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홍명호(洪明浩)의 계

- 지평 홍명호(洪明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七日 庚午

- 獻納沈豐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7일(경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정의현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처벌을 청하는 헌납 심풍지(沈豐之)의 계
- 헌납 심풍지(沈豐之)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진상을 조상한 뒤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八日 辛未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洪明浩·鄭淵淳, 獻納沈豐之, 正言兪岳柱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8일(신미)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대정현 죄인 홍계능(洪啓能)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홍명호(洪明浩)·정연순(鄭淵淳)⁴⁴⁾,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김수현, 처단.

44) 정연순(1727~?): 본관 동래(東萊). 자 희안(希顔).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八日 辛未

- 持平洪明浩·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8일(신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홍명호(洪明浩) 등의 계

- 지평 홍명호(洪明浩)·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八日 辛未

- 司諫安聖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8일(신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정의현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안성빈(安聖彬)의 계
- 사간 안성빈(安聖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진상을 조상한 뒤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九日 壬申

- 丁酉七月初九日辰時, 上御尊賢閣. 推考房承旨入侍時, 右承旨徐有防, 假注書朴長高, 記事官林錫喆·金勉柱, 以次進伏訖. …… 上命書傳教曰, 外邑分養, 三匹以上致斃, 各有罪名, 況特教牧養於內外寺之馬乎? 若此則濟州馬貢革之, 以除沿路之弊, 可也. 司僕之事, 極爲駭然, 昨年濟州貢馬, 以特教出給該寺後, 三匹致斃, 郎廳先罷後拿, 二匹致斃, 內乘一竝知名, 拿問定罪, 一匹致斃, 內乘爲先推考, 該寺應有掌牧之人, 其中首隸, 令攸司從重科治. 上曰, 司僕寺, 先罷後拿, 及拿問定罪推考事, 及內外寺中, 毋論理馬及首隸, 各一人式, 二人從重科治事, 注書出去, 分付. 賤臣, 承命出來, 分付後還入. …….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9일(임신)

□ 제주공마(濟州貢馬)를 치폐(致斃)하게 한 사복시 관원을 정죄(定罪)하라는 임금의 전교

- 정유년 7월 9일 진시에 임금이 존현각(尊賢閣)으로 나아갔다. 추고방 승지(推考房承旨)가 입시할 때 우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박장설(朴長高), 기사관 임석철(林錫喆)·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외읍(外邑)의 분양(分養)에는 3필 이상 치폐(致斃)에 각각 죄명(罪名)이 있다. 하물며 특교(特教)로 내사복시(內司僕寺)와 외사복시(外司僕寺)에서 기르는 말은 어찌하겠는가? 이와같다면 제주(濟州)의 마공(馬貢)을 혁파하여 연로(沿路)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옳다. 사복시의 일은 아주 놀랍다. 작년 제주공마(濟州貢馬)를 특교하여 해당 시(寺)에 내어준 뒤 3필을 치폐하였다면 낭청을 먼저 과직한 후에 잡아다 다스리고, 2필을 치폐하였다면 내승(內乘)을 모조리 이름을 알아내어 잡아다 신문하여 정죄(定罪)하라. 1필을 치폐하였다면 내승을 우선 추고(推考)하고 해당 시(寺)에 응당 목양(牧養)을 관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가운데 수예(首隸)를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하게 과치(科治)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복시가 먼저 과직한 후에 잡아들이는 것과 잡아와서 신문하여 정죄하는 일과 내사복시와 외사복시 가운데 이마(理馬)⁴⁵⁾ 및 수예를 막론하고 각 1인씩 2인을 엄하게 과치하는 일을 주서는 나가서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분부한 뒤에 도로 돌아왔다. <하략>.

45) 이마(理馬): 사복시에 속한 관직. 잡직의 하나로 궁중의 마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다.

△ 주제어: 제주공마, 치폐, 사복시, 정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一日 甲戌

- 丁酉七月十一日辰時，上御興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尙喆，右議政徐命善，行知中樞府事具善復，行工曹判書具允鉦，行戶曹判書鄭弘淳，行禮曹判書洪樂性，刑曹判書張志恒，行副司直李漢膺，行都承旨洪國榮，吏曹參議鄭民始，大司憲鄭昌順，大司諫趙英鎮，校理南鶴聞，同副承旨李秉模，假注書鄭東浚，事變假注書徐鼎修，記事官林錫喆·金勉桂，以次進伏訖。……上曰，左相何不入來乎？尙喆曰，左相方帶司僕都提調之任，而日昨，以貢馬致斃事，有所下教，故惶恐不敢入來云矣。上曰，左相所引，太涉過矣。仍命左相入侍。上曰，大抵司僕寺事，亦可怪矣，濟州年年許多貢馬，一入司僕，無一生存，此皆由於不善喂養之致也。尙喆曰，至若外邑分養馬，則放諸水草中，故皆因性善養，而司僕，則卒以芻豆養之故性易生病，勢似然矣。命善曰，貢馬之致斃，皆在於臣爲提調之時，今此左相之引，可謂替當矣。……存謙曰，臣之區區私義，雖不足恤，而若勘小官之罪，則宜先自臣身矣。上曰，卿之所引太過矣。……大司憲鄭昌順，大司諫趙英鎮啓曰，今番獄事，商輅·善海之書札中，凶言悖說，實是亘古所無之逆節，而趾海·纘海之爛熳同情，渠既自服，則今此酌處之命，實爲失刑之大者，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濟州牧定配罪人纘海，更令王府，設鞫嚴問，快施當律。上曰，不允。……又啓曰，啓能之覆載難容之罪，已發於諫長及諸臺之啓，而其麤狂悖戾之習，陰譎闖捩之狀，在渠猶屬薄物細故，陰樹逆種，密傳凶論，慫慂簡·恒而爲渠羽翼，糾結厚·麟而自作窩主，待國洞執命之日，擬占台府，當李潭秉銓之時，把弄朝權，千罪萬惡，指不勝屈，而若其最驚心而尤痛骨者，流入醴酒之說，肆然脅持，指授大北之論，百計嘗試，甚至於倡爲追崇之說，恐動儕流，則凶肚逆腸，有浮於師興，沮遏代理之逆，皆其部曲，則亂本凶圖，殆甚於考·輝綢繆之跡，樂禍之心，不待起舞<舜>而彰露無餘，有一於此，在法當誅，況今日之逆，莫劇於厚·麟，而厚·麟之根柢源委，卽是啓能，則啓能之惡逆，已是國人之所共憤，而處分之下，如有一毫顧忌之心，則以荐棘之罪人，而乃敢率入親屬乎？平日無君跋扈之罪，卽此一事而亦可見矣，此等跋扈之類，決不可島棘而止，以生意外之變，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依律處斷。上曰，不允。……大司憲鄭昌順啓曰，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熾和通之狀，明白納招，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於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大司諫趙英鎮啓曰，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

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又啓曰，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本以凶猾之性，素蓄跋扈之志，交結厚賊麟漢，作爲腹心瓜牙，身帶將兵之任，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蹤跡陰祕，爲世指目，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其於平日稔受泰淵之慫慂，故陰護麟漢，卽曲爲泰淵之地，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其陰謀綢繆之狀，尤不可不究覈，施以當律，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亟令王府，設鞫嚴問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上曰，輪對官守令・邊將入侍．賤臣承命而出，與中樞都事李養，……濟州判官慶來運，……偕入進伏．……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1일(갑술)

□ 죄인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홍계능(洪啓能)·김수현(金壽賢)·윤태연(尹泰淵)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정유년 7월 11일 진시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공조판서 구윤옥(具允錫), 행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예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형조판서 장지항(張志恒), 행부사직 이한웅(李漢膺), 행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이조참의 정민시(鄭民始),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교리 남학문(南鶴聞), 동부승지 이병모(李秉模), 가주서 정동준(鄭東浚), 사변가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임석철(林錫喆)·김면규(金勉桂)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좌상은 어찌 들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김상철⁴⁶⁾이 아뢰기를, “좌상이 현재 사복시 도제조의 직임을 맡고 있는데, 어제 공마(貢馬)를 치폐(致斃)한 일로 하교한 바가 있었기에 황공하여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좌상이 잘못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좌의정을 입시하게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사복시의 일은 또한 가히 놀랍다. 제주(濟州)에서 해마다 올라오는 허다한 공마(貢馬)가 한번 사복시에 들어가면 하나도 살아남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모두가 잘 기르지 못한 까닭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상철이 아뢰기를, “외읍(外邑)에 분양(分養)한 말의 경우는 수초(水草) 중에 풀어놓기 때문에 모두가 성질

46) 김상철(1712~1791): 본관 강릉(江陵). 자 사보(士保). 호 화서(華西). 시호 충익(忠翼). 1736년(영조 12) 문과 급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역임.

에 따라서 잘 길러지는데, 사복시에서는 갑자기 꼴과 콩으로 기르기 때문에 성질이 쉽게 병이 나는 것이 형세상 그러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공마의 치폐는 모두 신이 제조가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번 에 좌상의 책임은 이르자면 제가 대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존겸⁴⁷⁾이 아뢰기를, “신의 구구한 사사로운 의리는 비록 걱정할 것이 못되지만, 만약에 소관(小官)을 심문한다면 마땅히 먼저 신의 몸이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정창순, 대사간 조영진이 아뢰기를, “이번 옥사에서 이상로(李商輅)와 이선헤(李善海)의 서찰 가운데 흉패(凶悖)한 말은 실로 예전에는 없던 역절(逆節)이고, 홍지해(洪趾海)와 홍찬해(洪纘海)가 한통 속이라는 것을 저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벌을 아주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홍계능(洪啓能)의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죄는 이미 대사간 및 여러 대신(臺臣)의 계(啓)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거칠고 패려(悖戾)한 습성과 음흉하게 다른 사람을 농락한 실상은 그에게는 오히려 하찮은 일에 속합니다. 몰래 역모의 씨를 심어 흉론(凶論)을 은밀히 전하고, 홍상간(洪相簡)과 민항렬(閔恒烈)을 중용하여 그의 우익(羽翼)으로 삼고, 정후겸(鄭厚謙)과 정인중(鄭麟重)과 결탁하여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국동(國洞)에서 명령을 잡아 쥐는 날을 기다렸다가 의정부(擬占)하였고, 이담(李潭)이 전형(銓衡)을 맡았을 때에는 조정의 권력을 틀어쥐어 좌지우지하였으니, 저지른 온갖 죄악은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놀랍고도 뼈에 사무치는 것은 예주(醴酒)의 이야기를 유입(流入)하여 방자하게 위협하고 버티었고, 대북(大北)의 의론을 지시하여 가르쳐 주어 온갖 계략으로 시험한 것이니, 심지어는 추숭(追崇)의 설를 창도하여 동류들을 위협하였으니, 흉악한 속셈은 군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하고, 대리청정을 저지한 역적이 모두 그 부곡(部曲)이니, 근본을 어지럽힌 흉악한 계획은 조태구(趙泰耆)와 유봉휘(柳鳳輝)보다 훨씬 심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취와 화란(禍亂)을 즐기는 마음은 순(舜) 임금을 일으키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법으로 볼 때 마땅히 주벌해야 합니다. 하물며 오늘의 역적은 정후겸(鄭厚謙)과

47) 정존겸(1722~1794): 본관 동래(東萊). 자 대수(大受). 호 양암(陽菴)·양재(陽齋)·원촌(源村). 시호 문안(文安). 1751년(영조 27) 문과 급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역임.

이인좌(李麟佐)보다 심한 자가 없는데, 정후겸과 이인좌의 근본 원인의 처음과 끝은 곧 이 홍계능(洪啓能)입니다. 그런즉 홍계능의 악독한 역모를 이미 나라 백성들이 공분(共憤)하는 바입니다. 처분을 내렸는데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위리안치 죄인으로써 감히 친속(親屬)을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평소에 임금을 무시하고 발호(跋扈)한 죄는 곧 이 한 가지 일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발호의 무리는 절대로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는 것으로 그쳐서 의외의 사변이 생겨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정창순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간 조영진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⁴⁸⁾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⁴⁹⁾은 본래 흉악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품고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과 결탁하여 심복이 되었으니, 자기가 장수의 소임을 띠게 되자 밤낮으로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을 들고나며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받았습시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감히 역적을 비호하는 꾀를 부리려고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가 평소에 윤태연의 중용(懲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홍인한을 몰래 비호한 것은 곧 위곡(委曲)하게 윤태연의 처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후겸과 홍인한을 법대로 처단한 뒤를 당하여 그 음모와 철저히

48) 이하 조영진의 계는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6월 2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49) 윤태연(1709~1777): 동부승지, 우포도대장, 어영대장 역임.

준비한 실상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대관(輪對官)과 수령과 변장은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중추부도사 이양(李養), 〈중략〉 제주관관 경내운(慶來運)이 〈중략〉 함께 들어와 나와 엎드렸다. 〈하략〉.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二日 乙亥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洪明浩·鄭淵淳, 獻納沈豐之, 正言俞岳柱啓曰, 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 凶言悖說, 實是亘古所無逆節, 而趾海·纘海之爛熳同渠, 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鞫嚴問, 快施當律. …… 又啓曰, 啓能之覆載難容之罪, 已發於諫長及諸臺之啓, 而其麤狂悖戾之習, 陰譎闔捩之狀, 在渠猶屬薄物細故, 陰樹逆種, 密傳凶論, 慫恿恒·簡而爲渠羽翼, 糾結厚·獐而自作窩主, 待國洞執命之日, 擬占台府, 當李潭秉銓之時, 把弄朝權, 千罪萬惡, 指不勝屈, 而若其最驚心而尤痛骨者, 流入醴酒之說, 肆然脅持, 指授大北之論, 百計嘗試, 甚至於倡爲追崇之說, 恐動僣流, 則凶肚逆腸, 有浮於師興沮遏代理之逆, 皆其部曲則亂本凶圖, 殆甚於考·輝綢繆之跡樂禍之心, 不待起舞<舜>而彰露無餘, 有一於此, 在法當誅, 況今日之逆, 莫據於厚·獐, 而厚·獐之根柢源委, 卽是啓能, 則啓能之惡逆, 已是國人之所共憤, 而處分之下, 如有一毫顧忌之心, 則以荐棘之罪人, 而乃敢率入親屬乎? 平日無君跋扈之罪, 卽此一事而亦可見矣, 此等凶悖之類, 決不可島棘而止, 以生意外之變, 請大靜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2일(을해)

- 죄인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홍계능(洪啓能)의 죄를 청하는 정언 유악주(俞岳柱)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홍명호(洪明浩)·정연순(鄭淵淳),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유악주(俞岳柱)가 아뢰기를, “이번 옥사에서 이상로(李商輅)와 이선헤(李善海)의 서찰 가운데 흉패(凶悖)한 말은 실로 예전에는 없던 역절(逆節)이고, 홍지해(洪趾海)와 홍찬해(洪纘海)가 난만(爛熳)하게 그와 한통속이라는 것을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벌을 아주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홍계능(洪啓能)의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죄는 이미 대사간 및 여러 대신(臺臣)의 계

(啓)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거칠고 패려(悖戾)한 습성과 음흉하게 다른 사람을 농락한 실상은 그에게는 오히려 하찮은 일에 속합니다. 몰래 역모의 씨를 심어 흉론(凶論)을 은밀히 전하고, 민항렬(閔恒烈)과 홍상간(洪相簡)을 종용하여 그의 우익(羽翼)으로 삼고, 정후겸(鄭厚謙)과 정인중(鄭麟重)과 결탁하여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국동(國洞)에서 명령을 잡아쥐는 날을 기다렸다가 의정부(議政府)를 의망(擬占)하였고, 이담(李潭)이 전형(銓衡)을 맡았을 때에는 조정의 권력을 틀어쥐어 좌지우지하였으니, 저지른 온갖 죄악은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놀랍고도 뼈에 사무치는 것은 예주(醴酒)의 이야기를 유입(流入)하여 방자하게 위협하고 버티었고, 대북(大北)의 의론을 지시하여 가르쳐 주어 온갖 계략으로 시험한 것이니, 심지어는 추숭(追崇)의 설를 창도하여 동료들을 위협하였으니, 흉악한 속셈은 군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하고, 대리청정을 저지른 역적이 모두 그 부곡(部曲)이니, 근본을 어지럽힌 흉악한 계책은 조태구(趙泰騫)와 유봉휘(柳鳳輝)보다 훨씬 심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취와 화란(禍亂)을 즐기는 마음은 순(舜) 임금의 일으키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법으로 볼 때 마땅히 주벌해야 합니다. 하물며 오늘의 역적은 정후겸(鄭厚謙)과 이인좌(李麟佐)보다 심한 자가 없는데, 정후겸과 이인좌의 근본 원인의 처음과 끝은 곧 이 홍계능(洪啓能)입니다. 그런즉 홍계능의 악독한 역모를 이미 나라 백성들이 공분(共憤)하는 바입니다. 처분을 내렸는데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위리안치(圍籬安置) 죄인으로써 감히 친속(親屬)을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평소에 임금을 무시하고 발호(跋扈)한 죄는 곧 이 한 가지 일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발호의 무리는 절대로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는 것으로 그쳐서 의외의 사변이 생겨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二日 乙亥

- 持平鄭淵淳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2일(을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정연순(鄭淵淳)의 계

- 지평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二日 乙亥

- 司諫安聖彬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本以凶猾之性, 素蓄跋扈之志, 交結厚賊獐漢, 作爲腹心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獐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 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 稔受泰淵之愆慝, 故陰護獐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獐漢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2일(을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과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사간 안성빈(安聖彬)의 계

- 사간 안성빈(安聖彬)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⁵⁰⁾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악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품고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과 결탁하여 심복이 되었으니, 자기가 장수의 소임을 띠게 되자 밤낮으로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을 들고나며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받았습시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감히 역적을 비호하는 꾀를 부리려고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가 평소에 윤태연의 종용(慫恿)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홍인한을 몰래 비호한 것은 곧 위곡(委曲)하게 윤태연의 처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후겸과 홍인한을 법대로 처단한 뒤를 당하여 그 음모와 철저히 준비한 실상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지 않

50) 이하 조영진의 계는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6월 2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三日 丙子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洪明浩·鄭淵淳, 獻納沈豐之, 正言兪岳柱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鞫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 持平洪明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措辭見上】 正言兪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3일(병자)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홍명호(洪明浩)·정연순(鄭淵淳),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지평 홍명호(洪明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정상(情狀)을 알아내고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四日 丁丑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洪明浩, 鄭淵淳, 獻納沈豐之, 正言兪岳柱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鞠嚴問, 快施當律. …… 又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4일(정축)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홍명호(洪明浩), 정연순(鄭淵淳),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四日 丁丑

○ 持平洪明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4일(정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홍명호(洪明浩)의 계

○ 지평 홍명호(洪明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四日 丁丑

- 獻納沈豐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決正王法. ……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4일(정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헌납 심풍지(沈豐之)의 계
- 헌납 심풍지(沈豐之)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정상(情狀)을 알아내고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五日 戊寅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應教李在學, 副應教李敬養, 持平洪明浩·鄭淵淳, 校理南鶴聞, 副校理沈有鎭·鄭志儉, 正言兪岳柱, 修撰林蓍喆·尹尙東, 副修撰朴祐源·李儒慶啓曰, 請和緩, 爲先削去其號, 依律處斷.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洪明浩·鄭淵淳, 正言兪岳柱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鞫嚴問, 快施當律. …… 又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 答兩司曰, 不允. 【已上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5일(무인)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및 대정현(大靜縣) 죄인 홍계능(洪啓能)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 대사간 조영진, 집의 임관주, 사간 안성빈, 응교 이재학, 부응교 이경양, 지평 홍명호·정연순, 교리 남학문, 부교리 심유진·정지검, 정언 유악주, 수찬 임시철·윤상동, 부수찬 박우원·이유경이 아뢰기를, “청컨대 화완(和緩)을 우선 방호(榜號)에서 삭제하고 형률대로 처단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홍명호(洪明浩)·정연순(鄭淵淳),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五日 戊寅

- 持平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5일(무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정연순(鄭淵淳)의 계

- 지평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五日 戊寅

- 司諫安聖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5일(무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사간 안성빈(安聖彬)의 계

- 사간 안성빈(安聖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정상(情狀)을 알아내고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八日 辛巳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洪明浩·鄭淵淳, 正言兪岳柱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又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 持平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已上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8일(신사)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홍명호(洪明浩)·정연순(鄭淵淳),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지평 정연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다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조사(措辭)는 위에 보임】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八日 辛巳

- 正言兪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已上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8일(신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정언 유악주(兪岳柱)의 계

-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정상(情狀)을 알아내고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조사(措辭)는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九日 壬午

- 李敬養, 以司僕寺提調言啓曰, 濟州出來別乘馬二十匹, 歲貢馬一百匹, 凶咎馬十匹, 駕駘十匹, 合一百四十匹內二匹, 船中故失, 實納馬一百三十八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9일(임오)

□ 제주(濟州)에서 세공(歲貢)한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草記)

- 이경양(李敬養)이 사복시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별승마(別乘馬) 20필, 세공마(歲貢馬) 100필, 흉구마(凶咎馬) 10필, 노태마(駕駘馬) 10필, 합 140필 내에서 2필은 배 안에서 죽어서 실제로 바치는 말 138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별승마, 세공마, 흉구마, 노태마, 별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九日 壬午

- 執義任觀周, 持平洪明浩·鄭淵淳啓曰, 請大靜縣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9일(임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집의 임관주(任觀周) 등의 계

- 집의 임관주(任觀周), 지평 홍명호(洪明浩)·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九日 壬午

- 大司諫趙英鎭, 司諫安聖彬, 正言兪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院,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9일(임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등의 계
-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안성빈(安聖彬),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정상(情狀)을 알아내고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九日 壬午

- 李義翊, 以司僕寺提調言啓曰, 濟州前判官金光鉉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廄立養, 而其中騮馬一匹, 瘦病特甚, 莫重進上, 以病馬苟充封進, 事極駭然. 當該前判官金光鉉,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9일(임오)

- 수척하여 병든 체임진상마를 바친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광현(金光鉉)을 추고경책(推考警責)할 것을 아뢰는 사복시의 초기(草記)

- 이의익(李義翊)이 사복시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광현(金光鉉)⁵¹⁾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고, 규례대로 내구(內廄)에서 입양(立養)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마(騮馬)⁵²⁾ 1필은 수척하여 병이 든 것이 아주 심합니다. 막중한 진상을 병든 말로 구차하게 채워 봉진(封進)한 것은 일의 체모가 극히 놀랍습니다. 해당 전 제주판관 김광현을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김광현, 체임진상마, 추고경책.

51) 김광현(1722~?): 제주판관으로 1775년(영조 51) 2월 도입하고, 1777년(정조 1) 8월 체임되었다.

52) 유마(騮馬): 갈기는 검고 배는 흰 말.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九日 壬午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洪明浩・鄭淵淳, 正言兪岳柱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鞠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又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9일(임오)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홍명호(洪明浩)・정연순(鄭淵淳),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九日 壬午

- 丁酉七月十九日戌時, 上御尊賢閣. 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記事官柳孟養·林錫喆·金勉柱, 以次進伏訖. 上曰, 濟州貢馬初運, 已入來云. 依昨年例, 明將頒馬矣. 國榮曰, 昨年頒賜處, 皆爲頒賜乎? 上曰, 然矣. 命讀備局北關御史書啓回啓. 國榮曰, 聞御史之言, 則其軍官柳匡國, 今番多有效勞云. 而獨漏於賞典, 似有向隅之歎矣. 上曰, 既有效勞, 則御史何不陳達乎? 國榮曰, 以渠之親裨, 故, 嫌未仰達云. 蓋此人, 前者柳爛之濟州奉命時隨去, 多有效勞. 今番北關, 其所效勞, 最爲夥然云. 如此之人, 不可無勸獎之道矣. 上曰, 當下教矣.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9일(임오)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공마(貢馬)를 작년의 사례대로 나누어 주라는 전교와 제주어사(濟州御史) 유강(柳綱)의 군관으로 갔던 북관어사 군관 유광국(柳匡國)의 상전(賞典)을 청하는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의 계
- 정유년(1777) 7월 19일 술시에 임금이 존현각(尊賢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임석철(林錫喆)·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공마(貢馬) 초운(初運)이 들어왔다고 하니, 작년의 사례대로 내일 말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작년에 나누어 주었던 곳으로 모두 나누어 줍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라고 하였다. 비변사가 올린 북관어사(北關御史)의 서계(書啓)에 대한 회계(回啓)를 읽으라고 명했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어사의 말을 들으니 그의 군관 유광국(柳匡國)⁵³⁾이 이번에 노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홀로 상전(賞典)에서 누락되었으니,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있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노고가 있었다면 어사가 어찌 진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그의 친비(親裨)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어 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 사람은 지난번 유강(柳綱)⁵⁴⁾이 제주에 명을 받들어 갔을 때 따라가서

53) 유광국(1722~1797): 본관 문화(文化). 자 정이(正而). 1750년(영조 26)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용강현령, 동지돈령부사 역임.

54) 유강(1736~?): 본관 전주(全州). 자 사정(士精).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1775년(영조 51) 제주독운어사(督運御史)로 내도하여 구휼하였다.

노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북관에서 그 노고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을 권장하는 방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하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공마, 유광국, 상전, 유강, 군관.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十九日 壬午

- 丁酉七月十九日初更, 上御尊賢閣. 右副承旨入侍時, 右副承旨李秉模, 記事官鄭東浚·記事官林錫喆·金勉柱, 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教曰, 俄聞知申所奏, 御史則以親裨爲嫌, 不得奏對. 而前郡守柳光國, 昨年隨柳炯, 效勞於濟州, 今又效勞於北關. 況其勤幹, 聞甚可尙, 豈癸未如干效勞軍官之比乎? 依例加資. 又命書傳教曰, 當頒貢馬, 明朝將臣·亞將·捕將·禁軍別將·吏兵判·畿伯·奎章閣堂郎·藥房提調及副提調·惠堂·吏曹參議·諸承旨·翰注·宣傳官, 皆令入侍領受.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19일(임오)

- 제주어사(濟州御史) 유강(柳炯)의 군관으로 갔던 북관어사 군관 유광국(柳匡國)을 가자 하라는 전교와 내일 아침에 제주의 공마(貢馬)를 나누어 주겠다는 전교
- 정유년(1777) 7월 19일 초경에 임금이 존현각(尊賢閣)으로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이병모(李秉模), 기사관 정동준(鄭東浚)·기사관 임석철(林錫喆)·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조금 전에 도승지가 아뢴 바를 들으니, 어사가 친비(親裨)를 피혐(避嫌)하여 주대(奏對)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전 군수 유광국(柳光國)은 작년에 유강(柳炯)을 따라서 제주(濟州)에서 수고하였고, 지금 또 북관(北關)에서 수고를 하였다. 더군다나 그의 부지런하고 성실함이 듣기에 심히 가상하니 어찌 재미년에 조금 수고한 군관에 비할 바이겠는가? 규례대로 가자(加資)하라.”라고 하였다.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제주에서 올라온) 공마(貢馬)를 나누어 주어야 하니, 내일 아침에 장신(將臣)·아장(亞將)·포도대장·금군별장·이조판서와 병조판서·경기도관찰사·규장각 당상과 낭청·약방 제조 및 부제조·선혜청 당상·이조참의·여러 승지·한림과 주서·선전관은 모두 입시하여 수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군관, 유광국, 가자, 공마, 수령.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二十二日 乙酉

- 丁酉七月二十二日未時，上御尊賢閣。藥房副提調持湯劑入侍時，副是調洪國榮，記事官柳孟養·徐龍輔·金勉柱，醫官慶絢，以次進伏訖。……上曰，濟州馬三運，俄已入來。頃日未及頒賜之人，將欲賜給，注書出去，入直玉堂及宣傳官李儒敬·金熙，招入。內乘領貢馬待令事，分付。賤臣承命而出，分付。……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22일(을유)

- 제주(濟州)의 공마(貢馬)를 나누어 주려고 하니 입직한 옥당 및 선전관을 불러들이고, 내승(內乘)은 공마를 거느려 대령하도록 하라는 전교
- 정유년(1777) 7월 22일 미시에 임금이 존현각(尊賢閣)으로 나아갔다. 약방 부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입시할 때, 부시조 홍국영(洪國榮),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의관 경현(慶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공마(貢馬) 삼운(三運)이 방금 들어왔다고 한다. 지난번에 미처 나눠주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 주서는 나가서 입직한 옥당 및 선전관 이유경(李儒敬)·김희(金熙)를 불러들이도록 하라. 내승(內乘)에게는 공마를 거느려 대령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분부하였다. <하략>.

△ 주제어: 공마, 대령.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二十九日 壬辰

- 大司憲鄭昌順,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鄭淵淳, 獻納沈豐之, 正言兪岳柱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定配罪人纘海, 更令王府, 設鞫嚴問, 快施當律. …… 又啓曰,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 答曰, 不允. 【已上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29일(임진)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정연순(鄭淵淳),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 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二十九日 壬辰

- 大司憲鄭昌順, 持平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司諫安聖彬, 獻納沈豐之, 正言兪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又啓曰, 請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鞠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已上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29일(임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지평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 안성빈(安聖彬),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七月 三十日 癸巳

- 正言李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虛斷. 旌義縣荐棘罪人尹泰淵,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已上措辭見上】

❖ 정조 1년(1777) 정유년 7월 30일(계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정언 이기(李夔)의 계

- 정언 이기(李夔)⁵⁵⁾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정의현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55) 이기(1730~?): 본관 전주(全州). 자 여해(汝諧). 1762년(영조 38)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五日 戊戌

- 以濟州牧使黃震彦，罪人啓能・泰淵・纘海等棘圍及率人不能檢飭禁斷，惶恐待罪啓本，傳于李亨達曰，勿待罪回諭。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5일(무술)

- 죄인 홍계능(洪啓能) 등의 적소 출입을 단속하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震彦)의 계본(啓本)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震彦)⁵⁶⁾이 죄인 홍계능(洪啓能)・윤태연(尹泰淵)・홍찬해(洪纘海) 등의 가시울타리 및 솔인(率人)을 검칙(檢飭)하여 금단(禁斷)하지 못하였기에 황공하게 대죄(待罪)한다는 계본(啓本)에 대해 이형규(李亨達)⁵⁷⁾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황최언, 대죄.

56) 황최언(1711~?): 본관 창원(昌原). 자 양백(良伯). 1735년(영조 11) 문과 급제. 부수찬, 승지, 의주부윤, 제주목사(1777.1.~1778.12.) 역임.

57) 이형규(1733~1789): 본관 전주(全州). 자 중우(仲羽). 1755년(영조 31) 문과 급제. 대사헌, 대사간, 승지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七日 庚子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鄭淵淳, 獻納沈豐之, 正言李夔·兪岳柱啓曰, 今番獄事, 商格[商輅]·善海之書札中, 凶言悖說, 實是亘古所無之逆節, 而趾海·纘海之爛漫同情, 渠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荐棘罪人纘海, 更令王府設鞫嚴問, 快施當律. …… 啓能之覆載難容之罪, 已發於諫長及諸臺之啓, 而其麤狂悖戾之習, 陰譎闔捩之狀, 在渠猶屬薄物細故, 陰樹逆種, 密傳凶論, 慫慂簡·恒而爲渠羽翼, 糾結厚·麟而自作窩主. 待國洞執命之日, 擬占台府, 當李潭秉銓之時, 把弄朝權. 千罪萬惡, 指不勝屈, 而若其最驚心而尤痛骨者, 流入醴酒之說, 肆然脅持, 指授大北之論, 百計嘗試. 甚至於倡爲追崇之說, 恐勤儉流, 則凶肚逆腸, 有浮於師興. 沮遏代理之逆, 皆其部曲, 則亂本凶圖, 殆甚於耆·輝綢繆之跡, 樂禍之心, 不待起舞<舜>而彰露無餘. 有一於此, 在法當誅, 況今日之逆莫劇於厚·麟, 而厚·麟之根柢源委, 卽是啓能, 則啓能之惡逆, 已是國人之所共憤, 而處分之下, 如有一毫顧忌之心, 則以荐棘罪人而乃敢率入親屬乎? 平日無君跋扈之罪, 卽此一事而亦可見矣. 此等凶悖之類, 決不可島棘而止, 以生意外之變,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7일(경자)

- 죄인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홍계능(洪啓能)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정연순(鄭淵淳),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이기(李夔)·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이번 옥사에서 이상로(李商輅)와 이선해(李善海)의 서찰 가운데 흉패(凶悖)한 말은 실로 예전에는 없던 역절(逆節)이고, 홍지해(洪趾海)와 홍찬해(洪纘海)가 난만(爛漫)하게 그와 한통속이라는 것을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벌을 아주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 <중략> 홍계능(洪啓能)의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죄는 이미 대사간 및 여러 대신(臺臣)의 계(啓)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거칠고 패려(悖戾)한 습성과 음흉하게 다른 사람을 농락한 실상은 그에게는 오히려 하찮은 일에 속합니다. 몰래 역모의 씨를 심어 흉론(凶論)을 은밀히 전하고, 홍상간(洪相簡)과 민항렬(閔恒烈)을 중용하여 그의 우익(羽翼)으로 삼고, 정후겸(鄭厚謙)과 정인중(鄭麟重)과 결탁하여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국동(國洞)에서 명령을 잡아쥐는 날을 기다렸다가 의정부(擬占)를 의망(擬占)하였고, 이담(李潭)이 전형(銓衡)을 맡았을 때에는 조정의 권력을 틀어쥐어 좌지우지하였으니, 저지른 온갖 죄악은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놀랍고도 뼈에 사무치는 것은 예주(醴酒)의 이야기를 유입(流入)하여 방자하게 위협하고 버티었고, 대북(大北)의 의론을 지시하여 가르쳐 주어 온갖 계략으로 시험한 것이니, 심지어는 추숭(追崇)의 설를 창도하여 동류들을 위협하였으니, 흉악한 속셈은 군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하고, 대리청정을 저지른 역적이 모두 그 부곡(部曲)이니, 근본을 어지럽힌 흉악한 계책은 조태구(趙泰耆)와 유봉휘(柳鳳輝)보다 훨씬 심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취와 화란(禍亂)을 즐기는 마음은 순(舜) 임금의 일으키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법으로 볼 때 마땅히 주벌해야 합니다. 하물며 오늘의 역적은 정후겸(鄭厚謙)과 이인좌(李麟佐)보다 심한 자가 없는데, 정후겸과 이인좌의 근본 원인의 처음과 끝은 곧 이 홍계능(洪啓能)입니다. 그런즉 홍계능의 악독한 역모를 이미 나라 백성들이 공분(共憤)하는 바입니다. 처분을 내렸는데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위리안치 죄인으로써 감히 친속(親屬)을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평소에 임금을 무시하고 발호(跋扈)한 죄는 곧 이 한 가지 일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발호의 무리는 절대로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는 것으로 그쳐서 의외의 사변이 생겨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七日 庚子

- 持平鄭淵淳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客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7일(경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정연순(鄭淵淳)의 계

- 지평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七日 庚子

- 正言李夔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旌義縣荐棘罪人泰淵, 本以凶猾之性, 素蓄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心腹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 爲世指目. 以今若淵, 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稔受泰淵之慫慂,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泰淵, 亟令王府設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7일(경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과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정언 이기(李夔)의 계

- 정언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악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품고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과 결탁하여 심복이 되었으니, 자기가 장수의 소임을 띠게 되자 밤낮으로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을 들고나며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감히 역적을 비호하는 죄를 부리려고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가 평소에 윤태연의 종용(慫慂)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홍인한을 몰래 비호한 것은 곧 위곡(委曲)하게 윤태연의 처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후겸과 홍인한을 법대로 처단한 뒤를 당하여 그 음모와 철저히 준비한 실상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

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八日 辛丑

- 李亨達,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定配罪人續海, 依臺啓嚴加荐棘事, 命下矣.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 嚴加荐棘之意, 敢啓. 答曰, 知道.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8일(신축)

□ 죄인 홍찬해(洪續海)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형규(李亨達)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續海)를 대간(臺諫)의 계사(啓辭)에 따라 엄히 천극(荐棘)을 가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규례대로 본부 도사를 보내어 지방관과 함께 엄히 천극을 가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⁵⁸⁾

△ 주제어: 제주목, 홍찬해, 천극.

58)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8일자 기사에 관련 기사가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八日 辛丑

-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 司諫安聖彬, 持平鄭淵淳, 獻納沈豐之, 正言李夔, 正言兪岳柱啓曰, 今番獄事, 商輅·善海之書札中凶言悖說, 實是亘古所無之逆節, 而趾海·纘海之爛漫同情, 渠既自服, 則今此酌處之命, 實爲失刑之大者.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荐棘罪人纘海, 更令王府設鞫嚴問, 快施當律. …… 啓能之覆載難容之罪, 已發於諫長及諸臺之啓, 而其麤狂悖戾之習, 陰譎闔捩之狀, 在渠猶屬薄物細故. 陰樹逆種, 密傳凶論, 慫慂簡·恒而爲渠羽翼, 糾結厚·麟而自作窩主. 待國洞執命之日, 擬占台府, 當李潭秉銓之時, 把弄朝權. 千罪萬惡, 指不勝屈, 而若其最驚心而尤痛骨者, 流入醴酒之說, 肆然脅持, 指授大北之論. 百計嘗試, 甚至於倡爲追崇之說, 恐動僣流, 則凶肚逆腸, 有浮於師興. 沮遏代理之逆, 皆其部曲, 則亂本凶圖, 殆甚於考·輝, 綢繆之跡, 樂禍之心, 不待起舞而彰露無餘. 有一於此, 在法當誅, 況今日之逆, 莫劇於厚·麟, 而厚·麟之根祇源委, 卽是啓能, 則啓能之惡逆, 已是國人之所共憤, 而處分之下, 如有一毫顧忌之心, 則以荐棘罪人而乃敢率入親屬乎? 平日無君跋扈之罪, 卽此一事而亦可見矣. 此等凶悖之類, 決不可島棘而止, 以生意外之變.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8일(신축)

- 죄인 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홍계능(洪啓能)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집의 임관주(任觀周), 사간 안성빈(安聖彬), 지평 정연순(鄭淵淳),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이기(李夔), 정언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이번 옥사에서 이상로(李商輅)와 이선헤(李善海)의 서찰 가운데 흉패(凶悖)한 말은 실로 예전에는 없던 역절(逆節)이고, 홍지해(洪趾海)와 홍찬해(洪纘海)가 난만(爛漫)하게 그와 한통속이라는 것을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실로 형벌을 아주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 〈중략〉 홍계능(洪啓能)의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죄는 이미 대사간 및 여러 대신(臺臣)의 계(啓)에서 드러났습니

다. 그 거칠고 패려(悖戾)한 습성과 음흉하게 다른 사람을 농락한 실상은 그에 게는 오히려 하찮은 일에 속합니다. 몰래 역모의 씨를 심어 흉론(凶論)을 은밀히 전하고, 홍상간(洪相簡)과 민항렬(閔恒烈)을 종용하여 그의 우익(羽翼)으로 삼고, 정후겸(鄭厚謙)과 정인중(鄭麟重)과 결탁하여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국동(國洞)에서 명령을 잡아쥐는 날을 기다렸다가 의정부를 의망(擬占)하였고, 이담(李潭)이 전형(銓衡)을 맡았을 때에는 조정의 권력을 틀어쥐어 좌지우지하였으니, 저지른 온갖 죄악은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놀랍고도 뼈에 사무치는 것은 예주(醴酒)의 이야기를 유입(流入)하여 방자하게 위협하고 버티었고, 대북(大北)의 의론을 지시하여 가르쳐 주어 온갖 계략으로 시험한 것이니, 심지어는 추숭(追崇)의 설를 창도하여 동료들을 위협하였으니, 흉악한 속셈은 군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하고, 대리청정을 저지한 역적이 모두 그 부곡(部曲)이니, 근본을 어지럽힌 흉악한 계책은 조태구(趙泰耆)와 유봉휘(柳鳳輝)보다 훨씬 심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취와 화란(禍亂)을 즐기는 마음은 순(舜) 임금의 일으키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법으로 볼 때 마땅히 주벌해야 합니다. 하물며 오늘의 역적은 정후겸(鄭厚謙)과 이인좌(李麟佐)보다 심한 자가 없는데, 정후겸과 이인좌의 근본 원인의 처음과 끝은 곧 이 홍계능(洪啓能)입니다. 그런즉 홍계능의 악독한 역모를 이미 나라 백성들이 공분(共憤)하는 바입니다. 처분을 내렸는데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위리안치 죄인으로 써 감히 친속(親屬)을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평소에 임금을 무시하고 발호(跋扈)한 죄는 곧 이 한 가지 일에서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발호의 무리는 절대로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는 것으로 그쳐서 의외의 사변이 생겨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八日 辛丑

- 持平鄭淵淳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8일(신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정연순(鄭淵淳)의 계

- 지평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八日 辛丑

- 正言李夔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旌義縣荐棘罪人泰淵, 本以凶猾之性, 素蓄跋扈之志, 交結厚賊・麟漢, 作爲心腹爪牙. 身帶將兵之任, 晝夜出沒於厚賊・麟漢之家, 蹤跡陰祕爲世指目. 以今若淵敢售護逆之計觀之, 其於平日稔受泰淵之慫慂, 故陰護麟漢, 卽曲爲泰淵之地. 當此厚賊・麟漢置法之後, 其陰謀綢繆之狀, 尤不可不究覈, 施以當律. 請旌義縣荐棘罪人泰淵, 亟令王府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8일(신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과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정언 이기(李夔)의 계

- 정언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은 본래 흉악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평소 발호(跋扈)하려는 뜻을 품고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과 결탁하여 심복이 되었으니, 자기가 장수의 소임을 띠게 되자 밤낮으로 정후겸과 홍인한의 집을 들고나며 종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윤약연(尹若淵)이 감히 역적을 비호하는 죄를 부리려고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가 평소에 윤태연의 종용(慫慂)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홍인한을 몰래 비호한 것은 곧 위곡(委曲)하게 윤태연의 처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후겸과 홍인한을 법대로 처단한 뒤를 당하여 그 음모와 철저히 준비한 실상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정의현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

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八日 辛丑

- 丁酉八月初八日巳時, 上御誠正閣. 戶·工房承旨入侍時, 右副承旨徐有防, 同副承旨李敬養, 假注書李宗燮,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上命書傳教曰, 濟州牧定配罪人續海, 依臺啓嚴加荐棘事, 分付. …….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8일(신축)

-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에게 천극(荐棘)을 가하도록 분부하라는 전교
- 정유년(1777) 8월 8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호방·공방 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동부승지 이경양(李敬養), 가주서 이종섭(李宗燮),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대간(臺諫)의 계사(啓辭)에 따라 엄히 천극(荐棘)을 가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⁵⁹⁾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죄인, 홍찬해, 천극.

59)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8일자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九日 壬寅

- 丁酉八月初九日辰時，上御熙政堂。晝講，詣臺臺臣同爲入侍時，知事黃景源，特進官李在簡，參贊官李敬養，侍讀官洪明浩，檢討官尹尙東，宗臣安昌君燾，武臣趙圭鎮，假注書李宗燮，記事官徐龍輔·金勉柱，持平鄭淵淳，獻納沈豐之，以次進伏訖。…… 淵淳·豐之曰，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濟州牧荐棘罪人纘海，更令王府設鞫嚴問，快施當律。【措辭見上】上曰，不允。…… 淵淳·豐之曰，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不允。淵淳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不允。…… 豐之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不允。豐之曰，請旌義縣荐棘罪人泰淵，亟命王府設鞫，嚴問得情，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9일(임인)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죄를 청하는 지평 정연순(鄭淵淳) 등의 계

- 정유년(1777) 8월 9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할 때, 지사 황경원(黃景源), 특진관 이재간(李在簡), 참찬관 이경양(李敬養), 시독관 홍명호(洪明浩), 검토회 윤상동(尹尙東), 종신 안창군 이경(李燾), 무신 조규진(趙圭鎮), 가주서李宗燮,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지평 정연순(鄭淵淳), 헌납 심풍지(沈豐之)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연순·심풍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연순·심풍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정연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풍지가 아뢰기

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심풍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十日 癸卯

- 丁酉八月初十日辰時, 上御宣政殿. 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領事徐命善, 知事蔡濟恭, 特進官李徽之·徐浩修, 參贊官李亨達, 侍讀官洪明浩, 檢討官尹尙東, 大司憲鄭昌順, 大司諫趙英鎮, 假注書李宗燮, 記事官徐龍輔·金勉柱,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行司直具善復, 行工曹判書具允鉉,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吏曹判書李重祐, 刑曹判書張志恒, 行司直尹得養, 行都承旨洪國榮, 開城留守俞彥鎬, 左副承旨鄭民始, 司諫李謙彬, 獻納沈豐之, 正言李夔, 事變假注書張至顯, 以次進伏訖. …… 尙喆曰, 濟州文官姜鳳瑞, 以其國子付職之當次, 今方越海上來, 而以六月槐院殿最不參, 方在下考矣. 若待經二年乃敘之限, 則遠人之狼狽空還, 誠甚矜惻, 而且乙未五月庭試直赴諸人, 其時臺啓方張, 故雖知其不可進參, 而殿最體重, 不得不置之下考矣. 若論其事勢, 則宜有區別之道, 敢此仰達矣. 上曰, 褒貶既有公頗, 如禁推, 奉命等懸註之例, 乙未五月榜中直赴之不參貶座, 何異於禁推乎? 宜有區別之道, 下考則一竝勿論, 可也. 【出舉條】 …… 昌順·英鎮·聖彬·豐之·夔曰, 請楸子島荐棘罪人趾海, 濟州牧荐棘罪人纘海, 更令王府設鞫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上曰, 不允. …… 昌順·英鎮·聖彬·豐之·夔曰, 請大靜縣荐棘罪人啓能,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昌順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英鎮·聖彬·豐之·夔曰, 請旌義縣荐棘罪人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10일(계묘)

- 포폄에 있어 제주(濟州) 직부자(直赴者)에 대한 구별을 청하는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의 계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 죄인 홍찬해(洪纘海)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정유년(1777) 8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조강(朝講)에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사 서명선(徐命善),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이휘지(李徽之)·서호수(徐浩修), 참찬관 이형규(李亨達), 시독관 홍명호(洪明浩), 검토관 윤상동(尹尙東),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대사간 조영진(趙英鎮), 가주서 이종섭(李宗燮),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행 사직 구선복(具善

復), 행 공조판서 구윤옥(具允錡),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祐), 형조판서 장지항(張志恒), 행 사직 윤득양(尹得養),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개성유수 유언호(兪彦鎬),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사간 이겸빈(李謙彬), 헌납 심풍지(沈豐之), 정언 이기(李夔), 사변가주서 장지현(張至顯)이 차례로 나와 었드렸다. <중략> 김상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문관 강봉서(姜鳳瑞)⁶⁰⁾가 성균관에 부직(付職)할 차례를 당하여 지금 바다를 건너왔는데, 6월 승문원의 전최(殿最)⁶¹⁾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고(下考)⁶²⁾에 있습니다. 만약에 2년이 지나서야 서용(敍用)할 기한을 기다린다면, 먼 지방의 사람이 낭패하여 헛되이 돌아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심히 가엾습니다. 또한 을미년 5월 정시(庭試)에 직부(直赴)한 사람들은 그때 대계(臺啓)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아가 참석할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전최의 체모가 중대하므로 하고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의 형세를 논하자면 마땅히 구별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포폄에 공탈(公頃)⁶³⁾인 경우 의금부에 내려 추고(推考)하는 것과 같이 명을 받드는 등 주(註)를 다는 사례가 있지만, 을미년 5월 방(榜)가운데 직부(直赴)인 경우 포폄좌기(褒貶坐起)에 불참시키는 것은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마땅히 구별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고는 일체 거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낸】 <중략> 정창순·조영진·안성빈·심풍지·이기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지해(洪趾海)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홍찬해(洪纘海)를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속히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창순·조영진·안성빈·심풍지·이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홍계능(洪啓能)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창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조영진·안성빈·심풍지·이기가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

60) 강봉서(1746~1823): 본관 진주(晉州).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오수찰방, 사헌부장령 역임. 현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 출생.

61) 전최(殿最): 관원의 성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6월과 12월에 행해졌다.

62) 하고(下考): 근무 고과에서 하등(下等)을 이른다.

63) 공탈(公頃): 공적인 일로 발생한 사고.

(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강봉서, 직부, 포폄, 홍지해, 홍찬해, 홍계능,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十五日 戊申

- 大司諫趙英鎭, 司諫安聖彬, 正言李夔·兪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條辭校[措辭]見上】 請旌義縣荐棘罪人泰淵, 亟命王府設鞫, 嚴問得情, 快正王法. 【條辭校[措辭]見上】 …….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15일(무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등의 계

- 대사간 조영진(趙英鎭), 사간 안성빈(安聖彬), 정언 이기(李夔)·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十八日 辛亥

- 李亨逵, 以義禁府言啓曰, 罪人會遂減死島配, …… 會遂全羅道濟州牧旌義縣減死島配, ……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18일(신해)

□ 죄인 이회수(李會遂)를 정의현(旌義縣)으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형규(李亨逵)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이회수(李會遂)⁶⁴를 사형을 감하여 섬으로 유배시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이회수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 시키겠습니다. <중략> 그리고 전교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어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그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회수, 정의현, 도배.

64) 이회수(1744~?): 본관 전주(全州). 자 유추(有秋). 1762년(영조 38)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十九日 壬子

- (李亨達)又以刑曹言啓曰, 因臺啓罪人履海應坐諸人, 一竝絶島散配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履海應坐人等, 年歲·姓名·存沒·居住, 移文漢城府, 考出帳籍, 亦令該部, 一一查出, 使之修成冊牒報, 而自該部, 爲先查出以來, 母次禧, 今年六十八, 依律文免坐, 妻貞順, 全羅道珍島郡金甲島定配, 卽爲押送, 弟信海, 方囚鞠獄, 待結末舉行, 何如? 傳曰, 履海妻貞順, 以大靜定配所, 母次禧, 旌義縣定配, 昨年既有定式, 雖不倍道, 刻日鑽程, 切勿遲滯事, 嚴飭.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19일(임자)

□ 죄인 홍이해(洪履海)에 연좌된 사람들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草記)

- (이형규(李亨達)가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계(臺啓)로 인한 죄인 홍이해(洪履海)에 연좌된 사람들을 모두 절도(絶島)에 분산하여 유배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죄인 홍이해에게 연좌된 사람들의 나이·성명·생존 여부·거주지를 한성부(漢城府)에 공문을 보내어 장적(帳籍)에서 조사해 내게 하고, 또한 해당 부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해 내어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첩보(牒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에서 우선 조사해 내어 온 것이 그 어미 차희(次禧)는 금년 68세로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연좌를 면제하고, 처 정순(貞順)은 전라도 진도군 금갑도로 정배하여 즉시 압송하고, 동생 홍신해(洪信海)는 지금 감옥에 갇혀 신문 중에 있으니 결말이 나기를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홍이해의 처 정순은 대정현(大靜縣)으로 배소를 정하고, 어미 차희는 정의현(旌義縣)에 정배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미 정식(定式)하였다. 비록 이틀길을 하루로 앞당기지는 않더라도 날짜를 정하여 길을 재촉하고 절대로 지체하지 말도록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이해, 차희, 정순, 유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日 癸丑

- (李亨達)又以義禁府言啓曰, 寧越府使李普溫, 慶州府尹尹弘烈, 絶島定配事, 承傳啓下矣. …… 尹弘烈, 靈巖郡楸子島絶島定配, 而以承傳內辭意, 俱罪目, 依例發遣府書吏,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0일(계축)

□ 경주부윤 윤홍렬(尹弘烈)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형규(李亨逵)가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영월부사 이보온과 경주부윤 윤홍렬(尹弘烈)⁶⁵을 절도(絶島)에 유배 보내도록 승전(承傳)으로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중략> 윤홍렬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절도로 유배 보내되, 승전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를 파견하여 그대로 그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윤홍렬, 추자도, 유배.

65) 윤홍렬(1725~1798): 본관 해평(海平). 자 사의(士毅). 1762년(영조 38) 문과 급제. 수찬, 한성부좌윤, 공조판서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日 癸丑

- (李亨達)又以刑曹言啓曰, 罪人履海妻貞順, 大靜縣定配, 母次禧, 旌義縣定配, 趨程押送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貞順·次禧等, 沿路各邑, 星火押送事, 嚴飭發配之意, 敢啓. 答曰, 知道.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0일(계축)

□ 죄인 홍이해(洪履海)의 처 정순(貞順)과 어미 차희(次禧)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草記)

- 이형규(李亨達)가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홍이해(洪履海)의 처 정순(貞順)을 대정현(大靜縣)에 정배(定配)하고, 어미 차희(次禧)를 정의현(旌義縣)에 정배하되, 길을 재촉하여 압송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죄인 정순과 차희 등을 연로의 각읍에서 성화같이 압송하도록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배소로 떠나보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이해, 정순, 차희, 정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日 癸丑

- 大司憲趙琰, 持平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0일(계축)

□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조준(趙琰) 등의 계

- 대사헌 조준(趙琰)⁶⁶과 지평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처단.

66) 조준(1727~?): 본관 풍양(豐壤). 자 경서(景瑞).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규장각제학, 평안도관찰사, 호조판서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日 癸丑

- 吳載紹·李謙彬·洪周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上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0일(계축)

□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과 추자도(楸子島) 정배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오재소(吳載紹) 등의 계

- 오재소(吳載紹)⁶⁷·이겸빈(李謙彬)⁶⁸·홍주만(洪周萬)⁶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처단.

67) 오재소(1729~1811): 본관 해주(海州). 자 극경(克卿). 호 석천(石泉).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강화유수, 대사헌, 한성부판윤 역임.

68) 이겸빈(1742~?): 본관은 덕수(德水). 자 성익(聖益). 1765년(영조 41) 문과 급제. 홍문관교리, 대사간, 양양부사 역임.

69) 홍주만(1718~?): 본관 남양(南陽). 자 문백(文伯).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사변가주서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一日 甲寅

- 鄭民始, 以義禁府言啓曰, 刑曹草記批旨內, 澤遂弟姪, 亦爲散配事啓下矣. 正法罪人澤遂弟養遂, 全羅道珍島郡絶島定配, 而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以楸子島定配所.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1일(갑인)

- 정법죄인 이택수(李澤遂)의 동생 이양수(李養遂)를 추자도(楸子島)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정민시(鄭民始)⁷⁰⁾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형조의 초기에 대한 비지(批旨)⁷¹⁾ 내에 이택수(李澤遂)⁷²⁾의 동생과 조카를 또한 분산하여 정배(定配)하도록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정법죄인(正法罪人) 이택수의 동생 이양수(李養遂)⁷³⁾를 전라도 진도군 절도(絶島)로 정배하되,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를 파견하여 배소를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추자도(楸子島)로 배소를 정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택수, 이양수, 추자도, 정배.

70) 정민시(鄭民始): 본관 온양(溫陽). 자 회숙(會叔).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예조판서, 호조판서, 이조판서 역임.

71) 비지(批旨): 임금의 비답(批答)하는 말이나 글.

72) 이택수(?~?): 본관 전주(全州). 수찬, 교리, 지평 역임. 1777년(정조 1) 일어난 존현각적변(尊賢閣賊變) 주도자의 하나인 홍찬해(洪贊海)와 동서지간임.

73) 이양수(李養遂): 본관 전주(全州). 자 시하(時夏). 1764년(영조 19)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一日 甲寅

- 李亨逵, 以義禁府言啓曰, 正法罪人澤遂弟養遂, 全羅道靈巖郡楸子島絶島定配, 而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之意, 敢啓. 答曰, 知道.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1일(갑인)

- 정법죄인 이택수(李澤遂)의 동생 이양수(李養遂)를 추자도(楸子島)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형규(李亨逵)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정법죄인(正法罪人) 이택수(李澤遂)의 동생 이양수(李養遂)를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로 정배하되,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를 파견하여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택수, 이양수, 추자도, 정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一日 甲寅

- 丁酉八月二十一日巳時，上御誠正閣。左副承旨入侍時，左副承旨鄭民始，假注書洪仁浩，記事官徐龍輔·金勉柱，以次進伏訖。…… 上曰，推考房承旨入侍。【出榻教】賤臣承命出召入，亨達進伏。上曰，趾海何時當拿來乎？民始曰，黑山島候風狀啓，已爲來到，而楸子島則姑無消息矣。上曰，楸子島在何地乎？亨達曰，在靈巖郡矣。……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1일(갑인)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를 언제 잡아올지 묻는 임금의 하문

- 정유년(1777) 8월 21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할 때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홍인호(洪仁浩),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추고방 승지(推考房承旨)를 입시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榻교(榻敎)를 냄】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 불러들였다. 이형규(李亨達)가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지해(洪趾海)는 언제 잡아와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정민시가 아뢰기를, “흑산도에서는 바람을 기다린다는 장계가 이미 도착했는데, 추자도(楸子島)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자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형규가 아뢰기를, “영안군(靈巖郡)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지해.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二日 乙卯

- (鄭民始)又以刑曹言啓曰, 因臺啓, 罪人弘燮弟侄, 罪人國來應坐諸人, 罪人澤遂諸子, 竝絶島散配事, 命下矣. …… 罪人澤遂子後傳, 靈巖郡楸子島, …… 一體發配之意, 敢啓. 答曰, 知道. 正法之澤遂, 其所勘律, 反下於物故之弘燮, 臺啓可怪, 澤遂弟侄, 亦爲散配.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2일(을묘)

□ 죄인 이택수(李澤遂)의 아들 이후전(李後傳)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草記)

- 정민시(鄭民始)가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계(臺啓)로 인한 죄인 민홍섭(閔弘燮)의 동생·조카와 죄인 안국래(安國來)에 연좌된 사람들과 죄인 이택수(李澤遂)의 아들들을 모두 절도(絶島)에 분산하여 정배(定配)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죄인 이택수의 아들 이후전(李後傳)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중략〉 배소로 떠나보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 법대로 처리한 이택수는 감률(勘律)한 바가 도리어 물고된 민홍섭보다 못하니 대계(臺啓)가 괴이하다. 이택수의 동생과 조카를 또한 분산하여 정배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택수, 이후전, 추자도, 정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三日 丙辰

○ 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3일(병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연순(鄭淵淳)의 계

○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三日 丙辰

- 洪周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旌義縣荐棘罪人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3일(병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홍주만(洪周萬)의 계

-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七日 庚申

○ 趙琯·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7일(경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조준(趙琯) 등의 계

○ 조준(趙琯)과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七日 庚申

- 吳載紹·洪周萬·李思祚·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旌義縣荐棘罪人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7일(경신)

-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 추자도(楸子島) 죄인 죄인 윤홍렬(尹弘烈) 등의 죄를 청하는 오재소(吳載紹) 등의 계
- 오재소(吳載紹)·홍주만(洪周萬)·이사조(李思祚)⁷⁴⁾·김익휴(金翊休⁷⁵⁾)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윤홍렬, 처단.

74) 이사조(1729~?): 본관 전주(全州). 자 자급(子汲). 1756년(영조 32) 문과 급제.

75) 김익휴(1724~1802): 본관 청풍(淸風). 자 형보(衡甫).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행호군, 공조판서, 이조판서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八日 辛酉

- 李亨達, 以刑曹言啓曰, 因臺啓, 徑斃罪人海根應坐諸人絕島散配事, 命下矣. 移文京兆, 考出帳籍, 知委五部, 爲先修成冊以來, 而 …… 兄弼根, 靈巖郡楸子島, …… 竝定配所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竝以北道更定配所.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8일(신유)

□ 죄인 박해근(朴海根)의 형 박필근(朴弼根)을 북도(北道)로 정배(定配)하라는 전교

- 이형규(李亨達)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계(臺啓)로 인하여 경폐죄인(徑斃罪人) 박해근(朴海根)에 연좌된 사람들을 절도(絶島)에 분산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한성부(漢城府)에 공문을 보내어 장적(帳籍)에서 조사해 내고, 5부(部)에 통지하여 우선 성책(成冊)하여 오게 했습니다. <중략> 박해근의 형 박필근(朴弼根)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중략> 배소에 즉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모두를 북도(北道)로 다시 배소를 정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⁷⁶⁾

△ 주제어: 박해근, 박필근, 추자도, 북도, 정배.

76)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27일자에 관련 내용의 기사가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八月 二十九日 壬戌

- 丁酉八月二十九日未時, 上御誠正閣. 藥房副提調持湯劑入侍時, 副提調洪國榮, 假注書李兢淵, 記注官金鳳顯, 記事官徐龍輔, 醫官慶絢, 以次進伏診. …… 上曰, 趾海何尙今不入來乎? 民始曰, 問于禁府, 則發船入去後, 尙無消息云矣. 允鉷曰, 候風然後越海, 故來往甚難矣. 上曰, 濟州之風氣何如云耶? 允鉷曰, 瘴氣甚難堪, 而未嘗有不風不霧之日云矣. …….

❖ 정조 1년(1777) 정유년 8월 29일(임술)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지해(洪趾海)가 잡혀 들어왔는지와 제주(濟州)의 풍기(風氣)를 묻는 임금의 하문
- 정유년(1777) 8월 29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 부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입시할 때, 부제조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이궁연(李宮演),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서용보(徐龍輔), 의관 경현(慶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홍지해(洪趾海)는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의금부에 물어보니, 배를 띄어 들어간 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구윤옥(具允鉷)⁷⁷⁾이 아뢰기를, “바람을 기다린 연후에야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오고가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풍기(風氣)는 어떻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구윤옥이 아뢰기를, “장기(瘴氣)가 심히 건디기 어렵고, 일찍이 바람이 없고 안개가 없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지해, 장기.

77) 구윤옥(1720~1792): 본관 능성(綾城). 자 성집(聖集). 1753년(영조 29) 문과 급제. 내의원부제조, 예조판서, 중추부판사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二日 甲子

- 丁酉九月初二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兼禮曹判書蔡濟恭, 行司直具善復,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司直洪樂性, 判敦寧李重祜, 江華留守李福源, 兵曹判書金鍾秀, 行副司直李漢膺, 吏曹參判徐浩修, 開城留守俞彥鎬, 大司憲趙琰, 左副承旨鄭民始, 假注書洪仁浩,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事變假注書張至顯, 大司諫吳載紹, 司諫李謙彬, 持平洪樂恒·鄭淵淳, 獻納洪周萬, 正言李思祚·金翊休, 校理洪明浩, 慶州府尹金尙集, 茂山府使具世德同爲入侍, 以次進伏訖. …… 琰·樂恒等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載紹·周萬·思祚, 翊休等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又所啓, 請旌義縣荐棘罪人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已命發捕矣. ……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2일(갑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조준(趙琰) 등의 계
- 정유년(1777) 9월 2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겸 예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사직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사직 홍낙성(洪樂性), 판돈녕 이중호(李重祜), 강화유수 이복원(李福源), 병조판서 김종수(金鍾秀),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개성유수 유언호(俞彦鎬), 대사헌 조준(趙琰),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홍인호(洪仁浩),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사변가주서 장지현(張至顯), 대사간 오재소(吳載紹), 사간 이겸빈(李謙彬), 지평 홍낙항(洪樂恒)·정연순(鄭淵淳),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이사조(李思祚)·김익휴(金翊休), 교리 홍명호(洪明浩), 경주부윤 김상집(金尙集), 무산부사 구세덕(具世德)이 함께 입시하여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조준과 홍낙항⁷⁸⁾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78) 홍낙항(?~?): 본관 풍산(豊山). 자 도이(道而).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평산부사 역임.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오재소·홍주만·이사조·김익휴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포교(捕校)를 보내라고 명을 내렸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태연,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三日 乙丑

○ 洪樂恒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3일(을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홍낙항(洪樂恒)의 계

○ 홍낙항(洪樂恒)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三日 乙丑

- 李謙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旌義縣荐棘罪人泰淵, 亟令王府, 設鞫嚴問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3일(을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旌義縣)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죄를 청하는 이겸빈(李謙彬)의 계

-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태연(尹泰淵)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죄인, 김수현,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四日 丙寅

○ 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4일(병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연순(鄭淵淳)의 계

○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四日 丙寅

- 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4일(병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김익휴(金翊休)의 계

-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추자도, 죄인, 김수현, 윤홍렬.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五日 丁卯

○ 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5일(정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연순(鄭淵淳)의 계

○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五日 丁卯

- 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5일(정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이사조(李思祚)의 계

-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六日 戊辰

○ 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6일(무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연순(鄭淵淳)의 계

○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六日 戊辰

- 洪周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6일(무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홍주만(洪周萬)의 계
-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추자도, 죄인, 김수현, 윤홍렬.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七日 己巳

○ 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7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연순(鄭淵淳)의 계

○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七日 己巳

- 丁酉九月初七日未時, 上御誠正閣. 藥房副提調持湯 <劑> 入侍時, 副提調洪國榮, 假注書李兢淵, 記事官徐龍輔·金勉柱, 醫官慶絢,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罪人之發捕已久, 而皆無消息, 可怪矣. 民始曰, 似是候風之故也. …….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7일(기사)

- 제주(濟州) 죄인에 대한 나래(拿來)가 늦어지는 이유를 아뢰는 정민시(鄭民始)의 계
- 정유년(1777) 9월 7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 부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입시할 때, 부제조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이궁연(李宮淵),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의관 경현(慶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죄인에 대해 포교(捕校)를 떠나보낸 것이 오래되었는데 모두 소식이 없으니 괴이하다.”라고 하였다.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바람을 기다리기 때문인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죄인, 포교.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七日 己巳

- 丁酉九月初七日酉時, 上御誠正閣. 都承旨入侍 <時>, 行都承旨洪國榮, 假注書李兢淵,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上曰, 啓能之漂風可怪矣. 國榮曰, 聞申應周之言, 則似當漂泊於楸子島云矣. 上曰, 果無還入濟州之慮耶? 國榮曰, 水路之事, 有難料度, 而若入泊於楸子, 則數日之間, 似當入來云矣. …….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7일(기사)

□ 표류한 대정현(大靜縣) 죄인 홍계능(洪啓能)의 행방에 대한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의 계

- 정유년(1777) 9월 7일 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가주서 이궁연(李兢淵),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계능(洪啓能)이 바람에 표류한 것은 기이하다.”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신응주(申應周)⁷⁹⁾의 말을 들으니, 추자도(楸子島)에 표박(漂泊)한 것 같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제주(濟州)로 도로 들어갈 염려는 없는가?”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수로(水路)의 일은 헤아리기가 어려운 데, 만약 추자도에 들어가 정박했다면 며칠 사일에 들어올 듯 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계능, 표류.

79) 신응주(1747~?): 본관 평산(平山), 자 시경(時敬).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七日 己巳

- 丁酉九月初七日酉時, 上御熙政堂. 左副承旨·御營大將入侍時, 御營大將具善復, 左副承旨鄭民始, 假注書洪仁浩,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 …… 上曰, 聞李塹之船, 到中洋後, 因失去處云, 啓能無還入之慮耶? 基成曰, 似無還入之理, 而似當止泊於楸子島矣. 上曰, 啓能若遇風溺水, 則豈不切痛乎? 民始曰, 渠有窮天地所無之負犯, 豈有溺死完體之理乎? 上曰, 似然矣. 上曰, 申應周入去時, 破船幾死云, 然乎? 基成曰, 應周所乘之船, 遇風破碎, 幾乎不全, 而適值商船之在傍者, 得以免死矣. 上曰, 濟州真是出死入生之路也. 上曰, 啓能若還入濟州, 則何時當拿來乎? 基成曰, 假令還入濟州, 而數日候風, 則自當即來矣. …… 上曰, 啓能雖還入濟州, 而不久似當入來矣. 應周曰, 必無還入之理, 不過回泊於楸子島·珍島之間矣, 上曰, 自捕廳連爲催促, 可也. …….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7일(기사)

- 표류한 대정현(大靜縣) 죄인 홍계능(洪啓能)의 행방에 대한 이기성(李基成) 등의 계
- 정유년(1777) 9월 7일 유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좌부승지와 어영대장이 입시할 때, 어영대장 구선복(具善復),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홍인호(洪仁浩),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이수(李塹)의 배가 중양(中洋)에 이르른 뒤에 간 곳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홍계능(洪啓能)은 도로 들어갔을 염려는 없는가?”라고 하였다. 이기성(李基成)⁸⁰⁾이 아뢰기를, “도로 들어갈 리는 없을 듯하고, 당연히 추자도(楸子島)에 정박했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계능이 만약에 바람을 만나서 물에 빠졌다면 어찌 절통(切痛)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정민시가 아뢰기를, “그는 세상에 없는 죄를 저질렀으니 어찌 역사하여 몸을 온전히 할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듯하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옹주가 들어왔을 때 배가 부서져서 거의 죽게 됐었다고 하던데,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이기성이 아뢰기를, “신옹주가 탄 배는 바람을 만나 부서져서 거의 온전하지 못하고, 마침 옆에 있던 상선을 만나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참으로 죽음에서 나와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로

80) 이기성(1746~?): 본관 광주(廣州). 1767년(영조 43) 무과 급제.

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계능이 만약에 제주로 도로 들어갔다면 언제 잡아와야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기성이 아뢰기를, “가령 제주에 도로 들어가서 며칠 바람을 기다린다면 마땅히 즉시 와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홍계능이 비록 제주에 도로 들어갔다고 해도 오래지 않아 들어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옹주가 아뢰기를, “도로 들어갔을 리는 없고, 추자도나 진도 사이에 돌아 들어가 정박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포도청에서 계속해서 재촉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계능, 표류.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八日 庚午

- 丁酉九月初八日辰時, 上御肅章門. 親鞫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左承旨李亨達, 右承旨李義翊, 左副承旨鄭民始, 右副承旨徐有防, 同副承旨李敬養, 假注書李兢淵·洪仁浩,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侍立. …… 上曰, 宣傳官申應周, 出死入生, 破船幾死, 而無事還來, 殊可幸也. 尙喆曰, 濟州出使, 未有若是之速還者矣. 國榮曰, 出使都事, 次第越海, 往還無事, 實是王靈攸濟矣. …… 上曰, 濟州荐棘諸罪人, 自濟州聞甚嚴束云, 而慶來運爲濟州判官後, 愈益嚴密云, 來運誠不偶然矣, 如此之人, 當自銓曹, 陞除好倅矣. 國榮曰, 臣聞申應周之言, 則來運果嚴防諸逆, 京中往復之札, 比比燒火云矣. 上曰, 泰淵問目, 問郎讀諭, 可也. 泰淵納招云云【詳見事變日記】…….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8일(경오)

□ 제주(濟州)에서 역적들을 잘 단속하고 있는 제주판관(濟州判官) 경내운(慶來運)에 대해 좋은 수령의 자리에 제수하라는 등의 임금의 하교

- 정유년(1777) 9월 8일 진시에 임금이 숙장문(肅章門)으로 나아가서 친국을 위해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좌승지 이형규(李亨達), 우승지 이의익(李義翊),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동부승지 이경양(李敬養), 가주서 이공연(李兢淵)·홍인호(洪仁浩),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선전관 신응주(申應周)가 죽음에서 나와 삶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배가 파선되어 거의 죽다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매우 다행이다.”라고 하였다. 김상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갔다가 이와 같이 빨리 돌아온 자는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사명을 받들고 나간 도사가 차례로 바다를 건너서 무사히 갔다가 돌아왔으니, 실로 왕령(王靈)이 도운 덕분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에 위리안치한 죄인들을 제주에서 매우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경내운(慶來運)이 제주판관(濟州判官)이 된 뒤에는 더더욱 엄밀하다고 하니, 경내운은 참으로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땅히 전조(銓曹)에서 좋은 수령으로 승진시켜 제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신이 신응주의 말을 들으니, 경내운이 과연 역적들을 엄히 방비해서 서울에서 오고 가는 서찰들을 모두 다 불살

랐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태연(尹泰淵)의 문목(問目)을 문사낭청(問事郞廳)이 읽어 유시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윤태연의 공초를 운운하다. 【사변일기(事變日記)에 자세히 보임】 〈하략〉.

△ 주제어: 선전관, 신응주, 경내운, 제주판관, 윤태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九日 辛未

- 任觀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9일(신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임관주(任觀周)의 계

- 임관주(任觀周)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九日 辛未

- 吳載紹·洪周萬·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9일(신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오재소(吳載紹) 등의 계

- 오재소(吳載紹)·홍주만(洪周萬)·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九日 辛未

- 丁酉九月初九日初更三點, 上御誠正閣. 右副承旨入侍時, 右副承旨徐有防, 假注書洪仁浩,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又命書傳教曰, 罪人相吉子曾一與恭燮·獻遂, 同邑爲奴, 曾一移定於濟州, 獻遂移定於北邊, 相烈之與繼興同邑爲奴, 移定於大靜事, 卽爲分付刑曹, 其他罪人應坐之疊配者, 刑判詳閱徒流案草記移定事, 亦爲分付. …….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9일(신미)

- 죄인 홍상철(洪相吉)의 아들 홍증일(洪曾一)의 유배지를 제주(濟州)로, 홍상열(洪相烈)의 유배지를 대정(大靜)으로 이정(移定) 하라는 등의 전교
- 정유년(1777) 9월 9일 초경 삼점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홍인호(洪仁浩),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죄인 홍상철(洪相吉)의 아들 홍증일(洪曾一)을 공섭(恭燮)·헌수(獻遂)와 함께 같은 읍에 노(奴)로 삼았는데, 홍증일을 제주(濟州)로 유배지를 옮겨 정하고 헌수를 북변으로 옮겨 정하며, 홍상열(洪相烈)을 계흥(繼興)과 같은 읍에 노로 삼아서 대정(大靜)으로 옮겨 정하는 일을 즉시 형조에 분부하라. 기타 연좌 죄인으로 배소가 중첩된 자는 형조판서가 도류안(徒流案)의 초기(草記)를 열람하여 유배지를 옮겨 정하도록 또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증일, 홍상열, 유배지.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十日 壬申

- 李敬養,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大變絶島減死安置, 罪人趙岬參酌定配事, 命下矣. 罪人大變全羅道濟州牧大靜縣減死安置, 罪人趙岬濟州牧旌義縣定配,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趙岬則他道定配.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10일(임신)

□ 죄인 홍대섭(洪大燮)과 조우(趙岬)를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으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경양(李敬養)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홍대섭(洪大燮)⁸¹을 절도(絶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고, 죄인 조우(趙岬)를 참작하여 정배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홍대섭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고, 죄인 조우를 제주목 정의현(旌義縣)에 정배하되, 전교의 내용대로 죄목을 갖추어서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파견하여 각각의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조우는 다른 도(道)로 정배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대섭, 대정현, 조우, 정의현, 압송.

81) 홍대섭(1744~?): 본관 남양(南陽). 자 백리(伯理).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十日 壬申

- (李敬養)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趙嶠濟州牧旌義縣定配事草記, 以他道定配事, 批下矣. 罪人趙嶠全羅道靈岩郡楸子島定配,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10일(임신)

□ 죄인 조우(趙嶠)를 추자도(楸子島)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경양(李敬養)이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조우(趙嶠)를 제주목(濟州牧) 정의현에 정배하는 일로 초기(草記)를 올렸는데, 다른 도(道)로 정배하도록 비답을 내렸습니다. 죄인 조우를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로 정배하되, 전교의 내용대로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파견하여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우, 추자도, 정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十日 壬申

- (李敬養)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南興老加刑一次究問後, 如無隱情, 減死絕島安置事, 命下矣. 罪人南興老加刑一次, 箇箇嚴訊, 反覆究問, 而與聞凶謀一節, 終始發明, 別無隱情之更加取覆者, 令本府依傳教舉行之意, 委官既已草記, 罪人興老全羅道濟州牧旌義縣, 減死絕島安置,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10일(임신)

□ 죄인 남흥로(南興老)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으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경양(李敬養)이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남흥로(南興老)를 형문을 한 차례 더하여 철저히 신문한 뒤에 만약에 숨기는 것이 없다면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안치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남흥로를 형문을 한 차례 더하여 하나하나 엄히 신문하고 반복하여 철저히 신문하여 들은 흉모(凶謀)에 관한 것과 시종 발명(發明)이 따로 숨기는 실상을 다시 조사할 것이 없으니, 본부로 하여금 전교한 대로 거행할 뜻을 위관(委官)⁸²⁾이 초기하였습니다. 죄인 남흥로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으로 사형을 감하여 절도에 안치하되, 전교의 내용대로 죄목을 갖추어 본부의 나장을 파견하여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남흥로, 제주목, 정의현, 압송.

82) 위관(委官): 중죄인을 국문할 때 국문을 주관하던 벼슬아치.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十日 壬申

- 李亨達, 以刑曹言啓曰, 罪人相吉子曾一與恭燮・獻遂同邑爲奴, 曾一移定於濟州, 獻遂移定於北邊, 相烈亦與繼興同邑爲奴, 移定於大靜, 其他應坐之疊配者, 詳閱徒流案草記移配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曾一移定於全羅道濟州牧, 罪人相烈移定於大靜縣, 竝令該道道臣卽爲押送事, 發關分付. …… 答曰, 知道. ……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10일(임신)

- 죄인 홍상철(洪相吉)의 아들 홍증일(洪曾一)을 제주목(濟州牧)으로, 홍상열(洪相烈)을 대정현(大靜縣)으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草記)
- 이형규(李亨達)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홍상철(洪相吉)의 아들 홍증일(洪曾一)을 공섭(恭燮)・헌수(獻遂)와 함께 같은 읍에 노(奴)로 삼았는데, 홍증일을 제주(濟州)로 유배지를 옮겨 정하고 헌수를 북변으로 옮겨 정하며, 홍상열(洪相烈)을 또한 계흥(繼興)과 같은 읍에 노로 삼아서 대정(大靜)으로 옮겨 정하고, 기타 연좌해야 할 자는 도류안(徒流案)의 초기(草記)를 열람하여 유배지를 옮겨 정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죄인 홍증일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으로 옮겨 정하고, 죄인 홍상열을 대정현(大靜縣)으로 옮겨 정하면서 아울러 해당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즉시 압송하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어 분부하였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증일, 제주목, 홍상열, 대정현, 압송.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十日 壬申

- 尹得養·任觀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10일(임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윤득양(尹得養) 등의 계

- 윤득양(尹得養)⁸³⁾·임관주(任觀周)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83) 윤득양(1720~?): 본관 해평(海平), 자 계화(季和), 1747년(영조 23) 문과 급제. 황해도관찰사, 대사헌, 공조참판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十日 壬申

- 吳載紹·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設鞫嚴問. …… 答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10일(임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오재소(吳載紹) 등의 계

- 오재소(吳載紹)·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추자도, 죄인, 김수현, 윤홍렬.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十一日 癸酉

- (鄭民始)又以刑曹言啓曰, 義禁府移配草記, 今已允下矣. 取考其他散配諸罪人等配所, 則罪人宅遂[澤遂]子後傳, 弟養遂, 同配於楸子島, 後傳移配於珍島郡, …… 竝令各該道臣卽爲押送事, 發關分付. 罪人相烈, 因傳教以大靜移定配所, 而罪人大燮, 同配大靜, 兩罪人中令義禁府更爲移配,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11일(계유)

□ 죄인 홍상열(洪相烈)과 죄인 홍대섭(洪大燮)의 배소(配所)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草記)

- 정민시(鄭民始)가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올린 이배 초기(移配草記)에 대해 지금 이미 윤허를 내렸습니다. 기타 흠어져서 유배된 죄인들의 배소를 취하여 살펴보니, 죄인 이택수(李澤遂)의 아들 이후전(李後傳)과 동생 이양수(李養遂)가 추자도(楸子島)에 함께 유배되었기에 후전을 진도군으로 이배하고, <중략> 아울러 각 해당 관찰사로 하여금 즉시 배송하도록 관문(關文)을 띄워 분부하였습니다. 죄인 홍상열(洪相烈)은 전교에 따라 대정(大靜)으로 배소를 옮겨 정하였는데, 죄인 홍대섭(洪大燮)이 대정에 함께 유배되었으니 두 죄인 중에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배소를 옮기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후전, 이양수, 홍상열, 홍대섭, 이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十一日 癸酉

- 鄭民始, 以義禁府言啓曰, 鞠廳罪人奇同絶島減死安置, …… 貞喆絶島減死安置, …… 命下矣. …… 罪人貞喆濟州牧減死安置, …… 而以備忘記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11일(계유)

□ 죄인 조정철(趙貞喆) 등을 각 배소(配所)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정민시(鄭民始)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국청 죄인(鞠廳罪人) 기동(奇同)을 절도(絶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고, <중략> 조정철(趙貞喆)⁸⁴을 절도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라고 <중략>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죄인 조정철을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되, <중략> 비망기의 내용대로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파견하여 각기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정철, 제주목, 압송.

84) 조정철(?~?): 본관 양주(楊州). 자 성경(成卿). 호 정헌(靜軒).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저서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十一日 癸酉

- 鄭民始, 以義禁府言啓曰, 因刑曹啓辭, 大靜縣爲奴罪人相烈減死絶島安置, 罪人大變同配, 兩罪人中令本府更爲移配事, 允下矣. 罪人大變移定配所, 旌義縣安置, 而既已發配, 依前罪目, 仍令押送配所之意, 敢啓. 答曰, 知道.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11일(계유)

□ 죄인 홍대섭(洪大燮)을 정의현(旌義縣)으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정민시(鄭民始)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형조의 계사로 인하여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홍상열(洪相烈)을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안치하고, 죄인 홍대섭(洪大燮)을 같은 곳에 유배보냈으니, 두 죄인 중 (하나를) 본부로 하여금 (다른 유배지로) 다시 이배(移配)하도록 윤허를 내렸습니다. 죄인 홍대섭을 배소를 옮겨 정하여 정의현(旌義縣)에 안치하되, 이미 배소로 보냈으니 이전의 죄목대로 하여 그대로 배소로 압송하게 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상열, 대정현, 홍대섭, 정의현, 이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十二日 甲戌

- 徐有防,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弼海減死, 絶島圍籬安置事, 命下矣. 罪人弼海全羅道濟州牧大靜縣, 減死絶島圍籬安置,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圍籬安置,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12일(갑술)

□ 죄인 홍필해(洪弼海)를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 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서유방(徐有防)⁸⁵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홍필해(洪弼海)를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위리안치 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홍필해를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大靜縣)에 사형을 감하여 절도에 위리안치하되, 전교의 내용대로 죄목을 갖추어 본부 도사를 파견하여 지방관과 함께 위리안치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필해, 대정현, 위리안치.

85) 서유방(1741~1798): 본관 달성(達城). 자 원례(元禮). 호 봉헌(奉軒). 시호 효간(孝簡).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병조판서, 경기도관찰사, 강원도관찰사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二十一日 癸未

- 李義翊, 以義禁府言啓曰, 罪人禰妻出置事, 榻前定奪矣. 全羅道濟州牧出置, 而發遣府都事, 押送, 何如? 傳曰, 以近島更定.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21일(계미)

- 죄인 이찬(李禰)의 처를 제주목(濟州牧)에 안치(安置)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의익(李義翊)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이찬(李禰)⁸⁶⁾의 처를 내보내 안치(安置)하도록 어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으로 내보내어 안치하되, 본부 도사를 파견하여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가까운 섬으로 고쳐 정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목, 안치.

86) 이찬(1759~1778): 본관 전주(全州). 은전군(恩全君). 시호 효민(孝愍). 사도세자의 아들.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二十一日 癸未

- 李義翊, 以義禁府言啓曰, 逆禰妻, 濟州牧出置草記, 以近島更定事, 批下矣. 逆禰妻, 黃海道長湍府白翎鎭出置, 而發遣府都事, 押送,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21일(계미)

- 죄인 이찬(李攢)의 처를 백령진(白翎鎭)으로 배소를 고쳐 안치(安置)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의익(李義翊)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제주목(濟州牧)에 내보내어 안치하겠다는 초기(草記)에 대해 가까운 섬으로 고쳐 정하도록 비답을 내렸습니다. 역적 이찬의 처를 황해도 장연부 백령진(白翎鎭)으로 내보내어 안치하되, 본부 도사를 파견하여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백령진, 안치.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二十七日 己丑

- (高裕)又以刑曹言啓曰, 因臺疏罪人泰淵子侄, 絶島散配事, 命下矣. 移文京兆, 考出帳籍, 知委五部, 使之修成冊以來, 而卽接南部成冊, 則罪人泰淵子範中, 查出以來, 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27일(기축)

□ 죄인 윤범중(尹範中)을 대정현(大靜縣)으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草記)

- 고유(高裕)⁸⁷⁾가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죄인 윤태연(尹泰淵)의 아들과 조카를 절도(絶島)에 분산하여 정배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 장적(帳籍)을 조사해 내고, 오부(五部)에 통지하여 성책(成冊)하여 오게 하였는데, 방금 남부(南部)의 성책을 보니 죄인 윤태연의 아들 윤범중(尹範中)을 조사해 내어 왔습니다. (윤범중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으로 배소를 정하여 즉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윤범중, 대정현, 압송.

87) 고유(1722~1779): 본관 개성(開城). 자 순지(順之). 호 추담(秋潭). 1743년(영조 19) 문과 급제. 장령, 승지, 안주목사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二十八日 庚寅

- 高裕, 以義禁府言啓曰, 昌城府定配罪人趙崐, 絶島移配事, 舉條啓下矣. 罪人趙崐, 全羅道濟州牧移配, 而以舉條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自昌城府配所執捉, 仍令押送,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28일(경인)

□ 죄인 조완(趙崐)을 제주목(濟州牧)으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草記)

- 고유(高裕)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창성부(昌城府)에 정배된 죄인 조완(趙崐)을 절도(絶島)에 이배(移配)하도록 조목을 들어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죄인 조완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으로 이배(移配)하되, 거조(舉條)의 내용대로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를 파견하여 창성부의 배소에서 붙잡아서 그대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완, 제주목, 이배, 압송.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二十九日 辛卯

- 司諫鄭宇淳, 持平姜彝正, 正言南鶴聞啓曰, 請薪智島定配罪人敬彬,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又啓曰, 請逆禩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29일(신묘)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정우순(鄭宇淳) 등의 계

- 사간 정우순(鄭宇淳)⁸⁸⁾, 지평 강이정(姜彝正)⁸⁹⁾, 정언 남학문(南鶴聞)⁹⁰⁾이 아뢰기를, “청컨대 신지도에 정배된 죄인 경빈(敬彬)과 웅천현에 정배된 죄인 이성운(李成運)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상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88) 정우순(1720~1789): 본관 동래(東萊). 자 군계(君啓).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89) 강이정(1737~?): 본관 진주(晉州). 자 계심(季心). 1765년(영조 41) 문과 급제.

90) 남학문(1736~?): 본관 의령(宜寧). 자 여성(汝聲).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二十九日 辛卯

- 持平姜彝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29일(신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강이정(姜彝正)의 계

- 지평 강이정(姜彝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九月 二十九日 辛卯

- 司諫鄭宇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又啓曰,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9월 29일(신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사간 정우순(鄭宇淳)의 계

- 사간 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추자도, 죄인, 김수현, 윤홍렬.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一日 癸巳

- 高裕, 以刑曹言啓曰, 因臺疏, 罪人泰淵應坐諸人, 絕島散配事, 命下矣. 移文京兆, 考出帳籍, 知委該部, 使之修成成冊以來, 而罪人泰淵子範□全羅道濟州牧大靜縣, 定配所押送事, 草記蒙允後, 已爲發配, 仍前配所押送, 妻喜全羅道濟州牧, 妾善玉旌義縣, 子婦弼禮靈巖郡楸子島, 竝定配所, 卽爲押送, 孫女丹喜今年二歲, 以年未滿, 依律文免坐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1일(계사)

□ 죄인 윤태연(尹泰淵)에 연좌된 사람들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草記)

- 고유(高裕)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죄인 윤태연(尹泰淵)에 연좌된 사람들을 절도(絶島)에 분산하여 정배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 장적(帳籍)을 조사해 내고, 해당 부(部)에 통지하여 성책(成冊)하여 오게 하였는데, 죄인 윤태연의 아들 윤범중(尹範中)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으로 배소를 정하여 압송하겠다고 올린 초기(草記)에 윤허를 받은 뒤라서 이미 배소로 출발시켰으니 그대로 배소로 압송하고, 처 희(喜)는 전라도 제주목, 첩 선옥(善玉)은 정의현(旌義縣), 며느리 필례(弼禮)는 영암군 추자도(楸子島)로 아울러 배소를 정하여 즉시 압송하겠습니다. 손녀 단희(丹喜)는 금년 2세로 나이가 차지 않으므로 올문에 따라 연좌에서 면하도록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윤태연, 윤범중, 연좌, 배소, 압송.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一日 癸巳

- 大司憲趙時俊, 大司諫洪檢, 司諫鄭宇淳, 持平姜彝正, 正言李思祚·南鶴聞啓曰. 敬彬·成運之與若淵·相簡, 爛漫綢繆之狀, 既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章, 失之太寬. 請薪智島定配罪人敬彬,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又啓曰, 噫, 今番窮凶諸賊, 誠往牒所無之變, 而逆禮以王室近親, 名出凶徒之推戴, 宮城吹角, 舉國鼎沸, 宗社危如一髮, 禍機迫在呼吸. 渠若有一分臣子之心, 固當卽地滅死, 而食求其飽, 衣求其煖, 必欲圖生, 復見天日等說, 若有所恃者然. 究厥心腸, 已極萬萬叵測, 而以殿下至仁至愛之德, 不忍加誅, 至使大臣·禁堂, 往問於渠, 則猶復頑忍不動, 終始拒逆, 至曰我豈可死, 卽此一節, 尤可見其情狀之陰慘矣. 臣等雖不敢以傳會之說仰陳, 而逆禮未死之前, 寧風怪雨, 浹日大作, 折木飛瓦, 山川決裂, 及其物故之後, 天氣開霽, 日星昭朗. 噫, 天心如此, 其爲對國之敵, 於此尤可驗矣. 渠既自盡, 王章未伸, 輿憤尙切, 請逆禮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1일(계사)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⁹¹⁾, 대사간 홍검(洪檢)⁹²⁾, 사간 정우순(鄭宇淳), 지평 강이정(姜彝正), 정언 이사조(李思祚)·남학문(南鶴聞)이 아뢰기를, “경빈(敬彬)과 이성운(李成運)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한통숙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정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초사(招辭)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변명하며 승복하지 않아서 해당되는 형률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입니다. 청컨대 신지도에 정배한 죄인 이경빈과 웅천현에 정배한 죄인 성운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아, 이번에 흉악한 역적들은 참으로 지난 역사에 없던 변고입니다. 그런데 역적 이찬(李攢)은 왕실의 가까운 친족으로 이름이 흉악한 무리들의 추대에 나왔으니, 궁성에서는 취각령(吹角令)을 내리고⁹³⁾ 온 나라가 들끓어 종묘사직이 한 올의 머리카락에

91) 조시준(1730~?): 본관 풍양(豐壤). 자 사장(士章).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92) 홍검(1721~?): 본관 남양(南陽). 자 성오(省吾).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대사헌, 대사성, 한성부 판윤 역임.

매달린 듯 화란의 조짐이 눈 앞에 닥쳤습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로 마땅히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고, 입는 것에 따뜻함을 구하면서 ‘반드시 살기를 도모하고자 하면,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은 마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의 속셈을 따져보면 이미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데도 전하의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아끼는 덕으로 차마 주벌을 가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신과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가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다시 모질게 버티면서 시종일관 거역하고 심지어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한 가지에서 그 정상이 음험하고 참혹함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은 비록 감히 건강부회하는 말로써 아될 수는 없지만, 역적 이찬이 죽기 전에 사나운 바람과 괴상한 비가 열흘 동안 크게 일어나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라가 산천이 갈라지고, 죽은 후에는 날씨가 맑아져서 해와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아, 하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가 나라를 대적할 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더욱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자진하였기에 국법이 아직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노가 아직도 절절합니다. 청컨대 역적 이찬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93) 취각령(吹角令)을 내리고: 변란이나 정변 등 긴급한 사변이 있을 때 각을 불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군사를 대궐 앞에 모이게 한 제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一日 癸巳

- 持平姜彝正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1일(계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강이정(姜彝正)의 계

- 지평 강이정(姜彝正)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一日 癸巳

- 司諫鄭宇淳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性本妖邪, 惟利是趨, 爲弘燮之死友, 腸肚相連, 事無小大, 無不參涉, 人皆目之以姓不同弘烈, 則今番弘燮之陰慘情節, 決無不知之理.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1일(계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과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사간 정우순(鄭宇淳)의 계

- 사간 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은 성질이 본래 요사하고 간사하여 오직 이익만을 좇아 민홍섭(閔弘燮)⁹⁴과 절친한 벗이 되었는데, 한통속이 되어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관여하지 않음이 없어서 사람들 모두가 성(姓)이 다른 홍렬(弘烈)이라고 지목하였으니, 이번 민홍섭의 음험하고 참혹한 정상을 결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윤홍렬, 민홍섭.

94) 민홍섭(1735~1777): 본관 여흥(驪興), 자 대재(大哉). 1764년(영조 40) 문과 급제. 삼척부사 역임. 홍상길(洪相吉)의 공조 중 홍계능의 역모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관직이 삭탈되었고, 이후 사형을 당했다.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三日 乙未

- 大司憲趙時俊, 大司諫洪檢, 司諫鄭宇淳, 持平姜彝正, 正言李思祚·南鶴聞啓曰, …… 請逆禰妻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3일(을미)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대사간 홍검(洪檢), 사간 정우순(鄭宇淳), 지평 강이정(姜彝正), 정언 이사조(李思祚)·남학문(南鶴聞)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三日 乙未

- 持平姜彝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3일(을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강이정(姜彝正)의 계

- 지평 강이정(姜彝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三日 乙未

- 司諫鄭宇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3일(을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사간 정우순(鄭宇淳)의 계

- 사간 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추자도, 죄인, 김수현, 윤홍렬.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四日 丙申

- 丁酉十月初四日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 御史同爲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兼禮曹判書蔡濟恭,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鄭弘淳, 行司直洪樂性, 判敦寧府事李重祜, 漢城判尹鄭尙淳, 行副司直張志恒, 刑曹判書鄭光漢, 兵曹判書金鍾秀, 行副司直李漢膺, 行都承旨洪國榮, 開城留守兪彥鎬, 左副承旨鄭民始, 大司憲趙時俊, 大司諫洪檢, 司諫鄭宇淳, 持平姜彝正, 正言南鶴聞, 副校理鄭志儉, 御史沈念祖, 右承旨李義翊, 記事官鄭東浚, 事變假注書閔孝克, 記事官林錫喆·徐龍輔, 以次進伏訖. …… 時俊·檢·宇淳·彝正·鶴聞啓曰, 請逆瀆妻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上曰, 亟停勿煩. …… 時俊·彝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上曰, 不允. …… 檢·宇淳·鶴聞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檢·宇淳·鶴聞啓曰,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亟命王府, 設鞠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4일(병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와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정유년(1777) 10월 4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는 자리에 어사가 함께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검 예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사직 홍낙성(洪樂性), 판돈녕부사 이중호(李重祜), 한성판윤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형조판서 정광한(鄭光漢), 병조판서 김종수(金鍾秀),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개성유수 유언호(兪彦鎬), 좌부승지 정민시(鄭民始),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대사간 홍검(洪檢), 사간 정우순(鄭宇淳), 지평 강이정(姜彝正), 정언 남학문(南鶴聞), 부교리 정지검(鄭志儉), 어사 심염조(沈念祖), 우승지 이의익(李義翊),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사변가주서 민효극(閔孝克), 기사관 임석철(林錫喆)·서용보(徐龍輔)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조시준·홍검·정우순·강이정·남학문이 아뢰기를,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조시준·강이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검·정우순·남학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검·정우순·남학문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추자도, 죄인, 김수현, 윤홍렬.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十日 壬寅

- 丁酉十月初十日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下直, 邊將同爲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知中樞府事具善復, 判敦寧李重祜, 刑曹判書鄭光漢, 兵曹判書金鍾秀, 行副司直李漢膺, 開城留守俞彥鎬, 吏曹參議鄭民始, 大司諫宋載經, 副校理鄭志儉, 右承旨徐有防, 記事官鄭東浚, 事變假注書閔孝克, 記注官金鳳顯·卜台鎭, 永宗僉使李文懌, 以次進伏訖. …… 載經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亟令王府, 設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10일(임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송재경(宋載經)의 계

- 정유년(1777) 10월 10일 사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하직하고 변장이 함께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판돈녕 이중호(李重祜), 형조판서 정광한(鄭光漢), 병조판서 김종수(金鍾秀),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개성유수 유언호(俞彦鎬), 이조참의 정민시(鄭民始), 대사간 송재경(宋載經), 부교리 정지검(鄭志儉), 우승지 서유방(徐有防),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사변가주서 민효극(閔孝克), 기주관 김봉현(金鳳顯)·북대진(卜台鎭), 영종첨사 이문혁(李文懌)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송재경⁹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윤홍렬, 국청.

95) 송재경(1718~1793): 본관 은진(恩津). 자 자중(子中). 호 기기와(棄棄窩). 1764년(영조 40) 문과 급제. 강화유수, 의주부윤, 충청관찰사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十二日 甲辰

- 丁酉十月十二日巳時，上御熙政堂。下直守令，中軍入侍時，左副承旨徐迥修，記事官鄭東浚，記注官金鳳顯，記事官林錫喆，慶興府使洪良浩，通津府使卞至健，河東府使李義星，平壤中軍柳光國，以次進伏訖。…… 光國進伏。上曰，爾是昨年隨柳爛入濟州之人乎？光國對曰，然矣。上下詢履歷訖。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12일(갑진)

□ 제주어사(濟州御史) 유강(柳綱)을 따라서 제주(濟州)에 갔던 유광국(柳光國)이 평양중군으로 임금에게 하직함

- 정유년(1777) 10월 12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하직 수령과 중군이 입시할 때, 좌부승지 서형수(徐迥修),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임석철(林錫喆), 경흥부사 홍양호(洪良浩), 통진부사 변지건(卞至健), 하동부사 이희성(李義星), 평양중군 유광국(柳光國)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유광국이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작년에 유강(柳綱)을 따라서 제주(濟州)에 들어갔던 사람인가?”라고 하였다. 유광국이 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력을 묻고는 물러가라고 명했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갔다.

△ 주제어: 유광국, 유강, 제주.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十四日 丙午

- 執義洪彦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14일(병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집의 홍언철(洪彦喆)의 계

- 집의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十六日 戊申

- 丁酉十月十六日酉時, 上御誠正閣. 右承旨入侍時, 右承旨徐有防, 記事官鄭東浚,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又命書傳教曰, 待罪下諭, 已多月矣. 近來檢戡, 抑云有效, 勿待罪事, 下諭于濟州牧使黃最彥處, 更令着意察飭.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16일(무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最彦)에게 대죄하지 말라는 전교

- 정유년(1777) 10월 16일 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할 때, 우승지 서유방(徐有防),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대죄(待罪)하라고 하유한 지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 근래 단속하는 것이 또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대죄하지 말도록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最彦)에게 하유하고, 다시 유의하여 자세히 살펴 단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황최언.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十六日 戊申

- 執義洪彦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16일(무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집의 홍언철(洪彦喆)의 계

- 집의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十八日 庚戌

- 持平兪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18일(경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유악주(兪岳柱)의 계

- 지평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月 二十九日 辛酉

- 丁酉十月二十九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具允鉉, 行兵曹判書鄭弘淳, 判敦寧李重祜, 漢城判尹鄭尙淳, 刑曹判書張志恒, 行副司直鄭光漢, 開城留守兪彥鎬, 大司諫柳憲, 執義洪彥喆, 司諫任觀周, 持平金翊休·兪岳柱, 獻納洪周萬, 御史沈豐之, 副校理鄭志儉, 左副承旨徐迥修, 記事官鄭東浚, 事變假注書文燦奎, 記事官林錫喆·金勉柱, 以次進伏訖. ……(憲·彥喆·觀周·翊休·岳柱·周萬·志儉·誼)又所懷, 噫, 今番窮凶諸賊, 誠往牒所無之變, 而逆瀆以王室近親, 名出凶徒之推戴, 宮城吹角, 舉國鼎沸, 宗社危如一髮, 禍機迫在呼吸. 渠若有一分臣子之心, 固當卽地滅死, 而食求其飽, 衣求其煖, 必欲圖生, 復見天日等說, 若有所恃者然. 究厥心腸, 已極萬萬叵測, 而以殿下至仁至愛之德, 不忍加誅, 至使大臣·禁堂往問於渠, 則猶復頑忍不動, 終始拒逆, 至曰我豈可死, 卽此一節, 可見其情狀之陰慘矣. 臣等雖不敢以傳會之說仰陳, 而逆瀆未死之前, 獐風怪雨, 浹日大作, 折木飛瓦, 山川決裂, 及其物故之後, 天氣開霽, 日星昭朗, 噫, 天心如此, 其爲對國之敵, 於此尤可驗矣. 渠旣自盡, 王章未伸, 輿憤尙切. 臣等謂逆瀆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宜矣.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29일(신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유당(柳憲) 등의 계

- 정유년(1777) 10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鉉), 행 병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판돈녕 이중호(李重祜), 한성판윤 정상순(鄭尙淳), 형조판서 장지항(張志恒), 행 부사직 정광한(鄭光漢), 개성유수 유언호(兪彦鎬), 대사간 유당(柳憲), 집의 홍언철(洪彦喆), 사간 임관주(任觀周), 지평 김익휴(金翊休)·유악주(兪岳柱), 헌납 홍주만(洪周萬), 어사 심풍지(沈豐之), 부교리 정지검(鄭志儉), 좌부승지 서형수(徐迥修),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사변가주서 문찬규(文燦奎), 기사관 임석철(林錫喆)·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유당⁹⁶⁾·홍언철·임관주·김익휴·유악주·홍주

만·정지검·유의(柳誼)⁹⁷⁾가 또 아뢰기를, “아, 이번에 흉악한 역적들은 참으로 지난 역사에 없던 변고입니다. 그런데 역적 이찬(李攢)은 왕실의 가까운 친족으로 이름이 흉악한 무리들의 추대에 나왔으니, 궁성에서는 취각령(吹角令)을 내리고 온 나라가 들끓어 종묘사직이 한 울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듯 화란의 조짐이 눈 앞에 닥쳤었습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로 마땅히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고, 입는 것에 따뜻함을 구하면서 ‘반드시 살기를 도모하고자 하면,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은 마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의 속셈을 따져보면 이미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데도 전하의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아끼는 덕으로 차마 주벌을 가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신과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가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다시 모질게 버티면서 시종일관 거역하고 심지어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한 가지에서 그 정상이 음험하고 참혹함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은 비록 감히 견강부회하는 말로써 아뢰 수는 없지만, 역적 이찬이 죽기 전에 사나운 바람과 괴상한 비가 열흘 동안 크게 일어나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라가 산천이 갈라지고, 죽은 후에는 날씨가 맑아져서 해와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아, 하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가 나라를 대적할 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더욱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자진하였기에 국법이 아직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노가 아직도 절절합니다. 신들은 역적 이찬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96) 유당(1723~1794): 본관 전주(全州). 자 직보(直甫). 시호 효간(孝簡). 1753년(영조 29) 문과 급제. 성균관대사성,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역임.

97) 유의(1734~?): 본관 전주(全州). 자 의지(誼之).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승지, 홍주목사, 대사헌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三日 乙丑

- 持平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3일(을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유악주(兪岳柱)의 계

- 지평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四日 丙寅

- 持平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4일(병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지평 김익휴(金翊休)의 계

- 지평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七日 己巳

- 大司憲趙時俊, 執義洪彦喆, 持平兪岳柱, 獻納洪周萬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7일(기사)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집의 홍언철(洪彦喆), 지평 유악주(兪岳柱),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七日 己巳

- 執義洪彦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7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집의 홍언철(洪彦喆)의 계

- 집의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七日 己巳

- 獻納洪周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7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헌납 홍주만(洪周萬)의 계

-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八日 庚午

- 大司憲趙時俊, 執義洪彦喆, 持平兪岳柱, 獻納洪周萬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8일(경오)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집의 홍언철(洪彦喆), 지평 유악주(兪岳柱),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八日 庚午

- 持平兪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8일(경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헌납 홍주만(洪周萬)의 계

- 지평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八日 庚午

- 獻納洪周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8일(경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헌납 홍주만(洪周萬)의 계

-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九日 辛未

- 執義洪彦喆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罪人南興老, 以逆述之狎客, 隨在謫所, 究其情狀, 已極萬萬叵測, 而又於逆範輩, 聚會信德家之時, 渠亦同席, 則陰慘情跡, 宜無不知之理, 而終始抵賴, 忍杖不服, 誠極痛惋, 遽有酌處之命, 輿情益切駭憤.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9일(신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 조우(趙嶠),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집의 홍언철(洪彦喆)의 계

- 집의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건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十日 壬申

- 丁酉十一月初十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兼禮曹判書蔡濟恭,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具允鉦, 行兵曹判書鄭弘淳, 行工曹判書洪樂性, 判敦寧李重祜, 判尹鄭尙淳, 刑曹判書張志恒, 行副司直鄭光漢, 行副司直李漢膺, 左承旨李亨達, 校理李謙彬, 持平俞岳柱, 假注書李信祜, 事變假注書李景溟,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狀. …… (岳柱)請楸子島定配罪人趙偶,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10일(임신)

□ 죄인 조우(趙嶠)와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유악주(兪岳柱)의 계

- 정유년(1777) 11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겸 예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鉦), 행 병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공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판돈녕 이중호(李重祜), 판윤 정상순(鄭尙淳), 형조판서 장지항(張志恒), 행 부사직 정광한(鄭光漢),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좌승지 이형규(李亨達), 교리 이겸빈(李謙彬), 지평 유악주(兪岳柱), 가주서 이신호(李信祜), 사변가주서 이경명(李景溟),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유악주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十四日 丙子

- 丁酉十一月十四日初更四點, 上御誠正閣. 右承旨入侍時, 右承旨鄭民始, 記事官柳孟養·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以濟州牧使狀啓, 命書傳教曰, 薦新貢果, 既不充數闕貢, 不是異事, 勿待罪事, 回諭. 命退去, 諸臣以次出.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14일(병자)

- 공과(貢果)의 궐공(闕貢)에 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정유년(1777) 11월 14일 초경 4점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할 때, 우승지 정민시(鄭民始),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천신(薦新)하는 공과(貢果)가 수량을 채우지 못하고 궐공(闕貢)⁹⁸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대죄(待罪)하지 말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물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나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장계, 천신, 공과, 궐공.

98) 궐공(闕貢): 왕실이나 각급 관아에 정해진 기일 안에 내야 하는 공물을 내지 못하는 것.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二十二日 甲申

- 申應顯啓曰, 卽伏見濟州牧使黃最彥罪人放未放啓本, 旣無徒年, 則以無乎狀聞可也, 而以島配罪人開錄者, 事甚未安,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22일(갑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最彦)을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 하라는 신응현(申應顯)의 계

- 신응현(申應顯)⁹⁹⁾이 아뢰기를, “제주목사 황최언(黃最彦)이 올린 죄인의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¹⁰⁰⁾을 방금 보니, 이미 도년(徒年)¹⁰¹⁾이 없으니 장계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배죄인(島配罪人)을 개록(開錄)¹⁰²⁾한 것은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황최언, 방미방계본, 경책.

99) 신응현(1722~1797): 본관 평산(平山). 자 동보(同甫). 호 우헌(愚軒). 1752년(영조 28) 문과 급제. 예조참의, 공조판서, 대사헌 역임.

100)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 사면령이 내린 뒤 각 도의 감사(監司)가 그 도의 배소(配所)에 있는 죄인들을 풀어 줄 부류[放秩], 그대로 징배해 둘 부류[仍秩], 풀어 주지 않을 부류[未放秩], 여쭙어 결정할 부류[稟秩], 아직 그 도의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부류[未至配所秩]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계본으로, 이를 토대로 사면이 시행됨.

101) 도년(徒年): 도형(徒刑)을 뜻한다. 도형은 비교적 중한 죄를 지은 자를 관가에 구속하여 두고 노역(勞役)에 종사시키는 형벌이며, 형기는 1년부터 3년까지 반년 차로 5등이 있다. 형기의 단위인 연(年) 자를 붙여 쓴 것임.

102) 개록(開錄): 장계(狀啓) 등 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보고 사항이나 의견 등을 열거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함.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二十四日 丙戌

- 丁酉十一月二十四日巳時, 上御熙政堂. 三覆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左承旨李亨達, 右承旨鄭民始, 左副承旨徐迥修, 右副承旨李秉模, 同副承旨申應顯, 記事官鄭東浚, 事變假注書朴長高, 記事官徐龍輔·金勉柱,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兼禮曹判書李景祐, 兼刑曹判書蔡濟恭, 行兵曹判書鄭弘淳, 行戶曹判書具允鉦, 行工曹判書洪樂性, 左參贊黃景源, 吏曹判書金鍾秀, 判尹鄭尙淳, 同知中樞府事吳載純, 同敦寧李瀆, 刑曹參判徐有慶, 安昌君燦, 刑曹參議趙英鎭, 修撰李儒慶, 執義李重馥, 司諫李亨元, 持平洪樂恒, 獻納朴在源, 以次進伏訖. …… (執義李重馥, 司諫李亨元, 持平洪樂恒·朴聖泰, 獻納朴在源, 修撰李儒慶)又所啓,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 重馥·樂恒·聖泰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重馥·樂恒·聖泰)又所啓,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亨元·在源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亨元·在源)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設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24일(병술)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집의 이중복(李重馥) 등의 계
- 정유년(1777) 11월 24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삼복(三覆)에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좌승지 이형규(李亨達), 우승지 정민시(鄭民始), 좌부승지 서형수(徐迥修), 우부승지 이병모(李秉模), 동부승지 신응현(申應顯),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사변가주서 박장설(朴長高),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겸 예조판서 이경호(李景祐), 겸 형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병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鉦), 행 공조판서 홍낙성(洪樂性), 좌참찬 황경원(黃景源), 이조판서 김종수(金鍾秀), 판윤 정상순(鄭尙淳), 동지중추부사 오재순(吳載純), 동돈녕 이양(李瀆), 형조참판 서유경(徐有慶), 안창군 이경(李燦), 형조참의 조영진(趙英鎭), 수찬 이유경(李儒)

慶), 집의 이중복(李重馥), 사간 이형원(李亨元), 지평 홍낙항(洪樂恒), 헌납 박재원(朴在源)이 차례로 나와 었드렸다. <중략> 집의 이중복¹⁰³), 사간 이형원¹⁰⁴), 지평 홍낙항·박성태(朴聖泰)¹⁰⁵), 헌납 박재원¹⁰⁶), 수찬 이유경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이중복·홍낙항·박성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형원·박재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김수현, 남흥로, 윤홍렬.

103) 이중복(1719~?): 본관 전주(全州).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여주목사 역임.

104) 이형원(1739~1798): 본관 전주(全州). 자 선경(善卿). 호 남계(南溪).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의주부윤,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경상도관찰사 역임.

105) 박성태(1737~?): 본관 죽산(竹山). 자 성양(聖昂). 호 장파(長坡).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정언, 지평 역임.

106) 박재원(1723~1780): 본관 나주(羅州). 자 이천(而川). 시호 충헌(忠獻).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홍문관수찬, 사헌부지평, 사간원헌납 역임.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二十七日 己丑

- 丁酉十一月二十七日辰時, 上御熙政堂. 朝講入侍時, 領事徐命善, 同知事吳載純, 特進官洪樂性·黃景源, 參贊官任希簡, 侍讀官朴祐源, 檢討官南鶴聞, 持平宋銓, 記事官鄭東浚,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銓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銓)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又所啓,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27일(기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岬),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송전(宋銓)의 계

- 정유년(1777) 11월 27일 진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조강(朝講)에 입시할 때, 영사 서명선(徐命善), 동지사 오재순(吳載純), 특진관 홍낙성(洪樂性)·황경원(黃景源), 참찬관 임희간(任希簡), 시독관 박우원(朴祐源), 검토관 남학문(南鶴聞), 지평 송전(宋銓),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송전¹⁰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岬)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107) 송전(1741~1814): 본관 은진(恩津).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덕천군수, 대사간, 우참찬 역임.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一月 二十九日 辛卯

- 丁酉十一月二十九日巳時, 上御熙政堂. 晝講, 大臣·備局堂上, 同爲入侍時, 知事蔡濟恭, 特進官鄭弘淳, 參贊官李鎮衡, 侍讀官朴祐源, 檢討官南鶴聞, 記事官鄭東浚, 記事官徐龍輔·金勉柱, 宗臣西清君煜, 武臣副護軍李策,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具允鉉, 判尹鄭尙淳, 行副司直張志恒, 行副司直鄭光漢, 行副司直李漢膺, 行都承旨洪國榮, 大司諫柳憲, 持平宋銓, 同副承旨申應顯, 事變假注書朴長高, 以次進伏訖. …… 尙喆曰, 此濟州牧使黃最彥災實分等狀啓也. 以爲今年本島穡事, 均被風雨之災, 而其中木麥·大小豆, 受災滋甚, 故尤甚里, 則某樣所捧中, 參酌蠲減, 新舊還之一時竝舉, 其勢誠難, 舊還今姑停退, 各寺奴婢身貢米, 每口二斗內, 依近例減一斗, 男丁大同米五升內, 減一升收捧, 山屯馬驅點, 今年當次, 故依例舉行, 而軍兵操鍊, 則驅馬之年, 既有停操之事, 依例停止, 逃·老·故·雜頗之類, 隨闕充定, 待明春哨司鍊而舉行等事, 固當稟旨, 而一事往復, 動費累朔, 每致不及, 故依前例姑先舉行, 竝此馳啓, 請令廟堂稟處矣. 本州民事之先舉行後狀聞, 自是應行之例, 今此守臣所論請諸條, 竝依狀聞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 (大司諫柳憲, 持平宋銓, 校理朴祐源, 修撰南鶴聞)又所啓, 請逆禰妻, 依金吾初定, 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上曰, 不允. …… 憲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憲)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鞠嚴問. 上曰, 不允. …… (銓)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又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又所啓,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1월 29일(신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最彦)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에 대한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의 계와 역적 이찬(李禰)의 처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유당(柳憲) 등의 계
- 정유년(1777) 11월 29일 사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대신과 비국당상이 함께 입시할 때,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정홍순

(鄭弘淳), 참찬관 이진형(李鎭衡), 시독관 박우원(朴祐源), 검토포 남학문(南鶴聞),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종신 서정균(李惺), 무신 부호군 이송(李策),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錡), 판윤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행 부사직 정광한(鄭光漢),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대사간 유당(柳慙), 지평 송전(宋銓), 동부승지 신응현(申應顯), 사변가주서 박장설(朴長嵩)이 차례로 나와 엮드렸다. <중략> 김상철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最彦)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입니다. ‘금년 본도(本島)의 농사가 고루 풍우의 재해를 입었는데, 그 가운데 메밀과 콩·팥의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때문에 우심리(尤甚里)는 어떤 명목으로 거두는 것 중에서 참작하여 견감하고, 새 환곡과 묵은 환곡을 동시에 모두 거두는 것은 형세상 실로 곤란하니 묵은 환곡을 일단 정퇴(停退)하며, 각 시(寺) 노비의 신공미(身貢米)는 매 구(口) 2말 안에 근래 사례대로 1말을 감하고, 남정의 대동미(大同米)는 5되 안에 1되를 감하여 거두며, 산둔마(山屯馬)의 구점(驅點)은 금년이 해당하는 차례이기 때문에 규례대로 거행하되, 군병의 조련(操鍊)은 구마(驅馬)하는 해에는 조련을 중지하는 일이 있으니 관례대로 정지하며, 도망치거나 늙거나 죽은 경우의 잡탈은 결원에 따라 채우고, 내년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초련(哨鍊)과 사련(司鍊)¹⁰⁸⁾을 거행하는 등의 일을 실로 마땅히 뜻을 여쭙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의 왕복에 여러 달이 소비되어 매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례대로 우선 먼저 거행하고 아울러 이렇게 치계(馳啓)하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본주의 백성에 대한 일은 먼저 거행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은 응당 행하여 온 관례입니다. 이번엔 수신(守臣)이 논정한 조목들을 모두 장계에 보고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의 말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¹⁰⁹⁾ <중략> 대사간 유당, 지평 송전, 교리 박우원, 수찬 남학문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108) 초련(哨鍊)과 사련(司鍊): 각 초(哨)와 사(司)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

109) 이상 제주목사 황최언의 재실분등장계 내용은 《비변사등록》 정조 1년 12월 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전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隅)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황최언, 재실분등장계, 이찬 처, 김수현, 윤홍렬, 조우, 남흥로.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二月 二日 甲午

-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2월 2일(갑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송전(宋銓)의 계

-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二月 二日 甲午

- 丁酉十二月初十日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具允鉦, 行兵曹判書鄭弘淳, 判敦寧李重祜, 漢城判尹鄭尙淳, 行副司直張志恒·鄭光漢, 吏曹判書金鍾秀, 行副司直李漢膺, 行大司成徐浩修, 右承旨鄭民始, 獻納洪周萬, 校理沈有鎮, 左承旨李亨達, 假注書李兢淵, 事變假注書宋文述,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周萬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2월 2일(갑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헌납 홍주만(洪周萬)의 계

- 정유년(1777) 12월 10일 사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鉦), 행 병조판서 정홍순(鄭弘淳), 판돈녕 이중호(李重祜), 한성판윤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정광한(鄭光漢), 이조판서 김종수(金鍾秀),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행 대사성 서호수(徐浩修), 우승지 정민시(鄭民始), 헌납 홍주만(洪周萬), 교리 심유진(沈有鎮), 좌승지 이형규(李亨達), 가주서 이공연(李兢淵), 사변가주서 송문술(宋文述),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주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二月 十八日 庚戌

- 丁酉十二月十八日巳時, 上御誠正閣. 承旨持公事入侍時, 左承旨李亨達, 右承旨鄭民始, 左副承旨李秉模, 右副承旨李敬養, 同副承旨申應顯, 假注書柳文養,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亨達讀奏濟州牧使黃取彥褒貶啓本,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2월 18일(경술)

- 좌승지 이형규(李亨達)가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취언(黃取彦)의 포폄계본(褒貶啓本)을 읽어 아뢴
- 정유년(1777) 12월 18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할 때, 좌승지 이형규(李亨達), 우승지 정민시(鄭民始), 좌부승지 이병모(李秉模), 우부승지 이경양(李敬養), 동부승지 신응현(申應顯), 가주서 유문양(柳文養),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이형규가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취언(黃取彦)의 포폄계본(褒貶啓本)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황취언, 포폄계본.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二月 二十一日 癸丑

- 司諫鄭宇淳, 持平宋銓, 校理李謙彬·朴祐源, 副校理沈有鎮, 修撰安聖彬, 副修撰南鶴聞啓曰, …… 司諫鄭宇淳, 持平宋銓啓曰, …… 請還寢逆禳妻放釋之命, 依金吾初定, 濟州地定配, 籍產一依法典舉行. 請遲晚物故罪人啓能, 亟施孥籍之典. …… 答曰, 不允. 持平宋銓啓曰,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司諫鄭宇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2월 21일(계축)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정우순(鄭宇淳) 등의 계

- 사간 정우순, 지평 송전, 교리 이겸빈·박우원, 부교리 심유진, 수찬 안성빈, 부수찬 남학문이 아뢰기를, <중략> 사간 정우순(鄭宇淳),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 청컨대 죄를 자복하고 죽은 죄인 홍계능(洪啓能)에 대해 속히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법을 시행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 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조우,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二月 二十三日 乙卯

- 以濟州牧使狀啓, 傳于李敬養曰, 勿待罪事回諭.

❖ 정조 1년(1777) 정유년 12월 23일(을묘)

□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내린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이경양(李敬養)에게 전교하기를,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장계, 회유.

❖ 乾隆 四十二年 丁酉 十二月 二十五日 丁巳

- 司諫鄭宇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2월 25일(정사)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정우순(鄭宇淳) 등의 계

- 사간 정우순(鄭宇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윤홍렬, 국청.

1778年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日 癸亥

- 執義李亨元, 司諫鄭宇淳,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朴在源, 正言安廷炫啓曰, 敬彬·成運之與若淵·相簡, 爛熳綢繆之狀, 旣已畢露於諸賊招辭中, 而抵賴不服, 未施當律, 揆以王法, 失之太寬. 請薪智島定配罪人敬彬, 熊川縣定配罪人成運,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又啓曰, 噫, 今番窮凶諸賊, 誠往牒所無之變, 而逆禮以王室近親, 名出凶徒之推戴, 宮城吹角, 舉國鼎沸, 宗社危如一髮, 禍機迫在呼吸, 渠若有一分臣子之心, 固當卽地滅死, 而食求其飽, 衣求其煖, 必欲圖生, 復見天日等說, 若有所恃者然. 究厥心腸, 已極萬萬叵測, 而以殿下至仁至愛之德, 不忍加誅, 至使大臣·禁堂往問, 渠則猶復頑忍不動, 終始拒逆, 至曰我豈可死, 卽此一節, 尤可見其情狀之陰慘矣. 臣等雖不敢以傳會之說仰陳, 而逆禮未死之前, 寧風怪雨, 浹日大作, 折木飛瓦, 山川決裂, 及其物故之後, 天氣開霽, 日星昭朗. 噫, 天心如此, 其爲對國之敵, 於此尤可驗矣. 渠旣自盡, 王章未伸, 輿憤尙切, 請逆禮妻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일(계해)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집의 이형원(李亨元) 등의 계

-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정우순(鄭宇淳),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박재원(朴在源), 정언 안정현(安廷炫)¹¹⁰⁾이 아뢰기를, “경빈(敬彬)과 성운이 윤약연(尹若淵)·홍상간(洪相簡)과 한통속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정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초사(招辭)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변명하며 승복하지 않아서 해당되는 형률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입니다. 청컨대 신지도에 정배한 죄인 이경빈과 웅천현에 정배한 죄인 성운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아, 이번에 흉악한 역적들은 참으로 지난 역사에 없던 변고입니다. 그런데 역적 이찬(李攢)은 왕실의 가까운 친족으로 이름이 흉악한 무리들의 추대에 나왔으니, 궁성에서는 취각령(吹角令)¹¹¹⁾을 내리고 온 나라가 들끓어 종묘사직이 한 올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듯

110) 안정현(1730~1793): 본관 순흥(順興), 자 언진(彦珍). 1759년(영조 35) 문과 급제.

111) 취각령(吹角令): 변란이나 정변 등 긴급한 사변이 있을 때 각을 불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군사를 대궐 앞에 모이게 한 제도.

화란의 조짐이 눈 앞에 닥쳤었습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고, 입는 것에 따뜻함을 구하면서 ‘반드시 살기를 도모하고자 하면,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은 마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의 속셈을 따져보면 이미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데도 전하의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아끼는 덕으로 차마 주벌을 가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신과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가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다시 모질게 버티면서 시종일관 거역하고 심지어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한 가지에서 그 정상이 음험하고 참혹함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은 비록 감히 건강부회하는 말로써 아뢰 수는 없지만, 역적 이찬이 죽기 전에 사나운 바람과 괴상한 비가 열흘 동안 크게 일어나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라가 산천이 갈라지고, 죽은 후에는 날씨가 맑아져서 해와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아, 하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가 나라를 대적할 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더욱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자진하였기에 국법이 아직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노가 아직도 절절합니다. 청컨대 역적 이찬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日 癸亥

- 執義李亨元啓曰, 妖宦壽賢之締結, 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又啓曰, 罪人趙嶠以物故罪人臧之弟, 今諸逆之陰凶情節, 萬無不知之理, 而抵賴不服, 端緒未究, 遽有酌處之命, 王章未伸, 輿憤益切.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又啓曰, 罪人南興老以逆述之狎客, 隨在謫所, 究其情狀, 已極萬萬叵測, 而又於逆範輩聚會信德家之時, 渠亦同席, 則陰慘情跡, 宜無不知之理, 而終始抵賴, 忍杖不服, 誠極痛惋, 遽有酌處之命, 輿情益切駭憤.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일(계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집의 이형원(李亨元)의 계

- 집의 이형원(李亨元)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죄인 조우(趙嶠)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臧)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分開)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日 癸亥

- 獻納朴在源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又啓曰, 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往本妖邪, 惟利是趨, 爲弘燮之死友腸肚相連, 事無小大, 無不參涉, 人皆目之以姓不同弘烈, 則今番弘燮之陰慘情節, 決無不知之理.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亟令王府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일(계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처벌을 청하는 헌납 박재원(朴在源)의 계

- 헌납 박재원(朴在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은 성질이 본래 요사하고 간사하여 오직 이익만을 좇아 민홍섭(閔弘燮)과 절친한 벗이 되었는데, 한통속이 되어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관여하지 않음이 없어서 사람들 모두가 성(姓)이 다른 홍렬(弘烈)이라고 지목하였으니, 이번 민홍섭의 음험하고 참혹한 정상을 결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윤홍렬, 민홍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五日 丙寅

-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5일(병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전(宋銓)의 계

-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六日 丁卯

- 戊戌正月初六日辰時, 上御宣政殿. 常參朝講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右承旨李鎮衡, 左副承旨李秉模, 右副承旨李敬養, 同副承旨申應顯, 記事官柳孟養·鄭東浚·徐龍輔·金勉柱, 先行四拜禮, 以次進伏. …… 衍祥·亨元·思祚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又所啓,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有防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亟令王府, 設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6일(정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무술년 1월 6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상참(常參)과 조강(朝講)에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우승지 이진형(李鎮衡), 좌부승지 이병모(李秉模), 우부승지 이경양(李敬養), 동부승지 신응현(申應顯),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정동준(鄭東浚)·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먼저 사배례를 행하고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연상(李衍祥)¹¹²·이형원(李亨元)·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

112) 이연상(1719~1782): 본관 전주(全州).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한성판윤, 병조판서, 이조판서 역임.

다. 〈중략〉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七日 戊辰

- 大司憲李衍祥,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司諫鄭宇淳,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朴在源,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禮妻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7일(무진)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정우순(鄭宇淳),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박재원(朴在源),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七日 戊辰

- 持平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7일(무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지평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七日 戊辰

- 獻納朴在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亟令王府, 設鞫嚴問.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7일(무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헌납 박재원(朴在源)의 계
- 헌납 박재원(朴在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八日 己巳

- 大司憲李衍祥,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司諫鄭宇淳, 持平宋銓, 獻納朴在源,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禰妻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8일(기사)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정우순(鄭宇淳), 지평 송전(宋銓), 헌납 박재원(朴在源),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八日 己巳

- 執義李亨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岫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8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岫),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집의 이형원(李亨元)의 계

- 집의 이형원(李亨元)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八日 己巳

- 正言安延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鑄<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8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延玹)의 계
- 정언 안정현(安延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日 辛未

- 戊戌正月初十日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兼禮曹判書李景祐, 兼刑曹判書蔡濟恭, 行戶曹判書具允鉦, 行司直洪樂性, 判尹鄭尙淳, 兵曹判書李徽之, 江華府留守李福源, 行副司直張志恒, 行副司直鄭光漢, 行副司直鄭好仁, 吏曹參判徐浩修, 行都承旨洪國榮, 開城府留守俞彥鎬, 大司憲李衍祥,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司諫鄭宇淳, 持平李思祚, 正言安廷玹, 修撰安聖彬, 行左承旨鄭民始, 記事官鄭東浚, 事變假注書權心彥,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衍祥·有防·亨元·宇淳·思祚·廷玹·聖彬)又所啓, 請逆禩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上曰, 不允. …… 衍祥·亨元·思祚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又所啓,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有防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亟令王府, 設鞠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0일(신미)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무술년(1778) 1월 10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겸 예조판서 이경호(李景祐), 겸 형조판서 채제공(蔡濟恭),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鉦), 행 사직 홍낙성(洪樂性), 관운 정상순(鄭尙淳),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강화부유수 이복원(李福源),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행 부사직 정광한(鄭光漢),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개성부유수 유언호(俞彦鎬),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정우순(鄭宇淳), 지평 이사조(李思祚), 정언 안정현(安廷玹), 수찬 안성빈(安聖彬),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사변가주서 권심언(權心彦),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연상·서유방·이형원·정우순·이사조·안정현·안성빈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역

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연상·이형원·이사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隅)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김수현, 조우, 남흥로,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一日 壬申

-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司諫鄭宇淳, 持平李思祚, 獻納朴在源,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禩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1일(임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등의 계

-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정우순(鄭宇淳), 지평 이사조(李思祚), 헌납 박재원(朴在源),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一日 壬申

- 持平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河翼龍, ……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1일(임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하익룡(河翼龍),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지평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하익룡,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一日 壬申

- 獻納朴在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1일(임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헌납 박재원(朴在源)의 계
- 헌납 박재원(朴在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三日 甲戌

- 大司憲李衍祥,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持平李思祚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3일(갑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집의 이형원(李亨元), 지평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三日 甲戌

- 持平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3일(갑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지평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四日 乙亥

- 大司憲李衍祥,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司諫鄭宇淳,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朴在源,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禩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4일(을해)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정우순(鄭宇淳),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박재원(朴在源),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가선,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四日 乙亥

- 執義李亨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河翼龍, ……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4일(을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하익룡(河翼龍),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집의 이형원(李亨元)의 계

- 집의 이형원(李亨元)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하익룡,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四日 乙亥

- 獻納朴在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4일(을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헌납 박재원(朴在源)의 계
- 헌납 박재원(朴在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六日 丁丑

- 司諫洪彦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6일(정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七日 戊寅

- 大司憲李衍祥,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校理鄭宇淳, 副校理朴在源, 正言安廷玪, 修撰林蓍喆·安聖彬, 副修撰南鶴聞啓曰, 請鄭妻爲先削其爵號, 亟施邦憲, 使四百年宗社, 轉危而爲安. …… 大司憲李衍祥,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河翼龍, ……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7일(무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하익룡(河翼龍),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대사헌 이연상, 대사간 서유방, 집의 이형원, 사간 홍언철, 지평 이사조·송전, 교리 정우순, 부교리 박재원, 정언 안정현, 수찬 임시철·안성빈, 부수찬 남학문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鄭)의 처에 대해 그 작호를 삭탈하고, 속히 국법을 시행하여 4백년 종사가 위태로운 지경으로 굴러가는 데에서 안정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지평 송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하익룡,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七日 戊寅

- 戊戌正月十七日巳時, 上御誠正閣. 晝講入侍時, 知事李徽之, 特進官徐浩修, 參贊官申應顯, 侍讀官鄭宇淳, 檢討官安聖彬, 記事官鄭東浚·徐龍輔·金勉柱, 宗臣凝善君熾, 武臣副護軍金光泰, 正言安廷玪, 以次進伏訖. …… 廷玪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7일(무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廷玪)의 계

- 무술년(1778) 1월 17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입시할 때, 지사 이휘지(李徽之), 특진관 서호수(徐浩修), 참찬관 신응현(申應顯), 시독관 정우순(鄭宇淳), 검토관 안성빈(安聖彬), 기사관 정동준(鄭東浚)·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종신 응선군 이희(李熾), 무신 부호군 김광태(金光泰),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안정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八日 己卯

- 大司憲李衍祥,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8일(기묘)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八日 己卯

- 持平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河翼龍, ……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8일(기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하익룡(河翼龍),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집의 이형원(李亨元)의 계

- 지평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하익룡,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十八日 己卯

- 司諫洪彦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18일(기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延琰)의 계
- 사건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건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三日 甲申

- 獻納洪周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3일(갑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헌납 홍주만(洪周萬)의 계
-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五日 丙戌

- 大司憲李衍祥, 大司諫徐有防,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5일(병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五日 丙戌

- 持平李思祚·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5일(병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이사조(李思祚) 등의 계

-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五日 丙戌

- 大司諫徐有防, 獻納洪周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5일(병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헌납 홍주만(洪周萬)의 계

-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六日 丁亥

- 大司諫徐有防,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玹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6일(정해)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六日 丁亥

-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瑀,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6일(정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隅),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송전(宋銓)의 계

-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隅)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六日 丁亥

- 司諫洪彦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6일(정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정의현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七日 戊子

- 濟州防禦使黃㫃彦狀啓, 正朝方物, 致此過限, 惶恐待罪事. 傳于李敬養曰, 勿待罪事回諭.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7일(무자)

- ☐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는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황취언(黃㫃彦)의 장계에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황취언(黃㫃彦)의 장계에, ‘정조(正朝) 방물(方物)이 이렇게 기한을 넘겼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이경양(李敬養)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황취언, 장계, 대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七日 戊子

- 戊戌正月二十七日巳時, 上御熙政堂. 晝講入侍時, 特進官黃景源, 同知事鄭光漢, 參贊官李鎮衡, 侍讀官鄭宇淳, 檢討官安聖彬,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 記事官鄭東浚·徐龍輔·金勉柱, 宗臣鶴林君煥, 武臣副護軍田見龍, 以次進伏訖. …… (彦喆·思祚·宇淳·聖彬等)又所啓,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上曰, 不允. …… 思祚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又所啓,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彦喆所啓, 請大靜縣定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7일(무자)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죄를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 등의 계

- 무술년(1778) 1월 27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입시할 때, 특진관 황경원(黃景源), 동지사 정광한(鄭光漢), 참찬관 이진형(李鎭衡), 시독관 정우순(鄭宇淳), 검토관 안성빈(安聖彬),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 기사관 정동준(鄭東浚)·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종신 학림군 이육(李燾), 무신 부호군 전견룡(田見龍)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언철·이사조·정우순·안성빈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사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岬)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언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김수현, 조우, 남흥로,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八日 己丑

- 大司諫徐有防,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玹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8일(기축)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등의 계

-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八日 己丑

-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8일(기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八日 己丑

- 獻納洪周萬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亟令王府，設鞫嚴問. …… 答院曰，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8일(기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헌납 홍주만(洪周萬)의 계

-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九日 庚寅

- 大司諫徐有防,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玹啓曰, …… 請逆禳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9일(경인)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등의 계

-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九日 庚寅

- 持平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9일(경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지평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一月 二十九日 庚寅

- 正言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월 29일(경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廷玹)의 계
-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二日 癸巳

- 大司諫徐有防,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玹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2일(계사)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등의 계

-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二日 癸巳

-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2일(계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송전(宋銓)의 계

-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二日 癸巳

- 正言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2일(계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廷玹)의 계
-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三日 甲午

- 大司諫徐有防,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玹啓曰, …… 請逆禳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3일(갑오)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등의 계

-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三日 甲午

- 持平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3일(갑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지평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三日 甲午

- 獻納洪周萬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亟令王府，設鞫嚴問. …… 答院曰，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3일(갑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헌납 홍주만(洪周萬)의 계
- 헌납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四日 乙未

- 大司諫徐有防,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玹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4일(을미)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등의 계

-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四日 乙未

-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4일(을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송전(宋銓)의 계

-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四日 乙未

- 司諫洪彦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4일(을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五日 丙申

- 行大司憲尹東暹, 大司諫徐有防,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玹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5일(병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행 대사헌 윤동섭(尹東暹) 등의 계

- 행 대사헌 윤동섭(尹東暹)¹¹³⁾,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113) 윤동섭(1710~1795): 본관 파평(坡平). 자 덕승(德升). 호 팔무당(八無堂). 1754년(영조 30) 문과 급제. 이조판서, 진주부사, 평안도관찰사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五日 丙申

-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5일(병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송전(宋銓)의 계

-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五日 丙申

- 獻納洪周萬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亟令王府，設鞫嚴問. …… 答院曰，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5일(병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사간 홍주만(洪周萬)의 계
- 사간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八日 己亥

- 行大司憲尹東暹, 大司諫徐有防,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禩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8일(기해)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행 대사헌 윤동섭(尹東暭) 등의 계

- 행 대사헌 윤동섭(尹東暭),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八日 己亥

-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8일(기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송전(宋銓)의 계

-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八日 己亥

- 正言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8일(기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廷玹)의 계
-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九日 庚子

- 行大司憲尹東暹, 大司諫徐有防,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禩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9일(경자)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행 대사헌 윤동섭(尹東暹) 등의 계

- 행 대사헌 윤동섭(尹東暹),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九日 庚子

- 持平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9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지평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九日 庚子

- 司諫洪彦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9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十八日 己酉

- 行大司憲尹東暹,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禮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18일(기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행 대사헌 윤동섭(尹東暭) 등의 계

- 행 대사헌 윤동섭(尹東暭),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十八日 己酉

- 執義李亨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嚴問,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18일(기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집의 이형원(李亨元)의 계

- 집의 이형원(李亨元)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十八日 己酉

- 正言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18일(기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廷玹)의 계
-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十九日 庚戌

- 行大司憲尹東暹, 大司諫徐有防, 執義李亨元,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宋銓, 獻納洪周萬, 正言安廷玪[安廷鉉]啓曰, …… 請逆禰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19일(경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행 대사헌 윤동섭(尹東暭) 등의 계

- 행 대사헌 윤동섭(尹東暭),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송전(宋銓), 헌납 홍주만(洪周萬),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十九日 庚戌

-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19일(경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송전(宋銓)의 계

-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十九日 庚戌

- 正言安廷玪[安廷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19일(경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廷玪)의 계
-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二月 二十日 辛亥

- 戊戌二月二十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兼刑曹判書蔡濟恭, 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具允鉦, 行司直李重祜, 大司憲尹東暹, 判尹鄭尙淳, 行副司直張志恒, 行副司直鄭光漢, 吏曹參判徐浩修, 大司諫徐有防, 大司成柳憲, 執義李亨元, 司諫洪彦喆, 持平李思祚, 持平宋銓, 副校理嚴思晚, 行左承旨鄭民始, 記事官鄭東浚, 事變假注書李兢淵,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東暹·有防·亨元·彦喆·思祚·銓·思晚曰)請逆禮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上曰, 不允. …… 東暹·亨元·思祚·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有防·彦喆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 設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2월 20일(신해)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윤동섭(尹東暹) 등의 계

- 무술년(1778) 2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검 형조판서 채제공(蔡濟恭),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鉦), 행 사직 이중호(李重祜), 대사헌 윤동섭(尹東暹), 판윤 정상순(鄭尙淳), 행 부사직 장지항(張志恒), 행 부사직 정광한(鄭光漢),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대사간 서유방(徐有防), 대사성 유당(柳憲), 집의 이형원(李亨元),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이사조(李思祚), 지평 송전(宋銓), 부교리 엄사만(嚴思晚),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사변가주서 이금연(李兢淵),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윤동섭·서유방·이형원·홍언철·이사조·송전·엄사만이 아뢰기를,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

동섬·이형원·이사조·송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방·홍언철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김수현, 조우, 남흥로, 윤홍렬.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三月 二十八日 戊子

- 戊戌三月二十八日申時, 上御誠正閣. 大司成入侍時, 大司成柳憲, 行左承旨鄭民始, 假注書李兢淵,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憲曰, 本館財力, 不能成樣, 故昔在中廟朝, 以蝟島·楸子兩島劃給, 以爲養士之資矣. 其後居民, 以陳田起耕, 報于戶曹, 本館不得收稅, 故故重臣李晚成, 故宰臣沈聖希爲大司成時, 連爲陳奏還推, 而間又見失, 故言于戶判, 則以爲一番經稟後, 可以還送云, 而此是加耕之故, 戶曹則別無所收, 而且不過二十餘結, 其數亦不多矣. 上曰, 與戶判相議, 後日次對, 使之奏達, 可也. 仍命退, 諸臣以次出.

❖ 정조 2년(1778) 무술년 3월 28일(무자)

□ 추자도(楸子島)의 가경전(加耕田)에 대한 세금을 성균관에 도로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대사성 유당(柳憲)의 계

- 무자년(1778) 3월 28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사성이 입시할 때, 대사성 유당(柳憲),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이공연(李兢淵),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유당이 아뢰기를, “성균관의 재력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옛날 중묘조(中廟朝)에 위도(蝟島)와 추자도(楸子島) 두 섬을 떼어 주어 선비를 양성하는 밑천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 거주하는 백성들이 진전(陳田)을 경작하여 호조에 보고하였고, 본관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고 중신 이만성(李晩成)¹¹⁴과 고 재신 심성희(沈聖希)¹¹⁵가 대사성으로 있을 때 연이어 아뢰어 도로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또 (거둬들이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호조판서에게 말을 하였더니, ‘한번 임금께 여쭙 뒤(성균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경전(加耕田)이기 때문에 호조에서는 별로 거두어들일 것이 없고, 또한 20여 결에 불과하여 그 수량이 또한 많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판서와 상의하여 후일 차대(次對)할 때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나갔다.

△ 주제어: 추자도, 성균관, 세금.

114) 이만성(1659~1722): 본관 우봉(牛峰). 자 사추(士秋). 호 귀락당(歸樂堂)·행호거사(杏湖居士). 1696년(숙종 22) 문과 급제. 이조참의, 대사성, 병조판서 역임. 저서 <귀락당집>.

115) 심성희(1684~1747): 본관 청송(靑松). 자 이천(而天). 1725년(영조 1) 문과 급제. 익릉참봉, 이조판서, 대사헌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五日 甲午[乙未]

- 執義李謙彬, 司諫朴天衡, 持平洪履健, 應教林蓍喆, 校理黃昇源, 修撰沈有鎮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上曰, 不允, 請旌義縣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設鞫嚴問. 【措辭見上】上曰, 亟停勿煩. …….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5일(갑오[을미])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죄를 청하는 집의 이겸빈(李謙彬) 등의 계

- 집의 이겸빈(李謙彬), 사간 박천형(朴天衡)¹¹⁶, 지평 홍이건(洪履健), 응교 임시철(林蓍喆), 교리 황승원(黃昇源)¹¹⁷, 수찬 심유진(沈有鎭)¹¹⁸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

116) 박천형(1737~?): 본관 밀양(密陽). 자 사혁(士赫). 호 해강(海岡).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좌승지, 대사간, 충청도관찰사 역임.

117) 황승원(1732~1807): 본관 장수(長水). 자 윤지(允之). 시호 문헌(文獻).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관의금부사, 우참찬, 이조판서 역임. 저서 <일통표(一統表)>.

118) 심유진(1723~?): 본관 청송(靑松). 자 유지(有之).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조왜첩위관, 한성부 좌윤, 대사헌 역임.

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김수현, 조우, 남흥로, 윤홍렬.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八日 戊戌

- 以濟州防禦使黃畝彦狀啓，二月令靑橘及三月令槌引鰻，阻風過限，惶恐待罪，傳于李義翊曰，勿待罪事，回諭。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8일(무술)

- 2월령 청굴(靑橘) 및 3월령 추인복(槌引鰻)이 바람에 막혀 기한이 넘었기에 대죄한다는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황취언(黃畝彦)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황취언(黃畝彦)이 장계로, 2월령 청굴(靑橘) 및 3월령 추인복(槌引鰻)이 바람에 막혀 기한이 넘었기에 황공하게 대죄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익(李義翊)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황취언, 청굴, 추인복, 대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十日 庚子

- 大司諫李秉模, 執義李謙彬, 司諫朴天衡, 持平姜彝正·洪履健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答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10일(경자)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이병모(李秉模) 등의 계

- 대사간 이병모(李秉模)¹¹⁹, 집의 이겸빈(李謙彬), 사간 박천형(朴天衡), 지평 강이정(姜彝正)·홍이건(洪履健)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 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119) 이병모(1742~1806): 본관 덕수(德水), 자 이척(彝則), 호 정수재(靜修齋), 시호 문익(文翼). 1773년 (영조 49) 문과 급제. 홍문관제학, 우의정, 영의정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十日 庚子

- 持平姜彝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曰, 亟停勿煩. 【措辭見上】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10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집의 강이정(姜彝正)의 계

- 집의 강이정(姜彝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가(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十日 庚子

- 司諫朴天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亟令王府設鞫嚴問. …… 答曰, 亟停勿煩.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10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윤홍렬(尹弘烈)의 죄를 청하는 사간 박천형(朴天衡)의 계

- 사간 박천형(朴天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홍렬,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十一日 辛丑

- 大司諫李秉模, 執義李謙彬, 司諫朴天衡, 持平姜彝正·洪履健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答曰, 勿煩. …….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11일(신축)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이병모(李秉模) 등의 계

- 대사간 이병모(李秉模), 집의 이겸빈(李謙彬), 사간 박천형(朴天衡), 지평 강이정(姜彝正)·홍이건(洪履健) 아뢰기를, “〈상략〉 청건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十一日 辛丑

- 執義李謙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曰, 亟停勿煩. 【措辭見上】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11일(신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집의 이겸빈(李謙彬)의 계

- 집의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十一日 辛丑

- 司諫朴天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亟停勿煩. 【措辭見上】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11일(신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사간 박천형(朴天衡)의 계

- 사간 박천형(朴天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十三日 癸卯

- 持平姜彝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13일(계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강이정(姜彝正)의 계

- 지평 강이정(姜彝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十三日 癸卯

- 司諫朴天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13일(계묘)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사간 박천형(朴天衡)의 계

- 사간 박천형(朴天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二十日 庚戌

- 戊戌四月二十日辰時, 上御熙政堂. 晝講. 大臣·備局堂上同爲入侍時, 知事鄭光漢, 特進官吳載純, 參贊官徐有防, 侍讀官沈有鎮, 檢討官金憲, 記事官鄭東浚·徐龍輔·金勉柱, 宗臣安春君桂, 武臣副護軍鄭趾新,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兼禮曹判書李景祐, 兼漢城判尹具善復, 行吏曹判書李重祐, 行副司直鄭好仁, 行副司直李漢膺, 行訓練都正李國賢, 大司憲金華鎮, 開城留守兪彥鎬,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大司諫李秉模, 執義李謙彬, 司諫朴天衡, 持平洪履健·姜彝正, 事變假注書柳文養, 以次進伏. …… 謙彬·彝正·履健曰, 請大靜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秉模·天衡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20일(경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죄를 청하는 집의 이겸빈(李謙彬) 등의 계

- 무술년(1778) 4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대신과 비국당상이 함께 입시할 때, 지사 정광한(鄭光漢), 특진관 오재순(吳載純), 참찬관 서유방(徐有防), 시독관 심유진(沈有鎮), 검토관 김희(金憲), 기사관 정동준(鄭東浚)·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종신 안춘군 이계(李桂), 무신 부호군 정지신(鄭趾新),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겸 예조판서 이경호(李景祐), 겸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祐),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행 훈련도정 이국현(李國賢), 대사헌 김화진(金華鎮), 개성유수 유언호(兪彦鎬),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대사간 이병모(李秉模), 집의 이겸빈(李謙彬), 사간 박천형(朴天衡), 지평 홍이건(洪履健)·강이정(姜彝正), 사변가주서 유문양(柳文養)이 차례로 나와 었드렸다. <중략> 이겸빈·강이정·홍이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

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병모·박천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二十三日 癸丑

- 濟州防禦使黃取彦狀啓, 二月令薦新進上青橘關封事, 傳于申應顯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23일(계축)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황취언(黃取彦)이 2월령 천신(薦新)으로 진상하는 청귤(靑橘)을 궤봉(關封)한 일로 장계한 것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황취언(黃取彦)이 장계로, 2월령 천신(薦新)으로 진상하는 청귤(靑橘)을 궤봉(關封)한 것에 대해 신응현(申應顯)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황취언, 청귤, 궤봉, 대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二十三日 癸丑

- 戊戌四月二十三日未時, 上御誠正閣. 藥房副提調持加減交濟湯入侍時, 副提調洪國榮, 記事官柳孟養·徐龍輔·金勉柱, 醫官慶絢,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青橘之關封, 近年來初也. 進上關封, 亦何害之有, 而廟宮薦新之關, 極甚未安. 國榮曰, 聞昨年橘屬極貴, 若干摘置者, 已盡於冬節進上, 故歲後則連爲關封云矣. …….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23일(계축)

- 제주(濟州)에서 진상하는 귤속(橘屬)이 귀해서 세후(歲後)에는 봉진을 연이어 거르게 될 것이라는 부제조 홍국영(洪國榮)의 계
- 무술년(1778) 4월 23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 부제조가 가감교제당을 가지고 입시할 때, 부제조 홍국영(洪國榮),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의관 경현(慶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청귤(靑橘) 봉진(封進)을 거른 것은 근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진상의 봉진을 거른 것이 또한 무슨 해가 되겠는가마는 묘궁(廟宮)에 천신(薦新)을 거르게 되었으니 매우 미안하다.”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들으니, 작년 귤속(橘屬)이 아주 귀해서 약간 따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겨울철 진상에 이미 다 썼고, 때문에 세후(歲後)에는 연이어 봉진을 거를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귤, 봉진, 천신.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二十六日 丙辰

- 正言洪文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26일(병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언 홍문영(洪文泳)의 계

- 정언 홍문영(洪文泳)¹²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국청.

120) 홍문영(1732~?): 본관 남양(南陽). 자 숙장(叔章).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대사간, 병조참의, 승지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四月 二十七日 丁巳

- 持平李洪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4월 27일(정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홍재(李洪載)의 계

- 지평 이홍재(李洪載)¹²¹)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121) 이홍재(1727~1794): 본관 한산(韓山). 자 사심(士深). 호 일선(一蟬).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대사헌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四日 癸亥

- 戊戌五月初四日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具允鉉, 行司直鄭弘淳, 行工曹判書洪樂性, 行吏曹判書李重祜, 兵曹判書李徽之, 江華留守李福源, 刑曹判書鄭光漢, 行副司直鄭好仁, 判尹金華鎮, 行副司直李漢膺, 行訓練都正李國賢, 吏曹參判徐浩修, 大司憲吳載純, 行都承旨洪國榮, 開城留守兪彥鎬, 大司諫金履素, 掌令權坪, 副校理沈有鎮, 行左承旨鄭民始, 記事官鄭東浚, 事變假注書柳文養,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載純·履素·坪曰)請逆禩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上曰, 久益不忍聞, 亟停勿煩, 可也. …… 載純·坪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履素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4일(계해)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등의 계

- 무오년(1778) 5월 4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鉉), 행 사직 정홍순(鄭弘淳), 행 공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祜),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강화유수 이복원(李福源), 형조판서 정광한(鄭光漢),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 판윤 김화진(金華鎮),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행 훈련도정 이국영(李國賢),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개성유수 윤언호(兪彦鎬), 대사간 김이소(金履素), 장령 권평(權坪), 부교리 심유진(沈有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사변가주서 유문양(柳文養),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오재순¹²²⁾·김이소¹²³⁾·

122) 오재순(1727~1792): 본관 해주(海州). 자 문경(文卿). 호 순암(醇庵). 우불급재(愚不及齋). 시호 문정(文靖).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대제학, 이조판서, 중추부판사 역임. 저서 <순암집>.

123) 김이소(1735~1798): 본관 안동(安東). 자 백안(伯安). 호 용암(庸庵). 시호 익헌(翼憲). 1764년(영조

권평이 아뢰기를,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래될수록 차마 듣지 못하겠다.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오재순·권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隅)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이소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40) 문과 급제. 이조참판, 예조판서, 좌의정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五日 甲子

- 大司憲吳載純, 大司諫金履素, 司諫呂善亨, 掌令權坪, 持平李洪載, 獻納朴在源, 正言洪文泳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5일(갑자)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등의 계

-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대사간 김이소(金履素), 사간 여선행(呂善亨), 장령 권평(權坪), 지평 이홍재(李洪載), 헌납 박재원(朴在源),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五日 甲子

- 掌令權坪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5일(갑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와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의 죄를 청하는 장령 권평(權坪)의 계

- 장령 권평(權坪)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五日 甲子

- 司諫呂善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5일(갑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사간 여선형(呂善亨)의 계

- 사간 여선형(呂善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二日 辛未

- 大司憲吳載純, 大司諫金履素, 司諫呂善亨, 掌令權坪, 持平李洪載, 正言洪文泳啓曰, …… 請逆禩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2일(신미)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등의 계

-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대사간 김이소(金履素), 사간 여선행(呂善亨), 장령 권평(權坪), 지평 이홍재(李洪載),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二日 辛未

- 持平李洪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2일(신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홍재(李洪載)의 계

- 지평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二日 辛未

- 司諫呂善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2일(신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사간 여선형(呂善亨)의 계

- 사간 여선형(呂善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三日 壬申

- 大司憲吳載純, 大司諫金履素, 司諫呂善亨, 掌令權坪, 持平申應淵·李洪載, 正言洪文泳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3일(임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등의 계

-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대사간 김이소(金履素), 사간 여선행(呂善亨), 장령 권평(權坪), 지평 신응연(申應淵)·이홍재(李洪載),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三日 壬申

- 持平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3일(임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신응연(申應淵)의 계

- 지평 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三日 壬申

- 正言洪文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3일(임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언 홍문영(洪文泳)의 계

-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六日 乙亥

- 大司憲吳載純, 大司諫金履素, 司諫呂善亨, 掌令權坪, 持平申應淵·李洪載, 正言洪文泳啓曰, …… 請逆禰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6일(을해)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등의 계

-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대사간 김이소(金履素), 사간 여선행(呂善亨), 장령 권평(權坪), 지평 신응연(申應淵)·이홍재(李洪載),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六日 乙亥

- 持平李洪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6일(을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홍재(李洪載)의 계

- 지평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六日 乙亥

- 司諫呂善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6일(을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사간 여선형(呂善亨)의 계

- 사간 여선형(呂善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七日 丙子

- 大司憲吳載純, 大司諫金履素, 司諫呂善亨, 持平申應淵·李洪載, 正言洪文泳啓曰, …… 請逆禰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7일(병자)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등의 계

-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대사간 김이소(金履素), 사간 여선행(呂善亨), 장령 권평(權坪), 지평 신응연(申應淵)·이홍재(李洪載),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七日 丙子

- 持平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7일(병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신응연(申應淵)의 계

- 지평 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七日 丙子

- 正言洪文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7일(병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언 홍문영(洪文泳)의 계

-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八日 丁丑

- 大司憲吳載純, 大司諫金履素, 司諫呂善亨, 持平申應淵·李洪載, 正言洪文泳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8일(정축)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등의 계

-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대사간 김이소(金履素), 사간 여선행(呂善亨), 장령 권평(權坪), 지평 신응연(申應淵)·이홍재(李洪載),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八日 丁丑

- 持平李洪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8일(정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홍재(李洪載)의 계

- 지평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八日 丁丑

- 司諫呂善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8일(정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사간 여선형(呂善亨)의 계

- 사간 여선형(呂善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九日 戊寅

- 大司憲吳載純, 大司諫金履素, 司諫呂善亨, 持平申應淵, 正言洪文泳啓曰, …… 請逆禰妻, 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請遲晚後物故罪人啓能, 亟施孥籍之典. …… 答兩司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9일(무인)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등의 계

-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대사간 김이소(金履素), 사간 여선행(呂善亨), 장령 권평(權坪), 지평 신응연(申應淵),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九日 戊寅

- 持平申應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9일(무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신응연(申應淵)의 계

- 지평 신응연(申應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十九日 戊寅

- 正言洪文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19일(무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언 홍문영(洪文泳)의 계

- 정언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二十二日 辛巳

- 濟州防禦使黃最彦狀啓, 旌義縣居寺奴趙發等渰死事, 傳于兪恒柱曰, 令本道恤典舉行.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22일(신사)

□ 물에 빠져 죽은 정의현 시노 조발(趙發) 등에 대해 홀전을 거행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 황최언(黃最彦)이 장계로 정의현(旌義縣)에 거주하는 시노 조발(趙發) 등이 물에 빠져 죽은 일을 보고하였다. 유헌주(兪恒柱)에게 전교하기를, “본도(本道)로 하여금 홀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시노, 조발, 홀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二十二日 辛巳

- 戊戌五月二十二日辰時，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尙喆，左議政鄭存謙，右議政徐命善，兼禮曹判書李景祐，知中樞府事具善復，行戶曹判書具允鉉，行工曹判書洪樂性，行司直鄭弘淳，行吏曹判書李重祐，行兵曹判書李徽之，刑曹判書鄭光漢，行副司直鄭好仁，判尹金華鎮，開城留守俞彥鎬，行副司直李漢膺，訓練都正李國賢，吏曹參判徐浩修，漢城右尹鄭民始，大司憲吳載紹，大司諫金履素，司諫呂善亨，持平申應淵，正言洪文泳，副校理黃昇源，右副承旨李在學，記事官鄭東浚，事變注書徐鼎修，記事官徐龍輔·金勉柱，以次進伏訖。……尙喆曰，此濟州牧使黃最彥狀啓也，備陳本島鮑作等六苦役，偏重難支之狀，仍以爲其中平役廳，尤爲逋逃之藪，一入此廳，則既有輕徭之利，又爲拔身之階，次次推排，遽稱前將官，而又得減番米除射講，故民皆願入，閑丁殆盡，所謂前將官昌入之類，一一按查，鮑作等六役元額，今已盡充，而此輩之汰降者，或不無圖免如前之弊，今若以各班除番之類，每年歲末，都射講試才，取其才落，分充闕額，限一年立役，又以明年才落者，換舊遞新，定爲年年輪差之役，則一人無偏苦厭避之患，六役有恒久完實之效，而亦可爲武藝激勸之方，亟令攸司，稟旨指揮爲請矣。避苦趨歇者，其所汰降之際，設或有渠輩稱冤，島民事勢，有不可不變通，而射講取才之策，可想守臣採取物情，積費商量，依狀請着意舉行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載純·履素·善亨·應淵·文泳等曰）請逆禮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籍沒家產，一依法典舉行。上曰，久益不忍聞，亟停勿煩也。……載純·應淵等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素·善亨·文泳等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22일(신사)

-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입시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最彦)이 장계로 요청한, 각반(各班) 제번(除番)의 무리들을 매년 연말에 모두 사강(射講)을 시재(試才)하여 그 취재에서 낙제한 자를 취하여 나누어 궐액(闕額)에 충원해서 1년을 기한으로 입역(立役)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함

- 무술년(1778) 5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겸 예조판서 이경호(李景祐),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錡), 행 공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행 사직 정홍순(鄭弘淳),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祐), 행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형조판서 정광한(鄭光漢),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 판윤 김화진(金華鎭), 개성 유수 유언호(兪彦鎬),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훈련도정 이국현(李國賢),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한성우윤 정민시(鄭民始), 대사헌 오재소(吳載紹), 대사간 김이소(金履素), 사간 여선형(呂善亨), 지평 신응연(申應淵), 정언 홍문영(洪文泳), 부교리 황승원(黃昇源), 우부승지 이재학(李在學),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사변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었드렸다. <중략> 김상철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최언(黃最彦)의 장계입니다. 본도(本島) 포작(鮑作) 등의 육고역(六苦役)이 편중되어 지탱하기 어려운 실상을 갖추어 진달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 가운데 평역고(平役廳)가 더욱 도망해 숨는 소굴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이 청으로 들어가면 요역(徭役)이 가벼워지는 이로움이 있고, 또 발신(拔身)하는 계제(階梯)가 되어 차차 추배(推排)하고, 문득 전 장관이라 일컫으며 또 번미(番米)와 사강(射講)을 면제받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들어가기를 원하여 한정(閑丁)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른바 전 장관이라고 하여 모칭(冒稱)하여 들어간 부류들을 일일이 조사해 내어 포작 등 여섯 가지 역의 원액(元額)에 지금은 이미 다 충원하였습니다. 이 무리 중에 도태한 자들이 혹 전처럼 면제를 피하려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지금 만약 각반(各班) 제번(除番)의 무리들을 매년 연말에 모두 사강(射講)을 시재(試才)하여 그 취재에서 낙제한 자를 취하여 나누어 궐액(闕額)에 충원해서 1년을 기한으로 입역(立役)시키고, 또 내년에 취재에 낙제한 자를 환구체신(換舊遞新)하여 해마다 윤차(輪差)하여 역을 정한다면 한 사람이 치우치게 괴로워 염피(厭避)하는 근심이 없게 되고, 여섯 가지 역이 영구히 완실(完實)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무예를 격려하는 방도가 될 것이니, 속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지휘하여 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역을 피하여 험한 역으로 들어간 자들을 도태시키는 즈음에 설령 그 무리들이 억울하다고 일컫더라도 도민(島民)의 사세(事勢)는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강을 취재하는 방책을 수신(守臣)이 물정을 채취하여 잘 헤아릴 것이니, 장계의 요청대로 착실히 거행할 것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¹²⁴⁾ 〈중략〉 홍재순·김이소·여선형·신응연·홍문영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래될수록 더욱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홍재순·신응연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隅)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이소·여선형·홍문영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황최언, 포작, 육고역, 평역고, 시재.

124) 이상 제주목사 황최언의 장계 내용은 《비변사등록》 정조 2년 5월 2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二十三日 壬午

- 鄭民始, 以備邊司言啓曰, 自北京回還漂人全羅道濟州人高萬才等十三名, 縣次替送, 纔已上來, 故使本司郎廳, 詳細問情後, 所供辭緣, 別單書入, 而今無留置更問之事, 下去時, 分付沿路各道, 使之善爲饋食, 所騎刷馬, 次次替給之意, 亦爲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23일(임오)

- 표류에서 생환한 제주인(濟州人) 고만재(高萬才) 등 13명이 내려갈 때 편의 제공을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초기(草記)
- 정민시(鄭民始)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북경에서 돌아온 표류인 전라도 제주인(濟州人) 고만재(高萬才) 등 13명을 각 현(縣)을 통해 교대로 보내어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본사 낭청으로 하여금 상세히 문정(問情)한 후에 공초(供招)한 사연(辭緣)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 이제 머물러두고 다시 물을 일이 없으니, 내려갈 때 연로의 각 도(各道)에 분부하여 음식을 잘 먹이고 타고 가는 쇄마(刷馬)를 차례대로 교체해 주도록 또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¹²⁵⁾

△ 주제어: 표류인, 고만재.

125)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년 5월 2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二十九日 戊子

- 戊戌五月二十九日辰時, 上御誠正閣. 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記事官柳孟養·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灰鰓進上, 浦漢之爲弊滋甚, 此等進上無甚關緊, 永爲除減, 好矣. 國榮曰, 臣亦每以此爲悶矣. 越海封進, 其弊不小, 若除此鰓, 則濟州浦民, 可以支保矣. 命退去, 諸臣以次出.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29일(무자)

-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회복(灰鰓) 진상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함

- 무오년(1778) 5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회복(灰鰓) 진상에 포한(浦漢)의 폐단이 아주 심하다. 이와같은 진상은 심히 긴요하지 않으니, 영구히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신 또한 이것으로 고민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진상하는 것이, 그 폐단이 적지 않은데, 만약에 이 회복을 없앤다면 제주의 포민(浦民)은 지탱하여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나갔다.

△ 주제어: 회복, 진상, 포한, 포민.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二十九日 戊子

- 戊戌五月二十九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鄭存謙, 右議政徐命善, 兼禮曹判書李景祐, 行戶曹判書具允鉦, 行工曹判書洪樂性, 行司直鄭弘淳, 行吏曹判書李重祐, 刑曹判書鄭光漢, 判尹金華鎮, 行副司直李漢膺, 行訓練都正李國賢, 禮曹參判徐浩修, 行左承旨鄭民始, 記事官鄭東浚, 事變假注書徐鼎修,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 允鉦曰, 祔太廟後, 祭享所用及景慕宮祭享所用犧牲進排事, 自禮曹, 草記允下, 而典牲署牛羊猪元貢, 俱爲不足於加進排之數, 不可不加定之意, 已爲就議於大臣矣. 黑牛十首, 依前例卜定濟州, 羊六口, 生豬六十口, 參酌加定, 分道磨鍊, 別單書入,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上曰, 濟州灰鰯, 便是無用之物, 而浦民之弊, 則不可勝言, 每欲下教而未果矣. 仍命書傳教曰, 寡人御極之後, 實惠尙未下究於八路, 而況濟州, 卽滄海之外, 近因歉歲, 居多民生顛顛, 每一念之, 若恫在已, 今覽本牧狀聞, 其採鰯艱辛之狀, 如在目中. 且曾已稔知, 每欲矯弊者, 久矣, 其在柔遠之道, 宜有拯救之策, 寧損御供, 豈勞吾民? 年例進貢灰全鰯五千五百八貼十七串內, 姑減者, 與未減者, 特爲永減, 以除島民一分之弊, 使奠其居焉. 此蓋先王之遺意也, 以此曉諭民人, 舉行形止, 卽爲狀聞事, 自備局, 分付. 尙喆曰, 此爲濟州之一大弊, 今此下教, 德意藹然, 實不勝欽仰矣.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29일(무자)

- 제향(祭享)에 추가로 소용되는 흑우 등의 부족분을 제주(濟州) 등에서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鉦)의 계와 제주의 회복(灰鰯) 진상을 영원히 감하라는 전교
- 무오년(1778) 5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기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서명선(徐命善), 겸 예조판서 이경호(李景祐),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鉦), 행 공조판서 홍낙성(洪樂性), 행 사직 정홍순(鄭弘淳), 행 이조판서 이중호(李重祐), 형조판서 정광한(鄭光漢), 판윤 김화진(金華鎮), 행 부사직 이한웅(李漢膺), 행 훈련도정 이국현(李國賢), 예조참판 서호수(徐浩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기사관 정동준(鄭東浚), 사변가주서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구윤옥이 아뢰기를, “태묘(太廟)에 부묘(祔廟) 한 뒤 제향(祭享)에 소용되는 것 및 경모궁

(景慕宮) 제향(祭享)에 소용되는 희생(犧牲)을 진배(進排)하는 일을 예조에서 초기(草記)하여 윤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생서(典牲署)의 소·양·돼지의 원공(元貢)은 모두 추가로 진배하는 수량에 부족하므로 더 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미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였습니다. 흑우 10마리를 전례대로 제주(濟州)에 지정하여 양 6구(口), 생저(生豬) 60구를 참작하여 더 정하여 각 도에 나누어 마련하여 별단에 써서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회복(灰鰓)은 곧 무용지물인데, 포민(浦民)의 폐해를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매년 하교하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과인이 즉위한 뒤에 실질적인 혜택이 아래로 팔도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제주는 곧 바다 밖의 지역이다. 근래 흉년으로 거주하는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부황이 들어 매년 한결같이 생각할 때마다 마치 내 몸이 아픈 것과 같았는데, 지금 본목(本牧)이 장계로 보고한 것을 보니, 그 전복을 채취하며 고생하는 실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또한 일찍이 익히 알고 매년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오래되었다. 먼 지방의 백성들을 회유하는 방도에 있어서 마땅히 구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니, 차라리 어공(御供)을 줄이지언정 어찌 우리 백성을 수고롭게 할 것인가? 연례로 진공(進貢)하는 회복 5,508첩(貼) 17관(串) 가운데서 우선 감할 것과 아직 감하지 않은 것을 특별히 영원히 감하여 섬 백성들의 폐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편히 살게 하라. 이것은 대개 선왕께서 남긴 뜻이니, 이것으로 백성들에게 효유(曉諭)하고, 거행의 전말을 즉시 장계로 보고하도록 비변사에 분부하라.”라고 하였다.¹²⁶⁾ 김상철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의 하나의 큰 폐단입니다. 금번 이 하교는 덕의(德意)가 성대하여 실로 흠양함을 이루다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향, 흑우, 회복, 포민, 폐단.

126) 이상 회복(灰鰓)을 감하는 전교의 내용은 《비변사등록》 정조 2년 5월 2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二十九日 戊子

- 戊戌五月二十九日未時, 上御誠正閣. 藥房副提調, 持加減交濟湯入侍時, 副提調洪國榮, 記事官柳孟養·徐龍輔·金勉柱, 醫官慶絢,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灰鰓事, 今日賓筵, 下詢諸臣, 則鄭弘淳, 以爲此物於國用, 無甚關緊, 而每於進上之來, 出付貢人, 以爲連次進排, 故貢人輦, 作爲囊橐, 以一年進排之數, 較其原進上之數, 進排之數, 僅爲三分一, 在國家, 實無補用, 在濟民, 爲無限大弊, 朝家若爲蠲減, 則實爲大惠, 予意亦以爲然, 更問其內用之緊漫, 欲爲停減矣. 國榮曰, 灰鰓, 爲濟民大弊, 曾所稔知, 所用若不關緊, 則永爲蠲減, 好矣. 上曰, 雖或有緊關之用, 爲民除弊之事, 烏可已乎? 國榮曰, 聖教, 誠好矣. ……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29일(무자)

- 부제조 홍국영(洪國榮)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회복(灰鰓) 진상을 영원히 감하는 것에 대해 논함

- 무오년(1778) 5월 29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 부제조가 가감교제당을 가지고 입시할 때 부제조 홍국영(洪國榮),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의관 경현(慶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회복(灰鰓)에 대한 일로 오늘 빈연(賓筵)에서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정홍순(鄭弘淳)이 ‘이 물건은 국용(國用)에 그다지 긴요하지 않고, 매번 진상이 올 때 공인(貢人)에게 내주어 매 때마다 물건을 진상하게 합니다. 때문에 공인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1년에 진상하는 수량을 원래 진상하는 수량과 비교하면, 진상하는 수량이 겨우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가에 있어서는 실로 보탬이 되는 바가 없고, 제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큰 폐단이 되니, 조정에서 만약 견감해 준다면 실로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의 뜻도 그러하다. 그 내용(內用)이 긴요한지 아닌지를 물어 받지 않거나 감하여 주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회복은 제주 백성들의 큰 폐단이 되고 있음을 일찍이 익히 아는 바입니다. 소용에 긴요하지 않다면 영원히 견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혹여 긴요한 쓰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에게서 폐단을 제거하는 일을 어찌 그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회복, 폐단, 건감.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五月 二十九日 戊子

- 戊戌五月二十九日戌時, 上御誠正閣. 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記事官柳孟養·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上曰, 灰鰯之緊用與否, 問于內間, 則內用稍緊云, 而不可以內用之稍緊, 不除島氓之弊, 今將傳教矣. 國榮曰, 此物永減, 則必鼓舞矣. 仍命書傳教曰, 寡人御極之後, 實惠尙未下究於八路, 況濟州卽倉海之外, 近因歉歲, 居多民生頷顙, 每一念之若恫在己, 今覽本州狀聞, 其採鰯艱辛之狀, 如在目中, 且既已稔如, 每欲矯弊者久矣, 其在柔遠之道, 宜有拯救之策, 寧損御供, 豈殺吾民? 年例進貢, 灰全鰯五千五百八貼, 十七串內, 姑減者與未減者, 特爲永減, 以除島民一分之弊, 使奠其居焉, 此蓋先王之遺意也. 以此曉諭民人舉行形止, 卽爲狀聞事, 自備局分付. 上曰, 注書持此傳教出去, 卽爲頒布事, 分付. 命退去, 諸臣以次出.

❖ 정조 2년(1778) 무술년 5월 29일(무자)

□ 제주(濟州)의 회복(灰鰯) 진상을 영원히 감하라는 전교

- 무오년(1778) 5월 29일 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회복(灰鰯)의 긴요 여부를 내간(內間)에 물어보니 내용(內用)에 조금 긴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에 조금 긴요하다는 것 때문에 섬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 전교를 내리려 한다.”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이 물건을 영원히 견감한다면 반드시 백성들이 고무(鼓舞)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과인이 즉위한 뒤에 실질적인 혜택이 아래로 팔도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제주(濟州)는 곧 바다 밖의 지역이다. 근래 흉년으로 거주하는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부황이 들어 매년 한결같이 생각할 때마다 마치 내 몸이 아픈 것과 같았는데, 지금 본목(本牧)이 장계로 보고한 것을 보니, 그 전복을 채취하며 고생하는 실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또한 일찍이 익히 알고 매년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오래되었다. 먼 지방의 백성들을 회유하는 방도에 있어서 마땅히 구해주는 방책이 있어야 할 것이니, 차라리 어공(御供)을 줄일지언정 어찌 우리 백성을 수고롭게 할 것인가? 연례로 진공(進貢)하는 회전복(灰全鰯) 5,508첩(貼) 17관(串) 가운데서 우선 감할 것과 아

직 감하지 않은 것을 특별히 영원히 감하여 섬 백성들의 폐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편히 살게 하라. 이것은 대개 선왕께서 남긴 뜻이니, 이것으로 백성들에게 효유(曉諭)하고, 거행의 전말을 즉시 장계로 보고하도록 비변사에 분부하라.”라고 하였다.¹²⁷⁾ 임금이 말하기를, “주서는 이 전교를 가지고 나거 즉시 반포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물러가라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나갔다.

△ 주제어: 회복, 진상, 포민, 폐단, 견감.

127) 이상 회복(灰覆)을 감하는 전교의 내용은 《비변사등록》 정조 2년 5월 2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四日 壬辰

- 戊戌六月初四日辰時, 上御仁政門. 朝參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行右承旨金履素, 左副承旨李鎮衡, 右副承旨李在學, 同副承旨林蓍喆, 記事官柳孟養·鄭東浚·徐龍輔·金勉柱, 以次侍立. …… (大司憲金燧, 司諫張浚, 持平林道浩·趙武範, 正言李延年曰)請還寢逆禰妻放釋之命,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產一依法典舉行. 上曰, 久益不忍聞, 亟停勿煩. …… 大司憲金燧, 持平林道浩·趙武範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旌義縣滅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正言李延年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4일(임진)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김익(金燧) 등의 계

- 무오년(1778) 6월 4일 진시에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으로 나아갔다. 조참(朝參)에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행우승지 김이소(金履素), 좌부승지 이진형(李鎭衡), 우부승지 이재학(李在學), 동부승지 임시철(林蓍喆),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정동준(鄭東浚)·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시립하였다. <중략> 대사헌 김익(金燧)¹²⁸, 사간 장정(張浚), 지평 임도호(林道浩)·조무범(趙武範), 정언 이연년(李延年)이 아뢰기를,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풀어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래 될수록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김익, 지평 임도호·조무범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岬)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128) 김익(1723~1790): 본관 연안(延安). 자 광중(光仲). 호 죽하(竹下)·약현(藥峴). 시호 문정(文貞).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강화유수, 우의정, 영의정 역임.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 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 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이연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 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日 戊戌

- (鄭民始)又以義禁府言啓曰, 凶逆緣坐之在六鎮者, 移配絕島事, 舉條啓下矣. 誣上不道罪人載翰, 弟咸鏡道鍾城府爲奴罪人載天, 全羅道濟州牧大靜縣移配. 穩城府爲奴罪人載田, 濟州牧旌義縣移配. 庶弟 …… 慶源府爲奴罪人載旭, 靈巖郡楸子島移配. 竝爲奴而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載天移配三水.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0일(무술)

- 임금을 무함한 부도죄인 조재한(趙載翰)에 연좌된 동생들을 각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정민시(鄭民始)가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흉역(凶逆)에 연좌된 육진(六鎭)에 있는 자를 절도(絶島)로 이배(移配)하도록 거조(舉條)로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임금을 무함한 부도죄인 조재한(趙載翰)¹²⁹⁾의 아우로 함경도 종성부에 노(奴)가 된 죄인 조재천(趙載天)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으로 이배하고, 온성부에 노가 된 죄인 조재전(趙載田)을 제주목 정의현(旌義縣)에 이배하고, 서제(庶弟)로 경원부에 노가 된 죄인 조재욱(趙載旭)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이배하여 모두를 노로 삼되,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조재천은 삼수(三水)로 이배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129) 조재한(1722~?): 본관 풍양(豐壤).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日 戊戌

- (鄭民始)又以義禁府言啓曰, 平安監司洪樂純狀啓內, 逆格妻曾每, 在於陽德縣, 逆格奴汝加里, 在於德川郡, 逆禳海妻福兆, 在於孟山縣, 逆禳海子今年生, 在於寧遠郡. 今此四邑, 地界相接, 或爲半日程, 或爲一日程, 互相往來, 密通情意, 綢繆釀禍之端, 難保其必無. …… 其在慮遠之道, 不可因循置之, 曾每等九名, 卽爲散配於海島絕域事啓下矣. 陽德縣爲婢罪人格妻曾每, 全羅道濟州牧旌義縣移配. 孟山縣爲婢罪人逆禳海妻福兆, 濟州牧大靜縣移配. 竝爲婢. 寧遠郡爲奴罪人逆禳海子今年生, 靈巖郡楸子島移配爲奴. 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 ……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0일(무술)

□ 역적 홍상격(洪相格)의 처와 역적 홍찬해(洪贊海)의 처를 각각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으로 이배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정민시가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평안감사 홍낙순(洪樂純)¹³⁰의 장계 내에, ‘역적 홍상격(洪相格)의 처 증매(曾每)는 양덕현(陽德縣)에 있고, 역적 홍상격의 노(奴) 여가리(汝加里)는 덕천군(德川郡)에 있으며, 역적 홍찬해(洪贊海)의 처 복조(福兆)는 맹산현(孟山縣)에 있고, 역적 홍찬해의 금년에 태어난 아들은 영원군(寧遠郡)에 있습니다. 지금 이 네 읍은 경계가 서로 접해 있어 혹은 한나절의 거리이고, 혹은 하루 거리가 되어 서로 왕래하며 은밀히 정의(情意)를 내통하여 화를 빚는 일이 반드시 없을 거라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먼 앞날을 생각하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증매 등 9명을 즉시 해도(海島)의 절역(絶域)에 나누어 정배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일에 대해 계하하였습니다. 양덕현에 노가 된 죄인 홍상격의 처 증매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으로 이배(移配)하고, 맹산현에 노가 된 죄인 역적 홍찬해의 처 조복을 제주목 대정현(大靜縣)으로 이배하여 모두 노로 삼아서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하도록 <중략>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상격, 홍찬해, 증매, 복조, 이배

130) 홍낙순(1723~?): 본관 풍산(豊山), 자 백효(伯孝), 호 대릉(大陵), 시호 문헌(文憲). 1757년(영조 33) 문과 급제. 대사성, 이조판서, 좌이정 역임. 저서 <대릉집>.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日 戊戌

- 大司諫李敬養, 司諫李重馥, 持平李殷模啓曰, …… 請逆禰妻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0일(무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등의 계

-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사간 이중복(李重馥), 지평 이은모(李殷模)¹³¹⁾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131) 이은모(1745~?): 본관 덕수(德水). 자 자경(子敬).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정언, 헌납, 대사간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日 戊戌

- 持平李殷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0일(무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은모(李殷模)의 계

- 지평 이은모(李殷模)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日 戊戌

- 大司諫李敬養, 司諫李重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0일(무술)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등의 계

-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사간 이중복(李重馥)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二日 庚子

- 李鎮衡,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平安道陽德縣爲坐爲婢罪人, 逆格妻曾每. 全羅道濟州牧旌義縣移配, 孟山縣爲婢罪人, 逆續海妻福兆. 大靜縣移配, 寧遠郡爲奴罪人逆續海子今年生, 靈巖郡楸子島移配. 咸鏡道鏡城府爲奴罪人逆載翰弟載天, 三水府移配. 穩城府爲奴罪人載田, 旌義縣移配, 茂山府爲奴罪人載翰, 庶弟載則, 羅州牧黑山島移配. 慶源府爲奴罪人載旭, 靈巖郡楸子島移配, 竝爲奴婢, 令刑曹押送配所. …… 事命下矣. 依傳教, 緣坐移配罪人曾每·福兆·今年生·載天·載田·載則·載旭等七名, 令兩道道臣, 卽爲移配. …… 而上項罪人等, 勿爲一時竝送, 使得同行, 次次押送. 計其前者到配, 然後始送其次事, 發關分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2일(경자)

□ 연좌 죄인 증매(曾每) 등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

- 이진형(李鎭衡)¹³²⁾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에 따라 평안도 양덕현(陽德縣)에 연좌되어 비(婢)가 된 죄인, 역적 역적 홍상격(洪相格)의 처 증매(曾每)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이배(移配)하고, 맹상현(孟山縣)에 비(婢)가 된 죄인, 역적 홍찬해(洪纘海)의 처 복조(福兆)를 대정현(大靜縣)에 이배하고, 영원군(寧遠郡)에 노(奴)가 된 죄인 홍찬해의 금년에 낳은 아들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이배하고, 함경도 경성부에 노가 된 죄인 역적 조재한의 동생 조재천을 삼수부에 이배하고, 온성부(穩城府)에 노가 된 죄인 조재전(趙載田)을 정의현에 이배하고, 무산부에 노가 된 죄인 조재한의 서제 조재칙을 나주목 흑산도로 이배하고, 경원부(慶源府)에 노가 된 죄인 조재욱(趙載旭)을 영암군 추자도에 이배하여 모두 노비로 삼아서 형조로 하여금 압송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연좌 이배 죄인 증매·복조·금년에 낳은 아들·조재천·조재전·조재칙·조재욱 등 7명을 양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즉시 이배하게 하되 〈중략〉 위의 죄인들을 한꺼번에 모두 압송하여 동행하지 않도록 차례대로 압송하여 앞선 자가 배소에 도착할 것을 계산하여 연후에 차례대로 보내도록 관문(關文)을 띄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

132) 이진형(1723~1781): 본관 전주(全州). 자 평중(平仲). 호 남곡(南谷). 시호 충간(忠簡). 1753년(영조 29) 문과 급제. 경기도관찰사, 도승지, 대사헌 역임.

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증매, 복조, 조재전, 조재욱, 이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二日 庚子

- 大司諫李敬養, 司諫李重馥, 掌令尹弼秉, 持平李殷模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2일(경자)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등의 계

-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사간 이중복(李重馥), 장령 윤필병(尹弼秉)¹³³, 지평 이은모(李殷模)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133) 윤필병(1730~1810): 본관 파평(坡平). 자 이중(彝中). 호 무호당(無號堂)·무호암(無號庵). 1767년 (영조 43) 문과 급제. 병조참지, 안악군수, 좌승지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二日 庚子

- 掌令尹弼秉, 持平李殷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2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장령 윤필병(尹弼秉) 등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 지평 이은모(李殷模)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二日 庚子

- 大司諫李敬養, 司諫李重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2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등의 계
-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사간 이중복(李重馥)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三日 辛丑

- 大司諫李敬養, 司諫李重馥, 掌令尹弼乘, 持平李殷模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3일(신축)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등의 계

-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사간 이중복(李重馥), 장령 윤필병(尹弼乘), 지평 이은모(李殷模)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三日 辛丑

- 掌令尹弼秉, 持平李殷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3일(신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장령 윤필병(尹弼秉) 등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 지평 이은모(李殷模)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三日 辛丑

- 大司諫李敬養, 司諫李重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3일(신축)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등의 계
-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사간 이중복(李重馥)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四日 壬寅

- 戊戌六月十四日辰時, 上御熙政堂. 晝講, 詣臺三司, 同爲入侍時, 特進官洪樂性, 知事李徽之, 參贊官沈有鎮, 侍讀官林濟遠, 檢討官金憲, 記事官鄭東浚·徐龍輔·金勉柱, 宗臣西清君煜, 武臣行副護軍田見龍, 大司諫李敬養, 司諫李重馥, 掌令尹弼秉, 持平李殷模, 校理朴天衡·李謙彬, 副校理鄭宇淳, 修撰姜忱, 副修撰宋煥億, 以次進伏訖. …… 上命臺諫進前, 敬養·重馥·弼秉·殷模·天衡·謙彬·宇淳·濟遠·忱·煥億·憲所啓. …… 請逆禮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上曰, 極停勿煩. …… 弼秉·殷模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殷模所啓,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4일(임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등의 계

- 무술년(1778) 6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에 대각(臺閣)에 나온 삼사(三司)가 함께 입시할 때 특진관 홍낙성(洪樂性), 지사이휘지(李徽之), 참찬관 심유진(沈有鎭), 시독관 임제원(林濟遠), 검토회관 김희(金憲), 기사관 정동준(鄭東浚)·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 종신 서청균(李淸均), 이성(李煜), 무신 행 부호군 전현룡(田見龍),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사간 이중복(李重馥), 장령 윤필병(尹弼秉), 지평 이은모(李殷模), 교리 박천형(朴天衡)·이겸빈(李謙彬), 부교리 정우순(鄭宇淳), 수찬 강침(姜忱), 부수찬 송환억(宋煥億)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명하여 대간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경양·이중복·윤필병·이은모·박천형·이겸빈·정우순·임제원·강침·송환억·김희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윤필병·이은모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은모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岬)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六月 十六日 甲辰

- 戊戌六月十六日, 兼春秋張顯慶, 刑曹啓曰. 本曹所管全羅道定配罪人放未放秩, 竝依啓聞施行爲乎矣, 放秩中千命載, 罪既不輕, 配亦屬耳. 仍配稟秩崔天起, 未放秩梁聚參·鄭惟泰·崔錫祖·李遠白·周宗郁·黃彬三·文漢成等段, 或所坐不重, 或到配多年, 竝放送之意, 分付道臣何如? 啓. 傳曰, 依回啓施行爲旡, …… 楸子島定配罪人成孟甲, …… 等, 所犯皆不至難赦, 竝放送爲良如教.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16일(갑진)

□ 추자도 정배죄인 성맹갑(成孟甲)을 풀어주라는 전교

- 무술년(1778) 6월 16일 겸춘추 장현경(張顯慶)이 형조 계목의 말로 아뢰기를, “본조 소관 전라도 정배죄인에 대해 풀어줄 부류와 풀어주지 않을 부류를 모두 계문(啓聞)대로 시행하되, 풀어줄 부류 가운데 천명재의 죄는 가볍지 않으니 정배에 또한 붙이고, 정배할 부류인 최천기와 풀어주지 않을 부류인 양취삼·정유태·최석조·이원백·주종육·황빈삼·문한성 등은 혹은 연좌된 바가 무겁지 않고 혹은 배소에 도착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모두 풀어주도록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회계(回啓)대로 시행할 것이며,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성맹갑(成孟甲) 등 범한 죄가 모두 풀어주기에 어렵지 않은 자는 모두 풀어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정배죄인, 성맹갑.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五日 癸亥

- 正言宋銓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侍,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5일(계해)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송전(宋銓)의 계

- 정언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十二日 庚午

- 兩司合啓. …… 逆禳之窮凶諸賊, 誠往牒所無之變, 而逆禳, 以王室近親, 名出凶徒之推戴, 宮城吹角, 舉國鼎沸, 宗社危如一髮, 禍機迫存呼吸. 渠若有一分臣子之心, 固當卽地滅死, 而食求其飽, 衣求其煖, 必欲圖生, 復見天日等說, 若有所恃者然. 究厥心腸, 已極萬萬叵測, 而以殿下至仁至愛之德, 不忍加誅. 至使大臣·禁堂, 往問於渠, 則猶復頑忍不動, 終始拒逆, 至曰我豈可死, 卽此一節, 尤可見其情狀之陰慘矣. 臣等雖不敢以傳會之說仰陳, 而逆禳未死之前, 寧風怪雨, 浹日大作, 折木飛瓦, 山川決裂, 及其物故之後, 天氣開霽, 日星昭朗. 噫, 天心如此, 其爲對國之敵, 於此尤可驗矣. 渠旣自盡, 王章未伸, 輿憤方切, 而遽有其妻全釋之命, 殿下之所貸者私恩, 臣等之所執者公法. 邦憲莫嚴, 群情益激. 請還寢逆禳妻放釋之命,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產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12일(경오)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기를, “〈상략〉 역적 이찬(李攢)의 흉악한 역적들은 참으로 지난 역사에 없던 변고입니다. 그런데 역적 이찬은 왕실의 가까운 친족으로 이름이 흉악한 무리들의 추대에 나왔으니, 궁성에서는 취각령(吹角令)¹³⁴⁾을 내리고 온 나라가 들끓어 종묘사직이 한 올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듯 화란의 조짐이 눈 앞에 닥쳤었습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고, 입는 것에 따뜻함을 구하면서 ‘반드시 살기를 도모하고자 하면,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은 마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의 속셈을 따져보면 이미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데도 전하의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아끼는 덕으로 차마 주벌을 가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신과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가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다시 모질게 버티면서 시종일관 거역하고 심지어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한 가지에서 그 정상이 음험하고 참혹함

134) 취각령(吹角令): 변란이나 정변 등 긴급한 사변이 있을 때 각을 불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군사를 대궐 앞에 모이게 한 제도.

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은 비록 감히 건강부회하는 말로써 아될 수는 없지만, 역적 이찬이 죽기 전에 사나운 바람과 괴상한 비가 열흘 동안 크게 일어나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라가 산천이 갈라지고, 죽은 후에는 날씨가 맑아져서 해와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아, 하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가 나라를 대적할 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더욱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자진하였기에 국법이 아직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노가 아직도 절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처를 풀어주라는 명이 있습니다. 전하가 용서해 주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이고, 신들이 고집하는 것은 공법(公法)입니다. 국법이 막중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격렬해 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역적 이찬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十二日 庚午

- 院啓. 大司諫吳載紹, 正言尹行元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12일(경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대사간 이경양(李敬養) 등의 계

- 사간원이 대사간 오재소(吳載紹), 정언 윤행원(尹行元)¹³⁵의 말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국청.

135) 윤행원(1732~?): 본관 파평(坡平). 자 백춘(伯春).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대사간, 우승지, 대사성 역임.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十二日 庚午

- 義禁府啓目, 本府所管全羅道罪人未放秩乙良, 依啓聞施行事. 傳曰, 依回啓施行爲旆, …… 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等, 既已停啓之後, 宜有參恕之道, 竝出陸爲良如教.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12일(경오)

□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육지로 나오게 하라는 전교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의금부 소관 전라도 죄인에 대해 풀어줄 부류와 풀어주지 않을 부류를 장계에 보고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며, 〈중략〉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 등은 이미 정계(停啓)¹³⁶⁾한 후이니 마땅히 참작하여 용서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두 육지로 나오도록 전교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정배, 윤홍렬.

136) 정계(停啓): 죄인의 죄상을 왕에게 연달아 주계하다가 사실이 틀렸거나 사건이 뒤집힐 경우 계속 주계하기를 정지하는 것 또는 전계(傳啓) 속에서 죄인의 명단을 삭제하는 것을 말함.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十三日 辛未

- 閏六月十三日辰時，晴，上御熙政堂。…… (行大司憲鄭好仁，行副提學吳載純，大司諫吳載紹，校理朴天衡·李謙彬，副校理鄭宇淳，正言尹行元，修撰黃昇源·姜忱，副修撰宋煥億·金憲)又所啓，噫，今番窮凶諸賊，誠往牒所無之變，而逆禳，以王室近親，名出凶徒之推戴，宮城吹角，舉國鼎沸，宗社危如一髮，禍機迫在呼吸，渠若有一分臣子之心，固當卽地減死，而食求其飽，衣求其煖，必欲圖生，復見天日等說，若有所恃者然。究厥心腸，已極萬萬叵測，而以殿下至仁至愛之德，不忍加誅，至使大臣·禁堂，往問於渠，則猶復頑忍不動，終始拒逆，至曰我豈可死，卽此一節，尤可見其情狀之陰慘矣。臣等雖不敢以傳會之說仰陳，而逆禳未死之前，寧風怪雨，浹日大作，折木飛瓦，山川決裂，及其物故之後，天氣開霽，日星昭朗。噫，天心如此，其爲對國之敵，於此尤可驗矣。渠既自盡，王章未伸，輿憤方切，而遽有其妻全釋之命，殿下之所貸者私恩，臣等之所執者公法，邦憲莫嚴，群情益激。請還寢逆禳妻放釋之命，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籍產一依法典舉行。上曰，不允。…… 憲府啓，行大司憲鄭好仁所啓，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爛漫和通之狀，渠既明白納招，則豈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於好生之德意，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憲府)又所啓，罪人趙岬，以物故罪人械之弟，今番諸逆之陰凶情節，萬無不知之理，而抵賴不服，端緒未究，遽有酌處之命，王章未伸，輿憤益切。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又所啓，罪人南興老，以逆述之狎客，隨在謫所，究其情狀，已極萬萬叵測，而又於逆範輩，聚會信德家之時，渠亦同席，則陰慘情跡，宜無不知之理，而終始抵賴，忍杖不服，誠極痛惋，遽有酌處之命，輿情益切駭憤。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 諫院啓，大司諫吳載紹，正言尹行元所啓，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13일(신미)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등의 계

- 윤6월 13일 진시. 맑음.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중략> (행 대사헌 정호인(鄭好仁), 행 부제학 오재순(吳載純), 대사간 오재소(吳載紹), 교리 박천형(朴天衡)·이겸빈(李謙彬), 부교리 정우순(鄭宇淳), 정언 윤행원(尹行元), 수찬 황승원(黃昇源)·강침(姜忱), 부수찬 송환억(宋煥億)·김희(金憲)가) 또 아뢰기를, “아, 이번에 흉악한 역적들은 참으로 지난 역사에 없던 변고입니다. 그런데 역적 이찬(李攢)은 왕실의 가까운 친족으로 이름이 흉악한 무리들의 추대에 나왔으니, 궁성에서는 취각령(吹角令)¹³⁷⁾을 내리고 온 나라가 들끓어 종묘사직이 한 올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듯 화란의 조짐이 눈 앞에 닥쳤었습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로 마땅히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고, 입는 것에 따뜻함을 구하면서 ‘반드시 살기를 도모하고자 하면,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은 마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의 속셈을 따져보면 이미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데도 전하의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아끼는 덕으로 차마 주벌을 가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신과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가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다시 모질게 버티면서 시종일관 거역하고 심지어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한 가지에서 그 정상이 음험하고 참혹함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은 비록 감히 건강부회하는 말로써 아뢰 수는 없지만, 역적 이찬이 죽기 전에 사나운 바람과 괴상한 비가 열흘 동안 크게 일어나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라가 산천이 갈라지고, 죽은 후에는 날씨가 맑아져서 해와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아, 하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가 나라를 대적할 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더욱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자진하였기에 국법이 아직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노가 아직도 절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처를 풀어주라는 명이 있습니다. 전하가 용서해 주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이고, 신들이 고집하는 것은 공법(公法)입니다. 국법이 막중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격렬해 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역적 이찬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서 행 대사헌 정호인의 말로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

137) 취각령(吹角令): 변란이나 정변 등 긴급한 사변이 있을 때 각을 불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군사를 대궐 앞에 모이게 한 제도.

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서 또 아뢰기를, “죄인 조우(趙嶠)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岾)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꺾이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서 대사간 오재소, 정언 윤행원의 말로 아뢰기를,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조우, 남흥로, 김수현, 처단.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十九日 丁丑

- 蔡弘履,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放未放回啓判付內, …… 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竝出陸事, 命下矣. …… 楸子島定配罪人尹弘烈, 全羅道康津縣出陸,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19일(정축)

□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윤홍렬(尹弘烈)을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채홍리(蔡弘履)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도의 방미방회계(方未放回啓)의 판부(判付)¹³⁸의 내용에 〈중략〉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육지로 나오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중략〉 추자도 정배죄인 윤홍렬을 전라도 강진현(康津縣)으로 출륙하고, 전 죄목에 따라서 관례대로 본부의 서리를 보내어 그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정배죄인, 윤홍렬, 강진현, 출륙.

138) 판부(判付):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문안(文案)을 임금이 윤허하여 허락함.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二日 庚辰

- 大司憲金魯鎮, 司諫洪彦喆, 持平金翊休, 正言李洪載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2일(경진)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김노진(金魯鎭) 등의 계

- 대사헌 김노진(金魯鎭)¹³⁹,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김익휴(金翊休), 정언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가산, 적몰.

139) 김노진(1735~1788): 본관 강릉(江陵), 자 성침(聖瞻). 1757년(영조 33) 문과 급제. 승지, 대사헌, 형조판서 역임. 저서 《강화부지(江華府誌)》.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二日 庚辰

- 大司憲金魯鎮, 持平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2일(경진)

□ 대사헌(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김노진(金魯鎭) 등의 계

- 대사헌 김노진(金魯鎭), 지평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二日 庚辰

- 司諫洪彦喆, 正言李洪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2일(경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 등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 정언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三日 辛巳

- 司諫洪彦喆, 持平金翊休, 正言李洪載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3일(신사)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 등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김익휴(金翊休), 정언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三日 辛巳

- 持平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6월 23일(신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김익휴(金翊休)의 계

- 지평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三日 辛巳

- 司諫洪彦喆, 正言李洪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3일(신사)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 등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 정언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四日 壬午

- 司諫洪彦喆, 持平金翊休·徐有鍊, 正言李洪載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4일(임오)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 등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김익휴(金翊休)·서유련(徐有鍊)¹⁴⁰, 정언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제주, 정배, 가산, 적몰.

140) 서유련(1744~1803): 본관 대구(大丘). 자 여강(汝剛). 1796년(정조 20)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四日 壬午

- 持平徐有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4일(임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의 죄를 청하는 지평 서유련(徐有鍊)의 계

- 지평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국청.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四日 壬午

- 正言李洪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4일(임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언 이홍재(李洪載)의 계

- 정언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五日 癸未

- 司諫洪彦喆, 持平金翊休·徐有鍊, 正言李洪載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5일(계미)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 등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 지평 김익휴(金翊休)·서유련(徐有鍊), 정언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五日 癸未

- 持平金翊休·徐有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5일(계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의 죄를 청하는 지평 김익휴(金翊休) 등의 계

- 지평 김익휴(金翊休)·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국청.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五日 癸未

- 司諫洪彦喆, 正言李洪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5일(계미)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 정언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八日 丙戌

- 鄭民始, 以司僕寺官員, 以一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各樣進上馬八十八匹內, 三匹船中故失, 實納馬八十五匹, 禾毛色別單書入, 而貢獻事體, 何等重大, 而今年所納馬, 比前體小駑劣, 事極寒心, 當該封進牧使,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8일(병술)

□ 체구가 작고 노둔한 진상마를 봉진한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대해 추고경책(推考警責)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초기

- 정민시(鄭民始)가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일제조(一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先運) 각종 진상마 88필 가운데 3필이 배에서 고실(故失)하여 실제로 바친 말 85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면서, 공헌(貢獻)하는 일의 체모가 얼마나 중대한데 올해 바친 말이 전에 비해 체구가 작고 노둔하여 매우 한심한 일이니, 봉진한 해당 목사들을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제주목사, 추고.

❖ 乾隆 四十三年 戊戌 閏六月 二十八日 丙戌

- 戊戌閏六月二十八日卯時，上御誠正閣．都承旨入侍時，行都承旨洪國榮，記事官柳孟養·徐龍輔·金勉柱，以次進伏訖．…… 上曰，今番濟州貢馬，體小驚劣云．馬畜不敷而然耶？封進不謹而然耶？國榮曰，聞濟州消息，則近來馬畜，頗不蕃息，故封進馬雖極擇，如是瘦劣云矣．……

❖ 정조 2년(1778) 무술년 윤6월 28일(병술)

□ 제주(濟州)의 공마(貢馬)가 체구가 작고 노둔한 이유에 대해 답하는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의 계

- 무술년(1778) 윤6월 28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서용보(徐龍輔)·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제주(濟州)의 공마(貢馬)가 체구가 작고 노둔하다고 한다. 마축(馬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봉진(封進)을 삼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라고 하였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제주의 소식을 들으니, 근래 마축이 상당히 번식되지 않은 까닭에 봉진하는 말을 지극히 잘 골랐다 해도 이와같이 형편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공마, 노둔, 번식.

❖ 乾隆 四十二年 七月 一日 戊子

- 以申大權爲引儀, …… 金健修爲大靜縣監, …….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1일(무자)

□ 김건수(金健修)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신대권(申大權)을 인의(引儀)로 삼고, 〈중략〉 김건수(金健修)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김건수, 대정현감.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二日 己丑

- (李鎭衡)又以司僕寺官員, 以一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歲貢馬二百匹內, 二匹到海南致斃, 一匹致[到]陽城致斃, 一匹到水原到[致]斃, 一匹到衿川病留, 實納馬一百九十五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2일(기축)

□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진형(李鎭衡)이 또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일제조(一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세공마(後運歲貢馬) 200필 가운데 2필은 해남(海南)에 도착하여 죽고, 1필은 양성(陽城)에 도착하여 죽고, 1필은 수원(水原)에 도착하여 죽고, 1필은 금천(衿川)에 도착하여 병들어 남겨져서 실제 바치는 말 195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별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三日 庚寅

- 又以吏曹言啓曰, 新除授大靜縣監金健修呈狀內, 矣身父今年治滿七十, 揆以法例, 不得冒赴, 斯速入啓變通云. 親年七十歲以上者, 勿差三百里外遠邑守令, 載在法典, 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3일(경인)

□ 새로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된 김건수(金健修)의 개차(改差)를 청하는 이조의 초기

- 또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된 김건수(金健修)의 정장(呈狀)의 내용에, ‘저의 아버지가 금년 70세가 넘었으니, 법례로 헤아려 볼 때 함부로 부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속히 입계(入啓)하여 변통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는 300리 밖의 먼 고을에 차임하지 말도록 법전에 실려 있으니, 규례대로 개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김건수, 개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四日 辛卯

○ 以李東泰爲修撰, …… 金重玉爲大靜縣監, …….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4일(신묘)

□ 김중옥(金重玉)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동태(李東泰)를 수찬(修撰)으로 삼고, 〈중략〉 김중옥(金重玉)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김중옥, 대정현감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十三日 庚子

- 持平李延年, 正言宋銓·林道浩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13일(경자)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이연년(李延年) 등의 계

- 지평 이연년(李延年), 정언 송전(宋銓)·임도호(林道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十三日 庚子

- 持平李延年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堧,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13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堧),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이연년(李延年)의 계

- 지평 이연년(李延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堧)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十三日 庚子

- 正言宋銓·林道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13일(경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언 송전(宋銓) 등의 계

- 정언 송전(宋銓)·임도호(林道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十九日 丙午

- 大司憲李衍祥, 持平李延年, 正言宋銓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19일(병오)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지평 이연년(李延年), 정언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十九日 丙午

- 大司憲李衍祥, 持平李延年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19일(병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등의 계

- 대사헌 이연상(李衍祥), 지평 이연년(李延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十九日 丙午

- 正言宋銓·林道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19일(병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언 송전(宋銓) 등의 계

- 정언 송전(宋銓)·임도호(林道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二十日 丁未

- 李義翊,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以範, 丁酉戊戌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封進事體, 何等嚴重, 而二匹俱爲體小品劣之中, 一匹則病蹇, 事極駭然, 監牧官金以範, 分付牧使, 從重決棍, 以懲日後,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20일(정미)

- 품질이 좋지 않은 말을 봉진(封進)한 제주(濟州) 산마감목관 김이범(金以範)의 죄를 청하는 사복시의 초기

- 이의익(李義翊)이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일·이제조(一二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산마감목관 김이범(金以範)이 정유년(1777)과 무술년(1778) 조로 봉진(封進)하는 말 2필이 금방 올라왔기에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면서 전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진하는 일의 체모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데 2필 모두 체구가 작고 품질이 떨어지는 가운데, 1마리는 병이 들어 절뚝거리니 심히 놀랍습니다. 감목관 김이범을 목사로 하여금 분부하여 중하게 곤장으로 처벌하여 후일을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이범, 봉진, 곤장.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七月 三十日 丁巳

- 李義翊,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孟鳴遠, 參酌定配, 尹昌鼎減死定配事, 命下矣. 罪人孟鳴遠, 慶尙道固城縣定配, 罪人尹昌鼎咸鏡道慶源府減死定配,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尹昌鼎, 以慶尙道定配所, 孟鳴遠以咸鏡道定配所, 後樂以濟州定配所後, 草記, 範升以北邊定配事, 分付刑曹.

❖ 정조 2년(1778) 무술년 7월 30일(정사)

□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제주(濟州)로 배소를 정한 뒤 초기(草記)하라는 전교

- 이의익(李義翊)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맹명원(孟鳴遠)을 참작하여 정배(定配)하고, 윤창정(尹昌鼎)을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맹명원을 경상도 고성현에 정배하고, 죄인 윤창정을 함경도 경원부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되, 전교의 내용대로 죄목을 갖추고 규례대로 본부 나장을 보내어 각기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창정을 경상도로 배소를 정하고, 맹명원을 함경도로 배소를 정하고, 한후락(韓後樂)¹⁴¹을 제주(濟州)로 배소를 정한 뒤 초기(草記)하고, 범승은 북변에 정배하도록 형조에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후락, 제주, 정배.

141) 한후락(1728~?): 본관 청주(淸州). 자 희문(希文). 1762년(영조 38)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사간원 정원 역임. 1778년(정조 2) 동생 한후익이 음모를 계획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때 연좌되어 국문(鞠問)을 당하였고, 그 결과 유배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一日 戊午

- 又以義禁府言啓曰, …… 後樂以濟州定配所後, 草記事, 命下矣. …… 罪人後樂, 全羅道濟州牧定配. 而已爲發配於興陽縣鹿島鎮, 發遣府羅將, 所到處執捉. 仍令押送于濟州牧,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1일(무오)

□ 죄인 한후락(韓後樂)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한후락(韓後樂)을 제주(濟州)로 배소를 정한 뒤 초기(草記)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죄인 후락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해야 하는데, 이미 흥양현(興陽縣) 녹도진(鹿島鎭)의 배소로 떠났으니, 본부 나장을 보내어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잡아서 그대로 제주목으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후락, 제주, 정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一日 戊午

- 持平柳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薪智島荐棘罪人瑩中, 設鞫嚴問, 快施當律.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1일(무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유의(柳誼)의 계

- 지평 유의(柳誼)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五日 己巳

- 鄭民始, 以禮曹言啓曰, 濟州牧使封進宗廟薦新青橘, 卽三月令, 而因領來校吏, 漂到蘇州, 今始來納. 看品物種, 則全數腐枯, 實不合於薦進,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勿爲薦進.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5일(기사)

□ 표류로 지연된 제주(濟州)의 종묘 천신용 청귤(靑橘)의 처리를 묻는 예조의 초기

- 정민시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封進)한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청귤(靑橘)은 곧 3월령인데, 영솔하여 오던 교리(校吏)가 소주(蘇州)에 표류하였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와서 바쳤습니다. 품질을 보니 물종이 모두 부패하고 말라서 실로 천신으로 올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찌 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천진(薦進)하지 말라고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봉진, 청귤, 교리, 표류.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五日 己巳

- (鄭民始)又以司饗院官員，以監饈提調意啓曰，濟州牧所封進上二月令槌鰻·條鰻·引鰻及三月令槌鰻·引鰻，去五月十三日，已爲來到捧入，而二月令青橘，則因其時陪持人漂風，未及捧入矣。漂風諸人，今始來到，而青橘及兩朔諸物種，亦皆來納。故臣卽爲看品，則本牧膳狀，旣已漂失，青橘，舉皆枯朽，槌鰻·條鰻·引鰻，亦皆腐傷。循例捧入，極涉未安，何以爲之？敢稟。傳曰，勿爲捧入。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5일(기사)

□ 표류로 지연된 제주(濟州)의 2월령 청귤(靑橘) 등의 처리를 묻는 사옹원의 초기

- 정민시(鄭民始)가 또 사옹원 관원이 전하는 감선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하여 올린 2월령 추복(槌鰻)·조복(條鰻)·인복(引鰻) 및 3월령 추복·인복이 지난 5월 13일 이미 도착하여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월령 청귤(靑橘)은 그 당시 배지인(陪持人)이 바람에 표류하여 미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표류했던 사람들이 지금에야 비로소 도착하였는데, 청귤 및 양삭(兩朔)의 모든 물종을 또한 와서 바쳤습니다. 때문에 신이 즉시 품질을 살펴 본즉 본목(本牧)의 선장(膳狀)은 표실(漂失)되었고, 청귤은 모두 마르고 썩었으며, 추복·조복·인복 또한 모두 썩고 상하였습니다. 규례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심히 마음이 편치 못하니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봉진, 청귤, 추복, 배지인, 표류.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五日 己巳

- 李義翊, 以備邊司言啓曰, 北京回還漂人, 全羅道濟州人高守萬等四十一名, 樂安人秦光春, 京城人李辰雄等三名, 洪忠道稷山人崔昌起, 公山人金得生等合四十六名, 縣次替送, 纔已上來. 故使本司郎廳, 詳細問情後, 所供辭緣, 別單書入, 而今無留置更問之事, 京城人外, 其餘四十三名下去時, 分付沿路各道, 使之善爲饋食, 所騎刷馬, 次次替給之意, 亦爲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5일(기사)

- 북경에서 돌아온 제주인(濟州人) 고수만(高守萬) 등이 내려갈 때 연로(沿路)의 각 도에 분부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초기

- 이의익(李義翊)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북경(北京)에서 돌아온 표류인으로 전라도 제주인(濟州人) 고수만(高守萬) 등 41명, 낙안인 진광춘(秦光春), 경성인 이진웅(李辰雄) 등 3명, 홍충도 직산인 최창기(崔昌起), 공산인 김득생(金得生) 등 도합 46명이 현(縣)에서 차례로 교대하며 보내어 방금 막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본사의 낭청 하여금 정황을 상세히 묻게 한 뒤에 공초한 내용을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겨 두어 다시 물을 일이 없으니, 경성인 외에 그 나머지 43명이 내려갈 때에 연로(沿路)의 각 도에 분부하여 음식을 잘 먹이고, 타고 갈 쇠마(刷馬)를 차례차례 교체하여 주도록 또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¹⁴²⁾

△ 주제어: 표류, 고수만.

142) 《비변사등록》 정조 2년 8월 4일자 기사와 《정조실록》 정조 2년 8월 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五日 己巳

- (徐有防)又以義禁府言啓曰, 洪忠監司徐有隣牒報及洪州前牧使柳爛成冊內, 窮凶極惡大逆不道罪人量海子秉成, 出繼於其十一寸章海懸錄, 故依律免絞.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所以入矣. 卽接洪忠監司追後牒報, 則以爲洪州牧使所報內, 秉成出繼公文及帳籍, 更爲詳細相考, 亦爲推問于秉成・秉禮等, 則秉成養父章海, 死後出繼. 至於禮斜之後, 渠之養母又死, 無所依着, 故持其禮斜, 還依生家. 而禮斜父書, 竝入於今番搜探文書中, 章海戶籍, 夫妻俱沒已久, 別無可據. 量海帳籍, 無秉成出繼與否區別之事云. 莫重應坐之凶孽, 在法當絞者之出繼與否, 既無可據公文則不可免絞而爲奴, 正法罪人量海搜探文書, 方在本府. 秉成出繼禮斜有無, 詳考後, 依律舉行,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5일(기사)

□ 정의현(旌義縣)에 배소(配所)를 정한 죄인 홍양해(洪量海)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홍충감사 서유린(徐有隣)의 첩보 및 전 홍주목사 유강(柳綱)의 성책 내용에 극악무도한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홍양해(洪量海)의 아들 홍병성(洪秉成)이 11촌 홍장해(洪章海)에게 출계(出繼)하여 문서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법률대로 교형(絞刑)을 면제하여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배소를 정하여 들였습니다. 방금 홍충감사가 추후에 올린 첩보를 보니, ‘홍주목사가 보고한 내용에 홍병성이 출계한 공문 및 장적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홍병성과 홍병례(洪秉禮) 등에게 추문(推問)하였더니, 홍병성의 양부 홍장해(洪章海)가 죽은 뒤에 출계했다고 합니다. 예조에서 양자의 입양을 허가한 후에 그의 양모 또한 죽어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양자 입양을 허가한 증서를 가지고 도로 생가(生家)에 의탁하였습니다. 양자 입양을 허가한 증서와 아비의 편지는 모두 이번 수탐(搜探)한 문서 가운데 들어있는데, 홍장해의 호적은 부부가 모두 죽은 지 오래되어 특별히 근거할 만한 것이 없고, 홍양해의 장적에는 홍병성의 출계 여부를 구별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죄를 받아야 할 막중한 흉악(凶孽)로서 법에 교형이 마땅한 자의 출계 여부를 근거할 만한 공문이 없으니 교형을 면하여 노(奴)가 될 수 없습니다. 정법죄인(正法罪人) 홍양해를 수탐한 문서가 지금 본부에 있으니 홍병성의 출계에 대해 예조에서 허가한 증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살펴본 후에 법률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양해, 홍병성, 정의현, 배소.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五日 己巳

- 李義翊,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洪忠監司徐有隣牒報及洪州前牧使柳爛成冊, 則窮凶極惡大逆不道罪人量海諸人, 查出以來矣. 子秉成, 出繼於其十一寸章海云. 依律免絞, 全羅道濟州牧旌義縣爲奴. …… 姪子秉義, 全羅道興陽縣呂島流三千里安置. …… 姪子寅德, 南海縣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捉囚於洪州牧云. 竝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秉義·寅德, 大靜·旌義, 散配, 嚴飭押送. 亦令本牧使, 各別防戢, 罪人範聖, 亦以濟州先散配後草記.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5일(기사)

□ 죄인 홍병의(洪秉義) 등을 대정현(大靜縣) 등에 나누어 정배(定配)하라는 전교

- 이의익(李義翊)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홍충감사 서유린(徐有隣)의 첩보 및 전 홍주목사 유강(柳綱)의 성책을 보니, 극악무도한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홍양해(洪量海) 등 여러 사람을 조사했는데, 아들 홍병성(洪秉成)이 그 11촌 홍장해(洪章海)에게 출계하였다고 합니다. 법률대로 교형을 면하여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의 노(奴)로 삼겠습니다. <중략> 조카 홍병의(洪秉義)를 전라도 홍양현(興陽縣) 여도(呂島)에 유(流) 3,000리 안치(安置)하겠습니다. <중략> 조카 홍인덕(洪寅德)을 남해현(南海縣)에 유(流) 3,000리 안치하되, 위 죄인들이 홍주목(洪州牧)에 잡혀 갇혀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병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홍병의와 홍덕의는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에 나누어 정배하도록 하여 단단히 타일러 압송하도록 하고 또한 본 목사로 하여금 각별히 방지하게 하라. 죄인 윤범성(尹範聖) 또한 제주에 먼저 나누어 정배한 후에 초기(草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양해, 홍병성, 홍병의, 홍인덕, 윤범성.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五日 己巳

- (李義翊)又以義禁府言啓曰, 秉義·寅德, 大靜·旌義散配事, 命下矣. 罪人秉義, 全羅道濟州牧大靜縣散配. 罪人寅德, 旌義縣散配. 而竝令刑曹, 嚴飭押送, 亦令濟州牧使, 各別防戢事, 分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5일(기사)

□ 죄인 홍병의(洪秉義)와 홍인덕(洪寅德)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이의익(李義翊)이)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홍병의(洪秉義)와 홍인덕(洪寅德)을 대정(大靜)과 정의(旌義)로 나누어 정배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홍병의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정배하고, 죄인 홍인덕을 정의현(旌義縣)에 정배하되, 아울러 형조로 하여금 엄히 단단히 타일러 압송하게 하고, 또한 제주목사(濟州牧使)로 하여금 각별히 방지하도록 분부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병의, 홍인덕, 대정현, 정의현, 정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五日 己巳

- (李義翊)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範聖, 特爲減死定配於絶島, 以濟州先發配後草記事, 命下矣. 罪人範聖, 全羅道濟州牧減死定配,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5일(기사)

□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으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이의익(李義翊)이)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하고, 제주로 먼저 배소로 보낸 뒤에 초기(草記)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윤범성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되 전교 내의 내용대로 죄목을 갖추어 즉시 나장을 보내어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범성, 제주목,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五日 己巳

- (李義翊)又以義禁府言啓曰, 臣等來會本府, 考見窮凶極惡大逆不道罪人量海搜探文書, 則量海子秉成, 出繼禮斜公文, 果爲同入矣. 罪人秉成, 依當初本府啓辭, 依律免絞, 全羅道濟州牧旌義縣爲奴, 而今方捉囚於洪州牧云. 令刑曹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5일(기사)

□ 죄인 홍병성(洪秉成)을 정의현(旌義縣)으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이의익(李義翊)이)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신들이 본부에 와서 모여 지극히 흉악한 대역부도 죄인 홍양해(洪量海)을 수탐(搜探)한 문서를 살펴보니, 홍양해의 아들 홍병성(洪秉成)이 출계(出繼)한 것에 대해 예조에서 허가한 공문이 과연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죄인 홍병성을 당초 본부의 계사대로 법률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을 면하여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노(奴)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주목(洪州牧)에 잡아 가두었다고 하니, 형조로 하여금 배소로 압송하게 할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병성, 정의현,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五日 己巳

- (徐有防)又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窮凶極惡大逆不道罪人量海姪秉善, 咸鏡道甲山府, 流三千里緣坐安置, 令刑曹押送配所事, 命下矣. 依傳教罪人秉善, 卽爲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濟州牧定配所押送.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5일(기사)

- 죄인 홍병선(洪秉善)을 함경도 갑산부(甲山府)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에 대해 제주목(濟州牧)으로 배소를 정하여 압송하라는 전교
- 서유방(徐有防)이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로 인하여 극악무도한 대역 부도 죄인 홍양해(洪量海)의 조카 홍병선(洪秉善)을 함경도 갑산부(甲山府)로 유(流) 3,000리로 연좌(緣坐)하여 안치하고, 형조로 하여금 배소로 압송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죄인 홍병선을 즉시 배소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제주목(濟州牧)으로 배소를 정하여 압송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병선, 제주목,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五日 己巳

- 申應顯, 以刑曹言啓曰, 罪人秉善, 以濟州牧定配所押送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秉善, 全羅道濟州牧定配所, 待城門開,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5일(기사)

□ 죄인 홍병선(洪秉善)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으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신응현(申應顯)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홍병선(洪秉善)을 제주목(濟州牧)을 배소를 정하여 압송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죄인 홍병선을 전라도 제주목으로 배소를 정하고,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즉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병선, 제주목,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六日 癸亥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洪忠監司徐有隣牒報及成冊, 則大逆不道罪人鏐, 應坐諸人查出以來矣. 妻順丁, 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婢. 妾千愛, 羅州牧黑山島爲婢. 女甲順, 濟州牧大靜縣爲婢. 子甲亨年七, 依律免絞, 濟州牧旌義縣爲奴. 竝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 子衡之, 自捕廳移囚本府, 而出繼與否, 已爲行查本道, 待其查啓, 依律舉行. 子昌甲年十七, 捉囚結城縣云.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 依律處絞,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6일(계해)

□ 죄인 심혁(沈鑣)에 연좌해야 할 처 순정(順丁), 아들 갑돌(甲覲) 등의 처리에 관한 의금부의 초기

-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홍충감사 서유린(徐有隣)의 첩보와 성책을 보니, 대역부도 죄인 심혁(沈鑣)에 연좌해야 할 사람들을 조사해 내었습니다. 처 순정(順丁)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비(婢)로 삼고, 첩 천애(千愛)를 나주목 흑산도로 비로 삼고, 딸 갑순(甲順)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비로 삼으며, 아들 갑돌(甲覲)은 나이 7세이므로 법률에 따라 교형(絞刑)을 면하여 제주목 정의현(旌義縣)에 노(奴)로 삼고, 아울러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겠습니다. <하락>.”라고 하였다.

△ 주제어: 심혁, 순정, 갑돌, 추자도, 대정현, 정의현,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六日 癸亥

- 徐有防,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窮凶極惡大逆不道罪人量海子秉成, 出繼免絞, 全羅道濟州牧旌義縣爲奴. …… 姪子秉義, 全羅道濟州牧大靜縣流三千里安置. 姪子寅德, 旌義縣流三千里安置. 令刑曹押送配所, 而亦令本牧使, 各別防戢, 命下矣. 罪人秉成等, 方囚洪州牧, 令道臣卽爲押送配所. 亦令濟州牧使, 各別防戢事, 竝爲發關. 分付于兩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6일(계해)

□ 죄인 홍병성(洪秉成) 등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 계사로 인하여 극악무도한 대역 부도 죄인 홍양해(洪量海)의 아들 홍병성(洪秉成)이 출계(出繼)하였기에 교형(絞刑)을 면하여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노(奴)로 삼고, 〈중략〉 조카 홍병의(洪秉義)를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大靜縣)에 유(流) 3,000리 안치(安置)하며, 조카 홍인덕(洪寅德)을 정의현에 유 3,000리 안치하여 형조로 하여금 배소로 압송하게 하고, 또한 본 목사로 하여금 각별히 방지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홍병성 등이 지금 홍주목(洪州牧)에 갇혀 있으니 감찰사로 하여금 즉시 배소로 압송하도록 하고, 또한 제주목사(濟州牧使)로 하여금 각별히 방지하도록 아울러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양 도(道)의 관찰사에게 분부하도록 하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병성, 홍인덕, 정의현, 홍병의, 대정현,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七日 甲子

- 又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鏐妻順丁, 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婢. 妾千愛, 羅州牧黑山島爲婢. 女甲順, 濟州牧大靜縣爲婢. 子甲丕, 年未滿免絞, 旌義縣爲奴. 竝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事, 命下矣. 罪人順丁等, 捉囚結城縣云. 竝卽押送配所事發關, 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7일(갑자)

□ 죄인 심혁(沈鏐)의 처 순정(順丁) 등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

-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로 인하여 대역 부도 죄인 심혁(沈鏐)의 처 순정(順丁)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비(婢)로 삼고, 첩 천애(千愛)를 나주목 흑산도에 비로 삼고, 딸 갑순(甲順)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비(婢)로 삼으며, 아들 갑돌(甲丕)은 나이가 차지 않아서 교형(絞刑)을 면하여 정의현(旌義縣)에 노(奴)로 삼아서 아울러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순정 등이 결성현(結城縣)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모두를 즉시 배소로 압송하도록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순정, 갑순, 갑돌,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七日 甲子

- 司諫呂善亨, 持平洪履健啓曰, …… 請逆禰妻放釋之命,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籍産, 一依法典舉行. 答曰, 亟停勿煩. 【措辭見上】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7일(갑자)

□ 역적 이찬(李禰)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여선형(呂善亨) 등의 계

- 사간 여선형(呂善亨), 지평 홍이건(洪履健)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禰)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七日 甲子

- 持平洪履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措辭見上】 答曰, 不允. 又啓曰, 後樂旣以後翼爲弟, 且以量·鏐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游辭漫漶, 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子子極蠹蠹, 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曰, 並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7일(갑자)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죄를 청하는 지평 홍이건(洪履健)의 계

- 지평 홍이건(洪履健)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鏐)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七日 甲子

- 司諫呂善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又啓曰, …… 範聖以逆淵之至親黨附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 <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也?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答曰, 竝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7일(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여선형(呂善亨)의 계

- 사간 여선형(呂善亨)이 아뢰기를, “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¹⁴³⁾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모두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¹⁴⁴⁾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143)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144) 《정조실록》 정조 2년 9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十一日 戊辰

- 持平李思祚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罪人趙嶠, 以物故罪人峽之弟, 今番諸逆之陰凶情節, 萬無不知之理, 而抵賴不服, 端緒未究, 遽有酌處之命, 王章未伸, 輿憤益切.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罪人南興老, 以逆逆之狎客, 隨在謫所, 究其情狀, 已極萬萬叵測, 而又於逆範輩, 聚會信德家之時, 渠亦同席, 則陰慘情跡, 宜無不知之理, 而終始抵賴, 忍杖不服, 誠極痛惋, 遽有酌處之命, 輿情益切駭憤.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後樂既以後翼爲弟, 且以量·鍊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游辭漫漶, 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了了極蠢蠢, 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11일(무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지평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죄인 조우(趙嶠)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峽)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깨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꺾이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鑠)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국문.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二十六日 癸未

- 徐有防, 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鑊子衡之, 依下教, 全羅道濟州牧, 更定配所, 而令刑曹依例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26일(계미)

□ 죄인 심혁(沈鑊)의 아들 심형지(沈衡之)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대역 부도 죄인 심혁(沈鑊)의 아들 심형지(沈衡之)를 하교한 대로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배소를 다시 정하였습니니다. 형조로 하여금 규례대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심혁, 심형지, 제주목,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二十六日 癸未

- 又以刑曹言啓曰, 因左右捕盜廳啓辭, 奴丁男爲奴, 奴石奉・十月金, 定配次, 移送秋曹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奴丁男,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定配, 奴石奉濟州牧, 奴十月金旌義縣, 竝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26일(계미)

□ 죄인 노 정남(丁男) 등을 대정현(大靜縣) 등으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좌우 포도청의 계사로 인하여 노(奴) 정남(丁男)을 노(奴)로 삼고, 노 석봉(石奉)과 십월금(十月金)을 정배하기 위해 형조로 이송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죄인 노 정남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아 정배하고, 노 석봉을 제주목에, 노 십월금을 정의현(旌義縣)에 모두 배소를 정하여 즉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남, 석봉, 십월금, 정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二十七日 甲申

- 徐有防,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鍊子衡之, 全羅道濟州牧, 更定配所, 令刑曹押送事, 命下矣. 傳教罪人衡之, 卽爲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27일(갑신)

□ 죄인 심형지(沈衡之)를 제주목(濟州牧)으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로 인하여 대역 부도 죄인 심혁(沈錫)의 아들 심형지(沈衡之)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으로 배소를 고쳐 정하고 형조로 하여금 압송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죄인 심형지를 즉시 배소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심혁, 심형지, 제주목,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二十八日 乙酉

- 大司諫蔡弘履, 持平李延伋啓曰, …… 請逆禰妻放釋之命,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產一依法典舉行. 答曰, 亟停勿煩.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28일(을유)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간 채홍리(蔡弘履)¹⁴⁵⁾, 지평 이연급(李延伋)¹⁴⁶⁾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145) 채홍리(1737~1806): 본관 평강(平康). 자 사술(士述). 호 기천(岐川).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양주목사, 강원감사, 강화유수 역임.

146) 이연급(1731~?): 본관 연안(延安). 자 군미(君美).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八月 二十八日 乙酉

- 持平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鞠, 期於得情. …… 答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8월 28일(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연급(李延伋)의 계

- 지평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국문.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一日 丁亥

- 大司諫蔡弘履, 掌令尹弼秉, 持平李延伋·李夔, 正言林道浩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1일(정해)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간 채홍리(蔡弘履), 장령 윤필병(尹弼秉), 지평 이연급(李延伋)·이기(李夔), 정언 임도호(林道浩)¹⁴⁷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147) 임도호(?~?): 본관 나주(羅州). 자 자유(子由). 대사간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一日 丁亥

- 掌令尹弼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1일(정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윤필병(尹弼秉)의 계

- 장령 윤필병(尹弼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五日 辛卯

- 有政. …… (吏批)又啓曰, 濟州牧使, 今當差出, 而本州以海島重地之, 不可不各別擇差, 他道閩帥, 竝擬,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5일(신묘)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차출에 타 도(道)의 곤수(閩帥)를 아울러 의망(擬望)하는 것을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정사(政事)가 있었다. 〈중략〉 이비(吏批)가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금 차출(差出)해야 하는데, 본주(本州)는 해도(海島)로써 중요한 지방이기에 가려서 차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도(道)의 곤수(閩帥)¹⁴⁸를 아울러 의망(擬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차출, 곤수, 의망.

148) 곤수(閩帥):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五日 辛卯

○ 以徐有隣爲大司憲, …… 金永綬爲濟州牧使, …….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5일(신묘)

□ 김영수(金永綬)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서유린(徐有隣)을 대사헌(大司憲)에 삼고, 〈중략〉 김영수(金永綬)¹⁴⁹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김영수, 제주목사.

149) 김영수(1716~1786): 본관 안동(安東). 1744년(영조 20) 무과 급제. 남도 병마절도사, 제주목사(1778.9.~1781.2.)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六日 壬辰

- 大司憲徐有隣, 司諫朴天衡, 掌令高益擎, 持平鄭淵淳, 正言嚴思憲啓曰, …… 請逆禰妻,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6일(임진)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등의 계

- 대사헌 서유린(徐有隣), 사간 박천형(朴天衡), 장령 고익경(高益擎), 지평 정연순(鄭淵淳), 정언 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六日 壬辰

- 掌令高益擎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6일(임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장령 고익경(高益擎)의 계

- 장령 고익경(高益擎)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六日 壬辰

- 正言嚴思憲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6일(임진)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죄를 청하는 정언 엄사헌(嚴思憲)의 계

- 정언 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十一日 丁酉

- (徐有防)又以刑曹言啓曰, 捕廳罪人奴一才·卜男·福伊, 絶島爲奴, 勿揀赦令, 罪人弼海遠配, 高老味絶島爲奴, 皆令當日舉行後草記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奴一才全羅道濟州牧, 奴卜男大靜縣, 奴福伊羅州牧黑山島, 竝絶島爲奴, 勿揀赦令, 高老味靈巖郡楸子島絶島爲奴, 弼海慶尙道蔚山府遠配, 竝待城門開,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11일(정유)

□ 죄인 노(奴) 일재(一才) 등을 제주목(濟州牧) 등으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포도청의 죄인 노(奴) 일재(一才)·복남(卜男)·복이(福伊)를 절도(絶島)에 노로 삼되, 사령(赦令)에 구애받지 말고, 죄인 홍필해(洪弼海)를 원배(遠配)하고, 고노미(高老味)를 절도에 노로 삼아서 모두 당일에 거행하게 한 후 초기(草記)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죄인 노 일재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노 복남을 대정현(大靜縣)에, 노복이를 나주목 흑산도에 아울러 절도에 노로 삼되 사령에 구애받지 말고, 고노미를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절도에 노로 삼고, 홍필해를 경상도 울산부에 원배하되, 모두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일재, 복남, 고노미,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十二日 戊戌

- (徐有防)又以刑曹言啓曰, 捕廳罪人志遜參酌定配, 李德杓·鄭德涵·孫景完·趙命禧·金德麟絶島散配, …… 草記事, 命下矣. 依傳教, …… 孫景完, 濟州牧旌義縣, 趙命禧, 珍島郡, 金德麟, 順天府防踏, 竝絶島散配, …… 竝待城門開,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趙命禧·金德麟, 大靜·濟州分配.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12일(무술)

□ 죄인 손경완(孫景完) 등을 정의현(旌義縣) 등으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포도청 죄인 지손(志遜)을 참작하여 정배(定配)하고, 이덕표·정덕함·손경완(孫景完)·조명희(趙命禧)·김덕린(金德麟)을 절도(絶島)에 산배(散配)하고 <중략> 초기(草記)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중략> 손경완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조명희를 진도군(珍島郡)에, 김덕린을 순천부(順天府) 방답(防踏)으로 아울러 절도에 산배하되, <중략> 모두를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조명희·김덕린은 대정(大靜)과 정의(濟州)에 나누어 정배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손경완, 조명희, 김덕린, 정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十二日 戊戌

- (徐有防)又以刑曹言啓曰, 罪人趙命禧·金德麟, 大靜縣·濟州分配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趙命禧全羅道濟州牧大靜縣, 金德麟濟州牧, 竝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12일(무술)

□ 죄인 조명희(趙命禧) 등을 대정현(大靜縣) 등으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조명희(趙命禧)·김덕린(金德麟)을 대정현(大靜縣)과 제주(濟州)에 나누어 정배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죄인 조명희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에, 김덕린을 제주목에 아울러 배소를 정하여 즉시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명희, 김덕린, 대정현, 제주목, 정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日 丁丑[丙午]

- 持平柳誼, 正言安廷玪啓曰, …… 請還寢逆瓚妻放釋之命,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產一依法典舉行.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0일(정축[병오])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죄를 청하는 지평 유의(柳誼) 등의 계

- 지평 유의(柳誼),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풀어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日 丁丑[丙午]

- 持平柳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0일(정축[병오])

□ 대정현(大靜縣) 죄인 김수현(金壽賢), 추자도(楸子島) 죄인 조우(趙嶠), 정의현(旌義縣) 죄인 남흥로(南興老)의 죄를 청하는 지평 유의(柳誼)의 계

- 지평 유의(柳誼)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국청.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日 丁丑[丙午]

- 正言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範聖以逆淵之至親, 黨附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布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0일(정축[병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안정현(安廷玹)의 계

- 정언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¹⁵⁰⁾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150)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四日 庚戌

- 戊戌九月二十四日辰時，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尙喆，左議政徐命善，右議政鄭弘淳，行知中樞府事具善復，行戶曹判書具允鉅，行知中樞府事李重祐，行兵曹判書李徽之，知敦寧金孝大，工曹判書權導，行副司直鄭光漢，行副司直鄭好仁，禮曹判書金華鎮，行訓練都正李國賢，左尹徐浩修，行副司直李衍祥，行都承旨洪國榮，行左承旨鄭民始，行副司直柳翬，大司憲李埤，大司諫洪秉續，司諫沈命德，副校理洪明浩，正言安廷玹，持平柳誼，假注書李度謙，事變假注書朴奎淳，記事官金勉柱·李信祐，以次進伏訖。…… 埤等曰，噫，今番窮凶諸賊，誠往牒所無之變，而逆瀆以王室近親，名出凶徒之推戴，宮城吹角，舉國鼎沸，宗社危如一髮，禍機迫在呼吸，渠若有一分臣子之心，固當卽地滅死，而食求其飽，衣求其煖，必欲圖生，復見天日等說，若有所恃者然，究厥心腸，已極萬萬叵測，而以殿下至仁至愛之德，不忍加誅，至使大臣禁堂，往問於渠，則猶復頑忍不動，終始拒逆，至曰我豈可死？卽此一節，尤可見其情狀之陰慘矣。臣等雖不敢以傳會之說仰陳，而逆瀆未死之前，獐風怪雨，浹日大作，折木飛瓦，山川決裂，及其物故之後，天氣開霽，日星昭朗，噫，天心如此，其爲對國之敵，於此尤可驗矣。渠旣自盡，王章未伸，輿憤方切，而遽有其妻全釋之命，殿下之所貸者私恩，臣等之所執者公法，邦憲莫嚴，群情益激，請還寢逆瀆妻放釋之命，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籍產一依法典舉行。上曰，不允。…… 埤·誼等曰，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爛漫和通之狀，渠旣明白納招，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埤等曰，罪人趙岵，以物故罪人峽之弟，今番諸逆之陰凶情節，萬無不知之理，而抵賴不服，端緒未究，遽有酌處之命，王章未伸，輿憤益切，請楸子島定配罪人趙岵，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埤等曰，罪人南興老，以逆述之狎客，隨在謫所，究其情狀，已極萬萬叵測，而又於逆範輩聚會信德家之時，渠亦同席，則陰慘情跡，宜無不知之理，而終始抵賴，忍杖不服，誠極痛惋，遽有酌處之命，輿情益切駭憤，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 埤等曰，後樂旣以後翼爲弟，且以量·鏐爲黨，則凶謀逆節，必無不知之理，而親問之下，遊辭漫漶，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肆然納供，究其情節，極爲叵測，不可以不了了極蠢蠢而有所容貸，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亟令王府更加嚴鞫，期於得情。上曰，不允。…… 埤等曰，爲奴罪人一才·卜男·福伊，俱以志恒之奴屬，暗聽志恒之指使，講張凶言，

傳播遐方, 其所窮凶極惡之情節, 三尺至嚴, 萬戮猶輕, 請濟州牧爲奴罪人一才, 大靜縣爲奴罪人卜男, 黑山島爲奴罪人福伊, 竝令王府嚴鞫, 依律處斷. 上曰, 不允. 秉纘·命德·廷玪等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秉纘等曰, 範聖以逆淵之至親, 黨附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4일(경술)

□ 역적 이찬(李攢)의 처 등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이갑(李岬) 등의 계

- 무술년(1778) 9월 24일 진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기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정홍순(鄭弘淳),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鈺), 행 지중추부사 이중호(李重祐), 행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지돈녕 김효대(金孝大), 공조판서 권도(權導), 행 부사직 정광한(鄭光漢),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 훈련도정 이국현(李國賢), 좌윤 서호수(徐浩修), 행 부사직 이연상(李衍祥),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행 부사직 유당(柳戇), 대사헌 이갑(李岬), 대사간 홍병찬(洪秉纘), 사간 심명덕(沈命德), 부교리 홍명호(洪明浩), 정언 안정현(安廷玪), 지평 유의(柳誼), 가주서 이도겸(李度謙), 사변가주서 박규순(朴奎淳), 기사관 김면주(金勉柱)·이신호(李信祐)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갑¹⁵¹⁾ 등이 아뢰기를, “아, 이번에 흉악한 역적들은 참으로 지난 역사에 없던 변고입니다. 그런데 역적 이찬(李攢)은 왕실의 가까운 친족으로 이름이 흉악한 무리들의 추대에 나왔으니, 궁성에서는 취각령(吹角令)¹⁵²⁾을 내리고 온 나라가 들끓어 종묘사직이 한 올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듯 화란의 조짐이 눈 앞에 닥쳤습

151) 이갑(1737~1795): 본관 연안(延安). 자 신경(信卿).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병조판서, 형조판서, 판의금부사 역임.

152) 취각령(吹角令): 변란이나 정변 등 긴급한 사변이 있을 때 각을 불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군사를 대궐 앞에 모이게 한 제도.

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고, 입는 것에 따듯함을 구하면서 ‘반드시 살기를 도모하고자 하면,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은 마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의 속셈을 따져보면 이미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데도 전하의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아끼는 덕으로 차마 주벌을 가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신과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가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다시 모질게 버티면서 시종일관 거역하고 심지어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한 가지에서 그 정상이 음험하고 참혹함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은 비록 감히 건강부회하는 말로써 아뢰 수는 없지만, 역적 이찬이 죽기 전에 사나운 바람과 괴상한 비가 열흘 동안 크게 일어나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라가 산천이 갈라지고, 죽은 후에는 날씨가 맑아져서 해와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아, 하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가 나라를 대적할 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더욱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자진하였기에 국법이 아직 퍼지지 않아 여론의 분노가 아직도 절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처를 풀어주라는 명이 있습니다. 전하가 용서해 주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이고, 신들이 고집하는 것은 공법(公法)입니다. 국법이 막중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격렬해 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역적 이찬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갑·유의 등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갑 등이 아뢰기를, “죄인 조우(趙嶠)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賊)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퍼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갑 등이 아뢰기를,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건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갑 등이 아뢰기를,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鑠)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갑 등이 아뢰기를, “노(奴)가 된 죄인 일재(一才)·복남(卜男)·복이(福伊)는 모두 장지항(張志恒)의 노속(奴屬)으로 장지항의 사주를 몰래 듣고서 흉언(凶言)을 지어내어 먼 지방에 전파하였으니, 그 극도로 흉악한 정절(情節)은 지엄한 법으로 한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노가 된 죄인 일재,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복남(卜男), 흑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홍병찬¹⁵³⁾·심명덕¹⁵⁴⁾·안정현 등이 아뢰기를,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한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153) 홍병찬(?~?): 본관 남양(南陽). 이조참판, 대사성, 이조참판 역임.

154) 심명덕(1724~?): 본관 청송(靑松). 자 성유(聖有).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병찬 등이 아뢰기를,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¹⁵⁵⁾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조우, 남흥로, 김수현, 한후락, 일재, 복남, 윤범성.

155)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六日 壬子

- 兩司合啓, 大司憲李埤, 大司諫洪秉纘, 司諫沈命德, 持平柳誼·宋銓, 獻納金東淵, 正言安廷玪啓曰, …… 噫, 今番窮凶諸賊, 誠往牒所無之變, 而逆瀆以王室近親, 名出凶徒之推戴, 宮城吹角, 舉國鼎沸, 宗社危如一髮, 禍機迫在呼吸, 渠若有一分臣子之心, 固當卽地滅死, 而食求其飽, 衣求其煖, 必欲圖生, 復見天日等說, 若有所恃者然, 究厥心腸, 已極萬萬叵測, 而以殿下至仁至愛之德, 不忍加誅, 至使大臣禁堂, 往問於渠, 則猶復頑忍不動, 終始拒逆, 至曰我豈可死, 卽此一節, 尤可見其情狀之陰慘矣. 臣等雖不敢以傳會之說仰陳, 而逆瀆未死之前, 寧風怪雨, 浹日大作, 折木飛瓦, 山川決裂, 及其物故之後, 天氣開霽, 日月昭朗, 噫, 天心如此, 其爲對國之敵, 於此尤可驗矣. 渠旣自盡, 王章未伸, 輿情方切, 而遽有其妻全釋之命, 殿下之所貸者私恩, 臣等之所執者公法, 邦憲莫嚴, 群情益激, 請還寢逆瀆妻放釋之命, 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產一依法典舉行. …….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6일(임자)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이갑(李埤), 대사간 홍병찬(洪秉纘), 사간 심명덕(沈命德), 지평 유의(柳誼)·송전(宋銓), 헌납 김동연(金東淵)¹⁵⁶,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아, 이번에 흉악한 역적들은 참으로 지난 역사에 없던 변고입니다. 그런데 역적 이찬(李攢)은 왕실의 가까운 친족으로 이름이 흉악한 무리들의 추대에 나왔으니, 궁성에서는 취각령(吹角令)¹⁵⁷을 내리고 온 나라가 들끓어 종묘사직이 한 울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듯 화란의 조짐이 눈 앞에 닥쳤었습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고, 입는 것에 따뜻함을 구하면서 ‘반드시 살기를 도모하고자 하면,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은 마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의 속셈을 따져보면 이미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데도 전하의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아끼는 덕으로 차마 주벌을 가하지 못하고, 심지어

156) 김동연(1724~?): 본관 언양(彦陽). 1768년(영조 44) 문과 급제. 장령, 사간, 집의 역임.

157) 취각령(吹角令): 변란이나 정변 등 긴급한 사변이 있을 때 각을 불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군사를 대궐 앞에 모이게 한 제도.

어 대신과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가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다시 모질게 버티면서 시종일관 거역하고 심지어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한 가지에서 그 정상이 음험하고 참혹함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은 비록 감히 견강부회하는 말로써 아뢰 수는 없지만, 역적 이찬(李攢)이 죽기 전에 사나운 바람과 괴상한 비가 열흘 동안 크게 일어나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라가 산천이 갈라지고, 죽은 후에는 날씨가 맑아져서 해와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아, 하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가 나라를 대적할 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더욱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자진하였기에 국법이 아직 퍼지지 않아 여론의 분노가 아직도 절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처를 풀어주라는 명이 있습니다. 전하가 용서해 주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이고, 신들이 고집하는 것은 공법(公法)입니다. 국법이 막중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격렬해 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역적 이찬의 처를 풀어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六日 壬子

- 府啓, 持平宋銓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罪人趙岫, 以物故罪人峽之弟, 今番諸逆之陰凶情節, 萬無不知之理, 而抵賴不服, 端緒未究, 遽有酌處之命, 王章未伸, 輿憤益切, 請揪子島定配罪人趙岫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罪人南興老, 以逆述之狎客, 隨在謫所, 究其情狀, 已極萬萬叵測, 而又於逆範輩聚會信德家之時, 渠亦同席, 則陰慘情跡, 宜無不知之理, 而終始抵賴, 忍杖不服, 誠極痛惋, 遽有酌處之命, 輿情益切駭憤,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後樂既以後翼爲弟, 且以量·鏊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遊辭漫漶, 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了了極蠢蠢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絕島爲奴罪人一才·卜男·福伊, 俱以志恒之奴屬, 暗聽志恒之指使, 譸張凶言, 傳播遐方, 其所窮凶極惡之情節, 三尺至嚴, 萬戮猶輕, 請濟州牧爲奴罪人一才, 大靜縣爲奴罪人卜男, 黑山島爲奴罪人福伊, 竝令王府嚴鞫依律處斷. 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6일(임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죄인 조우(趙岫)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峽)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鑠)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절도(絶島)에 노가 된 죄인 일재(一才)·복남(卜男)·복이(福伊)는 모두 장지항(張志恒)의 노속(奴屬)으로 장지항의 사주를 몰래 듣고서 흉언(凶言)을 지어내어 먼 지방에 전파하였으니, 그 극도로 흉악한 정절(情節)은 지엄한 법으로 한번 죽여도 오리혀 가볍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노가 된 죄인 일재,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복남(卜男), 흑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일재, 복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六日 壬子

- 院啓, 大司諫洪秉續, 司諫沈命德, 正言安廷炫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範聖以逆淵之至親, 黨附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之,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 <罪> 人範聖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6일(임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었다. 대사간 홍병찬(洪秉續), 사간 심명덕(沈命德), 정언 안정현(安廷炫)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¹⁵⁸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158)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七日 癸丑

- 兩司合啓, 大司憲李埤, 大司諫洪秉纘, 司諫沈命德, 持平柳誼・宋銓, 獻納金東淵,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禩妻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産, 一依法典舉行. …… 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7일(계축)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이갑(李埤), 대사간 홍병찬(洪秉纘), 사간 심명덕(沈命德), 지평 유의(柳誼)・송전(宋銓), 헌납 김동연(金東淵),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七日 癸丑

- 府啓, 持平柳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濟州牧爲奴罪人一才, 大靜縣爲奴罪人卜男, 黑山島爲奴罪人福伊拉令王府嚴鞫, 依律處斷. 【以上措語見上】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7일(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지평 유의(柳誼)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岬)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노가 된 죄인 일재(一才), 대정현(大靜縣)에 노가 된 죄인 복남(卜男), 흑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상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일재, 복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七日 癸丑

- 院啓, 司諫沈命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7일(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었다. 사간 심명덕(沈命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八日 甲寅

- 兩司合啓, 大司憲李垺, 司諫沈命德, 持平柳誼·宋銓, 獻納金東淵, 正言安廷玪啓曰, …… 請逆禩妻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 籍沒家產, 一依法典舉行. …… 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8일(갑인)

□ 역적 이찬(李攢)의 처의 처벌을 청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아뢰었다. 대사헌 이갑(李垺), 사간 심명덕(沈命德), 지평 유의(柳誼)·송전(宋銓), 헌납 김동연(金東淵),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역적 이찬(李攢)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찬 처, 제주, 정배, 가산, 적몰.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八日 甲寅

- 府啓, 持平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岫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請,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濟州牧爲奴罪人一才, 大靜縣爲奴罪人卜男, 黑山島爲奴罪人福伊拉令王府嚴鞫, 依律處斷. 【以上措語見上】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8일(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지평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노가 된 죄인 일재(一才),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복남(卜男), 흑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상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일재, 복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八日 甲寅

- 院啓, 正言安廷玪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8일(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었다. 정언 안정현(安廷玪)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九日 乙卯

- 李養鼎, 以義禁府言啓曰, …… 罪人安處京還發配所 …… 命下矣. …… 罪人安處京靈巖郡楸子島還發配所, 而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9일(음묘)

□ 죄인 안처경(安處京)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이양정(李養鼎)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죄인 안처경(安處京)을 배소로 도로 보내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죄인 안처경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배소로 다시 보내되,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안처경, 추자도, 배소, 압송.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二十九日 乙卯

- 院啓, 獻納金東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29일(음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었다.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九月 三十日 丙辰

- 戊戌九月三十日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鄭弘淳, 兼漢城府判尹蔡濟恭, 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具允鉦, 左參贊洪樂性, 右參贊李重祜, 行兵曹判書李徽之, 行副司直鄭光漢, 行副司直鄭好仁, 禮曹判書金華鎮, 開城留守兪彥鎬, 訓練都正李國賢, 行都承旨洪國榮, 刑曹參判徐浩修, 行副司直李普行, 行刑曹參議柳懋, 司諫沈命德, 獻納金東淵, 正言安廷玼, 校理李泰永, 同副承旨金魯淳, 假注書李度謙, 事變假注書朴奎淳, 記事官金勉柱·李信祐, 以次進伏訖. …… 尙喆曰, 耽羅一島, 與他島有異, 島中之人, 不得出居陸地, 陸地之人, 不得入居島中, 俱是禁法, 而雖以傳聞言之, 八路人之入居島中者, 其數甚多, 則元居島民之出居陸地, 推此亦可知矣. 此專由於前後守土之官, 多不能奉行邦禁之致, 固已萬萬駭歎, 而至於京外無賴之輩, 假托商賈之名, 出沒無常, 種鍾驚駭之消息, 至入於廟堂之聽, 事當即請行查, 以法重繩, 而雖以目下騷擾之慮, 姑俟前頭按廉之行, 若其船隻去來之際, 商賈出入之間, 有可以及時察飭者, 則本州牧使, 其何敢一向泛視, 自抵畢竟重罪乎? 苟有不可不變通者, 而牧使或不能自斷, 則出意見論理狀聞之意, 爲先分付, 何如? 上曰, 所奏甚好, 另加嚴飭, 此後如或不遵法式, 如有所現發, 則該牧使難免重繩, 該道監司亦難免嚴勘, 以此亦爲嚴飭, 可也. 【出舉條】 …… 命德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命德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9월 30일(병진)

- 제주도(濟州島)에 시행되는 금법(禁法)의 단속을 청하는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의 계와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심명덕(沈命德)의 계
- 무술년(1778) 9월 30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의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정홍순(鄭弘淳), 검 한성부판윤 채제공(蔡濟恭),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鉦), 좌참찬 홍낙성(洪樂性), 우참찬 이중호(李重祜), 행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행 부사직 정광한(鄭光漢),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 김화진(金華鎭), 개성유수 유언호(兪彦鎬), 훈련도정

이국현(李國賢),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형조참판 서호수(徐浩修), 행 부사 직 이보행(李普行), 행 형조참의 유당(柳戇), 사간 심명덕(沈命德), 헌납 김동연(金東淵), 정언 안정현(安廷玆), 교리 이태영(李泰永), 동부승지 김노순(金魯淳), 가주서 이도겸(李度謙), 사변가주서 박규순(朴奎淳), 기사관 김면주(金勉柱)·이신호(李信祐)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상철이 아뢰기를, “탐라(耽羅)는 다른 섬과 달라서 섬 안의 백성들이 육지에 나가 살지 못하고, 육지 사람이 섬 안에 들어가 사는 것 모두 금하는 법령입니다. 그런데, 전해 들은 것으로 말하더라도 팔도의 사람 가운데 섬에 들어가 사는 자의 수가 매우 많으니, 원래 섬에 사는 백성이 육지에 나와 사는 것도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전후의 수령이 나라의 금법(禁法)을 봉행하지 못한 소치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실로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경외(京外)의 무뢰배들에 이르러서는 장사꾼이라는 이름을 가탁하여 무상(無常)으로 출몰하면서 종종 놀랄 만한 소식이 묘당(廟堂)에 들려옴에 이르렀습니다. 마땅히 즉시 조사하여 법으로써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당장 소요가 생겨날 염려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있을 안렴(按廉)의 행차를 기다려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배가 가고올 때, 장사꾼이 나고 드는 사이에 때에 맞추어 단단히 타일러 경계할 만한 것이 있다면 본주 목사가 어찌 한결같이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겨서 스스로 끝내 중죄를 범하는 데에 이르겠습니까? 만약에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목사가 혹 스스로 결단할 수 없다면 의견을 내어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라는 뜻을 우선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¹⁵⁹⁾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 바가 매우 좋으니 별도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라. 이후로 혹 법을 준수하지 않아 만약 적발되는 바가 있으면 해당 목사는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해당 도의 관찰사 또한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이것으로 또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중략〉 심명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명덕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출륙, 금법, 김수현, 윤범성, 처단.

159) 이상은 《정조실록》 정조 2년 9월 3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十四日 庚子[庚午]

- 獻納金東淵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又啓曰, 範聖, 以逆淵之至親, 黨付極賊, 締結凶徒, 日夜綢繆, 情跡叵測, 雖以渠之供辭觀之, 諸賊之前後謀議, 無不參涉, 無不聞知, 凶肚逆腸, 綻露無餘, 則肆市之典, 烏可已乎? 雖以大聖人好生之德, 特降酌處之命, 而三尺至嚴, 決難容貸.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0월 14일(경자[경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김동연(金東淵)의 계

-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¹⁶⁰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160)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十七日 癸酉

- 大司憲李坤，大司諫金思穆，司諫李度默，持平李延伋·朴聖泰，校理李鼎揆，正言尹行元，修撰曹遠振，副修撰李儒慶啓曰，…… 噫，今番窮兇諸賊，誠往牒所無之變，而逆禮，以王室近親，名出兇徒之推戴，宮城吹角，舉國鼎沸，宗社危如一髮，禍機迫在呼吸，渠若有一分臣子之心，固當卽地滅死，而食求其飽，衣求其煖，必欲圖生，復見天日等說，若有所情者，然究厥心腸，已極萬萬叵測，而以殿下至仁至愛之德，不忍加誅，至使大臣·禁堂，往問於渠，則猶復頑忍不動，終始拒逆，至曰我豈可死，卽此一節，尤可見其情狀之陰慘矣。臣等雖不敢以傳會之說仰陳，而逆禮未死之前，寧風怪雨，浹日大作，折木飛瓦，山川決裂，及其物故之後，天氣開霽，日星昭朗。噫，天心如此，其爲對國之敵，於此尤可驗矣。渠旣自盡，王章未伸，輿憤方切，而遽有其妻全釋之命，殿下之所貸者私恩，臣等之所執者公法，邦憲莫嚴，群情益激。請還寢逆禮妻放釋之命，依金吾初定濟州地定配，籍產，一依法典舉行。…… 朴聖泰啓曰，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兇徒，爛熳[爛漫]和通之狀，渠旣明白納招，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於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罪人趙岬，以物故罪人峽之弟，今番諸逆之陰兇情節，萬無不知之理，而抵賴不服，端緒未究，遽有酌處之命，王章未伸，輿憤益切。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決正王法。罪人南興老，以逆述之狎客，隨在謫所，究其情狀，已極萬萬叵測，而又於逆範輩，聚會信德家之時，渠亦同席，則陰慘情跡，宜無不知之理，而終始抵賴，忍杖不服，誠極痛惋，遽有酌處之命，輿情益切駭憤。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決正王法。…… 後樂，旣以後翼爲弟，且以量·鏊爲黨，則凶謀逆節，萬無不知之理，而親問之下，遊辭漫漶，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肆然納供，究其情節，極爲叵測，不可以不了了，極蠢蠢，而有所容貸。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亟令王府，更加嚴鞫，期於得情。…… 爲奴罪人一才·卜男·福伊，俱以志恒之奴屬，暗聽志恒之指使，譸張凶言，傳播遐方，其所窮凶極惡之情節，三尺至嚴，萬戮猶輕。請濟州牧爲奴罪人一才，大靜縣爲奴罪人卜男，黑山島爲奴罪人福伊，竝令王府嚴鞫，依律處斷。答曰，不允。尹行元啓曰，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範聖以逆淵之至親，黨付[附]極賊，締結凶徒，日夜綢繆，情跡叵測，雖以渠之供辭

觀之，諸賊之前後謀議，無不參涉，無不聞知，凶肚逆腸，綻露無餘，則肆市之典，烏可已乎？雖以大聖人好生之德，特降酌處之命，而三尺至嚴，決難容貸。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依律處斷。…….

❖ 정조 2년(1778) 무술년 10월 17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이갑(李埜) 등의 계

- 대사헌 이갑(李埜), 대사간 김사목(金思穆)¹⁶¹, 사간 이도묵(李度默)¹⁶², 지평 이연급(李延級)·박성태(朴聖泰), 교리 이정규(李鼎揆)¹⁶³, 정언 윤행원(尹行元), 수찬 조원진(曹遠振)¹⁶⁴, 부수찬 이유경(李儒慶)¹⁶⁵이 아뢰기를, “〈상략〉아, 금번 흉악한 역적들은 참으로 지난 역사에 없던 변고입니다. 그런데 역적이찬은 왕실의 가까운 친족으로 이름이 흉악한 무리들의 추대에 나왔으니, 궁성에서는 취각령(吹角令)¹⁶⁶을 내리고 온 나라가 들끓어 종묘사직이 한 올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듯 화란의 조짐이 눈 앞에 닥쳤었습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고, 입는 것에 따뜻함을 구하면서 ‘반드시 살기를 도모하고자 하면,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은 마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의 속셈을 따져보면 이미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데도 전하의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아끼는 덕으로 차마 주벌을 가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신과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가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다시 모질게 버티면서 시종일관 거역하고 심지어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한 가지에서 그 정상이 음험하고 참혹함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은 비록 감히 건강부회하는 말로써 아뢰 수는 없지만, 역적 이찬(李攢)이 죽기 전에 사나운 바람과 괴상

161) 김사목(1740~1829): 본관 경주(慶州). 자 백심(伯深). 호 운소(雲巢).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황해도관찰사, 예조판서, 우의정 역임.

162) 이도묵(1736~?): 본관 연안(延安). 자 사신(士愼). 1770년(영조 46) 문과 급제. 의주부윤, 대사간, 예방승지 역임.

163) 이정규(1735~1810): 본관 여주(驪州). 자 공택(公宅). 호 양한당(養閑堂). 1768년(영조 44) 문과 급제. 대사간, 병조참판, 대사헌 역임.

164) 조원진(1746~?): 본관 창녕(昌寧). 자 구여(久汝).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165) 이유경(1748~1818): 본관 함평(咸平). 자 이선(而善). 호 청심옹(淸心翁).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166) 취각령(吹角令): 변란이나 정변 등 긴급한 사변이 있을 때 각을 불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군사를 대궐 앞에 모이게 한 제도.

한 비가 열흘 동안 크게 일어나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라가 산천이 갈라지고, 죽은 후에는 날씨가 맑아져서 해와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아, 하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가 나라를 대적할 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더욱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자진하였기에 국법이 아직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노가 아직도 절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처를 풀어주라는 명이 있습니다. 전하가 용서해 주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이고, 신들이 고집하는 것은 공법(公法)입니다. 국법이 막중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격렬해 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역적이찬의 처를 의금부에서 처음 정한 제주(濟州)에 정배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한결같이 법전대로 거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박성태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죄인 조우(趙隅)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城)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鑠)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 〈중략〉 노(奴)가 된 죄인 일재(一才)·복남(卜男)·복이(福伊)는 모두 장지항(張志恒)의 노속(奴屬)으로 장지항의 사주를 몰래 듣고서 흉언(凶言)을 지어내어 먼 지방에 전파하였으니, 그 극도로 흉악한 정절(情節)은 지엄한 법으로 한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노가 된 죄인 일재, 대정현(大靜縣)에 노가 된 죄인 복남(卜男), 흑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윤행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한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윤범성(尹範聖)은 윤약연(尹若淵)의 지친(至親)으로 극악한 역적에 붙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밤낮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정적(情跡)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공초(供招)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여러 역적들의 전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고,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흉악한 역심(逆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즉 사시(肆市)¹⁶⁷⁾의 형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성인(大聖人)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특별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찬 처,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일재, 복남, 윤범성.

167)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두는 것.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二十日 丙子

- 鄭民始,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言啓曰, 大靜前縣監金道懋遞任, 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其中一匹, 未免病瘦, 事甚駭然, 當該封進官金道懋,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0월 20일(병자)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김도혁(金道懋)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별단(別單)에 써서 올리면서 김도혁의 추고경책(推考警責)을 청하는 사복시의 초기
- 정민시(鄭民始)가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일·이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김도혁(金道懋)¹⁶⁸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필이 병으로 수척함을 면치 못했으니 일이 심히 놀랍습니다. 해당 봉진관 김도혁을 추고경책(推考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김도혁, 체임진상마, 별단, 추고.

168) 김도혁(?~?): 대정현감으로 1776년(영조 52) 9월 도임하고, 1778년(정조 2) 7월에 체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二十日 丙子

- (鄭民始)又以義禁府言啓曰, 薪智島定配罪人敬彬, 移配濟州牧事, 下教矣. 罪人敬彬, 全羅道濟州牧大靜縣移配, 而依例發遣府羅將, 自薪智島執捉, 仍令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년(1778) 무술년 10월 20일(병자)

□ 죄인 경빈(敬彬)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정민시(鄭民始)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신지도(薪智島)에 정배한 죄인 경빈(敬彬)을 제주목(濟州牧)으로 배소를 옮기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이경빈을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大靜縣)으로 배소를 옮기되, 규례대로 본부 나장을 파견하여 신지도에서 붙잡아 그대로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¹⁶⁹⁾

△ 주제어: 경빈, 대정현, 압송.

169) 《정조실록》 정조 2년 10월 20일자 기사에 관련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二十日 丙子

- 戊戌十月二十日巳時，上御熙政堂。晝講。次對同爲入侍時，知事蔡濟恭，特進官洪樂性，參贊官洪國榮，侍讀官李鼎揆，檢討官李儒慶，假注書李百亨，記事官李信祐·鄭東浚·安昌君燦，行副護軍李漢昌，領議政金尙喆，左議政徐命善，右議政鄭弘淳，兼判尹蔡濟恭，兼刑曹判書具善復，行戶曹判書具允鉷，行左參贊洪樂性，行右參贊李重祐，知敦寧金孝大，司直鄭光漢，禮曹判書金華鎮，訓練都正李國，吏曹參判徐浩修，行都承旨洪國榮，開城留守兪彥鎬，刑曹參議柳憇，行左承旨鄭民始，司諫沈念祖，校理李鼎揆，持平沈豐之，正言鄭淵淳，以次進伏訖。…… 憲·豐之啓曰，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爛漫和通之狀，渠既明白納招，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於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憲府啓，行大司憲鄭好仁)又啓曰，罪人趙岬，以物故罪人峨之弟，今番諸逆之陰凶情節，萬無不知之理，而抵賴不服，端緒未究，遽有酌處之命，王章未伸，輿憤益切，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又啓曰，罪人南興老，以逆述之狎客，隨在謫所，究其情狀，已極萬萬叵測，而又於逆範輩，聚會信德家之時，渠亦同席，則陰慘情跡，宜無不知之理，而終始抵賴，忍杖不服，誠極痛惋，遽有酌處之命，輿情益切駭憤，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 (憲·豐之)又啓曰，後樂，既以後翼爲弟，且以量·鏊爲黨，則凶謀逆節，必無不知之理，而親問之下，遊辭漫漶，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肆然納供，究其情節，極爲叵測，不可以不了了，極蠢蠢，而有所容貸，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亟令王府更加嚴鞫，期於得情。上曰，不允。…… (憲·豐之)又啓曰，爲奴罪人人才·卜男·福伊，俱以志恒之奴屬，暗聽志恒之指使，譸張凶言，傳播遐方，其所窮凶極惡之情節，三尺至嚴，萬戮猶輕，請濟州牧爲奴罪人人才，大靜縣爲奴罪人卜男，黑山島爲奴罪人福伊，竝令王府嚴鞫，依律處斷。上曰，不允。念祖·淵淳啓曰，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 上曰，薪智島定配罪人敬彬，移配濟州牧。【出榻教】……。

❖ 정조 2년(1778) 무술년 10월 20일(병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김희(金熹) 등의 계

- 무술년(1778) 10월 20일 사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과 차대(次對)에 함께 입시할 때 지사 채제공(蔡濟恭), 특진관 홍낙성(洪樂性), 참찬관 홍국영(洪國榮), 시독관 이정규(李鼎揆), 검토관 이유경(李儒慶), 가주서 이백형(李百亨), 기사관 이신호(李信祐)·정동준(鄭東浚)·안창군 이경(李燦), 행 부호군 이한창(李漢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정홍순(鄭弘淳), 겸 판윤 채제공(蔡濟恭), 겸 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鉳), 행 좌참찬 홍낙성(洪樂性), 행 우참찬 이중호(李重祐), 지돈녕 김효대(金孝大), 사직 정광한(鄭光漢), 예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훈련도정 이국(李國),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개성유수 유언호(兪彦鎬), 형조참의 유당(柳戇),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사간 심염조(沈念祖), 교리 이정규(李鼎揆), 지평 심풍지(沈豐之), 정언 정연순(鄭淵淳)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희(金熹)·심풍지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가 아뢰었다. 행 대사헌 정호인이 아뢰기를, “죄인 조우(趙嶠)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城)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깨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퍼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죄인 남흥로(南興老)는 역적 술(述)의 압객(狎客)으로 적소(謫所)에 따라갔는데, 그 정상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역적 범(範)의 무리가 신덕(信德)의 집에 모였을 때 그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음흉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불복하면서 형장(刑杖)을 견디면서까지

승복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여론이 더욱 놀라고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희와 심풍지가 아뢰기를,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鑠)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희와 심풍지가 또 아뢰기를, “노가 된 죄인 일재(一才)·복남(卜男)·복이(福伊)는 모두 장지항(張志恒)의 노속(奴屬)으로 장지항의 사주를 몰래 듣고서 흉언(凶言)을 지어내어 먼 지방에 전파하였으니, 그 극도로 흉악한 정절(情節)은 지엄한 법으로 한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제주목(濟州牧)에 노가 된 죄인 일재,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복남, 흑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심염조와 정염순이 아뢰기를,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한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신지도(薪智島)에 정배된 죄인 경빈(敬彬)을 제주목(濟州牧)으로 배소를 옮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탐교(榻敎)를 냄】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일재, 복남, 이경빈.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二十一日 丁丑

- 戊戌十月二十一日午時, 上御熙政堂. 晝講, 禮曹判書, 詣臺臺臣, 同爲入侍時, 同知事鄭光漢, 特進官沈頤之, 參贊官蔡弘履, 侍讀官李鼎揆, 檢討官李儒慶, 假注書李百亨, 記事官李信祐·鄭東浚, 安春君彬, 行副護軍具明謙, 禮曹判書金華鎮, 持平金憲, 以次進伏訖. …… (憲)又啓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措辭見上】又啓曰,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措辭見上】 …… (憲)又啓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措辭見上】 (憲)又啓曰, 請濟州牧爲奴罪人人才, 大靜縣爲奴罪人卜男, 黑山島爲奴罪人福伊, 竝令王府嚴鞫, 依律處斷. 上曰, 不允.【措辭見上】 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措辭見上】 …… (淵淳啓)又啓曰, 請濟州牧減死配定罪人範聖依律處斷. 上曰, 不允.【措辭見上】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21일(정축)

□ 죄인 조우(趙嶠)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김희(金憲) 등의 계

- 무술년(1778) 10월 21일 오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주강(晝講)에 예조판서와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할 때, 동지사 정광한(鄭光漢), 특진관 심이지(沈頤之), 참찬관 채홍리(蔡弘履), 시독관 이정규(李鼎揆), 검토관 이유경(李儒慶), 가주서 이백형(李百亨), 기사관 이신호(李信祐)·정동준(鄭東浚), 안춘군 이룡(李炯), 행 부호군 구명겸(具明謙), 예조판서 김화진(金華鎭), 지평 김희(金憲)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희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김희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김희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에 노(奴)가 된 죄인 일재(一才), 대정현(大靜縣)에 노가 된 죄인 복남(卜男), 흑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정연순(鄭淵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정연순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조우, 남흥로, 한후락, 일재, 복남,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二十二日 戊寅

- 司諫沈念祖, 持平金憲·沈豐之, 校理李鼎揆, 副校理宋煥億, 正言鄭淵淳, 修撰曹遠振·黃昇源, 副修撰李儒慶啓曰, 請亟寢鄭致達妻減死安置之命, 決正王法, 以洩神人之憤. …… 沈念祖·金憲·沈豐之·鄭淵淳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 …… 金憲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金憲)又啓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岫,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又啓曰,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 (金憲)又啓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措辭見上】 …… (金憲)又啓曰, 請濟州牧爲奴罪人一才, 大靜縣爲奴罪人卜男, 黑山島爲奴罪人福伊, 竝令王府嚴鞫,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沈念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又啓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措辭見上】 ……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22일(무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심염조(沈念祖) 등의 계

- 사간 심염조(沈念祖), 지평 김희(金憲)·심풍지(沈豐之), 교리 이정규(李鼎揆), 부교리 송환억(宋煥億), 정언 정연순(鄭淵淳), 수찬 조원진(曹遠振)·황승원(黃昇源), 부수찬 이유경(李儒慶)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치달의 처를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라는 명을 속히 중지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귀신과 사람을 울분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심염조·김희·심풍지·정연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김희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김희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김희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김희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에 노가 된 죄인 일재(一才),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복남(卜男), 흑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심염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남흥로, 일재, 복남, 윤범성.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二十三日 己卯

- 大司憲趙時俊, 司諫沈念祖, 持平金憲·沈豐之, 校理李鼎揆·宋煥億, 正言鄭淵淳, 修撰黃昇源·曹遠振, 副修撰李儒慶啓曰, 請亟寢鄭致達妻減死安置之命, 決正王法, 以洩神人之憤. …… 趙時俊·沈念祖·金憲·沈豐之·鄭淵淳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 …… 沈豐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沈豐之)又啓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又啓曰,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 (沈豐之)又啓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措辭見上】 …… (沈豐之)又啓曰, 請濟州牧爲奴罪人一才, 大靜縣爲奴罪人卜男, 黑山島爲奴罪人福伊, 竝令王府嚴鞫,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鄭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23일(기묘)

□ 죄인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대사헌 조시준(趙時俊), 사간 심염조(沈念祖), 지평 김희(金憲)·심풍지(沈豐之), 교리 이경규(李鼎揆)·송환억(宋煥億), 정언 정연순(鄭淵淳), 수찬 황승원(黃昇源)·조원진(曹遠振), 부수찬 이유경(李儒慶)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치달의 처를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라는 명을 속히 중지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귀신과 사람을 울분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조시준·심염조·김희·심풍지·정연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심풍지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심풍지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岬)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
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심풍지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
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심풍지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에 노가
된 죄인 일재(一才),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복남(卜男), 흑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정연
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
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남흥로, 일재, 복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二十四日 庚辰

- 持平金憲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岫,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濟州牧爲奴罪人一才, 大靜縣爲奴罪人卜男, 黑山島爲奴罪人福伊, 竝令王府嚴鞫,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정조 1년(1777) 정유년 10월 24일(경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김희(金憲)의 계

- 지평 김희(金憲)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노가 된 죄인 일재(一才), 대정현(大靜縣)에 노가 된 죄인 복남(卜男), 흑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상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일재, 복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二十七日 癸未

- 司諫沈念祖, 持平金憲·沈豐之, 校理李度默, 正言鄭淵淳, 修撰曹遠振·黃昇源, 副修撰李謙彬啓曰, 請亟寢鄭致達妻減死安置之命, 決正王法, 以洩神人之憤. …… 司諫沈念祖, 持平金憲·沈豐之, 正言鄭淵淳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持平沈豐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濟州牧爲奴罪人人才, 大靜縣爲奴罪人卜男, 黑山島爲奴罪人福伊, 並令王府嚴鞫,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司諫沈念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上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0월 27일(계미)

□ 죄인 경빈(敬彬)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심염조(沈念祖) 등의 계

- 사간 심염조(沈念祖), 지평 김희(金憲)·심풍지(沈豐之), 교리 이도묵(李度默), 정언 정연순(鄭淵淳), 수찬 조원진(曹遠振)·황승원(黃昇源), 부수찬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치달의 처를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라는 명을 속히 중지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귀신과 사람을 울분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 심염조, 지평 김희·심풍지, 정언 정연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지평 심풍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간 심염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二十八日 甲申

- 戊戌十月二十八日巳時, 上御熙政堂. 晝講, 詣臺臺臣·下直守令, 同爲入侍時, 同知事李在協, 特進官徐浩修·參贊官蔡弘履, 侍讀官李度默, 檢討官李謙彬, 假注書李百亨, 記事官李信祐·鄭東浚, 凝善君熾, 行副護軍金範勳, 吉州牧使李東曄, 安東縣監洪益弼, 德川郡守李儒敬, 祥原郡守具綜, 清道郡守金常行, 古群山僉使金德峻, 梨峙僉使金雲瑞, 正言鄭淵淳, 以次進伏訖. …… 淵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措辭見上】 …… 又啓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2년(1778) 무술년 10월 28일(갑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정연순(鄭淵淳)의 계

- 무술년(1778) 10월 28일 사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장(晝講)에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과 하직하는 수령이 함께 입시할 때, 동지사 이재협(李在協), 특진관 서호수(徐浩修)·참찬관 채홍리(蔡弘履), 시독관 이도묵(李度默), 검토관 이겸빈(李謙彬), 가주서 이백형(李百亨), 기사관 이신호(李信祐)·정동준(鄭東浚), 응선군 이희(李熾), 행 부호군 김범훈(金範勳), 길주목사 이동엽(李東曄), 안동현감 홍익필(洪益弼), 덕천군수 이유경(李儒敬), 상원군수 구종(具綜), 청도군수 김상행(金常行), 고군산첨사 김덕준(金德峻), 이치첨사 김운서(金雲瑞), 정언 정연순(鄭淵淳)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연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二十九日 乙酉

- 司諫沈念祖, 持平沈豐之, 校理李度默, 修撰曹遠振·黃昇源, 副修撰李謙彬啓曰, 請亟寢鄭致達妻減死安置之命, 決正王法, 以洩神人之憤. …… 沈念祖·沈豐之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沈豐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岫,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設鞫得情, 決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更加嚴鞫, 期於得情. …… 請濟州牧爲奴罪人一才, 大靜縣爲奴罪人卜男, 黑山島爲奴罪人福伊, 竝令王府嚴鞫,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沈念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0월 29일(을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심염조(沈念祖)의 계

- 사간 심염조(沈念祖), 지평 심풍지(沈豐之), 교리 이도묵(李度默), 수찬 조원진(曹遠振)·황승원(黃昇源), 부수찬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치달의 처를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라는 명을 속히 중지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아 귀신과 사람을 울분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심염조·심풍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심풍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노가 된 죄인 일재(一才), 대정현(大靜縣)에 노가 된 죄인 복남(卜男), 흑

산도에 노가 된 죄인 복이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심염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남흥로, 일재, 복남, 윤범성.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月 三十日 丙戌

- 戊戌十月三十日辰時, 上御熙政堂. 三啓覆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行右承旨金用謙, 左副承旨蔡弘履, 右副承旨吳載紹, 同副承旨李在學, 假注書李百亨, 事變假注書朴圭淳, 記事官李信祐・鄭東浚. 東,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兼漢城判尹蔡濟恭, 行戶曹判書具允鉦, 行左參贊洪樂性, 禮曹判書金華鎮, 吏曹參判徐浩修, 校理李度默, 修撰曹遠振, 司諫沈念祖, 持平沈豐之. 西, 領中樞府事李澱, 領敦寧鄭存謙, 仁陽君李景祐, 兼刑曹判書具善復, 安川君桂, 行兵曹判書李徽之, 同知中樞府事沈墜, 刑曹參判鄭一祥, 刑曹參議柳翬, 以次進伏訖. …… 豐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措辭見上】 …… 又啓曰,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措辭見上】 又啓曰,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措辭見上】 …… 又啓曰,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措辭見上】 …… 念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措辭見上】 …… 又啓曰,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措辭見上】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0월 30일(병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심풍지(沈豐之) 등의 계

- 무술년(1778) 10월 30일 진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세 번째 계복(啓覆)에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행 우승지 김용겸(金用謙), 좌부승지 채홍리(蔡弘履), 우부승지 오재소(吳載紹), 동부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이백형(李百亨), 사변가주서 박규순(朴圭淳), 기사관 이신호(李信祐)・정동준(鄭東浚). 동쪽,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겸 한성판윤 채제공(蔡濟恭),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鉦), 행 좌참찬 홍낙성(洪樂性), 예조판서 김화진(金華鎮),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교리 이도묵(李度默), 수찬 조원진(曹遠振), 사간 심염조(沈念祖), 지평 심풍지(沈豐之). 서쪽, 영중추부사 이은(李澱), 영돈녕 정존겸(鄭存謙), 인양군 이경호(李景祐), 겸 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안천군 이계(李桂), 행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동지중추부사 심발(沈墜), 형조참판 정일상(鄭一祥), 형조참의

유당(柳戇)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심풍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심염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윤범성.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一月 七日 癸巳

- 司諫沈念祖, 持平沈樂洙·金憲, 校理李度默, 副校理宋煥億, 正言李泰永·鄭淵淳, 修撰黃昇源·曹遠振啓曰, 請亟寢鄭致達妻, 減死安置之命, 快正王法. 以洩神人之憤. …… 沈念祖·沈樂洙·金憲·李泰永·鄭淵淳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 答曰, 不允. 沈樂洙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李泰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1월 7일(계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심염조(沈念祖)의 계

- 사간 심염조(沈念祖), 지평 심낙수(沈樂洙)·김희(金憲), 교리 이도묵(李度默), 부교리 송환억(宋煥億), 정언 이태영(李泰永)·정연순(鄭淵淳), 수찬 황승원(黃昇源)·조원진(曹遠振)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치달의 처를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심염조·심낙수¹⁷⁰⁾·김희·이태영¹⁷¹⁾·정연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심낙수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岬)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170) 심낙수(1739~1799): 본관 청송(靑松). 자 경문(景文). 호 일환재(一丸齋)·은파(恩坡).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고부제자관, 회천군수, 제주목사 역임. 저서 《은파산고》.

171) 이태영(1744~?): 본관 한산(韓山). 자 사양(士仰).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광주부윤, 장단부사, 경상도관찰사 역임.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태영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윤범성.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一月 十八日 甲辰

- 正言李殷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2년(1778) 무술년 11월 18일(갑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은모(李殷模)의 계

- 정언 이은모(李殷模)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一月 二十日 丙午

- 正言趙鼎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1월 20일(병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정진(趙鼎鎭)의 계

- 정언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一月 二十日 丙午

- 戊戌十一月二十日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右議政鄭弘淳, 兼刑曹判書具善復, 行戶曹判書具允鉦, 左參贊洪樂性, 右參贊李重祜, 吏曹判書洪樂純, 工曹判書權導, 行副司直鄭好仁, 禮曹判書金華鎮, 開城留守俞彥鎬, 訓練都正李國賢, 吏曹參判徐浩修, 行大司成李衍祥, 行都承旨洪國榮, 行副司直李普行, 校理宋煥億, 正言趙鼎鎮, 行左承旨鄭民始, 假注書柳文養, 事變假注書李彥祜, 記事官李信祜·鄭東浚, 以次進伏訖. …… 尙喆曰, 此濟州前牧使黃取彥狀啓也. 以爲今年本島穡事, 均被風災, 新舊還上, 勢難竝督, 舊還姑爲停退, 新還準捧. 各寺奴婢身貢, 減一斗, 男丁大同米減一升, 軍兵操鍊停退, 逃老故病廢之類, 使之隨闕填充, 待明春從附近哨司鍊, 依近例舉行事, 爲辭矣. 此是守臣, 先爲舉行, 依例啓聞者, 依此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1월 20일(병오)

□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입시하여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취언(黃取彦)의 장계에 대해 논의함

- 무술년(1778) 11월 20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기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정홍순(鄭弘淳), 검 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행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鉦), 좌참찬 홍낙성(洪樂性), 우참찬 이중호(李重祜), 이조판서 홍낙순(洪樂純), 공조판서 권도(權導),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 김화진(金華鎭), 개성유수 유언호(俞彦鎬), 훈련도정 이국현(李國賢),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행 대사성 이연상(李衍祥),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부사직 이보행(李普行), 교리 송환억(宋煥億), 정언 조정진(趙鼎鎭),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가주서 유문양(柳文養), 사변가주서 이언호(李彦祜), 기사관 이신호(李信祜)·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상철이 아뢰기를, “이것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황취언(黃取彦)의 장계인데, 금년 본도(本島)의 농사가 고루게 풍재(風災)를 입어 형세상 신규(新舊) 환곡을 아울러 독촉하기 어려우니 묵은 환곡은 우선 정퇴(停退)하고, 새 환곡은 수량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각 시(寺) 노비의 신공(身貢)은 1말을 감하고,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

米)는 1되를 감하며, 군병의 조련은 정퇴(停退)하고, 도망가거나 늙거나 죽거나 병폐(病廢)한 부류는 꺾원이 생기는 대로 채워넣었다가 내년 봄 부근 초사(哨司)의 조련을 기다려 예에 따라 거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신(守臣)이 먼저 거행하고 예에 따라 계문한 것이니 이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¹⁷²⁾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황최언, 장계, 농사, 풍재.

172) 《비변사등록》 정조 2년 11월 2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一月 二十一日 丁未

- 正言趙鼎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1월 21일(정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정진(趙鼎鎭)의 계

- 정언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一月 二十二日 戊申

- 正言趙鼎鎮啓曰,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1월 22일(무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정진(趙鼎鎭)의 계

- 정언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一月 二十三日 己酉

- 戊戌十一月二十三日巳時，上御熙政堂。各司久任郎廳入侍時，左副承旨蔡弘履，假注書柳文養，記事官李信祐·鄭東浚，兵曹正郎朴祐源，戶曹正郎金在鎭，刑曹正郎申光憲，漢城府主簿李宜耆，掌樂院主簿李奎亮，司僕寺僉正李廷恢，判官李敍中，成均館學正宋徵一，軍資監主簿黃延祚，廣興倉副奉事黃枸，成均館典籍趙慶遠，以次進伏訖。…… 廷恢進伏，上下詢職掌。對曰，馬籍色矣。上曰，遺在，幾何？對曰，南廐駕轎馬三十匹，別邊獨轎馬十五匹，走馬十五匹，左邊卜馬三十匹，右邊卜馬三十匹，左網卜馬三十匹，右網卜馬三十匹，濟州及各牧場所放馬一萬八千三百八十八匹矣。上曰，有何所懷？對曰，本寺馬場，在於箭串，而每年各邑分養馬及濟州馬上來之後，以爲放牧喂吃之場，而其中平廣土厚處，則多爲六宮折受，其餘則不過磽确水匯之地，故生芻不得豐茁，衆馬之游吃，每患不足，其在重馬政之道，誠甚可悶。故敢此仰達矣。上曰，以此既爲弊癘，則宜講蘇革之政【出擧條】後日次對，本寺都提調入侍，稟處，可也。【出擧條】上曰，馬場內周廻，爲幾許里耶？對曰，四十里矣。上曰，各宮折受處，十分爲幾分乎？對曰，似爲十分之六七分矣。上曰，一年馬場內放牧之馬，爲幾匹乎？對曰，放四五百匹矣。上曰，然則自惠廳上下於本寺之物，何其多也？對曰，內外寺立把分養馬，多故然矣。上曰，立把分養馬太草價，亦自惠廳上下乎？對曰，然矣。上曰，以濟州馬數多之故，上下之數，如是多乎？對曰，每匹有顧軍價·太草價，而上下之數，惟視其馬匹之多少矣。命退。……

❖ 정조 2년(1778) 무술년 11월 23일(기유)

□ 살곳이[箭串] 마정(馬政)의 폐막에 대한 사복시첨정 이정회(李廷恢)의 계

- 무술년(1778) 11월 23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각사의 구임(久任) 낭청이 입시할 때 좌부승지 채홍리(蔡弘履), 가주서 유문양(柳文養), 기사관 이신호(李信祐)·정동준(鄭東浚), 병조정랑 박우원(朴祐源), 호조정랑 김재진(金在鎭), 형조정랑 신광헌(申光憲), 한성부주부 이의기(李宜耆), 장낙원주부 이규량(李奎亮), 사복시첨정 이정회(李廷恢), 판관 이서중(李敍中), 성균관학정 송징일(宋徵一), 군자감주부 황연조(黃延祚), 광흥창부봉사 황순(黃枸), 성균관전적 조정원(趙慶遠)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정회가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맡은 직무에 대해 물었다. 대답하기를, “마적색(馬籍色)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남아있는 것은 얼마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남구(南厰) 가교마(駕驕馬) 30필, 별변(別邊) 독교마(獨驕馬) 15필, 주마(走馬) 15필, 좌변(左邊) 복마(卜馬) 30필, 우변(右邊) 복마(卜馬) 30필, 좌망(左網) 복마(卜馬) 30필, 우망(右網) 복마(卜馬) 30필, 제주(濟州) 및 각 목장에 방출한 말이 18,388필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소회(所懷)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본시(本寺)의 마장(馬場)은 살곶이[箭串]¹⁷³⁾에 있는데, 매년 각읍 분양마(分養馬) 및 제주마(濟州馬)가 올라온 후에 방목하여 먹이는 목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평평하고 넓으며 토질이 두터운 곳은 대부분 육궁(六宮)¹⁷⁴⁾에 절수(折受)되었고, 그 나머지는 돌과 자갈이 많은 메마른 땅이거나 물이 고이는 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싱싱한 풀이 풍족하게 나오지 않아서 많은 말들이 노닐며 먹음에 늘 부족한 것이 걱정이니 마정(馬政)을 중히 여기는 도리로 볼 때 참으로 심히 민망합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이미 폐막(弊瘼)이 되었으니 마땅히 소생시키는 정사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거조를 내어 후일 차대에 본시 도제조가 입시하여 품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마장 내 둘레는 몇 리쯤 되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40리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 궁(各宮)이 절수(折受)한 곳은 10분의 몇이나 되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10분의 6·7이 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1년에 마장 내에 방목하는 말의 수는 몇 필이 되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4~500필을 방목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선혜청에서 본시에 지급하는 물건은 어찌 그리 많은 것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내시(內寺)와 외시(外寺)에서 입과(立把)¹⁷⁵⁾하여 분양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입과하여 분양한 말의 태초(太草) 값도 선혜청에서 지급하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마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급하는 수도 이와 같이 많은 것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매 필에 고군가(顧軍價)와 태초가(太草價)가 있는데, 지급하는 수량은 마필의 많고 적음에 건주어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했다. <하략>.

△ 주제어: 마적색, 마장, 제주마, 마정, 살곶이.

173) 살곶이: 서울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한강 변에 형성된 초원 지대를 일컫음.

174) 육궁(六宮): 정조 때 육궁은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어의궁(於義宮), 용동궁(龍洞宮), 육상궁(毓祥宮), 의열궁(義烈宮)을 가리키는 뜻함. 이들 궁방(宮房)은 사복시에 속한 목장 주변의 토지를 각각 절수(折受)받아 초장(草場)으로 쓰고 있었음.

175) 입과(立把): 관청의 긴급한 소용(所用)으로 말을 준비하여 두는 것.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一月 二十七日 癸丑

- 傳于蔡弘履曰, 濟州牧使入侍.

❖ 정조 2년(1778) 무술년 11월 27일(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입시하게 하라는 전교

- 채홍리(蔡弘履)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입시.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一月 二十七日 癸丑

- 戊戌十一月二十七日巳時, 上御誠正閣. 濟州牧使入侍時, 行右承旨李鎮衡, 記事官柳孟養·李信祐·鄭東浚, 以次進伏訖. 上命金永綬進前, 下詢職姓名履歷, 永綬仰對. 上曰, 濟州在於海外, 相距絕遠, 朝廷命令之所不及處, 風俗愚頑, 似必難化, 民瘼孔多, 亦難蘇革, 下去善爲釐革, 期有實效. 凡係定配, 最多於此地, 不無解弛之慮, 亦爲嚴加察飭, 商賈雜人出入, 各別禁戢, 可也. 永綬曰, 親承聖教, 當各別調制矣.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1월 27일(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내려가는 김영수(金永綬)에 대한 임금의 하유

- 무술년(1778) 11월 27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입시할 때 행 우승지 이진형(李鎭衡),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이신호(李信祐)·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김영수(金永綬)에게 앞으로 나오도록 명했다. 임금이 직(職), 성명, 이력을 물었다. 김영수가 대답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바다 밖에 있어 거리가 아주 멀어 조정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풍속이 어리석고 완악하여 필시 교화하기가 어렵고, 백성들의 폐막이 아주 많지만 또한 고치기 어려울 듯 하니, 내려가서 잘 개혁하여 실효가 있도록 하라. 무릇 정배(定配)와 관련된 것이 이 지역이 아주 많지만 해이해질 염려가 없지 않으니 또한 엄히 살피고 타일러 경계하고, 상인 잡인들의 출입을 각별히 금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김영수가 아뢰기를, “임금님의 하교를 직접 받들었으니 마땅히 각별히 조제(調制)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하유.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一日 丁巳

- 戊戌十二月初一日辰時, 上御誠正閣. 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記事官柳孟養·李信祐·鄭東俊, 以次進伏訖. …… 命讀濟州漂人狀啓, 國榮讀奏.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1일(정사)

□ 임금의 제주표인장계(濟州漂人狀啓)를 읽게 함

- 무술년(1778) 12월 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기사관 유맹양(柳孟養)·이신호(李信祐)·정동준(鄭東俊)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임금이 명하여 제주표인장계(濟州漂人狀啓)를 읽게 했다. 홍국영이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제주표인장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三日 己未

- 正言李殷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3일(기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은모(李殷模)의 계

- 정언 이은모(李殷模)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十七日 癸酉

- 持平李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椒子島[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17일(계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岬)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十七日 癸酉

- 正言李殷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17일(계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은모(李殷模)의 계

- 정언 이은모(李殷模)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十八日 甲戌

- 持平李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岫,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18일(갑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十八日 甲戌

- 正言趙鼎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18일(갑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정진(趙鼎鎭)의 계

- 정언 조정진(趙鼎鎭)¹⁷⁶⁾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176) 조정진(1732~1792): 본관 풍양(豐壤). 자 사수(士受).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대사헌, 호조판서, 선혜청당상 역임.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十九日 乙亥

- 持平李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岫,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19일(을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十九日 乙亥

- 正言李殷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19일(을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은모(李殷模)의 계

- 정언 이은모(李殷模)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二十日 丙子

- 戊戌十二月二十日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喆, 左議政徐命善, 刑曹判書具善復, 戶曹判書具允鉷, 左參贊洪樂性, 兵曹判書李徽之, 吏曹判書洪樂純, 工曹判書權導, 副司直金孝大, 行副司直鄭好仁, 禮曹判書金華鎮, 訓練都正李國賢, 吏曹參判徐浩修, 大司成李衍祥,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同知中樞府事李普行, 副司直柳戇, 持平李夔, 獻納南鶴聞, 校理金憲, 正言李殷模·趙鼎鎮, 記事官柳孟養, 事變假注書朴師默, 記事官徐龍輔·李信祐, 以次進伏訖. …… 夔·鶴聞·殷模·鼎鎮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上曰, 不允. …… 夔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不允. …… 南鶴聞·李殷模·趙鼎鎮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20일(병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기(李夔) 등의 계

- 무술년(1778) 12월 20일 사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의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서명선(徐命善), 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鉷), 좌참찬 홍낙성(洪樂性), 병조판서 이휘지(李徽之), 이조판서 홍낙순(洪樂純), 공조판서 권도(權導), 부사직 김효대(金孝大),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 김화진(金華鎮), 훈련도정 이국현(李國賢), 이조참판 서호수(徐浩修), 대사성 이연상(李衍祥),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행 좌승지 정민시(鄭民始), 동지중추부사 이보형(李普行), 부사직 유당(柳戇), 지평 이기(李夔), 헌납 남학문(南鶴聞), 교리 김희(金憲), 정언 이은모(李殷模)·조정진(趙鼎鎮), 기사관 유맹양(柳孟養), 사변가주서 박사묵(朴師默), 기사관 서용보(徐龍輔)·이신호(李信祐)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기·남학문·이은모·조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이배(移配) 죄인 경빈(敬彬)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청을 열어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남학문·이은모·조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가 된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경빈,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윤범성.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二十一日 丁丑

- 持平李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 <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岫,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請慶源府定配罪人鳴遠,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21일(정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二十一日 丁丑

- 正言趙鼎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21일(정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정진(趙鼎鎭)의 계

- 정언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二十二日 戊寅

- 持平李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岫,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請旌義縣減死安置罪人興老,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22일(무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이기(李夔)의 계

- 지평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岫)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내어 시원스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남흥로(南興老)에 대해 속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상을 캐어내어 시원스레 왕법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조우, 남흥로, 한후락, 처단.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二十二日 戊寅

- 正言李殷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22일(무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은모(李殷模)의 계

- 정언 이은모(李殷模)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가 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윤범성(尹範聖)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윤범성.

❖ 乾隆 四十二年 戊戌 十二月 二十四日 庚辰

- 吏批, 親政, 判書洪樂純進, 參判徐浩修進, 參議李義翊進, 行都承旨洪國榮進.
…… 以全佐天爲旌義縣監, …….

❖ 정조 2년(1778) 무술년 12월 24일(경진)

□ 전좌천(全佐天)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친정(親政) 때 판서 홍낙순(洪樂純)이 나왔고, 참판 서호수(徐浩修)가 나왔고, 참의 이의익(李義翊)이 나왔고, 행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이 나왔다. 〈중략〉 전좌천(全佐天)¹⁷⁷⁾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전좌천, 정의현감.

177) 전좌천(1741~?): 본관 정선(旌義善). 자 자성(子性). 1768년(영조 44) 문과 급제.

역주

문숙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발췌

고수미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노우정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교정·교열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우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주역사 자료총서 27

承政院日記 濟州記事Ⅶ

- 正祖代 (1776~1781) (上) -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4년 12월 일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기획	임승희·김우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인쇄처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9-11-990438-2-4 93900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